

“동사업 관리규정 10항(개발사업결과의 활용)에 따라 전담기관이 결과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으로의 배포에 동의합니다.“

버네쿨러디자인을 통한 환경물의 고유성
창조를 위한 응용개발연구
(결과 보고서)

1999. 8. 30.

주관기관: 경희대학교 디자인 연구원

산업자원부

이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산업디자인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디자인연구개발 보고서입니다.

버네쿨리디자인을 통한 환경물의 고유성 창조를 위한 응용개발연구

산업자원부

제 출 문

산업자원부 장관귀하

본 보고서를 “산업디자인 기반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기간 1998.9.1 ~ 1999.8.31)과제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999. 9. 30.

주관기관명 : 경희대학교 디자인 연구원

총괄책임자 : 김 규현(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과 교수)

연구원: 서 주환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조경과 교수)

김 도경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조경과 교수)

정 석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

요약서 (초록)

사업명	버네클러디자인을 통한 환경물의 고유성 창조를 위한 응용개발연구		
주관기관	경희대학교 디자인 연구원	총괄책임자	김 규 현
총사업기간	1998. 9. 1 ~ 1999. 8. 31 (12개월)		
총개발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65,000	민간부담금: 33,060 (현물)	합계: 98,060
위탁개발기관	(주)자산조경개발	대 표	이 태 현
주제어	버네클러디자인, 체계성, 고유성 창조, 환경, 환경시설물, 특성과 재질,		

1. 최종(당해)개발목표

- 버네클러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론적인 개념의 체계성과 응용성 도모
- 버네클러디자인의 종목별 분석(13종목 760가지)을 기본으로 총체적 버네클러디자인의 체계성 마련
- 버네클러디자인의 요소에 대한 정의와 특성, 기능, 재료에 대한 분석 작업
- 환경시설물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기초적 자료 마련. (디자인적 요소와 재료 분석)
- 국내 · 외 환경시설물(국내와 11개 외국)의 현황분석을 통한 이미지 정리
- 8개 영역별 특징 사례 연구단계에서 각 영역별 선진 사례를 발췌하여 우리의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이미지 분석 작업
- 디자인 적용과 사례 분석 단계에서 31가지의 환경시설물에 대한 특징과 특성 및 재질에 대한 분석을 통한 응용 개발할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를 구축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 우리가 보존하고 승화해야 될 버네클러디자인의 재발견을 통한 체계적 이미지분석. (체계성)
- 체계화된 버네클러디자인을 통해 환경시설물과의 연계성을 구축. (연계성)
- 각 분야별(관련분야) 특징과 상호 연계성을 극대화하여 환경시설물의 고유성을 확보. (고유성)
- 환경시설물과 버네클러디자인의 근원적 요소를 체계화하여 응용개발 및 기술의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 (자료성)
- 위의 사항들이 오늘의 우리 현실에 원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리 · 분석하여 경쟁력 갖춘 전문적인 기술기반 제공. (전문성)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버네클러디자인의 영역

- 버네클러디자인의 재발견: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 (자료수집 및 분석)
- 버네클러디자인의 독창성 분석과 기능, 형태 그리고 재료적 특성을 통한 버네클러디자인에 대한 고유 영역을 체계화 작업. (고유성 확보와 체계성 정리)

2) 환경시설물 영역

- 환경시설물의 구성 및 재료 분석을 통해서 이론적 근본과 이의 정보 활용성 제공.
- 국내외 환경 시설물 현황분석을 통해서 응용 · 개발할 수 있는 자료의 분석 및 정리.
- 31가지의 사례(환경 시설물)를 통해서 디자인의 적용과 현실성을 확보.

4. 연구개발 결과

- 각 영역별 자료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자료들을 근본으로 체계적 이미지 정리.
- 각 영역별 분류에 의한 총체적 데이터 구축.
- 버네클러디자인과 환경시설물 적용에 관한 적용 체계를 마련하여, 응용 개발할 수 있는 사례의 체계화.

5. 기대효과

- 버네클러디자인 (13개 영역, 760가지 종목)에 대한 Database(Web)를 구축하여 산 · 학 · 연의 활용성 기대.
- 이를 통한 디자인과 디자인 능력의 확대와 연계된 기술개발 확대의 기대.
- 환경시설물의 특징적 요소와 버네클러디자인의 특성의 조화를 통한 차후 장소 건제의 확대.
- 문화적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디자인영역에 그 고유성 창조를 위한 전문성의 확대가 기대.

목 차

제 1장 연구의 총론 및 연구과제 진행

제 1절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2장 환경시설물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절 환경시설물의 개념과 분류	6
1. 환경시설물의 개념	6
2. 환경시설물의 정의	7
3. 환경시설물의 분류	8
제 2절 환경시설물을 창출하는 디자인	15
1. 랜드마크적 디자인	15
2. 이동을 도와주는 디자인	16
3. 이동 질서를 부여한 디자인	19
4. 휴식을 도와주는 디자인	20
5. 자연을 응용한 디자인	23
6. 빛과 조명을 연출하는 디자인	25
7. 도시기능이 표출하는 디자인	27
8. 놀이의 기능적 디자인	28
제 3절 환경시설물의 구성 재료	30
1. 점토	31
2. 석재	32
3. 목재	33
4. 시멘트	36
5. 콘크리트	37
6. 아스팔트	38
7. 금속	39
8. 도료	40

제 4 절 국내·외 환경 시설물 현황 분석	42
1. 국내 현황 (현황조사1-1)	42
2. 국외 현황 및 사례연구	45
미국 (현황조사 2-1)	
일본 (현황조사 2-2)	
영국 (현황조사 2-3)	
프랑스 (현황조사 2-4)	
스칸디나비아(5개국) (현황조사 2-5)	
스페인과 이탈리아 (현황조사 2-6)	
3. 환경 시설물의 8개의 영역별 분류	58
랜드마크적 디자인 (현황조사 3-1)	
이동질서를 부여하는 디자인 (현황조사 3-2)	
이동을 도와주는 디자인 (현황조사 3-3)	
휴식을 도와주는 디자인 (현황조사 3-4)	
자연을 도입한 디자인 (현황조사 3-5)	
빛과 조명을 연출하는 디자인 (현황조사 3-6)	
도시기능이 표출하는 디자인 (현황조사 3-7)	
놀이의 기능적 디자인 (현황조사 3-8)	
제5 절 디자인 적용과 사례분석	75
1. 적용과 분석	
2. 적용과 분석 총괄표	108

제3장 버네쿨러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 절 버네쿨러 디자인의 연구배경 및 필요성	109
제2 절 버네쿨러 디자인에 대한 정의	110
1. 버네쿨러 디자인의 요소별 특성	110
2. 버네쿨러 디자인과 전통과의 관계	113
제 3 절 한국 버네쿨러 디자인의 특징	115
1. 버네쿨러 디자인의 형성과 전개	116
2. 버네쿨러와 풍토, 토속, 민속	116
3. 시대별 관점에서의 버네쿨러 디자인	117
제 4 절 버네쿨러 디자인의 분야별 특징 사례 연구	122
1. 버네쿨러 디자인과 공예분야	123
2. 버네쿨러 디자인과 건축·조경분야	125

3. 버네쿨러 디자인과 산업디자인분야	127
----------------------------	-----

제 5절 버네쿨러 디자인의 품목별 분석	128
1. 의복류	128
2. 보자기류	138
3. 용기류	139
4. 가구류	146
5. 악기류	157
6. 농기구류	160
7. 짚풀류	165
8. 조명류	167
9. 문방구류	174
10. 문양류	178
11. 환경물류	191
12. 연장류	205
13. 기타 생활용품류	218

제 6절: 버네쿨러디자인의 총체적 사례 분류·분석	219
1. 버네쿨러디자인의 품목별 분류·분석	
2. 버네쿨러디자인의 Image Map 작성	

제 4장 연구종합과 결론

제 1절: 연구종합	248
제 2절: 결 론	249

-부록-

- 부록1 총괄일정표와 Check List
- 부록2 설문조사 및 분석(버네쿨러 디자인)
- 부록3 협조공문
- 부록4 참고문헌

제 1 장 연구의 총론 및 연구과제 진행

제 1 절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어느 민족이나 그러하듯 나름대로의 문화와 환경과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미 세계는 한 울타리의 환경(Globalism & Information Millenium)에 접근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우리의 삶은 물질 만능주의와 맞물려 비개성적인 이미지로 전락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 환경을 살펴볼 때,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그리고 우리만이 간직할 수 있는 공공 공간에서 창출될 수 있는 고유 환경물의 멋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잊혀져 간다. 이러한 범주에서 볼 때 환경시설물(환경제품류)은 이제라도 제 모습을 찾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도달해 있다. 인간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길 원할 것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주변의 모습들도 환경 친화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길 원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육외 공간을 의미)에 디자인되어 표현되고 있는 환경시설물은 그리 흔치 않으며, 공공공간에서 파생되어지는 환경시설물들은 체계성 없이 나열되어 있는 상태이다.

예로, 미국은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물에 대한 연구체계와 활용방안에 대한 합리적 사고의 접근 방법은 부분적, 일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우리의 체계와는 확연히 틀린 “종합적인 개념”으로 환경공간을 구성하여 체계적 계획과 발전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버네쿨러 디자인-민속, 토속적인 고유의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우리 민족이 걸어 왔던 문화의 발자취만큼이나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버네쿨러의 개념에서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할 때는 자연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주제이고 문화와 역사의 한 부분만을 충족시킬 수밖에 없다. 때문에 버네쿨러 디자인은 매우 큰 비중과 무한의 느낌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용적인 면과 시각적인 면에서도 훌륭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놀랄만한 가치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과제의 주제가 버네쿨러 디자인을 통한 환경물의 고유성장조를 위한 응용개발연구로서 연구분야가 다종다양할 수 있으나,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방대한 환경시설물의 영역을 환경제품류(Environmental Element or Environmental Product)로 구분하여 인식함이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사려된다.

이는 곧 소·대량생산 가능한 환경시설물을 그 대상으로 설정하여 본 연구과제에 실효를 거둬 더 효과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시설물과 버네쿨러디자인의 방대한 분량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응용개발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환경시설물에서의 버네쿨러 디자인의 연계성은 곧 전통문화를 재 창조할 수 있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옥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과 그 공간에 설치되어온 환경시설물등의 요소는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대상으로서 그 디자인의 가능성에 기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욕구에 상응하는 다차원의 적절한 디자인이 필요하고 각기다른 환경이나 장소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그 대상 각각의 개성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러나 상호관련 없이 개별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는 종합적인 공공공간의 환경을 만들어 낼수 없으므로 여기에서 요구되어지는 사고의 공통개념은 환경의 쾌적성(Pleasantness)과 통합성(Coordination) 그리고 지성(Intelligence)인 것이다. 이 개념은 생활전반에 미치는 키워드이고, 생활의 장을 연출하는 행위가 옥내외를 불문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위의 개념과 어우러져 환경시설물 영역에서의 버네쿨러 디자인의 연계성은 곧 전통문화를 재 창조 할 수 있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전통문화는 그 주체로 구분하면 상류층과 민중의 문화양식으로 대변되며, 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민중계층의 힘의 미약성과 우리에게 문화인식이 올바르게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까지도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고찰은 상류문화에 편중되어 있다. 아모스 라포포트(Amos Rapoport)*는 일찍이 고급 설계 전통안의 현대 전통양식의 발전을 비판하며 버네쿨러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금까지 확립되지 못한 상태로 발전되어온 민중문화는 한 지역의 지리적 풍토적 자연환경과 인종적인 배경 아래에서 민중의 일상적인 생활습관과 자연스러운 욕구에 의해 이루어진 버네쿨러라는 또 하나의 민중양식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이로써 전통문화의 확립을 기할 수 있다.

한편 버네쿨러 디자인은 특성지방의 고유문화와 풍토를 간직하고 그 지방기후와 재료, 생활양식에 민감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들의 주변환경을 수용하는 자연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들을 가치있게 살리고자 하는 본격적인 디자인으로써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환경 디자인분야의 국제적인 기준보다 지역적인 기준을 보여주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문제의 해결과 실용적이고 유기적인 조형이라는 면에서 오늘날 디자인에도 민중문화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학문으로서 산업·환경디자인 분야에서도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며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 환경디자인 분야에서 한국적 버네쿨러 디자인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 민중 문화의 고유성을 오늘의 현대디자인에 새로운 원천으로써 그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며, 버네쿨러 디자인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민중문화를 이해하도록 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는 주제에서 나타나 있듯이 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시설물(의미 : 환경제품류)로 그 범위를 설정한다. 대표적으로 환경시설물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주 아이টে임을 선정한다.

즉, 소·대량생산 가능한 부분을 포함하여 영역별요소(8개 영역)로 구분하여 사례 연구 범위에 포함하며 영역별 분류는 아래와 같다.

- 랜드마크적 디자인 (예:생산가능한 Item을 선정하여 사례연구에 포함)
- 이동을 도와주는 디자인 (예: 셸트)
- 이동질서를 부여하는 디자인 (예: 방음벽, 중앙분리대, 볼라드, 가드레일...등)
- 휴식을 도와주는 디자인 (예: 벤취, 셸트, 휴지통, 식수대, 화장실...등)
- 자연을 도입한 디자인 (예: 녹화장치)
- 빛과 조명을 연출하는 디자인 (예: 가로등 (종류별))
- 도시기능이 표출하는 디자인 (예: 덮개류)
- 놀이의 기능적 디자인 (예: 놀이기구류)

버네쿨러 디자인에 대한 연구, 자료분석을 토대로 종합분석하여 그 체계성을 확립한다.

범위설정 : 19C이전, 19C, 개화기, 20C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 19C, 개화기, 20C

나. 연구 방법

(1) 환경시설물의 파악

본 연구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주 되어 있는 우리의 환경물들의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체계성과 독자성의 구축하기 어려우며, 산업디자인적 측면에

서 고려되어야 할 특징적인 요소들을 용도별로 세분화하여 일원화 함과 동시에, 관련 분야별(환경, 산업, 건축/조경, 시각) 환경물 자료수집과 특징,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여(국내, 국외 사례별 연구) 쉽게 이해, 적용, 응용, 개발 할 수 있는 기준 자료를 구축한다. 환경물 관련 산업체의 제품개발시 사용자에게 적합하도록, 디자인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응용 자료로서 활용되어지며, 디자인 기술의 종합화, 체계화 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아울러 문헌조사와 현장답사(국내, 국외, 일본)를 통한 자료수집과 해외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유럽의 약 10개국에 대한 환경시설물 현황을 슬라이드 작업을 통해 파악한다.

또한 외국의 환경시설을 제작업체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하여 최근의 경향과 특성을 분석한다.

(2) 버네쿨러디자인에 대한 자료, 분석 작업

일반적으로 우리 것에 대한 체계성을 정립하는 데 근원적인 의미가 있다. 버네쿨러 디자인의 분야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접근방법과 자료수집 단계에서 차별화하여 용도별, 분야별(환경, 산업, 건축/조경, 시각) 특징과 사례를 13개 품목별로 분석하여 분류한다. 이 자료를 근거로 유출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여 우리 주변의 환경물과의 연계관계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이미지를 설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범위 설정 : 19C이전, 19C, 개화기, 20C의 버네쿨러 디자인의 특징과 오랜 기간동안 발전되어 온 하나의 "표준화된 이미지" 형태를 분석함과 동시에 일원화된 이미지 체계를 설정함.

(3) 사례연구 단계

- 상기의 (1) (2)사항에서 구축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환경시설물의 설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재료별 특성을 분류한다.
- 환경시설물의 8가지의 요소별 분류에서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분석하여 향후 환경시설물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그 자료를 체계화한다.
- (2)항에서 구축된 자료와 품목별 분석작업을 통해서 한국적 이미지의 고유성을 창조할 수 있는 버네쿨러 디자인의 특성과 원천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시설물의 디자인과 그와 유사한 인접분야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천적 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4)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검토

-환경시설물의 디자인적 접근

- 사례연구 단계(3)에서 설명한 총체적 자료와 분석한 품목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 필요한 정보와 고유성 창조를 위한 버네쿨러 디자인의 연계성을 구축함에 그 의의를 둔다.

-버네쿨러 디자인적 접근

- 버네쿨러 디자인의 품목별 분석(13품목별 분석)에 대한 총체적 체계도를 작성하여 분류하였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Web Site를 통해 13개 품목 760가지의 물품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 2 장 환경시설물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환경시설물의 개념과 분류

1. 환경시설물의 개념

도시 환경의 중요한 요소로서의 환경시설물이라는 용어는 산업사회의 근본을 이룬 영국에서 비롯되어 "Street Furniture", "Sight Furniture", "Urban Furniture", "Urban Element"라고도 불리우며 우리말로 직역하면 "거리의 가구", "도시가구", "보행자 환경장치", 라고 풀이 할 수 있다.

도시가 인간적인 개념에서 논의 될 때 거리는 우리들의 주거 및 활동의 공간이 되고 따라서 생활의 편리를 위한 가구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지금까지 환경시설물의 중요성을 주택에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지붕, 천장, 벽, 바닥 등에 의해 구축된 건축공간과 그안에 설치되는 가구, 설비가 구라는 불리는 도구류에 의해 구성되었고 거주 생활은 집안에 갇가지 도구가 놓임으로써 비로소 영위되기 시작한 것이다.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인 시스템이나 어두운 도로를 밝히는 가로등, 휴식과 위생을 위한 벤치나 휴지통, 셸트 등 모든 시설물들은 도시민과 가장 밀접한 옥외가구인 동시에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인 것이다. 옥외가구로서의 환경시설물은 산업사회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우리나라의 석주, 석등, 장승, 솟대, 당간 등은 환경조형물의 전통적인 개념으로 볼수 있다.

전통적 개념의 환경시설물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각기 그 기능과 형식을 달리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에 환경시설물은 다양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지역문화의 차이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이 상이한 것이며, 문화적 표현으로써 대중과 가장 밀접한 생활환경인 것이다. 또한 오늘날 환경시설물에 대한 일반적 개념은 과거의 그 것보다는 더욱 폭넓은 지역성과 광범위한 유형의 물리적 생활환경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도 환경시설물의 개념이 조경의 단계에서 식수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즉 벤치나 휴지통, 가로등, 분수대 등의 설 계쯤으로 격하되어 인식되어 왔었고 그에 따라서 그 명칭도 '조경시설물', '도로 부대 시설' 등으로 불리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환경 시설물의 개념은 우리나라와는 상이하게 건축의 일부와 조경의 전부를 포함한 폭넓은 의미로서 정의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사용되어지는 환경시설물이란 용어는 폭넓은 의미로써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음을 밝혀둔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통합하여 쓰고 있는 ‘환경시설물’의 명칭은 가로시설물 또는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지칭되고 있다.

오늘날 다변화되고 있는 우리 또는 세계의 도시환경요소로서의 시설물들 중이 가로변 또는 스트리트라고 제한하여 표현하기 보다는 좀더 포괄적 의미로써 환경시설물로 표현하는 것이 시대적, 미래적, 디자인적 관점에서 보다 진보된 명명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환경시설물이 옥외공간에서만 사용되는 제품들만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실내공간, 건물의 내부, 집... 등 통합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이라는 친화적 의미가 또한 그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 사용되는 이름은 ‘환경시설물’로 통일하여 쓰기로 한다.

2. 환경시설물의 정의

환경시설물은 광장, 가로, 공원, 쇼핑물등에 설치되는 것으로 대중에게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직간접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장치로서 로랜스 햄핀(Lawrence Halpin)은 “도시를 무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대장치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이용되며, 도시생활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단순한 형태 이상의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도널드 애플야드(Donald Appleyard)는 Urban Furniture를 “외부공간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를 조절하고 보조하는 기능을 갖는 장치”라 정의하고 있다.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안락, 편의, 안전, 의사소통, 정보전달, 유도, 제한, 조절, 보호 그리고 즐거움 등을 줄 목적으로 도시의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요소들을 흔히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이라고 했는데, 벤치, 블라드, 사인, 가로등, 수목보호대, 음수대, 휴지통 등이 이들의 예이다. 이들 가로시설물은 도시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며, 이들 개개인의 디자인이나 배치는 인간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도시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장소성을 부여하기도 하며, 도시 및 가로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가지게 하며,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가로시설물은 다른 환경 설계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표상하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의미 또한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체계적인 환경시설물의 디자인은 차별화된공간의 연출 및 위계 질서가 잘 형성된 독창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즉, ‘환경시설물은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늘 함께 존재해야 할 생활의 필수

도구이며 환경시설물은 인간과 환경 그리고 사회의 내부에 존재한다.’

3. 환경시설물의 분류

도시의 거리는 많은 가구를 가지고 있다. 이정표, 난간, 가로등, 벤치, 공중전화, 쓰레기통 등은 도시의 주민이라는 입주자를 위한 가구들이다. 주거를 위한 가구들과 마찬가지로 거리의 가구들은 우리에게 편리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험에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기능도 가지게 되는데 시설물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시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이용자측에서의 분류, 둘째는 관리, 운영자측에서의 분류, 셋째는 제작자측에서의 분류이다. 버스 정류장 표지를 예로들어 보면 버스정류장 표지는 이용자측에서 보면 버스를 기다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인이 필요하며 행선지나 시각표가 있으면 더욱 편리하다. 오래기다려야 할 때는 비바람을 피하고 강한 햇살을 막아 줄 수 있는 셸트가 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또한 벤치, 휴지통, 재떨이도 필요하다. 더욱심을 내어 전화가 있다면 더욱 편리할 것이다. 그 밖의 눈의 많은 지방이라면 대합실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와의 관련에 따르는 분류는 이용자측 시점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관리, 운영면에서 생각하면 비록 조그만 시설이라도 이 계획은 아주 복잡한 사업이 된다. 끝으로 제작면에서 본 분류가 있다. 최근에는 환경시설물에 흥미를 가진 제작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일단 ‘무엇이든 만들어 드립니다.’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이 요구되는 것, 전기, 전화 등 설비 부설에 관하는 경우 그렇게 간단히 어디서나 제작할 수는 없다. 또한 제작회사도 각기 특징이 있다. 대형 공작물을 장기로 삼는데에서는 벤치나 사인 등 정밀도가 필요한 것은 잘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작은 물건을 꼼꼼하게 만드는 데에서 대형 공작물을 제작하는 편이 시설물로서는 공작이 정밀해지고 우수한 것을 얻을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여 이용자 시점에서 더욱 세분하면 개개의 기능에 입각한 분류, 인간의 생활행위에 입각하여 기능을 그루핑(Grouping)하는 분류를 생각할 수 있다.

가. 환경시설물의 주기능별 분류

휴식처 . . . 벤치, 야외탁자, 셸트, 파고라
위성계 . . . 재떨이, 휴지통, 음수, 세면기, 공중변소 등
매매계 . . . 매점, 신문판매대, 자동판매기, 이동 매점, 노천카페 등
정보계 . . . 각종사인, 현수막, 벤허, 포스터, 게시판, 교통사인, 스피커,

공중전화, 시계, 온도습계, 풍향계 등

교통계 . . . 버스정류장, 택시 정류장, 자전거 주차대, 주차미터기기, 모래함, 육교, 아케이드, 블라드, 포장, 가드레일, 계단램프 에스컬레이터 등

행사계 . . . 관혼상제, 축제행사, 화환, 연등제, 신흥, 장식수레, 사자춤

놀이기구계 . . . 그네, 미끄럼계, 모래터, 철봉, 회전매달리기, 정글짐 등

관리계 . . . 전주, 전기콘트롤시설, 소화전, 우체통, 지하철 입구, 맨홀 등

신체장애자계 . . . 슬로우프, 난간, 엘리베이터 등

조경계 . . . 가로수, 화단, 온실, 분수, 인공폭포, 케스케이드, 연못, 다리, 조각, 동상, 모뉴먼트, 수퍼그래픽, 부초, 모자이크 등

(1) 환경시설물의 4가지 충족 조건

이상과 같이 환경시설물을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보았다. 상기 분류를 전제로 하여 도시 자체가 가져야 할 기본적 조건에 비춘 분류를 보면 안전성, 보건성, 능률성, 그리고 쾌적성이다. 위와 같이 4가지의 낱말은 환경시설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것에 있어 공통되는 목표이다. 따라서 도시계획 기본구상에서부터 소규모 공작물로 지목되는 시설물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가야 한다.

(가) 안전성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시설물에 대해 생각할 때- 이는 도시의 안전관리를 권장하는 것으로써 화재경보와 소화전, 또는 방법을 위한 센서류에서부터 경찰의 파출소까지도 이 종류에 포함된다. 교통관계에서는 교통기관 자체가 규칙적으로 안전하게 운행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행동의 행태와 교통기관의 행태와의 접점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 갖가지 시설물이 개발되어 왔다. 신호나 표지, 가드레일 그리고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등이다. 신체장애자 문제도 그 대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성이란, 기본적으로 차원이 서로 다른 것끼리 존재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을 어떻게 줄이는가 하는 점에 집약된다. 그 위험을 보다 작게 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시설물들이 이 영역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런 것이 적은 도시일수록 본질적으로 생활하기 좋은 도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보건성

여기에는 위성계 환경시설물들이 거의 전부가 포함된다. 변소, 세면장에서 시작하여 휴지통, 재떨이까지도 포함된다. 음식관계에서는 조리대라든가 도구, 사용하는 물, 그리고 쓰레기 처리의 문제도 쓰레기 수거차에서 청소차까지도 포함된다. 이부분에서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요소는 거리의 청결유지(Maintenance), 요컨대 청소도 포함한 보수, 관리 문제이다. 청결을 유지하는 점은 특히 오늘날 도시환경을 관리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보건성에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밖의 안전성, 능률성, 쾌적성에도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 할 수 있다.

(다) 능률성

능률이란 말은 가장 현대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은 자칫 합리적인 인상을 주지만 인간의 진보는 능률성을 기반으로 추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벤치의 경우에도 그 생산, 유통, 시공의 각 과정에서 능률성이 언제나 고려된다. 그것은 또한 사업비와도 관계가 있다. 사업비를 합리화, 효율화의 면에서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급품의 환경시설물이 생산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서는 안되고 역시 질을 전제로 하는 능률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능률성은 옥외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데에서도 요구된다.

정보계 환경시설물은 곧 인간의 능률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며 자동판매기나 에스컬레이터, 움직이는 보도, 그리고 입체주차장이라든가 자전거 셀트류등도 능률을 추구해 온 소산이다. 그 점을 잘 인식하고 그 기능이나 조형, 배치 등에 대해 대중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되어야 한다.

(라) 쾌적성

전술한 안전성, 보건성, 능률성의 각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다면 쾌적성에 관한 문제의 태반은 해결된 셈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고 공간이나 미에 대한 의식이 있다. 그것들을 만족시켜야만 비로소 참다운 쾌적성이 얻어지는 것이다. 또한 쾌적성에는 유희성이라든가 환상성도 가미된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환경시설물 안에서 어떻게 보호, 관리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나. 요소의 차원별 분류

(표 1-1: 환경시설물의 차원별 분류)

- (1) 공공시설
 - 평면계 화재경보기, 소화전, 환기구
 - 입체계 우체통, 자동판매기, 신문판매대
 - 공간계 케노피, 파고라, 노천카페, Band Shell
 - 셀트계 공중전화, 공중변소, 매점, 가체보, 구두닦기, 대피소
 - (2) 교통시설
 - 평면계 도보경계
 - 입체계 신호계, 모래함, 주차미터기, 반사경
 - 공간계 자동차 Rack
 - 셀트계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 (3) 가로가구
 - 평면계 꽃시계, 해시계
 - 입체계 휴지통, 재떨이, 시계, 스피커
 - 공간계 벤치, 깃대
 - (4) 조명시설
 - 입체계 온도습계, 풍향계, 가로등, 정원등, 안전등, Foot Lamp
 - (5) 경계시설
 - 평면계 차선
 - 입체계 철책, 담장, 난간, 몰라드
 - 공간계 비탈난간, 계단난간
 - (6) 표식시설
 - 평면계 교통표식, 가로표식, 지역안내도, 지하철망도
 - 입체계 이정표, 포스타, 게시판, 신문게시판
 - 공간계 현수막, 벤너, 에드빌름
 - (7) 상업간판
 - 평면계 건축사인, 평면간판, 전기전자간판
 - 입체계 POP간판, 전기
 - (8) 수목
 - 평면계 Tree Grate
 - 입체계 가로수, Panter, 화단
 - 공간계 Trellis
 - 셀트계 온실
 - (9) 물
 - 평면계 연못, 소로, 반사줄
 - 입체계 분수, 조각분수, Birn Bath, Wading Pool
 - 공간계 인공폭포, 다리
 - (10) 조형물
 - 평면계 수퍼그래픽, 모자이크 부조
 - 입체계 동상, 조각
 - 공간계 Monument Arch
 - 셀트계 게이트
 - (11) 포장
 - 평면계 패턴디자인
 - 공간계 계단, 경사로
 - (12) 편익시설
 - 평면계 횡단보도
 - 입체계 름수대
 - 공간계 경사로, Lift
 - 셀트계 공중전화, 공중변소
-

(표 1-2) 환경시설물에 대한 영국과 독일의 분류체계도

영국식 분류 (STREET FURNITURE FROM DESIGN INDEX의 분류 방식)		서독식 분류 방식 (PEDESTRIAN AREAS DESIGN ELEMENTS의 분류 방식)	
High Mass Lighting	높은 기둥조명	Floor Covering	바닥재
Lighting Columns DOE Approved	환경국 인가 조명	Limit	울타리
Lighting Columns Group A	조명등 A	Lighting	조명
Lighting Columns Group B	조명등 B	Facade	포장
Amenity Lighting	연출조명	Roof Covering	지붕
Street Lighting Lanterns	가로등	Disposition Objec	배치기구
Bollards	단주	Seating Facility	의자류
Little Bins and Grit Bins	휴지통과 모래함	Vegetation	식물
Bus Shelters	버스 쉼트	Water	물
Outdoor Seats	목외벤치	Playing Object	놀이기구
Children's Play Equipment	어린이 놀이시설	Object of Art	예술품
Poster Display Units	광고 기둥	Advertising	광고
Road Sign	도로 표시	Information	안내소
Outdoor Advertising Sign Guard Rails, Parapets, Fencing and	목외 광고 간판	Sign Posting	게시
Willing Paving and Planting	포장과 식재	Flag	깃발
Foot Bridges For Urban Roads	육교	Show-Case	쇼우 케이스
Garages and External Storag	차고와 목외광고	Sale Stand	매점 스탠드
Miscellany	기타	KIOSK	매점 부우스
		Exhibition Pavilion	전시용 건축물
		Table and Chairs	책상과 의자
		Waste Bin	휴지통
		Bicycle Stand	(자전거 스탠드)
		Clock	시계
		Letter Box	우편함
		Telephone	전화
		Automation	자동판매기)
		Toilet	변소, 세면장

이와 같이 영국과 독일식 분류에서 나타난 환경시설물의 요소들을 국내의 것과 비교 분석해 보면, 영국식 분류의 경우 조명기구에 관한 분류는 6단계로 세부화되어 있으며, 이는 영국의 기후 조건이나 가로환경 조성에 있어서 조명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경우 육교나 차고, 옥외고에 이르기까지 또한 서독의 경우 옥외예술품이나 지붕, 전시용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산업디자인의 영역에서 계획되고 디자인된다는 것은 환경시설물을 옥외가구라는 좁은 범주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널리 옥외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요소들을 환경시설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도시환경적 차원에서 폭넓게 다루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요소의 디자인은 주로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또 그 요소만으로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옥외환경을 유지하는 요소는 그 요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주변환경 등)과의 관계, 타 요소와의 상호관계, 그 요소를 사용하는 생활자와의 관계, 그리고 도시를 유지시키고 있는 규범이나 법적인 관계 등, 서로의 관계를 모두 포함시킨 계획, 디자인이어야 한다. 도시 환경 시설물의 소재에서는 성능의 요소에 대해 분석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1-3) 환경시설물의 계획

안전SAFETY(TRAFFIC)	PREFERABER BETTER	정보COMMUNICATION(INFORMATION)
대피소 (Shelter)		온도습도계 (Thermometer & Barometer)
비탈난간 (Chulter Hock)		소음표시(Noise Pollution Indicator)
화재경보기 (Fire Alarm)		포스타게시판(Newspaper Board)
소화전 (Fire Hydrant)		확성기 (Loudspeaker)
택시정거장 (Taxi Stop)		시계 (Clock)
난간 (Guard Fence)		우체통 (Mailbox)
버스정류장 (Bus Stop)		공중전화 (Telephone)
교통표지 (Traffic Sign)		교통망지도 (City Transport Map)
신호 (Signal)		지역안내도 (Directory Sign)
		가로 표시 (Street Sign)
BETTER	----- MUST -----	BETTER
휴지통 (Trash Box)		식수대 (Drinking Fountain)
재떨이 (Ash Tray)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가로수 (Trees)		신문판매대 (News Stand)
화분 (Flower Pot)		복권판매대 (Lottery Stand)
차양 (Shade)		매점 (Kiosk)
공중변소 (Toilet)		구두닦이 (Shoeshine)
벤치 (Bench)		칸막이 자리 (Booth)
분수 (Fountain)		
산책길 (Mall)		
공원 (Park)		
광장 (Square)		
	BETTER	
취락AMENITY(RECREATION)	PREFERABLE	편의CONVENIENCE(SHOPPING)

제 2 절 환경시설물을 창출하는 디자인

환경시설물을 창출하는 요소의 디자인은 도시환경의 여러 현상과의 관계가 창출해내는 디자인을 의미하며 디자이너는 새로운 도시 환경시설물과 환경형성을 향한 구상을 해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류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각각의 디자인 「구상」을 포함한 새로운 모습을 창출함에 그 목적임을 밝힌다.

다음은 환경시설물에 관한 본 연구의 8가지 영역별 분류에 대하여 각기의 역할을 종합하여 분석 조사하였으며 그 요소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랜드마크적 요소
- 이동을 도와주는 요소
- 이동질서를 부여하는 요소
- 휴식을 도와주는 요소
- 자연을 도입한 요소
- 빛과 조명을 연출하는 요소
- 도시기능이 표출하는 요소
- 놀이의 기능적 요소

1. 랜드마크적 디자인

총체적개념에서 랜드마크라 함은 그 지역의 상징적인 형체를 뜻한다. 랜드마크에 대한 의미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자연의 모습인 산과 언덕, 거목 등 멀리에서부터 눈에 띄며, 위치 인식의 표식이 되고, 지역의 심벌이 되어 있는 것 및 인공적으로 고층빌딩이나 타워, 모뉴먼트 등을 만들어 의도적으로 표시, 심벌로서 활용하는 것을 랜드마크(Landmark)라 한다. 또 역사적 건축조형물로 지역의 상징성 심벌이 되는 것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랜드마크의 기능은 자연물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도시 속에서의 위치 인식을 위해서, 또 지역특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장소를 인식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랜드마크로서 조형물을 창출하는 것이 현대사회에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드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옥외공간의 위치 인식을 위해서는 사인의 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지만 랜드마크 본래의 의미는 지역적인 심벌이며, 부가효과로서 상징적 역할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랜드마크는 그 지역전체를 특징지어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대효과가 있으며, 그 지방 주민의 자랑, 화제가 되도록 의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옥외 환경디자인에 있어서는 계획당초부터 기본적 항목의 하나로서 랜드마크를 도입하고, 오랫동안 변화에 견뎌낼 수 있도록 소프트, 하드의 양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랜드마크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넓고, 여러 가지 요소와 중복되고 있지만 스케일에서 분류하면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松田 義秋는 랜드마크에 대해서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원경(遠景)으로서의 랜드마크

토지, 지역의 표식, 심벌로서 넓은 범위에서 보는 것이 가능한 산 등의 자연물을 랜드마크로 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자연의 요소가 랜드마크가 된 것으로 역사적으로 자연발생적인 것이 많다.

② 중경(中景)으로서의 랜드마크

지역레벨에서의 표식, 심벌되는 타워, 빌딩 등의 큰 건조물

③ 근경(近景)으로서의 랜드마크

가로구역, 도로, 광장레벨에서의 표식, 심벌이 되는 모뉴먼트, 게이트, 심벌, 사인 등의 장치물

②, ③의 영역에서는 각각의 지역을 특징짓기 위해서 고유의 인공물을 설치하는 것이 선행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설치물(건물, 다리, 게이트, 모뉴먼트)들이 랜드마크화 되고 있다.

따라서 랜드마크는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상징적 이미지를 표출해야 하는 특질을 지닌다. 즉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이나 사적지에 대한 것과 이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징물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2. 이동을 도와주는 디자인 (교통시설 관련 디자인)

현대사회를 구성하고 그 체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교통과 질서는 현대사회에 이르러 더더욱 복잡해지고, 다용도적이며, 기능적으로 복합적 용도로 변해가고 있다.

도시내의 교통은 각종 철도, 지하철, 버스기관 등, 사람들의 도시내외 이동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것들의 교통기관 중에 도로와 광장 등 외부환경을 구성하는 다른 장치물류와의 관련에서 존재하는

요소를 그 범주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도로상에서의 교통수단(버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등)에 관계되는 요소(버스·택시 셸트류)나 출입구 공공 공간에 출현하는 지하철 셸트류가 주된 요소와 기능이다.

이들 요소는 도시내 이동 특히 보행이용상 발착장소의 명확한 전달과, 계절, 기후에 대응한 쾌적한 공간의 확보가 필요기능이 된다. 또 기능면에 있어 다른 요소와 달리 도시경관 속에서 장소를 형성하는 공간요소이며, 규모 형태가 그 도시의 환경이미지를 거점으로서 보여주는 중요한 대상이 된다.

이들 요소를 디자인면에서 대별하면 이하의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도시환경에 출현하는 공공 교통시설의 디자인기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거점공간으로서 면을 구성하는 요소

일반적으로, 교통의 이용량이 많은 부분인 장소와 밀집지역인 역전이나 광장의 버스터미널등에 커다란 셸트에 의해서 심벌성있는 거점 경관을 구성하거나, 셸트유니트가 소·다량의 군을 이루어 대장소(면)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 범주에 속한다.

특히 일본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도입한 단일 유니트의 거점과 연속으로 면공간의 개성을 찾아낸 사례를 볼 수 있다. 단일 유니트에 의한 디자인을 응용하여 다기능적이고 다용도적인 하나의 유니트(구성)로 그 지역의 특정 모습을 연출한다. 그러나 광장을 구성하는 이들 요소는 광장형태(버스나 택시 등의 노선계획과 각 버스의 진로 및 정차위치등)에 좌우되므로 유니트 디자인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서구의 사례처럼 독일/함부르크 사례와 프랑스/파리의 사례 등 철과 유리를 사용해 개방적이고, 우아한 셸트를 디자인한 예들을 볼 수 있다. 이것들의 실천은 전술한 것처럼 획일적인 역전광장의 계획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개하기 어렵고, 일시적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제의 마련이 그 기본 바탕을 이룰 때 생활공간에서의 거점시설이 마련될 수 있겠다.

나. 거점공간으로서 축을 구성하는 요소

이 요소의 전개는 축을 만드는 도로 개성화의 한 요소로서 존재하고, 다른 요소 디자인과 상호 연대해서 이루어지는 대상이다.

지역의 특성(기후, 풍토, 장소성 등)을 디자인에 도입하여 기능과 경관이 융합한 대중의 도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대상이다.

예를 들면 비교적 추운 미국 미네아폴리스의 니콜레트 몰에는 길이 꾸불꾸불한 보도형태의 부분에 동양적인 정자와 같은 셸트를 디자인 하였고, 미국 볼티모어 찰스센터의 사례는 오래된 건축물과 도시의 경관계획이 어우러져 새로운 도시에 어울리는 경쾌한 디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같은 이미지의 셸트를 계단·에스컬레이터 부분에 활용해 지역의 주요한 축을 종합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일본에서도 정보첨단도시를 지향하는 용기시(用崎市)에서는 소재를 살린 깨끗하고 수준 높은 디자인으로 환경시설물(특히 스트리트 관련품목)을 디자인해서 요소가 공간을 낚는다는 미래의 도시조성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단일 디자인에서도 축이 개성을 발휘하는 것도 볼 수 있다. 독일 뒤셀도르프의 지하 출입 셸트는 지하에 빛을 끌어들이는 기능과 전천후를 고려하는 한편, 거리와 조화되는 유리를 이용하는 등 섬세한 배려로 이루어진 디자인이다. 기능면에서 뛰어나며, 도로의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점에서 우수한 사례로 기록된다. 지하의 출입구로서 도시내 교통 디자인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지역이나 도로의 특성, 주변경관과의 관계를 근거로 한 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겠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축의 개성안에서 거점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높고 그 밖의 환경시설물들이 디자인이 주요한 대상이 된다. 축을 구성할 경우도 도로의 공간조성과 일체된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열린공간(Open space)의 활용이나 작은 공원과의 연대, 니콜레트 몰과 같은 보도형태의 구상 등 공간을 포함시킨 요소 디자인이 우리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요구되어 진다.

다. 거점공간으로서 시스템(system)을 구성하는 요소.

지하철 출입구나 버스 정거장 등 그곳이 대중의 주가 되는 교통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교통네트워크 전체로 체계화한 방식을 만든 것이 대상이 된다. 또 이 요소에서 사용성과 질의 확보를 지향해 일정한 규격으로 어느 도시에서나 전개할 수 있는 한편 도시환경 속에서 잘 어울리는 질을 갖추어 제품화되고 있는 것도 대상이 된다.

당연히 이러한 요소는 그 설치상황에 의해 면의 기준이나 축의 기준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도시환경 전체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어 공통성을 형성하는 의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파리시내의 지하철 출입구는 아르누보양식을 대표하는 스타일(style)로서 디자인사적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를 초월해 주장한 디자인은 이해하기 쉬움과 함께 도시문화의 고유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문화와 관련하여 재인식해볼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서구나 구미 등에서 다수 전개되고 있는 개방적인 버스쉘트가 있다. 유리를 활용하여 경관에 어울린 조형은 색채나 소재에서 지역을 표현하고, 광고나 운용에 활용하는 점도 포함해 우수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축약해 보면 이동의 기능, 그 이동을 구축하는 공간(거점공간)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요소들이 공존해야 될 것이며 아울러 실천을 위한 협력체제(기관, 업체 그리고 디자이너)의 구축이 결실히 요구된다.

3. 이동 질서를 부여하는 디자인

가. 교통에 관한 요소의 디자인

‘자동차 문화’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오늘의 도시환경의 시설물 중에서 신호기나 교통표시류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시설물의 하나이다. 또 그 기능적인 특질에서부터 규격화와 표준화가 필요시 되는 스트리트퍼니처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설계에 의한 양산품이 전국에 설치되고, 가장 일반적인 도로경관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 형태는 단일체로서의 기능성·경제성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경관면에서의 배려가 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서 필요시 하는 것은 질 높은 경관조성에 적합한 도시환경디자인의 시점에서 재인식 되어져야 할 신호기, 교통표시류의 체계적인 개발일 것이다.

또 근래 각 지역마다 개별로 설계된 기동류의 표준형 신호기류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기와 기동의 디자인이 조화되지 않는 일반적(단순사용을 위한-)으로 도시의 경관을 생각치 않고 생산되어지고, 설치되는 사례가 우리의 공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전체적인 공간이 잘 조성되려면 부분적인 환경시설물에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될 때 비로서 생활하고 싶은 공간으로서의 그 맥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분리와 안전 등에 관한 요소의 디자인

(1) 블라드, 가드웬스류

예전에는 가드레일류뿐이었던 보행자분리의 방법도 지금은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보다 개방적으로 인간성을 중시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블라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블라드는 중·장거리에 걸쳐 연속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단일체로 좋은 디자인이라도 전체적인 경관으로서는 부조화하는 것도 있다. 이 블라드 디자인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다른 요소와 조화되는 형태에의 고려이다. 또 근래는 차량에 대한 안정성과 경관요소 조성의 관점에서 조명이나 발광다이오드(반도체)를 사용한 것 등도 제작되고 있어 새로운 디자인의 경향으로서 주목된다.

대체로 쓰이는 주된 재료는 석재, 콘크리트, 금속류등으로 구분되어지며 적용사례연구단계에서 그 유형과 차별성 그리고 독창성의 면모를 볼 수 있다.

(2) 험프(HUMP)

험프란 횡단보도 등의 도로의 일부분에 요철을 만들어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를 감속시키는 장치이다. 유럽 각국의 보도와 차도 공존 도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의 도시에 설치되고 있다. 이것은 표식류에 의하지 않는 교통규제 방법이므로 물리적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고, 구불구불한 길에 설치됨으로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3) 방음벽

방음벽은 주로 고속도로를 대상으로한 것으로 소음공해에의 의식고조와 함께 각지에서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그 기능이 시각적으로는 압박감이 드는 벽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안이하게 일러스트 등을 이용하지 말고 경관적인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행하여 질높은 디자인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획일화된 재료의 사용으로 운전자와 그 주변에서 생활하는 거주자와의 관계에서 거대한 울타리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방음벽이라는 성능에 맞는 구조와 재질의 연구가 시급하다. 그밖에 존재감을 없애는 방법으로 자연적 소재를 사용하는 방법, 투명소재를 사용하거나 녹화로 운택한 경관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설치된 제작물에 녹화와 새로운 디자인적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휴식을 도와주는 디자인

가. 잠시 쉬는 요소의 디자인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실외생활을 도와주는 요소중에서도 잠시쉬는 요소 - 휴게계의 디자인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 환경에 친숙함을 가지게 하기 위한 중요한 것으로 주된 대상요소는 벤치, 스톨, 옥외테이블, 셸트, 그리고 파골라 등을 들 수가 있다. 이것들은 본래의 기능면과 환경구성 요소로서 경관형성면의 두가지 시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기능면에서는 인간공학에 의한 사용편리함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비바람이나 다소의 물리적인 충격 등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내구성,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배치방법과 설치 그리고 디자인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실외환경에 있어서 이러한 시설물들은 일관된 공통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외의 요소와 다른 조건으로서 벤치, 옥외 테이블 등은 직접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며, 장기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앉았을 때의 기분과 함께 표면의 촉감·질감 등과 새로운 쾌적함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셸트·파골라류는 우리나라에는 버스정거장 등의 교통거점이나 공원 등의 정자적인 것 외에는 거의 예가 없다. 개방적이고 환경친화적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셸트와 파골라의 특성은 도시환경중에서 보다 친숙한 공간을 낳는 것으로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구성 요소로서의 경관형성면에서 생각하면 휴게계의 환경시설물은 더욱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개성없는 공간에 놓여진 단 하나의 벤치나 셸트가 어느 정도로 그 장소를 특징짓고, 공간을 지배하는가는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근래의 도로나 광장에의 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에 모뉴먼트나 조각에 한하지 말고 벤치나 셸트류도 공간을 구성하고 특징짓는 것으로, 보다 개성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참고:프랭크게리의 버스셸트)

방법으로 건축, 토목, 조경 등과 디자인 등 구조면에서 일체화된 공간구성, 대형의 셸트류에 의한 계획적인 공간구성, 휴먼스케일을 중요시한 소공간의 관계에 의한 구성 등의 새로운 시도가 되고 있지만 종래의 단일체로서 디자인이 아닌 환경과 상호관련하는 것으로서 넓은 시야로서의 계획이 필요하다.

또 전개영역으로서 현재 상업공간과 고층건물 주변 등에서는 새로운 일련의 시도가 행해지고 있으나 이것은 도시라고 하는 개념과 환경이라고 하는 차원적인 의미를 생각하여야 하며 단일 공간으로는 우수한 공간(건물)이지만 전체적 개념이 빠져있는 공간형성일 것이다. 아울러일반의 보도공간이나 주거공간에서는 종래대로 낮은 질의 것이 많고, 이제부터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확대와 의미를 파급시켜야 할 시점에 와 닿고 있다.

나. 신체적 욕구를 도와주는 요소의 디자인

신체의 욕구를 도와주는 요소로서의 환경시설물에는 식수대, 세면대, 공중변소 외에 휴게의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쓰레기통, 재떨이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것들의 요소가 다른 요소와 다른 점은 정기적인 회수나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자와 함께 관리자의 편리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급배수 설비 등의 설계상의 확실성, 그리고 이용자의 윤리에 대해 디자인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배려가 가능한가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들 위생에 관계되는 요소의 디자인은 대단히 어려운 것 중의 하나이다.

식수대, 손씻는 곳의 설계는 그 기능면의 확보와 함께 "물"이라고 하는 운택한 요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디자인할까 하는 점에 있다. 기계적인 것이 아닌 "물" 그것이 갖는 운택함, 자연스러움을 표현하여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지금부터의 디자인일 것이다.

종래의 공중화장실은 어두운 이미지가 항상 따라 다녔다. 사람들의 의식도 공중변소는 더러운 곳, 아주 곤란할 때만 이용하는 곳 정도였다. 그러나 본래의 모습은 도시 안에서의 청결한 휴게공간으로서 사람들의 생리를 해결하고, 경관에도 조화되는 것이 요망된다. 따라서 설계에 있어서는 밝음, 청결감, 편리성, 쉽게 때타지 않는 소재의 선정, 청소의 문제 등이 중요하게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로서 유지 관리의 시스템 확립도 과제이다. 쓰레기통, 재떨이도 공중화장실과 같이 유의점과 유지관리의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들은 휴게계의 요소와 병설되는 일도 많아 디자인면에서의 통일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시설물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자칫 잘못 사용, 유지되어지면 환경쓰레기로 남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기관 및 단체 그리고 제조업체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인간과 생활을 위한 질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사명감 또한 중요한 사항이다. (얼마전 서울시의 가로판매대 계획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다. 기타 요소의 디자인

기타의 요소로서 사람들의 실외환경의 편리성과 사용성을 주는 시설물로서는 간이매점과 자동판매기류들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간이매점은 본래 교통기관의 역이나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포장마차로 대표되는 가설적인 것 등이 있지만, 구미에서는 이것들 매점도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고려된 디자인이 이루어져 거리의 변화함과 연

결되어 또한 자동판매기류들은 다종, 다양하고 제작자, 설치자에 따라 그 유형이 틀리나, 이러한 품목들도 표준화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5. 자연을 응용한 디자인

요즈음 자연의 모습(식물류를 뜻함)은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멀어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기계적이고 물질적 사회구조의 형성으로 인한 탓도 있지만 관리, 보존체계의 허술함과 도시 환경의 물질이 주는 영향이 크다 할 수 있다. 식물과 물은 우리 공간의 운택함과 쾌적성을 주는 소재이며 자연을 응용한 녹화장치의 디자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녹화장치의 역할

녹화장치의 효용은 여러 가지지만 대별하면 다음의 세가지가 있다.

- 실용기능 - 시각적 차폐, 물리적 구분, 차광, 방음, 흡음, 방풍
- 생태기능 - 온도조절, 습도조절, 공기성분 조정
- 경관기능 - 미관, 수경, 심리적 안식감, 쾌적성, 랜드마크 사인

도시의 녹화장치는 상기의 효용 중에서도 경관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근래는 단순한 미관조성이란 것에서부터 랜드마크 조성 등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확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효용을 실현하기위해 녹화장치는 그것을 보호하고, 가꾸고, 정리하는데 따른 용기류(플라스틱, 나무, 석재, 금속)를 비롯해서 대규모의 실외공간에도 장치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과 응용체계가 다양하게 이룩될 수 있는 시설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녹화장치는 도구를 통한 전개와 공간의 전개로 구별될 수 있다.

(1) 도구를 통한 전개

도구를 통한 녹화장치의 전개방법으로서 대표적인 예는 프랜트(plant)가 있다. 근래 이후 구미의 광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오늘날 보행공간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프랜터의 잇점으로는 첫째로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른 배치변경이 가능하며, 그 전개의 방식 또한 다양하게(모듈시스템을 이용하면-)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선적인 배치에 의한 질서확립과 공간구분, 집중적인 고려에 의한 수목의 거점조성 등 배치에 따라 다양한 환경구성이 가능하다.

둘째로 유지관리의 용이성이 있다. 프랜터 자체가 개체로서 완결해 있기

때문에 식재의 교환에 의한 변화연출이 용이하며, 또 파손시의 수정교환도 간단하다.

프랜터의 종류로서는 종래의 단일적인 것만이 아니라 유니트시스템에 의한 공간구성을 배려했던 것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서구의 사례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새로운 전개로서 프랜터 이외에도 수직녹화 장치등의 도구적 전개가 고안되고 있다. 이것은 담쟁이류 등을 이용해 선적·면적의 녹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종래부터 펜적 용도외에 가동성이 있는 녹화블럭으로 하거나, 녹화장치를 중심으로 한 환경시설물이 모여 있는 곳의 장소 조성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의 현실에서 개체별로 일렬되어 배치되어 있는 방식에서 환경과 자연의 조화를 위한 디자인 힘과 장소전개의 확대가 필요하다.

(2) 공간의 전개

공간의 전개에 의한 녹화장치로서는 공원 등에 설치되는 파골라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근래 구미에서 도시내의 보행공간에 건축적 스케일의 정저과 동적의 녹화시설의 설치가 병행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종래의 파골라가 해온 그들의 휴게공간을 만든다는 역할을 넘어 장소를 심벌화하는 공간전개로서 심볼성을 가지고 있다. 공공 공간에 있어서 녹화장치의 바람직한 방법은 이러한 공간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사례들을 적용하여 연구한다면 다양한 녹화공간이 전개될 것이다.

6. 빛과 조명을 연출하는 디자인

일반적으로 빛의 필요성은 밤의 시각상의 무질서를 구별하고 인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빛은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생명을 부여해 주는 요소로서 기능을 가진다. 조명은 색채, 방향 그리고 운동감 등의 다양성을 통해 새로운 환경의 모습을 창출해 낸다고 볼 수 있다.

공공 공간에 있어 빛을 만들어내는 요소, 즉 조명 시설은 빛의 확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실외 공간의 많은 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것 자체의 스케일감·분포·설치상황과 서로 어울려 공간전체에의 경관적인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조명시설의 디자인을 생각하는 것으로 전체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빛의 디자인과 함께 조명시설·기구디자인의 중요성이 부상되고 있다. 또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보다 깊은 의미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경우도 생기기 쉽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조도 확보라는 기능을 기초로 하여 시설전체의 방법이나 공간과의 연계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것으로, 조명시설의 의미와 가치를 재고 해야 하겠다. 즉 요소자체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공간전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야말로 환경 디자인이라는 시야 속에서 요소를 생각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선, 연속경관을 구성하는 조명시설의 디자인과 정점을 구성하는 조명시설의 디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것은 조명시설과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의 질의 차이에 의한 분류이며, 다음은 환경조성으로서의 조명디자인을 생각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옥외조명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종합하여 보면

- 빛의 양과 질은 인간의 정서, 상호교류, 형태에 강한 영향을 주며
- 조명환경의 조명은 색채와 방향 그리고 새로운 시각의 세계를 보여주며
- 조명환경의 설계는 기술적면과 시각적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연속경관을 구성하는 조명시설의 디자인

(1) 빛의 경관

고속도로의 조명은 거의 기능적인 관점에서 설치되어 있지만 밤에는 대단히 아름다운 연속야경이 된다. 빛이 연속하는 아름다움이 단순한 조건하에서 재인식할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외 공간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더해진다. 이 예처럼 순수한 연속의 아름다움

은 약해지는 단점이 있지만, 연속조명이 만들어내는 빛의 경관은 빛의 경관 이외에도 또 다른 디자인적 또는 시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빛의 리듬에 의한 경관과는 별도로 빛의 색조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의 분위기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광원의 연색성이 높아가는 방향성이나 공간에 의한 광색을 변화시키고, 독자성을 높이는 수법도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절에서 옥외 조명의 광원의 분류에 대해 정리하기로 하겠다.

(2) 연속에 의한 공간축

연속한 조명시설의 기능적인 의미는 주야 어느 쪽에서도 도로형태 등의 공간형상을 인식할 수 있는 점이다. 이것은 교통안전상 중요하지만 보다 넓은 시야로 생각하면 조명시설의 연속에 의해 공간을 파악하고 장소의 특성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연속한 빛, 또는 조명기구의 원근감이 이해되었을 때 공간축이 인식되고 공간의 길이, 스케일, 구성을 이해하기 쉽게 된다. 따라서 공간의 개성을 낚는 수법으로 가능하다.

(3) 연속에 의한 형태

연속한 조명시설은 대부분의 경우 같은 형태가 되풀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선과 동시에 조명기구의 형태도 강하고 인상 깊게 인식된다. 중립적인 형태도 연속성이 표현되지만 독창적 형태로 구성되면 연속성과 더불어 형태 그 자체의 감각, 의미를 느낄 수 있다. 그 장소의 심벌성, 의미성을 만들어내는데에 이 효과를 이용하는 수법을 많이 볼 수 있다. 만일 경부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우수한 형태의 미를 갖추고 있고 긴 거리에 전개되어 있다면 고속도로 변의 환경은 한층 그 가치가 표출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태라면 그 의미는 무의미 할 것이다. 즉 세계에서 가장 긴 랜드마크적 요소를 창출 할 수 있는 큰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나. 정점을 구성하는 조명시설의 디자인

(1) 랜드마크로서의 조명시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중심에 모뉴먼트나 심벌시설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또 역전광장 처럼 기능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조도확보가 필요한 경우, 높은 위치의 조명시설이 심벌적인 의미도 부가해서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양쪽 다 빛은 중요한 기능요소나 연출요소로서 다루어진다. 또 교차로를 드러나게 하여 거점으로 할 경우도 주변의 연속조명과 별도로 특별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이것

들은 공간의 「중심」을 형성함과 동시에 경관적으로는 랜드마크로서의 요소가 된다. 한 예로 필립스탁의 조명 디자인(1991)은 낮에는 기둥의 연장에 의해 수직형이 되고 밤에는 모터로 작동되어 79도로 기울어 지는 기능과 형태의 신선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2) 주변에 장소를 만드는 조명시설

연속조명과 같은 균일한 흐름도 없고 그렇다고 랜드마크처럼 특수한 장소도 아닌, 일종의 공간에 「의미부여」란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주야 모두 이러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명시설이 효과적일 것이다. 장소의 특성으로서 주변 스케일감, 주변에 대한 적절한 영역감, 필요한 부속기능이란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비교적 작은 스케일의 조명시설을 모아서 설치하여 작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들은 공공 공간 안에 가장 가까운 장소를 만들어 내는 공간적인 요소가 된다. 이상과 같이 조명시설 디자인의 기본은 빛을 만들어낸 것에 있으나 그것을 만듦으로서 빛 이외에 가치도 크다. 밤과 낮은 똑같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빛으로서의 조명 시설의 의미와 그것 이외의 경관이나 공간으로서 조명 시설의 의미와는 같다고 생각해도 좋을지 모른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도 한다. 한 나라의 문화가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움직일 때 그리고 그에 따른 기능의 요소들이 병행할 때 그 곳에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명 시설 디자인의 영역이 확대되어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펼쳐지길 희망해 본다.

7. 도시기능이 표출하는 디자인

도시 기간시설의 그 유지관리의 필요에 의해서 도로에 설치되는 장치류는 배전상자에 대표되는 박스류와 맨홀과 같은 뚜껑류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중에 특히 박스류는 좁은 공간에 돌출해 있어 시야를 방해하는데다가 일반사람들에게는 무겁고 투박한 쇠로 만들어진 박스 자체로 여겨지기 때문에 방해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 이제까지는 박스 자체의 디자인에 대해서 거의 고려되어 있지 않았다.

근대 도로의 환경정비가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중에 이것들 장치류를 도시경관에 조화시키는 필요성이 도로를 정비하는 측과 장치의 설치주체 측 쌍방에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토탈 환경정비 안에 이것들 장치류를 포함시켜 디자인대상으로서 위치를 확립시켜 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정리 될수 있다.

· 박스류의 경관조화 방법

박스의 존재자체를 가능한 한 눈에 띄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배경의 표정과 동화시키거나 식재 등으로 가리는 방법이 있으며 박스 개체로서의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경관과의 조화를 꾀하려고 하는 것으로, 색채의 검토 외에 그래픽 디자인을 실시하는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형태 그자체의 디자인개발도 필요하다 본다.

그리고 장치에 어떤 기능을 부대시켜서 공공 공간에 놓여질수 있도록 하려는 방법으로 사인이나 게시판의 부대시설을 접목시키는 방법등이 있다. 형태를 변화시켜서 다른 용도로서 이용하는 시도나 일시적인 가설장치로 이용하고 있는 예도 있다. 서구의 전체적인 경향은 소극적인 수법에서, 몇가지의 궁리에 의해 경관속에 적극적으로 위치를 확립시키는 수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박스류 자체의 디자인개선과 폭넓은 이용방법 또는 개발을 기술적인 가능성과 결부시켜 가면서 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 이처럼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설물에까지 적극적인 자세와 관련 업체의 디자인적 가치와 정부와 관련 기관의 세밀한 주의와 집중이 필요하다 본다.

· 덮개류의 경관조화

뚜껑의 표층을 포장재로 통일하는 일반적인 수법이 있다. 덮개류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등에 우수한 디자인의 맨홀 등을 볼 수가 있다.

이들 도시의 아주 작은 부분의 디자인은 이제 막 실마리를 잡은 상태이다. 개체로서 디자인적으로 만드는 일과 경관의 다른 요소와 효과적으로 관련시켜가는 양면에서의 검토로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해가는 것은, 앞으로 도시경관조성에서 빠뜨릴수 없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아울러 그 지방 특유의 문양을 이용하여 응용할 수 있는 면과 특수한 장르를 개척하여 일반인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8. 놀이의 기능적 디자인

어린이들의 놀이에 대해 무관심하게 생각해 왔고, 늘 동일한 모양의 놀이기구가 주변에 있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예: 아파트 단지내의 놀이터)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서 빈 공간을 치장하기 위한 간편일률적인 디자인 시설물로 보여지고 있다.

서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창조적인 자세와 새롭게 인식을 바꾸어야

할 시기이다. 아래의 항들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정리이다.

· 환경의 변화

최근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밖에서 노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고밀도화해 가는 도시에서 자유스럽게 놀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공간뿐만 아니라 놀이친구, 시간, 도구(놀이방법), 모두가 시간과 함께 변화되어 어린이의 놀이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놀이방법의 변화

보편적으로 어린이의 세계를 관찰하면 놀이방법, 시간의 사용법, 친구들과의 교제방법이 옛날과는 다르지만 어린이들은 아주 잘 놀고 있다는 사실이다.

· 놀이터·공원을 새롭게 인식한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공원은 많은 어른들도 이용한다. 한마디로 어린이·어른으로 이야기하지만 유아·아동·주부·젊은이·노인·근로자 등 여러 가지 행동형태를 갖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고로 공원을 이용한다. 공원이란 공간을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의 놀이장으로 넓게 인식하는 것에서 각기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응한 새로운 도구·장소의 제안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새로운 유구의 지향

어린이의 변화하고 있는 놀이방법에 대응하는 유구(놀이기구)는, 혼자 혹은 그룹 각각에 대응할 수 있는 유구, 어른의 “놀이”(운동, 건강, 휴식, 커뮤니케이션 등)이 가능한 도구, 경관으로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쾌적하게 하는 도구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밖에서의 “놀이”에 활기를 더해주는 요소를, 밖에서의 생활에 즐거움과 운택함을 주는 요소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놀이의 행태 변화: 도표 참조.

1. 시각의 즐거움	2. 청각의 즐거움	3. 촉각의 즐거움	4. 변화의 즐거움	5. 도전의 즐거움	6. 경쟁·승패의 즐거움	7. 동료의 즐거움 (그룹, 복수)	8. 창조의 즐거움	9. 파괴의 즐거움	10. 수집의 즐거움	11. 미지의 물건에 대한 즐거움 (신기함, 불가사이)	12. 기타
조망을 즐긴다. 아름다움을 즐긴다.	음을 즐긴다. · 자연음 · 인공음 · 음악	촉감을 즐긴다 질감을 즐긴다	형태변화의 즐거움 색, 빛의 변화의 즐거움 양의 변화의 즐거움 질의 변화의 즐거움	지혜에의 도전 체력에의 도전 자기능력에의 도전 자만 정복감 모험심 위험에의 도전 육체적 발산 금단의 매력 재주(숨씨)의 과시 재주를 즐긴다 재주의 향상 공포에의 호기심 목적의욕을 가짐 도달의욕 기대 에너지의 발산	승패 물을 정하다 타인과의 경쟁 육체적 발산 재주의 과시, 향상 재주를 즐긴다. 목적의욕을 갖는다. 도달의욕 자만 우월감 정복감	연대의식 집단의 즐거움 이야기의 도입 역할의 분담	창조적 행위 자만 자기손으로 만들 (창조합)	파괴행위 육체적 발산 금단의 매력 정신적 발산 장쾌감	탐구심 채집한다 독점욕 보물로 한다	신비성 모험심 탐구심 발견 기대 물건에의 매력 캐릭터의 매력 틀이 있는 행위 불가사이함 동경 不浞感 불결감	기구화한다. 쾌적성 모방 감정이입 정신적 안정감 행위의 발전성 달성의욕 타소재의 참가, 도입 가치의 전환 행위의 영역감 향학심 우리들의 영역

제 3 절 환경 시설물의 구성 재료

본 절에서 의미하는 환경 시설물의 구성 재료라 함은 시설물을 제작하고 완성해서 설치하는데 따른 필요한 재료를 말한다. 또한 복잡 다양한 사회의 기능과 환경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설물의 재료 역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 시설물의 다양함은 현대사회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뜻한다. 상고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발전된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전개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환경 시설물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재료의 중요성에 대해 그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 시설물의 구성 재료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새로움을 창출, 구성하는데 따른 제조 기술과 방법 그리고 새로운 기능에 의한 조형성의 향상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환경 시설물의 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서 재료의 성질과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환경 시설물의 구성 재료의 대부분은 공업 생산품이며 천연 재료를 인공적으로 가공하거나 선별하여 생산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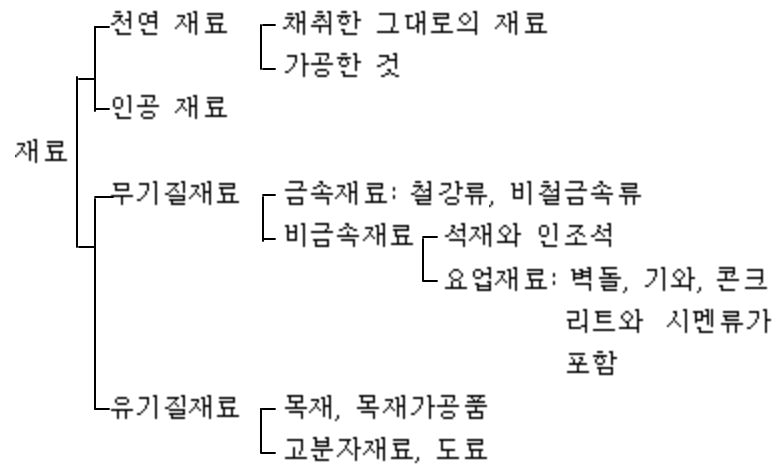
생산 공급되는 각 재료에는 생산공급자마다 통일된 품질, 치수등 개별적인 규격이 있다. 산업의 현실과 장래, 사용자측의 요구 등을 적절하게 조종하여 이에 맞는 규격을 국가 표준 규격으로 제정하고 생산, 공급, 사용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공업표준화법(KS, Korea Industrial Standards)이다.(표참조)

부분	기호	내용
기본	A	기본 및 일반, 포장일반, 공장관리, 기타
기계	B	기계기본, 기계요소, 공구, 동작기계, 측정.계산용기계 기구 및 물리기계, 일반기계, 산업기계,수송기계, 선박
전기	C	전기일반, 측정 및 시험용 기계기구, 전기재료, 전선, 케이블 및 동 용구, 전기 기계 기구, 통신기기, 전자 기기 및 부품, 진공관 및 전구, 조명기구, 배선기구, 전지, 전기용 응용 기계기구
금속	D	금속일반, 분석, 원재료, 강재, 주강 및 주철, 주물,신재, 2차제품, 가공방법, 기타
광산	E	일반정의 및 기호, 채광 및 광산물, 보안, 선광 및 선탄, 운반 포장
토건	F	일반, 구조, 시험.검사.측량, 재료 및 부재, 시공
일용품	G	문방구및 사무용품, 잡품, 가정용품, 가구 및 실내 장식품, 운동용품, 특수공예품
식료품	H	농산물 가공, 축산물가오, 첨가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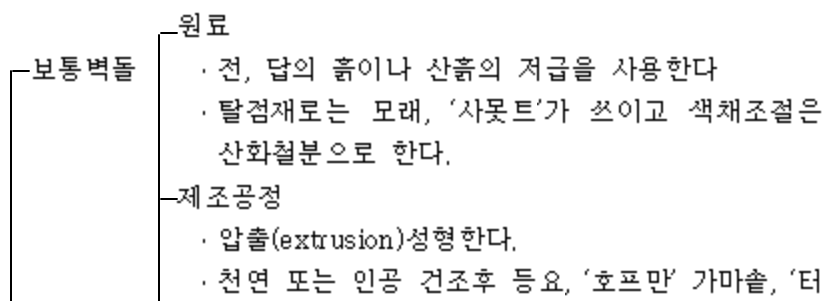
섬유	K	일반시험 및 검사, 면직, 마제품, 면직물, 피복 수출품, 직물, 편물, 제조기계
요업	L	도자기, 유리, 내화물, 점토제품, 시멘트 및 석면 제품, 연마특수요업제품, 요업용특수기기, 기타
화학	M	일반, 공업약품, 유지, 광유, 플라스틱, 사진재료, 염료, 폭약, 안료, 잉크, 고무, 피혁, 종이, 펄프, 시약
의료	P	일반, 일반 의료기기, 치료재료, 의료용 설비 및 기기, 의료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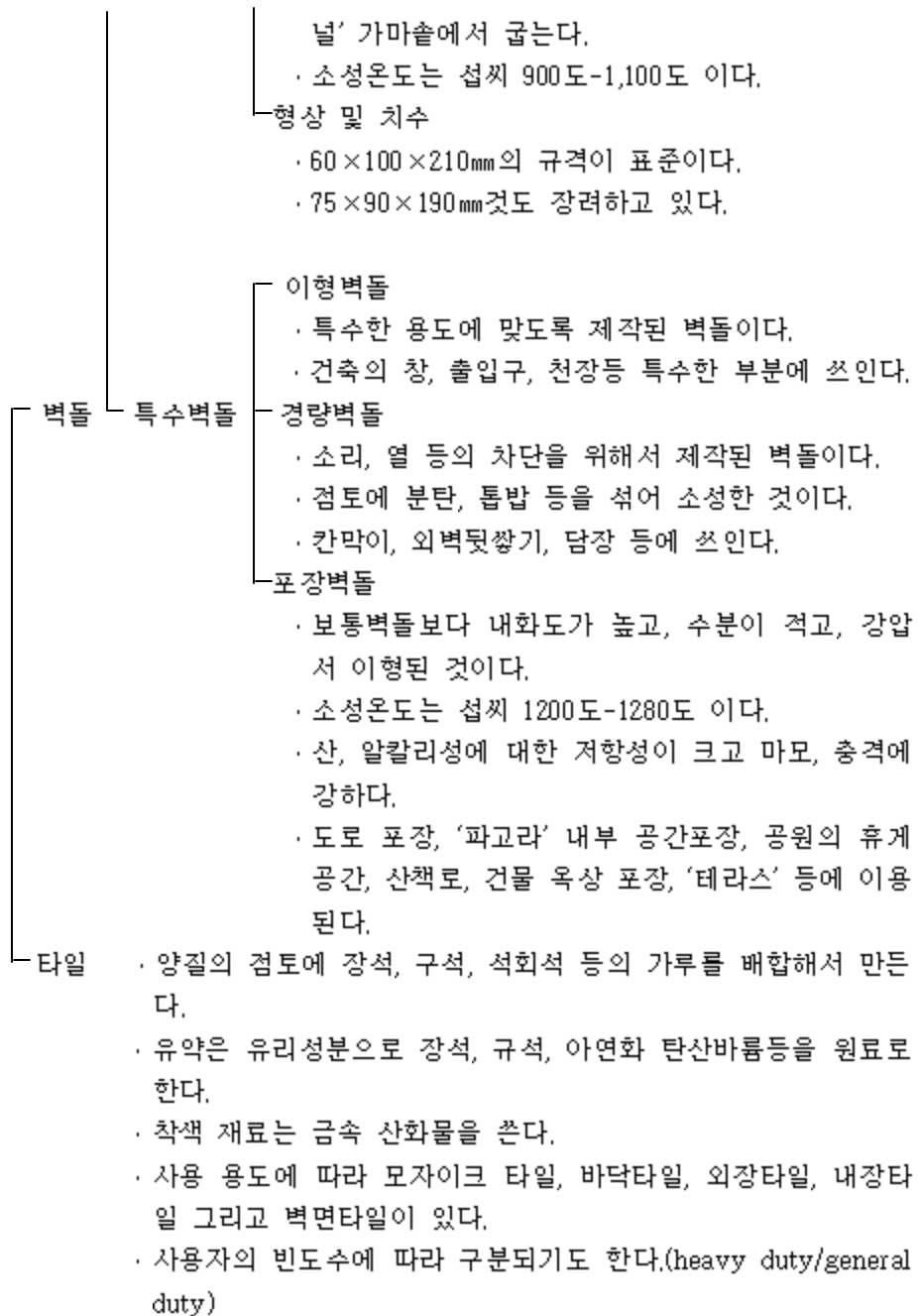
한국의 공업 규격 일람에서 보듯이 환경 시설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재료는 어느 특정 부분에 집약되어 있지 않고 전 부분에 걸쳐 그 사용 용도에 따른 다양함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재료에 대한 특성과 이해 그리고 정확한 사용 방법을 토대로 환경 시설물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재료의 분류를 살펴보면 천연 재료, 인공 재료 그리고 무기질 재료와 유기질 재료로 크게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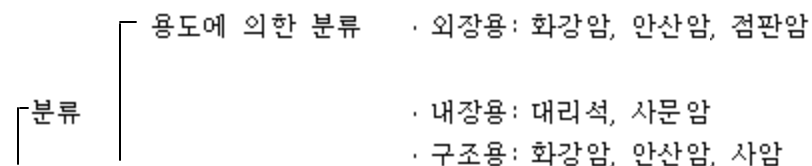


1. 점토: 점토는 쓰이는 용도에 따라 크게 벽돌류와 타일류로 구분되며, 쓰이는 용도와 제작방법이 사뭇 틀린 관계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료의 특성과 방법(가공)에 대해 간략히 정리 하고자 한다.





2. 석재: 일반적으로 석재의 쓰임과 목적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본 항에서는석재의 종류와 성질 그리고 장단점을 통해서 환경시설물을 설치, 가공 하고자 할 때(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석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토대로 해야 한다.



석재의 성질	경도에 의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석: 화강암, 안산암, 대리석 · 준경석: 경질 사암 · 연석: 응화암, 연질사암
	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축강도는 강하고 휨강도,인 장강도는 약하다. · 압축강도는 돌의 결에수직,수평의 차이가 없다. · 전단력도는 수직인 경우가 강하다.
석재의 장단점	내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산성의 작용: 대기, 빗물 중의 탄산아류산이 반복 작용하여 건조에 의한 손상을 일으킨다. (석회암, 대리석이 심한 마모를 일으킴) · 동결,융해작용: 석재에 포함된 수분이 동결, 융해를 반복하여 조직의 재질을 약화시켜 붕괴된다.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연성이고 압축강도가 크다. · 내구성, 내화학적, 내마모성이 크다. · 외관이 치밀하고, 닳으면 윤이 난다. · 종류가 다양하고, 외관과 색조가 풍부하다.
가공방법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량이 커서 다루기 어렵고, 가공이 곤란하다. · 열이 닿으면 화강암은 튀고 대리석 분해하면 강도가 약해진다.
	가공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혹두기: 망치로 돌표면을 대강 다듬는 것이다. · 정다듬: 정으로 쪼아 면을 평활하게 만드는 것이다. · 도드락다듬: 도드락 망치로 정다듬한 면을 더욱 평활하게 다듬는 작업이다. · 잔다듬: 정자국과 도드락 망치자국이 남지 않도록 다듬는 작업이다. · 물갈기: 잔다듬한 면을 금강사와, 모래 등을 뿌리고 물을 주면서 갈면 표면이 매끈해지고 윤이 난다.

3. 목재: 목재는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그 용도의 기준에 맞는 목재를 선택할 수 있는 식견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 시설물의 대부분의 품목들이 옥외 공간에서 조성되므로 나무의 성질과 보존법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나무(목재)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	세포: 가늘고 길게 발달된 것으로 목재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활엽수는 수목의 견고성을 갖게하며, 침엽수는 견고성 및 수액 수송역활을 한다.
----	--

- 나무결(WOOD GRAIN) · 곧은결: 나이테의 직각방향면을 말하며 장식용으로 사용된다.
 - 널 결: 나이테의 접선방향면을 말하며 결이 거칠고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실용적으로는 곧은결보다 변형이 크고 마모율도 크다.
- 흠(MOUND) · 갈라짐(crack): 폭풍, 수액의 동결, 타박, 벌목후 급격한 건조 등으로 나타난다.
 - 입피: 나무에 상처가 생겨서 껍질이 속으로 말려 들어간 것이다.
 - 옹이(knot): 작은 나무가지들이 박혔던 흔적이다. 가공이 곤란하며 미관상 좋지 않고 강도가 떨어진다.
 - 삭음(dry rot): 나무를 파먹는 곰팡이에 의한 것으로 목재는 마른가루가 되어 버린다.
 - 뒤틀림(twisted grain): 수심 뒤틀려 강도가 불안정하고 갈라지기 쉽다.

성질

- 강도
 - 압축강도: 세포의 좌굴에 의한 파괴현상이다. 섬유 방향이 최대치가 되고, 직각 방향이 최소치가 된다.
 - 인장강도: 섬유방향이 최대치가 되고, 직각방향이 최소치가 된다.
 - 전단강도: 섬유방향에 직각일 때는 강하며, 섬유방향일 때는 약하다.
 - 휨 강 도: 목재가 휘 띠는 압축, 인장, 전단력이 동시에 일어 나지만 대체로 인장강도에 준한다.
- 내구성
 - 변재, 심재와 내구성과의 관계: 심재는 세포막이 단단하고 수지, 고무, '탄닌', 정유 등의 함유량이 많고, 변재는 수분, 당분, 전분, 단백질이 많다. 심재가 변재보다 내구성이 크다.
 - 물, 습기에 견디는 것: 회나무, 비자나무, 솔송나무, 전나무, 육송, 밤나무, 들매
 - 건, 습변화에 견디는 것: 회나무, 비자나무, 밤나무, 졸참나무, 벗나무
 - 벌레류의 침해에 약한 것: 소나무, 삼나무, 전나무, 자작나무, 버드나무
 - 벌레류의 침해에 강한 것: 티이크, 녹나무, 느티나무, 떡갈나무
 - 균이 침해하기 쉬운 것: 너도밤나무, 소나무, 졸참나무, 버드나무

장단점

- 장점
 - 가벼워서 취급하기 쉽고 가공하기도 용이하다.
 - 무게에 비하여 강도 및 탄성이 크다.
 - 열 전도율이 낮다.
 - 외관과 감촉이 좋아 사람에게 친근감을 준다.
 - 온도에 의한 신축이 적고, 산이나 알칼리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 단점
 - 가연성이다.
 - 흡수력이 강하며 신축, 변형이 심하다.
 - 부패하기 쉽다.

가공방법

- 제재
 - 건조, 수축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제재할 것
 - 목재의 용도에 따라 결과의 무늬를 고려할것.
- 건조
 - 건조의 목적
 - 건조수축이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
 - 자중이 경감되어 운반 및 시공이 편리하다.
 -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 강도, 탄성, 경도, 내마모성 등의 성질을 증대시킨다.
 - 건조방법
 - 자연건조법 공기건조법: 통풍이 좋으며 그늘진 장소에서 건조하는 방법이다.
 - 침수법: 원목을 3-4주 이상 침수 시켜서 수액을 물과 대치시킨 후 대기 건조시키는 방법이다.
 - 인공건조법
 - 자비법: 목재를 큰 솥에 넣어 열탕으로 삶는 방법이다.
 - 증기법: 밀폐된 철재 원통내에 목재를 넣 뽑아 내는 방버이다.
 - 연소가스건조법: 톱밥, 대패밥 등을 태운 연기를 건조실에 송기시켜 건조하는 방법이다.

보존법

- 방부법
 - 표면 탄화법
 - 목재 표면을 2~10mm 깊이까지 태워서 탄화시키는 방법이다.
 - 방부효과는 있으나 탄화부분은 흡수성이 증가한다.
 - 방부제 바르기
 - 유성방부제: 타르류, 크레오소오트, 펜타클로르

페놀(PCP)이 있다. 침투성이 있으며, 값이 싸
나 화기에 약하고 냄새, 색깔이 좋지 않다.

- 수용성방부제: 황산동, 불화소다, 염화아연 등
이 있다. 침투성이 좋고, 화기에 안전하나 물
에 녹으며 철을 부식한다.

- 방화법
- 방화제바르기, 침지법, 주입법 등으로목재에 침투
시켜 불연성 개스를 발생케 하거나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차단케 한다.
 - 염화암모니아, 황산암모니아, 제2인산 암모니아등
은 불연성 개스를 발생시킨다.
 - 물유리는 용융된 유리모양의 막을 만들어 산소의
접촉을 차단시킨다.
 - 황산 암모니아는 철을 부식시키므로 주의를 필요
로 한다.

4. 시멘트: 시멘트류는 일반적으로 종류에 대해(쓰이는 용도에 따라) 단일
아이템으로 생각하기 쉽다. 특히 사용목적에 맞는 시멘트에 대
한 지식 또한 필요하다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환경시설물에서
는 도로와 인도 그리고 지면의 정지작업에 필요한 부분이 대부
분이지만 쓰임에 대한 기준을 이해하면 응용할 수 있는 참고의
자료가 된다.

포르트랜드

보통 포르트랜드 시멘트

- 3.10 ~ 3.15 로 시멘트중 가장 무겁다.
- 소성이 불충분한 것, 풍화한 것, 불량품은 비
중이 작아진다.
- 조경구조물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에 사
용된다

조강포르트랜드 시멘트

- 초기강도가 크다
- 응결, 장기 강도는 보통 포르트랜드 시멘트와
거의 같다.
- 수화열이 약간 크므로 습윤보양에 주의 해야
한다.
- 긴급을 요하는 공사, 한냉기의 공사 등에 쓰
인다.

중용열 포르트랜드시멘트

- 비중이 크고, 초기 강도가 약하며, 발열량이
적다.
- 장기 강도는 보통 포르트랜드시멘트와 같다.

- 수축이 적고 내구성이 크다.
- 댐공사와 같이 두꺼운 콘크리트 공사에 쓰인다.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강도가 약하며, 구조용으로는 부적당하다.
- 각종 안료를 섞어서 칼라 시멘트를 만들 수 있다.
- 주로 치장용에 쓰인다.

혼합시멘트

고로시멘트

- 수화 발열량이 적다.
- 바닷물, 하수와 같은 침식액에 대한 화학적 저항성이 크다.

실리카 시멘트

- 초기 강도는 약하고, 장기 강도가 강하다.
- 응결이 더디다.(특히 저온상태)
- 도장용으로 사용하기 좋다.
- 공극 충전 효과가 커서 수밀성 콘크리트를 얻는다.
- 수화열이 적다.
- 건조수축은 약간 크다.
- 화학적 저항성이 크다.

플라이 애쉬 시멘트

- 작업의 난이도의 정도 및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좋게 한다.
- 내구성을 늘리며, 화학적 저항성을 증대시킨다.
- 수화열을 저하시킨다.
- 수축을 적게 한다.
- 초기 강도는 작고, 장기 강도가 크다.

5. 콘크리트: 대체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기초와 뼈대를 형성하는 재료로만 이해하기 수비다.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은 시멘트류에서 설명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 분류
- 잔골재: 10mm체로 100% 통과하고, 5mm체로는 85%(중량)이상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비중은 2.5~2.8 정도
 - 굵은골재: 5mm체로 85%이상 걸리는 골재로 비중은 2.65~2.70정도
- 조건
- 깨끗할 것
 - 굵은 시멘트 페이스트보다 강할 것

- 잘고 굵은 것이 적당히 섞여 있어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을 것
-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것
- 장단점
 - 장점
 - 재료 획득이 용이하다.
 - 압축강도가 크다.
 - 내화성이 우수하다.
 - 부착력이 좋고, 철이 녹스는 것을 막는다.
 - 임의로 형태를 만드는 것이 용이하다.
 - 경제적이다.
 - 단점
 - 중량이 크다
 - 시공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배합
 - 반죽질기가 적당하고 워커빌리티(작업의 난이도 및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좋게한다.
 - 소요강도 및 내구성을 높인다.
 - 분말도가 높은 시멘트를 쓴다.
 - 자갈의 최대치수를 작게 한다.
 - 모래와 자갈의 혼합을 적절히 한다.
 - 물, 시멘트비를 작게한다.
 - AE제, 분산제 등을 사용한다.

6. 아스팔트: 4. 시멘트, 5, 콘크리트 설명 참조

- 아스팔트재
 - 종류
 - 천연 아스팔트: 액상 혹은 반액상으로 용출되는 lake asphalt, 다공질의 사암이나 석회암에 침투된 상태의 rock asphalt, 모래속에 삽입 되어있는 sand asphalt 등이 있다.
 - 석유 아스팔트: 석유정제공업의 과정에서 생산된다.
 - 성질
 - 갈색, 흑색으로 상온에서는 휘발되지 않는다.
 - 가열에 의하여 유동성이 증가되고 변질되지 않는다.
 - 물에 녹지 않는다.
 - 내산성(염산, 유산, 인산)이 강하다.
 - 석유계 탄화수소의 용제에는 잘 녹는다.
 - 용도
 - 방수공사, 방습공사의 재료로 사용된다.
 - 내산공사용 재료로 사용된다.
 - 단열, 전기 절연재료로 사용된다.

└아스팔트 몰타르류

- | | |
|----|---|
| 성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마모성이 좋고 방습, 방수성이 있다. · 보행시 소리가 적게 나며 탄력이 있다. · 콘크리트에 비하여 절연성이 크고, 신축에 의한 균열이 적다. · 흑색 모르타르의 표면에 도료의 착색이 가능하다. |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공사에 사용되며, 현장에서 시공한다. · 아스팔트 도로의 포장용에 사용된다. |

7. 금속: 환경시설물의 디자인과 제작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금속류는 그 종류가 다양하며 쓰이는 용도, 크기 형태 그리고 설치방법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타 재료와의 복합적 사용 용도에 대한 방법과 설치 후의 보존 방법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금속이 갖고 있는 성질에 대한 마감 처리와 기술적 측면은 시설물 설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금속의 종류, 장단점에 대해 정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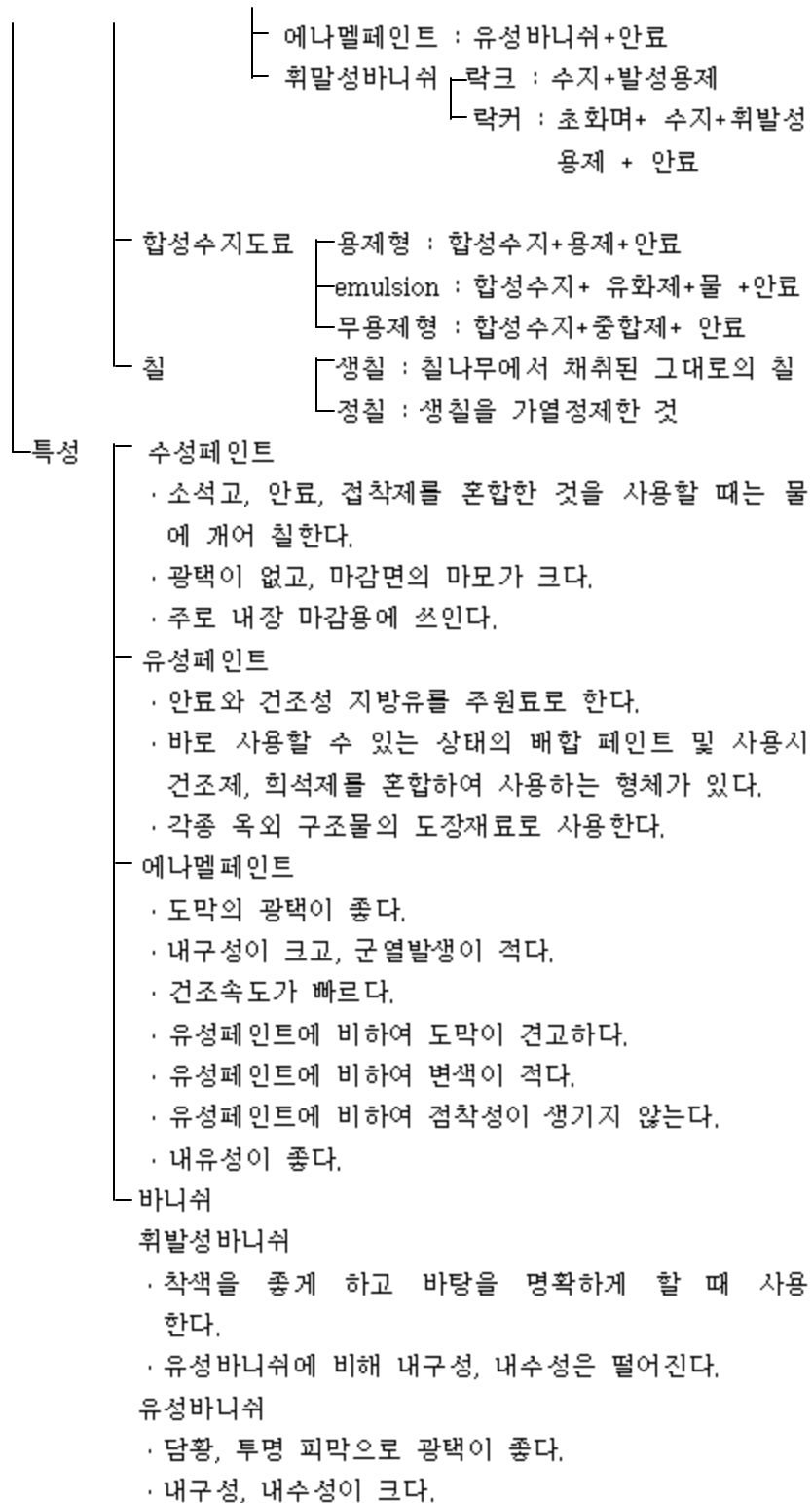
- | | |
|----|--|
| 종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량의 철과 1.7~4.5%의 탄소, 소량의 규소, 망간, 유황, 인등을 함유하고 있다. · 표면색은 회색 혹은 백색이다. · 주철 및 강의 제조 원료가 된다. - 순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분해에 의한 전해철로서 순도는99.98% 정도이다. · 표면색은 은회색이다. · 고온으로 가열하면 심하게 산화한다. · 습기가 있는 상온에서는 산화 부식을 일으킨다. · 산에는 내식력이 약하고 알칼리에는 전혀 침전되지 않는다. · 전기 자기 재료로 사용된다. - 탄소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철이다. · 금속중에 가장 저렴하며,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 · 판, 봉, 관 등의 재료가 된다. - 주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6.68%의 탄소를 함유한다. · 압연, 단조 등의 기계적 가공은 할 수 없다. |
|----|--|

장단점	강철	· 주조성이 좋아서 복잡한 형상의 품질을 만들 수 있다.
		· 탄소강보다 내식성이 강하다.
		· 0.04~1.7%의 탄소를 함유한다.
특수강	구조용 특수강	· 높은 온도를 가하면 질이 유연하게 되어 소요형으로 단련할수 있는 가단철이다.
		· 탄소이외에 Ni, Mn, Si, W, V, Cu, Mo, 등의 금속원료를 함유하는 합금강이다.
		· 인장강도, 항복점이 높아야 한다.
장단점	장점	· 충격, 피로에 대한 내력이 커야 한다.
		· 기계구조용에 많이 사용된다.
		· 스테인레스
단점	장점	· Cr, Ni 등을 함유하며, 탄소량이 적고 내식성이 우수하다.
		· 탄소량이 적을수록 내식성이 증대한다.
		· 전기 저항력이 크고 열전도율은 낮다.
단점	장점	· 경도에 비해 가공성이 용이하다.
		· 강도와 인성이 실용 구조재료중 가장 크다.
		· 재질, 형상등이 종류가 다양하다.
단점	장점	· 강도에 비하여 가볍다.
		· 재질, 형상이 균일하다.
		· 설계상 자유성이 풍부하다.
단점	장점	· 불연재료이다.
		· 대규모 공업생산품이므로 공급이 용이하다.
		· 불에 강하지 못하여 가열하면 역학적 성질이 저하된다.
단점	장점	· 부식된다.
		· 색채와 질감은 차거운 느낌을 준다.

8. 도료: 도료는 제작 방법과 가공방법에서 마감부분에 해당되어 사용되는 재료이며 일반적 도료와 특수도료에 대해서도 분석, 이해할 수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환경시설물 품목들의 근래의 상황을 보면(외국의 사례) 특수 열처리 및 특수 코팅제에 의한 신기술의 시설물들이 다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보와 지식은 좋은 환경물을 창출하는 모티브가 되기도 한다.

분류	페인트	유성페인트 : 건성유+건조제+안료
		수성페인트 : 아교 또는 casein+물+안료
		바니쉬
		유성바니쉬 : 수지+건성유



제 4 절 국내·외 환경시설물의 현황 분석

1. 국내현황

도시 환경시설물 관련 제작업체에 있어서 전문건설업 환경시설물 설치공사업체는 전국면허 보유업체수가 542개(98년 5월 현재)에 달하며, 그 중 직접 공장을 운영하면서 제작에 참여하는 업체수는 약 20여 업체에 지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무면허 업체에 의하여 제작, 시공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의 환경시설물은 시각적, 형태적 측면이나 안전성과 구조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개념을 접근하고 있는 실태이며, 이와 관계된 시공방법 또한 체계성과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면허 업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업체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없으며, 도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디자인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도시환경을 고려하여 디자인 개발, 제작하고 노력하는 극소수 업체조차도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설 곳이 없는 실정이다.

- 국내 도시 환경시설물이 현황 분석 (현황조사 1.)
- 국내 고속도로 주변 환경시설물의 현황분석 (현황조사 2.)

도심지내의 환경시설물의 배치 현황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공공 공간(옥외공간) 중에서도 인구유동이 많고 인구가 밀집되기 쉬운 조사 대상지역 청량리역, 고속버스터미널, 잠실 및 동대문운동장, 대학로 주변을 비롯한 서울시내 전역의 환경시설물들은 대부분이 그 질적 수준이 매우 낮으며, 시설물의 설치나 표현상의 문제점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환경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에 대한 사례들은 그 개선의 필요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수집된 사례들이 모두 도시계획상 지구 지정은 그 본래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우며, 이러한 미관지구 내의 광고물들에서 보여지는 문제점들은 현행 공고물 등 관리법과 그에 따른 시행 규칙 등의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실제적으로 현황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같이 미관지구 내에 시설되어 있

는 옥상 간판류의 대다수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사례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과연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지정된 미관지구 본래의 의미에 합당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것이다.

이상에서 본 정보기능을 중심으로 한 환경시설물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도심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전반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현황 조사 결과 나타난 환경시설물들의 많은 문제점들을 통해 살펴볼 때 오늘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환경은 전반적으로 그 질적 수준이 매우 낙후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적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현행 도시행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환경 시설물의 계획상의 문제

- 일시적 계획
- 획일적 계획
- 전문성의 결여
- 계획 주체의 산발성
- 행정당국의 인식부족
- 도시계획이나 건축, 조경적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적 범위의 한계성

위에서 나열한 문제점들과 동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 이후 70년대 말까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하여 공공 시설물들은 도시의 시설 확대에 의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 획일적으로 시설됨으로써 단순한 기능 그 자체로서 만족되었고 그 이상으로는 인식되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당시의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전문적인 디자인세대의 기반이 폭넓게 성숙되지 못하였으며 그럼으로써 비전문가의 발상에 의한 시설물들이 도시 곳곳에 놓여지면 그만이었다. 그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환경시설물의 일련의 모습들은 오히려 도시 대중들에게 익숙한 환경으로 인식되어 왔다.

셋째, 80년대 이후 조악한 도시환경에 대한 당국의 자각과 함께 시설물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다소 분산되어 있는 것과 같이 계획 주체도 분산됨으로써 계획의 체제가 결여되고 각각의 부분적 필요에 의한 환경시

시설물의 중복과 난립 양상이 두드러져 있다.

환경시설물, 특히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그것은 각각의 디자인이나 환경미화의 요소로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제적으로 도시환경의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이며 전반적인 계획의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행정 당국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공공 시설물이 소모품과 같이 일시적 행정사항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나. 환경시설의 설치와 관리상의 문제

- 무계획한 획일적 설치
- 관리 주체의 산발성
- 지속적 관리의 결여
- 시민의식의 부족

위에서 나열한 문제점들과 그 구체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행정부가 각각 다르므로 시설물의 형태와 배치가 여타의 다른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둘째, 환경시설물의 배치가 사람들의 활동 패턴을 잘 반영하지 못하여 필요한 곳엔 시설물이 없는 반면, 별로 필요치 않는 곳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보행을 방해하고 있다.

셋째, 환경시설물의 비전문적 제조 생산과정으로 인하여 쉽게 파괴되고 또 파괴된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가로 경관을 해친다

넷째, 가로등과 같은 공공 환경시설물에 상업용 스피커나 광고물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흔한데 이는 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되는 사항임에도 공공시설물에 관한 행정관리의 미흡함, 강력한 규제조치의 결핍 등으로 공공 시설물이 공공연히 사설 광고판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다섯째, 공공 환경시설물의 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용자나 주민의 자발적 의식에 의한 지속적 관리가 가장 바람직하나 단순한 기능 이상의 것으로는 생각될 수 없는 현재의 공공 시설물은 도시민들에게 친근감과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의식에 의한 관리는 기대하기 힘들며, 현재의 행정 관청의 부족한 인력으로는 지속적인 관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다. 환경시설물의 규제상의 문제

첫째, 공공 환경시설물은 그 계획과 설치, 관리에 있어서 시·군의 담당 행정 부서에서 발상되어 설치와 관리까지 직접 전담하거나 아니면 발상만 하고 계획과 설치, 관리는 민간업체에 일임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위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결과물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는 없으며 공공 시설물의 경우는 사실상 그러한 법적 규제란 별 의미가 없고 담당 부서의 인식이 앞선 유익한 발상과 계획이 우선인 것이다.

둘째, 관리상의 규제로서는 다만 시설물의 교체와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담당 행정 부서가 직접, 혹은 관리를 맡은 민간업자에게 행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촉구하는 정도의 배려가 취해지고 있다.

셋째, 현재 민간 환경시설물의 대부분은 업소의 상점 간판, 기업의 광고물 빌보드와 시계탑 그리고 사설 안내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이익집단의 자기 표현으로 활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쟁적 표현 양식을 갖게 되나 이러한 경쟁의식만이 앞선 업자들의 인식부족과 대부분 교육받지 않은 비 전문인에 의한 조악한 표현 양식은 민간 환경시설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넷째, 능력있고 교육받은 전문 디자이너의 경우는 극소수이며 또한 많은 비용이 드는 관계로 중소규모의 상점인 경우에 전문간판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영세점포들이 밀집한 상업지구 등의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과 같이 획일적인 재료와 표현양식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크기가 확대되고 불규칙적인 이미지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은 도시의 시각환경 중에서도 가장 공해적 요인으로 두드러진 것이다.

2. 국외 현황 및 사례 연구

정보와 교통의 발달로 세계는 한층 밀접함을 느끼고 있으며, 서로의 거리감도 매우 가까워졌다. 또 도시경관의 모습을 살펴 보아도 유사성이 한층 증가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간, 문화, 사회구조, 자연환경은 큰 차이가 있으며, 공공 공간의 차이점은 그 도시지역에서의 환경조성 및 고유의 환경물 디자인은 필요하다. 이 역사와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환경시설물 디자인의 위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등)들은 지역적으로 전통과 새로운 도시의 조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계획들은 전문디자이너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기업등이 상호 협력하에 이루어지면 공동작업 또는 공

통의 지역협력을 통하여 환경조성이 되고 있다. (예 :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 출입구 사례 : 아르누보 양식의 하나로 파리시의 문화적 유산으로 남아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전통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문화적, 경관적인 그들 고유의 이미지를 지닌 나라이다. 석재문화를 주로 한 공공 공간의 전통성을 살려서 환경물들을 도시환경과 나란히 창조해 내고 있다.

독일은 소재와 포장, 외벽과 조명, 스트리트 퍼니처, 교통관련 시설물 등의 정비까지 지역사회의 특징을 고려하여 공공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공법과 조형적인 부분은 물론 환경친화적 접근으로 옥외공간의 독창성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외 환경물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장의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검토할 수 있는 우리의 현상향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비교, 검토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과제의 국외사례 현황조사는 문헌과 현장답사(미국·일본) 그리고 해외 전문 인력으로부터 전달받은 500장의 슬라이드에서 추출한 환경시설물(미국의 시카고, Los Angeles, New York, Washington D.C 유럽의 10여개국)의 영역들을 나라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또 한 우편을 통한 외국의 환경 시설물 제작 업체의 카다로그 및 팜플렛 그리고 CD를 통해서 자료 수집된 최근의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각 나라별 특징과 환경시설물의 조화·질서·통합의 이미지들을 우리의 현상향과 비교, 검토할 수 있으며 적용사례 연구과정에서의 활용과 더불어 관련연구단체 및 관련기관에 정보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가. 나라별 특징분석(현황조사)

현황조사 2-1	미국
현황조사 2-2	일본
현황조사 2-3	영국
현황조사 2-4	프랑스
현황조사 2-5	독일
현황조사 2-6	이태리
현황조사 2-7	스칸디나비아(5개국)
현황조사 2-8	스페인

국내 환경시설물의 분류 현황 (현황조사 1-1)

고속도로주변

중앙분리대
녹색 방지대
방음벽



사인



톨게이트
휴게소
긴급전화
가드레일



환경시설물의 국가별 비교검토 (현황조사 2-1)

미국

1. 이미지 분석

- 국민성: 자유분방한 사고
건축양식: 다양한 양식이 산재
- 도시색조: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이미지가 상반됨

•선호색: 밝은 빨간색과 파란색(성조기)

2. 형태분석

풍부한 자원과 자본력 그리고 다민족으로 형성된 미국은 다양한 양식과 특성이 공존하여 표현되고 있다. 서부지역은 대체적으로 라틴계민족은 중심으로 한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분포되어 있어 낙천적인 표현이 많다. 동부지역은 앵글로 색슨을 중심으로한 백인계가 주도적으로 유럽풍의 양식은 선호 발전시키며 전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다변성의 혼합형체가 미국디자인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미국의 건축물이나 제품들은 자연 발생적인 것보다는 인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특정양식의 형태가 많다.

•서부

-키워드:

풍부한 다양한, 낙천적인, 진보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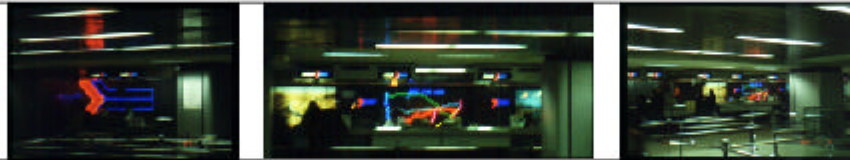
-형태이미지:

Casual, Clear, Cool-Casual

•동부

키워드: 전통적인, 인위적인, 인공적인, 무거운, 차분한, 보수적

형태이미지: Dandy, Classic, Chic



환경시설물의 국가별 비교검토 (현황조사 2-1)

3. 가로시설물

서비스산업(이동통신, 택배서비스)이 발달되어 우체통이나 전화부스등의 수량이 적고 디자인이나 색상이 일정한 않다. 동부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이용자가 많은 역과 터미널 주변에는 가로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되었으나 미국보다는 유럽은 어두운 이미지에 더 가깝다.



환경시설물의 국가별 비교검토 (현황조사 2-2)

일본

1. 이미지분석

- 국민성: 섬세하고 근엄한 성격
- 건축양식: 목재를 재료로 사용한 조립식 주택
- 도시색조: 배경요소의 색조가 사물보다 대체로 밝음
- 선호색: 베니레드(일장기)

2. 형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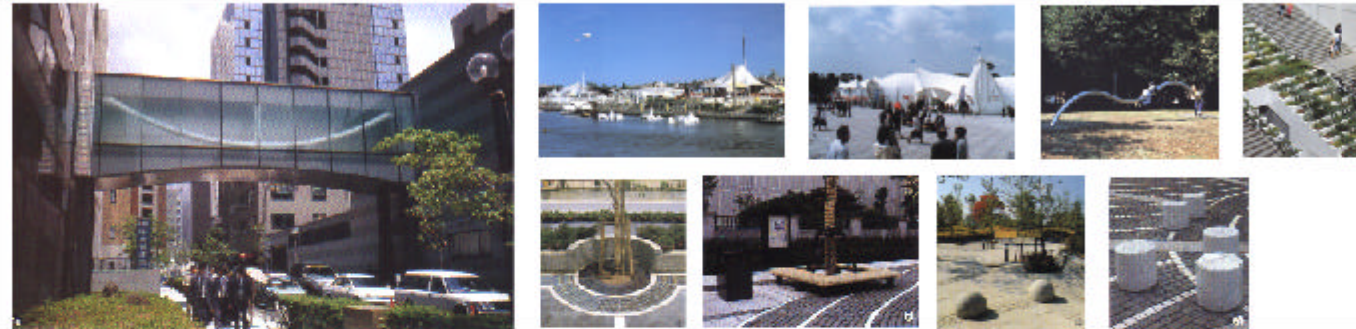
나무가 풍부하여 대부분의 건물이나 도구가 목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반적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자체의 형태보다는 인위적인 가공기술로서 새로운 미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한다.

이로 인하여 일본의 전통적인 제품들의 대부분은 정교한 가공기술과 엄격한 규칙속에서 제작되어진후 급진적으로 서구의 문화를 도입하여 일본의 전통문화와 이념적 융화를 도모하였으나 형태적으로는 복잡하며 산만한 느낌을 준다.

- 키워드: 경박단소, 섬세한, 엄격한
- 형태이미지: Cool, Simple, Elegance

3. 가로시설물

도시환경에 있어서 가로시설물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설치되었다. 특히 자연의 이미지를 적용하기 위해 인공물(시멘트, 플라스틱 등)에 도색하여 가로시설물을 제작한 사례가 많으며 우체통이나 전화부스등 공공시설물에는 히노마루 레드가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시설물의 국가별 비교검토 (현황조사 2-3)

영국

1. 이미지분석

- 국민성: 보수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전통과 현대적 개념이 조화
- 건축양식: 적벽돌과 회강암을 주재료로 사용.
- 도시색조: 배경(배경에 비해 사물이 대체적으로 밝은 편임)
- 선호색: 브리티쉬 레드, 스코틀랜드 블루(유니온 잭)



2. 형태분석

영국의 건축물은 대체로 벽돌과 타일 같은 가공재로 만들어져 있다. 특히 양식적인 면에서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수입문화 또한 영국의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가로시설물과 사인, 구조물의 형태를 통해 간접하면서도 웅장한 전통문장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설치 및 이용방법등의 기술이나 운영체계 또한 진보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



- 키워드: 전통적인, 보수적인, 중우한
- 형태이미지: Classic, Dandy, Gorgeousness



3. 가로시설물

환경의 색조는 전반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이미지를 주는 것에 반하여 가로시설물은 대체로 차분한 느낌을 주는 적색이 많이 이용되어 벽돌 건물이나 다수인 도시의 획일적인 이미지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적색외에 청색과 밝은 회색, 백색 등이 사용되어 통합적인 영국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환경시설물의 국가별 비교검토 (현황조사 2-4)

프랑스

1. 이미지 분석

- 국민성: 보수적사고와 전통성, 실험적 상징성, 예술적
- 건축양식: 랜드마크적 건축양식을 보존, 현대적, 초현대적 이미지를 창출
- 도시색조: 배경(현대와 고전의 어울림 속에서 미래지향적 칼라를 강조)
- 선호색: 빨강, 파랑, 백색 (자유, 평등, 박애를 의미)

2. 형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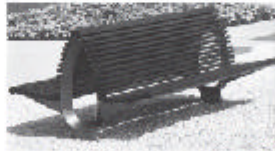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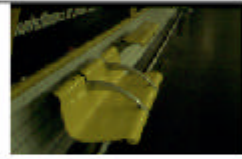
프랑스의 건축형태들은 고전(Classic)적인 분위기와 전통(Landmark Building)을 유지, 보존하고 있다. 다양하게 어우러져 있는 도시의 모습에서 현대와 고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으며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에펠탑, 루브르박물관, 종피두셀티등)를 그들의 공공 공간에 표출시키고 있다. 지구상에서 타국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은 나라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관청과 국가 차원에서 환경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문화라고 하는 거대한 영역을 단계별로 잘 보존, 영위함을 알 수 있다.

- 키워드: 보수적인, 실험적인, 상징적인
- 형태이미지: Casual, Ellegant, Artistic, Progressive

3. 가로시설물

환경의 색조는 밝은 편이며 환경시설물은 대체로 통합적이고 조직적인 작업으로 비교적 간결한 색조의 이미지로 표출되고 있다.

빨강, 파랑, 백색을 중심으로 초록색을 즐리쓰며 건축물의 외관에서 표현되는 자연색조를 환경시설물에 사용하고 있다



환경시설물의 국가별 비교검토 (현황조사 2-5)

독일

1. 이미지 분석

- 국민성: 근검하며 기능을 중시
- 건축양식: 벽돌과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
- 도시색조: 배경사물, 배경요소인 건축이나 환경에 비해 자동차, 사인 등이 밝음
- 선호색: 노랑, 빨강,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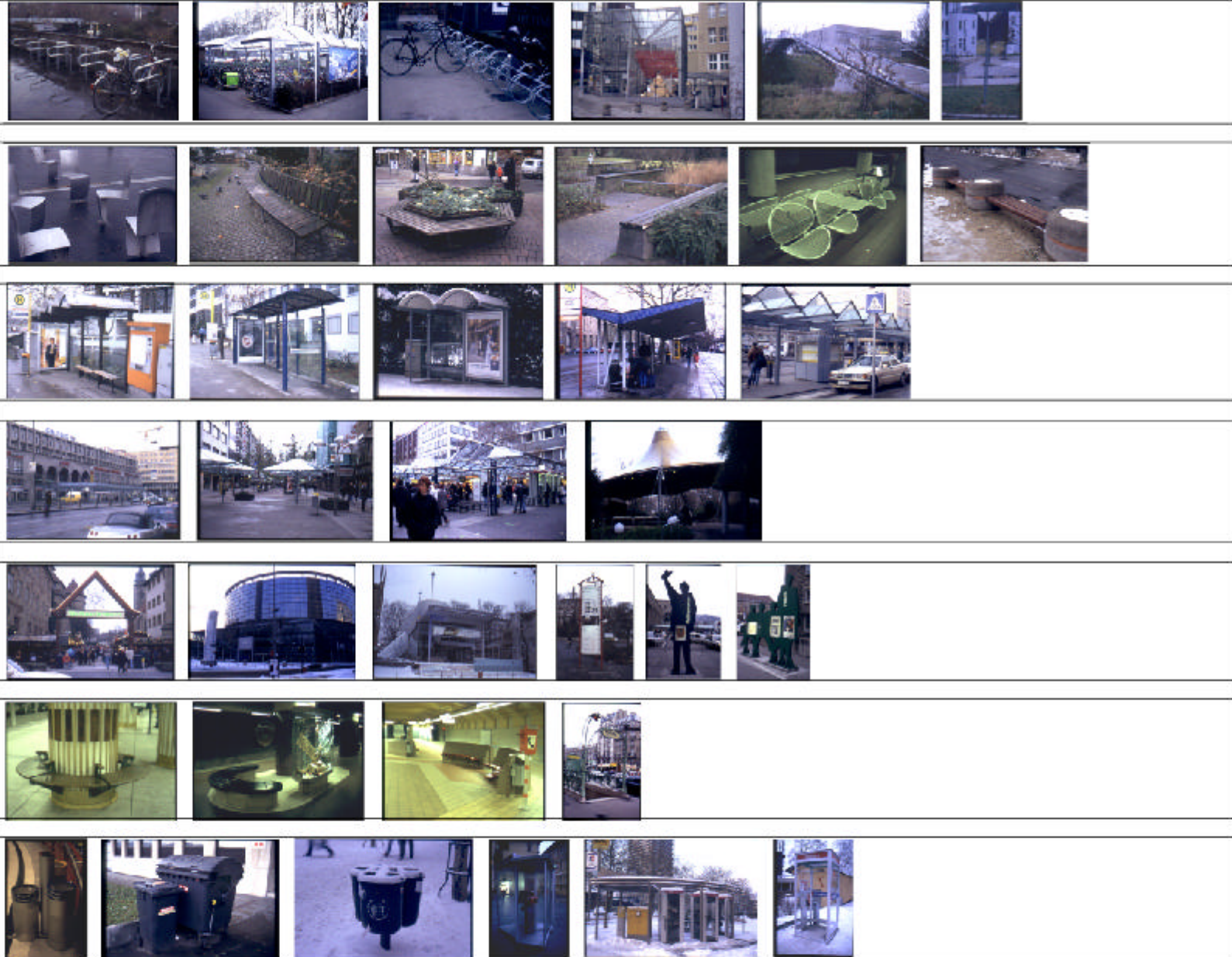
2. 형태분석

비교적 목재가 풍부한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건축물은 목재와 벽돌로 이루어져 있다. 대체적으로 소박하고 중성심이 강한 민족성의 경향을 띠고 있다. 이에 부합하여 도시환경 또한 대체로 간결하고 소박한 느낌을 준다. 특히 헤켄하우저 정원은 다른 유럽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웅장함과 간결함 풍경의 연출로 독일인의 절도 있는 민족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 이미지와 더불어 가로시설물이나 제품들은 복잡하지 않고 기능적인 면이 중시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

- 키워드: 간결한, 기능적인, 절도 있는
- 형태이미지: Gorgeousness, Dandy, Modern

3. 가로시설물

공공시설물에 있어 가로시설물인 공중전화부스, 우체통은 건축물과 자연환경에 색조에 있어 대비감을 느끼는 색상인 노랑이나 연두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노랑은 독일 국가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독일을 대표하는 색상인 빨강, 노랑은 가장 명도와 채도가 높은 것이다. 이로인하여 공공시설물의 시각적 식별성은 다른지역의 공공시설물보다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시설물의 국가별 비교검토 (현황조사 2-6)

이태리

1. 이미지 분석

- 국민성: 낙원적이며 다소 과장적인 성격
- 건축양식: 적대리석을 주재료로 사용
- 도시색조: 배경(사물, 배경요소인 적대리석의 색조와 원색간의 조화 추구)

2. 형태분석

사적지이나 주택 및 빌딩 대부분의 구조물은 석조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때 도시공간 전체의 이미지는 웅장하고 강렬한 역동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나 무겁고 부담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반된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구적이면서 가공이 어려운 석재로 도시환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는 대체로 단조로우며 단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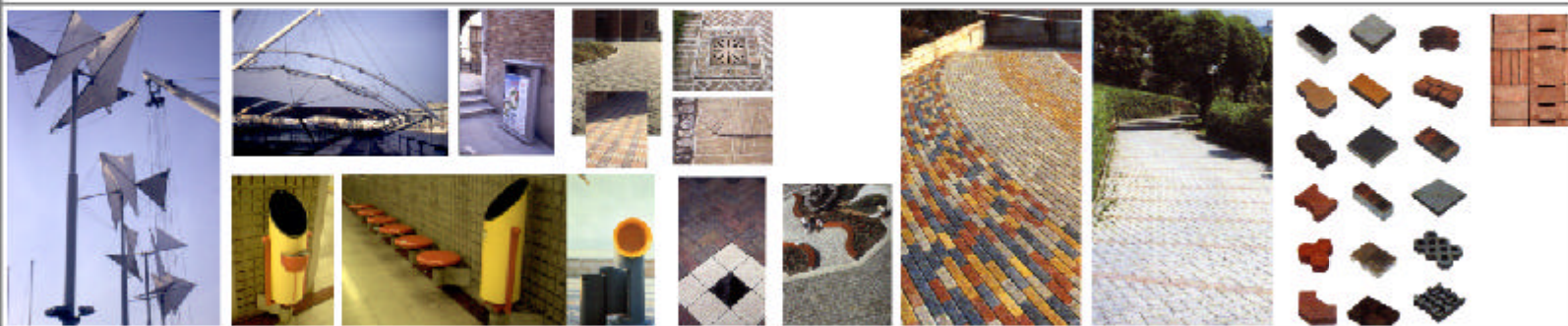
또한 구조물이 웅장해서 다른 개념의 형태적 요소의 도입이 어렵혀 사람 및 시설물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러한 일률적인 상황에서 탈피하려는 노력들이 이태리디자인의 특징을 만들어 낸 것 같다.

- 키워드: 화려한, 전통적인, 우아한, 웅장한

3. 가로시설물

도시환경에 있어서 가로시설물의 통합작업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색상으로 분포되어 있다.

가로시설물에 사용되고 있는 색조 또한 매우 다양하여 가로시설물의 대표적인 색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시설물의 국가별 비교검토 (현황조사 2-7)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1. 이미지 분석

- 국민성: 통일성과 연속성, 동질적
- 건축양식: 벽돌과 목재를 주원료로 사용
- 도시색조: 배경(배경에 비해 사물의 색조는 대비가 강한 편임)
- 선호색: 빨강, 노랑, 파랑, 주황

2. 형태분석

비교적 목재가 풍부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축물은 목재와 벽돌로 이루어져 있다. 높은 교육수준과 일상생활에서의 필요한 가구류, 식기류, 조명, 기기류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일반가정에서도 볼수 있는 현대 디자인의 명품들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디자인환경에 젖어있는 이들은 그들 고유의 통일성있는 이미지와 국가자체의 노력으로 복잡하지 않으며 명쾌하고 단순한 그리고 자연의 고마움을 지키고 보존하는 실 기능적 사고를 나타내고 있다.

- 키워드: 간결함, 단순 정적함, 질도있는 자연미
- 형태이미지: Casual, Clear, Unity, Identity, Homogeneity

3. 가로시설물

도시환경에 있어서 가로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통합적 이미지로 형성되어있다. 원색적인 색상에서 표현될 수 있는 유럽피안 칼라적 느낌과 현대미를 추구하는 간결, 단순한 풍으로 환경시설물의 전 영역에서 실험적인 디자인의 형태들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타 유럽국가들과 특이한 부분이라 하겠다.



환경시설물의 국가별 비교검토 (현황조사 2-8)

스페인

1. 이미지 분석

- 국민성: 열정, 낙천적이며, 전통적
- 건축양식: 석재, 대리석을 건물의 주제로 활용
- 도시색조: 배경(사물, 배경요소인 대리석의 색조와 원색간의 조화 추구)
- 선호색: 빨강, 파랑, 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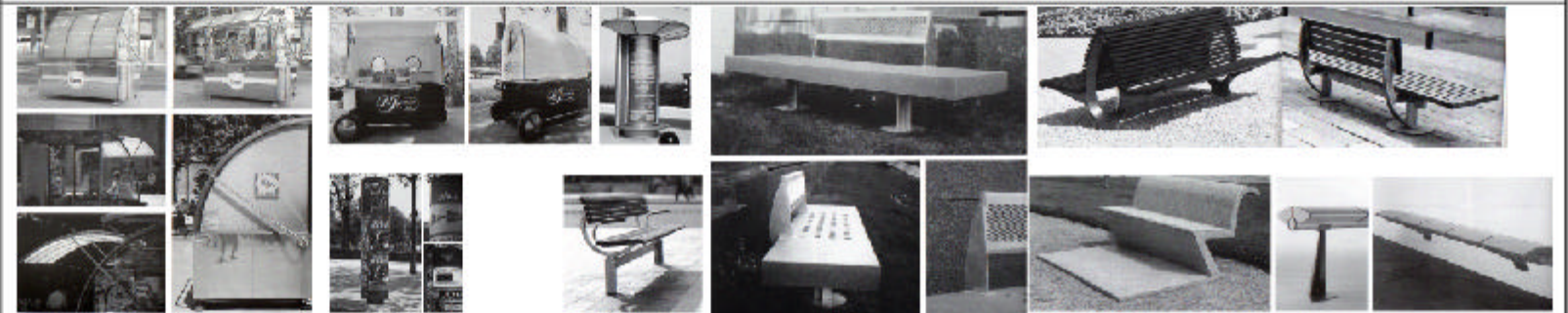
2. 형태분석

1992년 올림픽을 계기로 스페인(마르셀로나 중심)의 전 지역에서는 다시금 그들의 독자적 문화세계의 우월성을 표현하려 하고 있다. 현재에도 과거의 퇴보, 퇴색적이었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디자인, 건축, 환경에서 낙천적이며 열정적인 이들은 기후관계로 인한 느슨한 분위기 즉 비효율적인 분위기를 생산, 경제적 측면에서 불무함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 키워드: 전통적, 화려한
- 형태이미지: Casual, Warm, Harmony, Umy

3. 가로시설물

마르셀로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환경시설물들은 전반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며 유명 디자이너들에 그들의 환경시설물 영역에 디자인을 의뢰하고 발전시키고 있으며 현대적 감각과 전통적 이미지를 조화롭고 새로운 형태의 모습들로 표출시키고 있다.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귀엘 공원과 사탑은 전세계 사람들에게 랜드마크 유적지로 자리매김되고 있으며 후안 미로, 피카소, 달리등의 환경조형물 또한 도시의 기능을 한층더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구적이면서 가공이 어려운 석재류와 대리석을 이용한 인도와 벽은 잘 조화된 모습들은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스페인적 디자인 및 환경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3. 환경 시설물의 8개 영역별 분류

국외의 사례(11개국)에서 조사 되어진 환경시설물을 기초로 하여, 본 부분에서는 환경시설물의 특징적인 8가지의 기능적 분류를 체계화 하였다. 각 영역별로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적용가능한 품목을 주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아울러 개체별 특징과 디자인적 의미를 담고 있는 품목과 재료적 분류를 중점으로 정리하였다.

1. 랜드마크적 디자인 :

출입구의 이미지/ 모뉴먼트의 이미지/ 그지방 특유의 이미지로 구분

2.이동을 도와주는 디자인:

거점공간으로서 면, 축 그리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중 셸트류와 공공공간에서의 시설류에 대해 구분.

3. 이동의 질서를 부여하는 디자인:

자동차교통에 관한 요소의 디자인과 보도와 차도 그리고 분리와 안전으로 구분

4. 휴식을 도와주는 디자인:

두가지의 요소로 분류하여 이중포함되는 벤치류에 대한 재료적 분류와 셸트류, 파골라, 휴지통, 식수대, 공공화장실, 가판점, 그리고 전화부스에 대해 구분.

5. 자연을 응용한 디자인:

녹화장치류에 대한 특성과 재료 그리고 시스템으로 구분.

6. 빛과 조명을 연출하는 디자인:

연속경관으로서의 조명시설류와 정점을 연출하는 조명에 대해 구분

7. 도시 기능이 표출하는 디자인 :

박스류와 덮개류에 대하여 구분

가로수 지지대, 각종 sign system, 맨홀 그리고 보도블럭등으로 구분

8. 놀이의 기능적 디자인: 놀이시설에 대한 변화와 방법에서 새롭게 접근한

품목을 대상으로 구분.

환경시설물 (현황조사 3-1)

1. 랜드마크적 디자인

랜드마크는 그 지역전체를 특징지어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는 수법으로 대단히 효과가 있으며, 그 지방 주민의 자당, 화제가 되도록 의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원경으로서의 랜드마크

토지, 지역의 표식, 심벌로서 넓은 범위에서 보는 것이 가능한 산 등의 자연물을 랜드마크로 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자연의 요소가 랜드마크가 된 것으로 역사적으로 자연발생적인 것이 많다.

• 중경으로서의 랜드마크

지역레벨에서의 표식, 심벌되는 타워, 빌딩 등의 큰 건조물

• 근경으로서의 랜드마크

가로구역, 도로, 광장레벨에서의 표식, 심벌이 되는 모뉴먼트, 게이트, 심벌, 사인 등의 장치물



A : 출입구(Gate)의 이미지

- 프랑스의 지아 출입구, 포름데알 지아출입구
- NY의 공공 공간내의 지아출입구
- 독일 뒤셀도르프 지아출입구

B : 모뉴먼트

- 프랑스의 라데팡스, 에펠탑
- 일본의 도시게이트, 역 앞의 심벌모뉴먼트, 정보물라지
- 독일의 가로공간의 이미지 심벌 작업

C : 그 지방 특유의 이미지

- 독일의 지방도시 : 게이트 모뉴먼트, 상징조각물
- 일본의 지방도시의 건축상징물



환경시설물 (현황조사 3-2)

2. 이동을 도와주는 디자인

도시내의 공공교통은 각종 철도, 지하철, 버스기관 등, 사람들의 도시내의 이동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것들의 교통기관 중에 도로용지와 광장 등 외부환경을 구성하는 다른 장치물류와의 관련에서 존재하는 요소들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도로상에서의 공공 교통수단(버스·노면 전차이용)에 관계되는 요소(버스 쉼터류)나 출입구 공공 공간에 출현하는 지하철 쉼터류가 주된 요소이다.

가. 면의 개성을 구성하는 요소

나. 축의 개성을 구성하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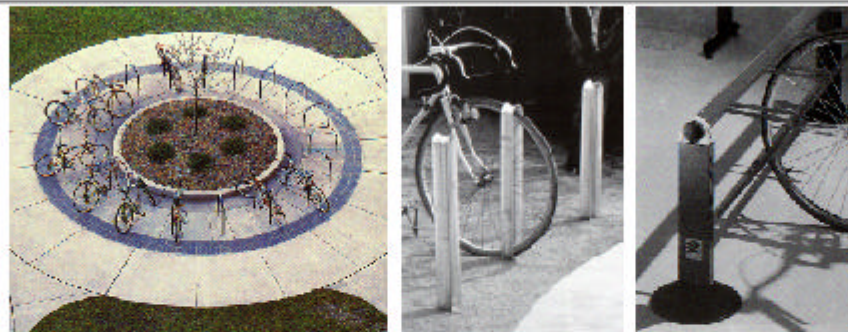
다. 이동의 심마리를 구성하는 요소

A : 공공교통 시설의 디자인

- 유럽, 미국, 일본의 대표적 사례들

B : 택시, 버스, 지하철의 쉼터류

- 서독 함부르크
- 미국 볼티모어 찰스센터
- 프랑스의 버스 쉼터
- 독일의 택시, 버스 쉼터류



환경시설물 (현황조사 3-3)

3.이동 질서를 부여하는 디자인

가. 자동차 교통에 관한 요소의 디자인
신호기나 교통표시류는 가장 기본적인 스트리트퍼니처의 하나이다. 또 그 기능적인 특질에서부터 규격화와 표준화가 필요시 되는 스트리트퍼니처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설계에 의한 양산품이 전국에 설치되고, 가장 일반적인 도로경관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 형태는 단일체로서의

나. 보도와 차도의 분리, 안전 등에 관한 요소의 디자인



A : 자동차 교통에 관한 요소
(인도와 차도)

- 미국,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의 대표적 사례를

B : 가드레일과 바리케이드, 펜스
- 미국, 스페인, 일본, 프랑스의 전일지역

C : 옴프(Hump)

- 미국, 일본의 사례의 고속도로

D : 방음벽

- 미국, 일본, 스페인, 독일의 아우토반

E : 중앙분리대

- 미국, 일본의 도시고속도로 지역

F : 신호등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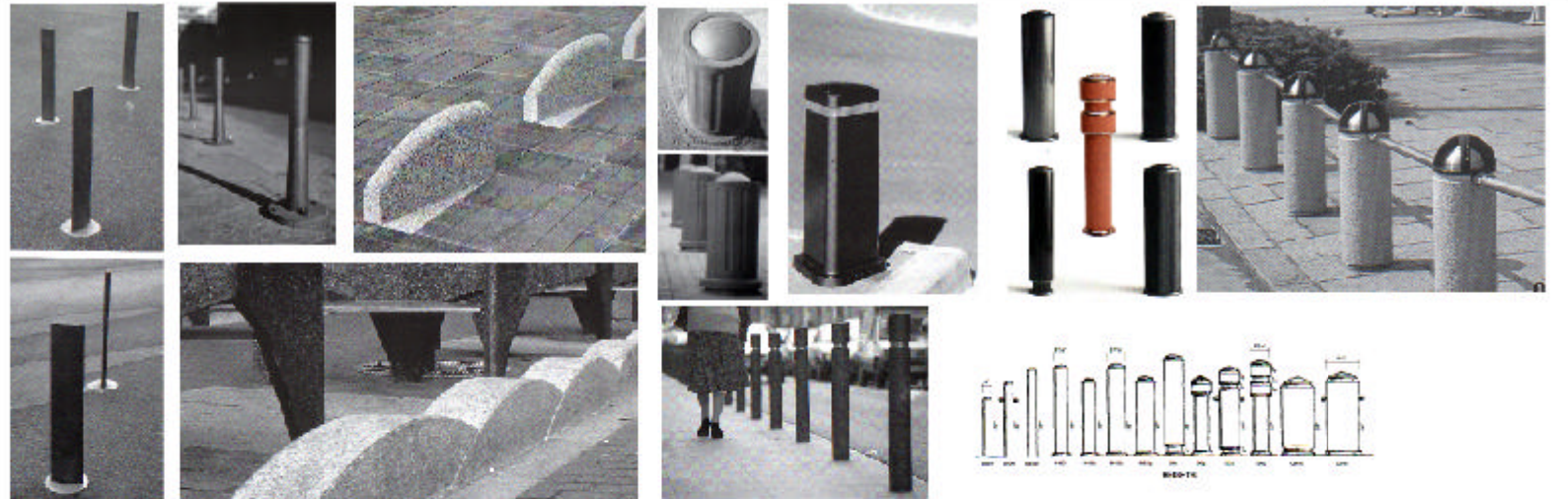
- 미국, 일본, 스칸디나비아, 독일의 울름

G : 장애인을 위한 System

- 미국, 일본, 프랑스의 공공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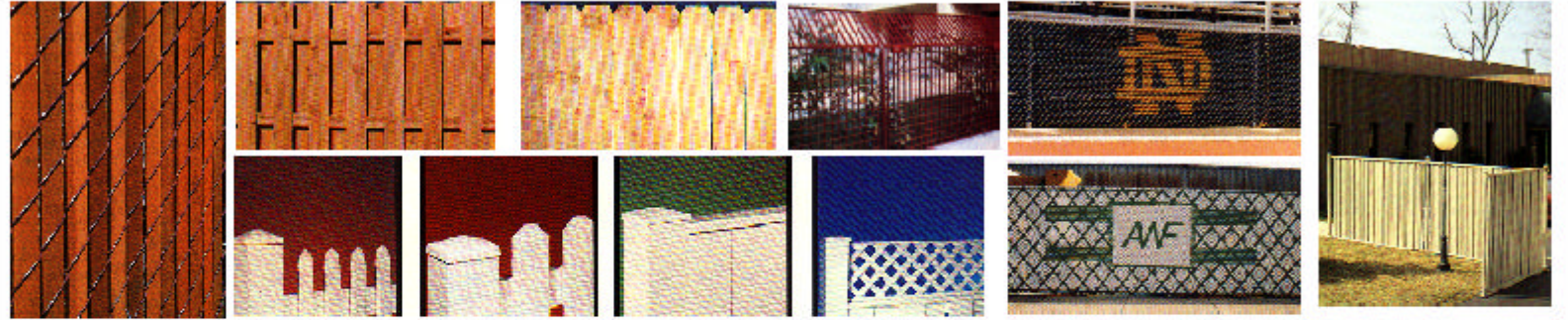
H : 블럭드

- 미국, 일본, 스페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환경시설물 (현황조사 3-3)

3.이동 질서를 부여하는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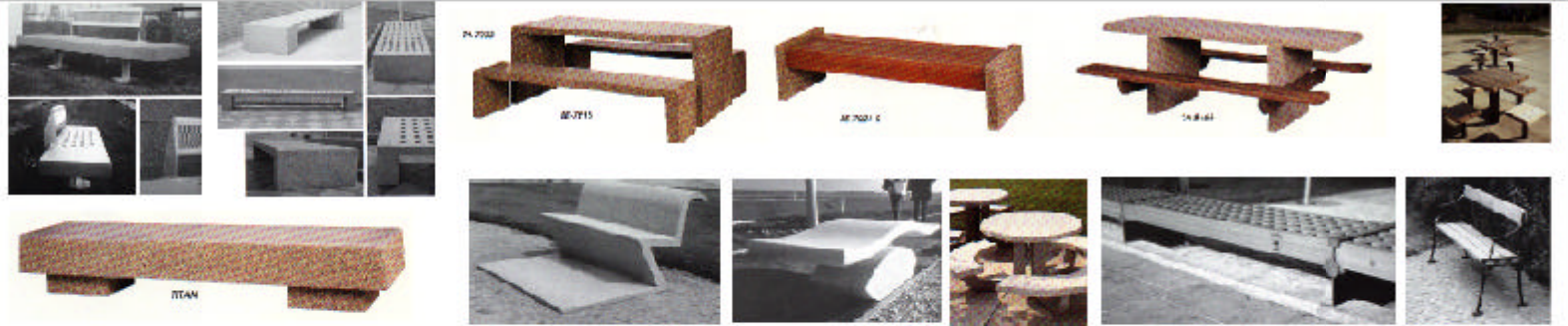


환경시설물 (현황조사 3-4)

4. 휴식을 도와주는 디자인

가. 잠시 쉬는 요소의 디자인

사람들의 옥외생활을 도와주는 요소중에서도 잠시쉬는 요소 - 휴게계의 디자인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 환경에 친숙함을 가지게 하기 위한 중요한 것으로 주된 대상요소는 벤치, 스푼, 옥외테이블, 쉼트, 파골라 등을 들 수가 있다.



나. 생리적 욕구를 도와주는 요소의 디자인

생리적 욕구를 도와주는 요소로서는 식수대, 세면대, 공중변소 외에 휴게의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쓰레기통, 재떨이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

다. 그 외의 요소의 디자인

그 외의 요소로서 자동판매기, 매점 등 사람들의 옥외생활에 편리성을 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A : 벤치류

- 미국, 유럽의 대표적 제조업체 (50여 업체)

B : 쉼트류

- 미국,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대표적 사례

C : 파골라

- 유럽, 일본의 지역의 대표적 사례

D : 휴지통 & 식수대

- 미국, 유럽의 대표적 제조업체 (30여 업체)

E : 공공 화장실

- 일본, 스페인, 영국

F : 가판점

- 유럽의 전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20여 업체)

G : 전화부스(Booth)

- 유럽, 일본, 미국



환경시설물 (현황조사 3-4)

4. 휴식을 도와주는 디자인

벤치류



환경시설물 (현황조사 3-4)

4. 휴식을 도와주는 디자인



막 구조물



섀드루



환경시설물 (현황조사 3-4)

4. 휴식을 도와주는 디자인

휴지통

● 나무
● 플라스틱
● 금속



식수대

● 금속



환경시설물 (현황조사 3-4)

4. 휴식을 도와주는 디자인

전화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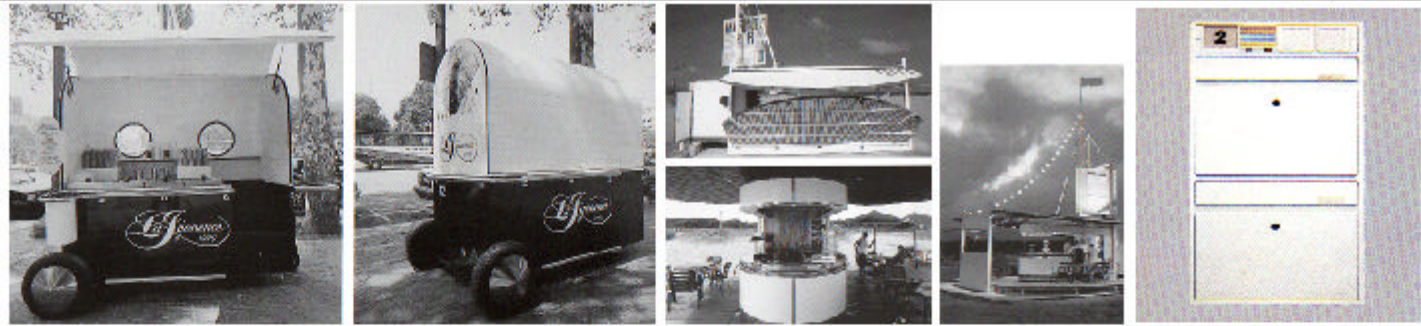


공공 화장실



환경시설물 (현황조사 3-4)

4. 휴식을 도와주는 디자인



환경시설물 (현황조사 3-5)

5. 자연을 응용한 디자인

가. 녹화장치의 역할

녹화장치의 효용은 여러가지지만 대별하면 다음의 세가지가 있다.

실용기능 - 시각적 차폐, 물리적 구분, 차광, 방음, 흡음, 방풍

생태기능 - 온도조절, 습도조절, 공기 성분 조정

경관기능 - 미관, 수경, 심리적 안식감, 공기성분 조정

경관기능 - 미관, 수경, 심리적 안식감, 쾌적성, 랜드마크 사인

A : 녹화장치

- 미국의 30여 제조업체와 유럽을 중심으로

B : Street Furniture System

- 독일, 스웨덴,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6. 빛과 조명을 연출하는 디자인

공공 공간에 있어 빛을 만들어내는 요소, 즉 조명 시설은 빛의 확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 공간의 많은 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것 자체의 스케일감·분포·설치상황과 서로 어울려 공간전체의 경관적인 영향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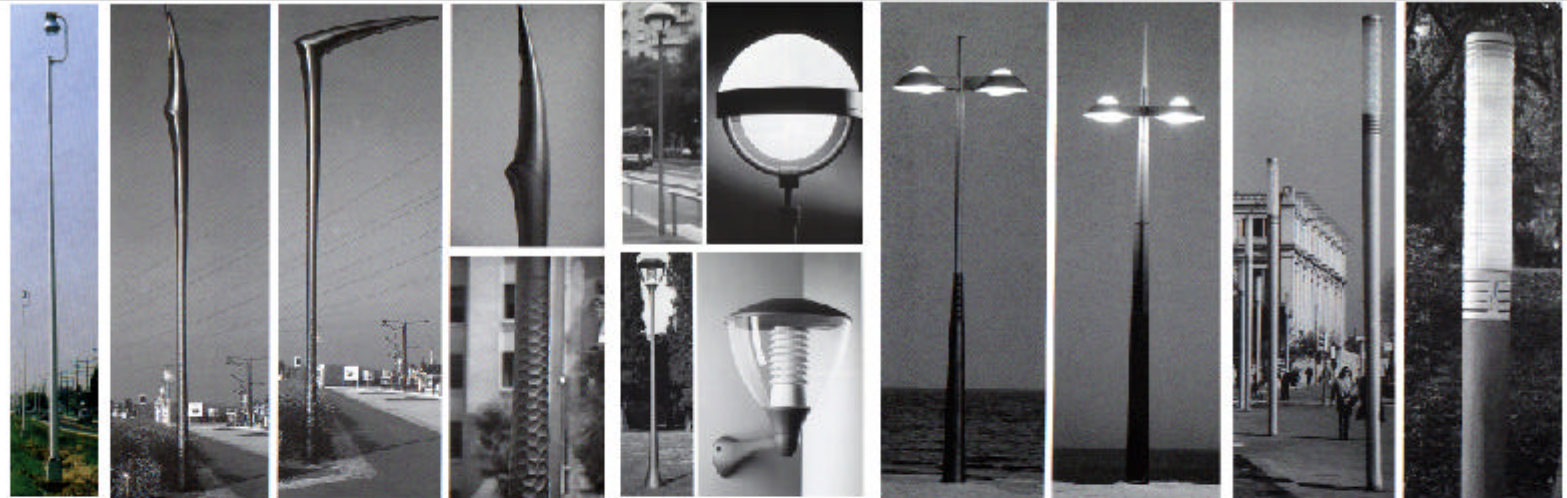
가. 연속경관을 만드는 조명시설의 디자인

- (1) 연속에 의한 빛의 경관
- (2) 연속에 의한 공간축의 현재화(顯在化)
- (3) 연속에 의한 형태의 현재화(顯在化)



나. 포인트를 넣는 조명시설의 디자인

- (1) 랜드마크로서의 조명시설
- (2) 주변에 장소를 만드는 조명시설



A : 각로등 체계

- 유럽 5개국 (스페인, 아테리, 프랑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미국(NY, LA),
- 일본의 대표적 사례들

B : 지역성, 고유성을 위한 조명등 System

- 독일, 미국, 프랑스를 중심

C : 랜드마크의 심플

- 일본, 스페인, 독일, 미국을 중심

환경시설물 (현황조사 3-6)

6. 빛과 조명을 연출하는 디자인

가로등



랜드마크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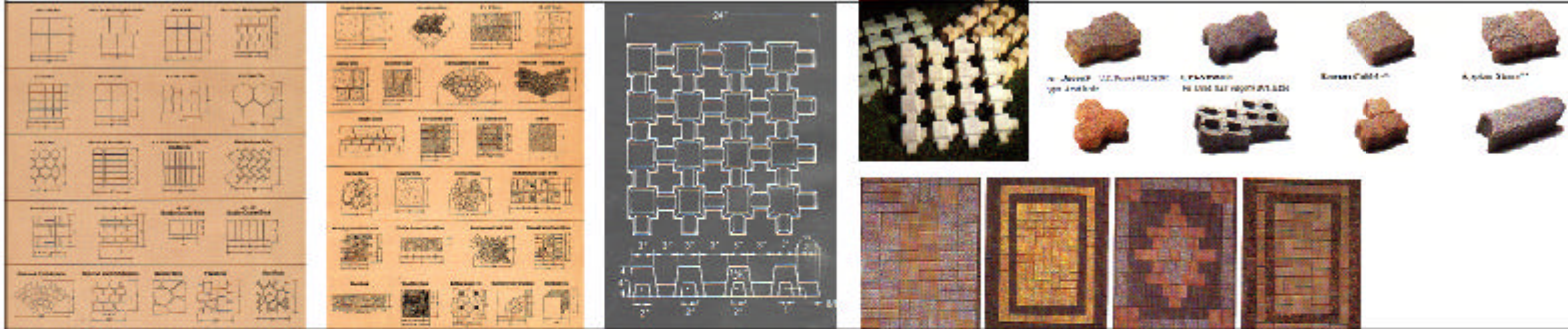


환경시설물 (현황조사 3-7)

7. 도시의 기능이 표출하는 디자인

도시 기간시설의 그 유지관리의 필요에 의해서 도로에 설치되는 장치류는 배전상자에 대표되는 박스류와 맨홀이나 맨홀의 뚜껑류로 크게 나누어진다.

가. 박스류의 경관조와 수법
나. 뚜껑류의 경관조와 수법



A : Sign System

- 영국과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B : 맨홀

- 미국의 제조업체를 중심
(20여 업체)

C : 가로수 지지대

- 미국의 제조업체를 중심
(10여 업체)

D : 가로수 덮개류, 드레인

- 미국의 제조업체를 중심
(10여 업체)

E : 보도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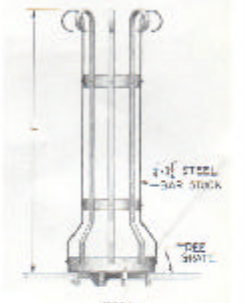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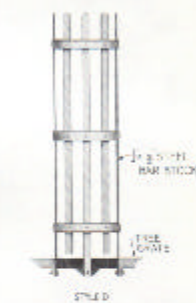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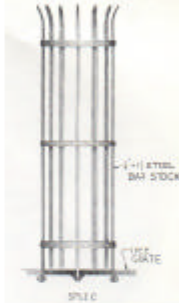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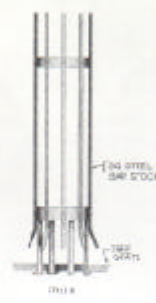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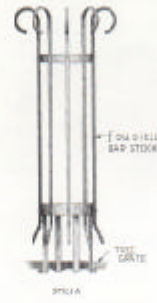
- 미국, 일본, 이태리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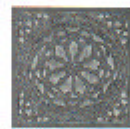
환경시설물 (현황조사 3-7)

7. 도시의 기능이
표출하는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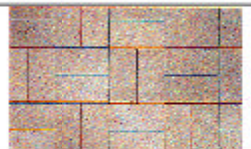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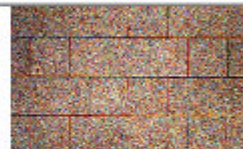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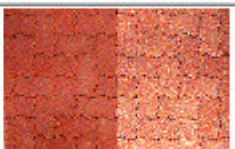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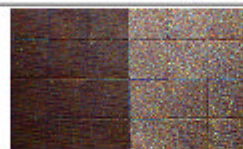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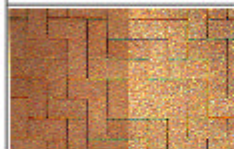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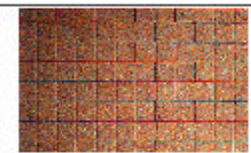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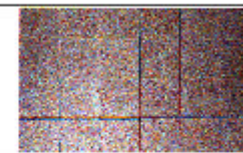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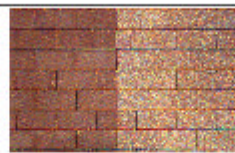
가로수 지지대



맨홀



보도블록



환경시설물 (현황 조사 3-8)

8. 놀이의 기능적 디자인

- 놀이터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 놀이방법의 변화
- 놀이터·공원을 새롭게 인식하는 변화
- 새로운 유구의 지향에 대한 변화



A : 놀이터와 공원시설

-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20여 업체)



제 5 절 디자인 적용과 사례분석

1. 적용과 분석

본 절에서는 환경시설물을 창출하는 디자인의 8가지의 요소의 디자인에 대해서 자료수집 단계에서 취합한(Catalog, C·D... 등)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환경시설물의 디자인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현재의 상황에서 최근에 설치된 시설물을 분석함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며, 우리의 현실에서 필요한 부분(또는 품목)을 그 대상으로 정하였다.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특히 랜드마크적 디자인의 사례는 도면과 정리,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취합이 어려웠던 관계로 좋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랜드마크적 디자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2개의 아이টে를 선정하여 제품의 특성과 재료 그리고 가능성(디자인 힘)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31가지의 디자인 품목들을 선정하여 개개의 디자인의 특성과 재료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환경시설물의 설치된 사례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리라 판단된다. 아울러 선택된 시설물들이 어떠한 과정에서 제작되었으며, 설치되어진 상황을 미루어 보아, 우리의 현실의 문제점과 사고, 그리고 이미지의 정리와 통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창출하고 있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정부(지방단체, 정부관련단체... 등)의 노력, 민간기업의 노력과 이미지 창출을 위한 가치확립-등, 산재해 있는 현실에서 탈피하여 재정리, 재창출하여 우리고유의 환경시설물들이 월의 생활 공간에서 어우러져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자구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환경시설물의 고유성 창조를 위하여 우리 고유의 민속/토속/풍토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버네쿨러 디자인(Vernacular Design)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리 분석된 자료들-그 원천적 힘을 바탕으로 서구의 환경시설물의 사례·분석과 연계하여 보면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건축가 프랭크게리에 의해 제안된 버스정류장이다.
독일 Braunschweiger Platz에 위치한이 셸트류는
우선 강한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열린공간을 연출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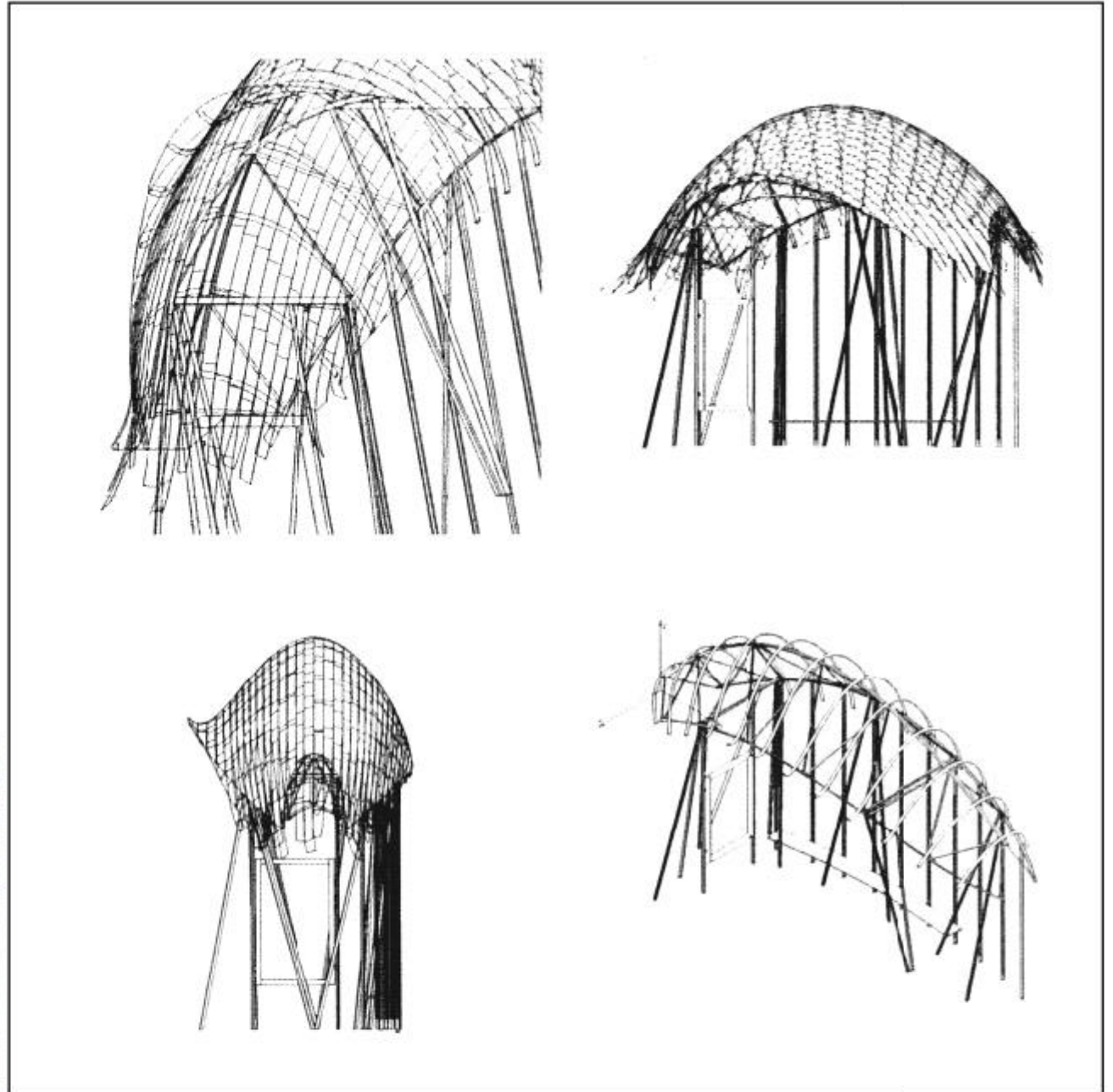
메탈 프레임의 구조가 천장과 지지대를 이루고 있으
며 전체적인 칼라는 흰색, 녹색, 그리고 청색의 조화
를 이루고 있다.

공룡의 뼈 구조(특히 등뼈가 튀어 있는)처럼 지붕이
형성되어 있고 지붕의 덮개는 비늘(또는 가죽)이 겹
쳐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그의 실내조
명-물고기와 뱀모양의 조명기구)

한국의 초가지붕의 곡선에 나와지붕 덮개의 개념을
적용한듯한 분위기-지붕의 덮개를 지지하는 메탈프
레이드들은 동물의 다리를 연상하는듯 하다.

전체적인 이 버스셸트류의 이미지는 정체된 이미지
가 아닌 버스정류장 자체가 살아있는 그리고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며 조그만 한 부분의 디자인 시설물에서
많은 의미와 상징조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받아준 독일 도시행정 기
관과 작업을 완성시킨 제조업체(?)의 조화이며 랜드
마크적 느낌과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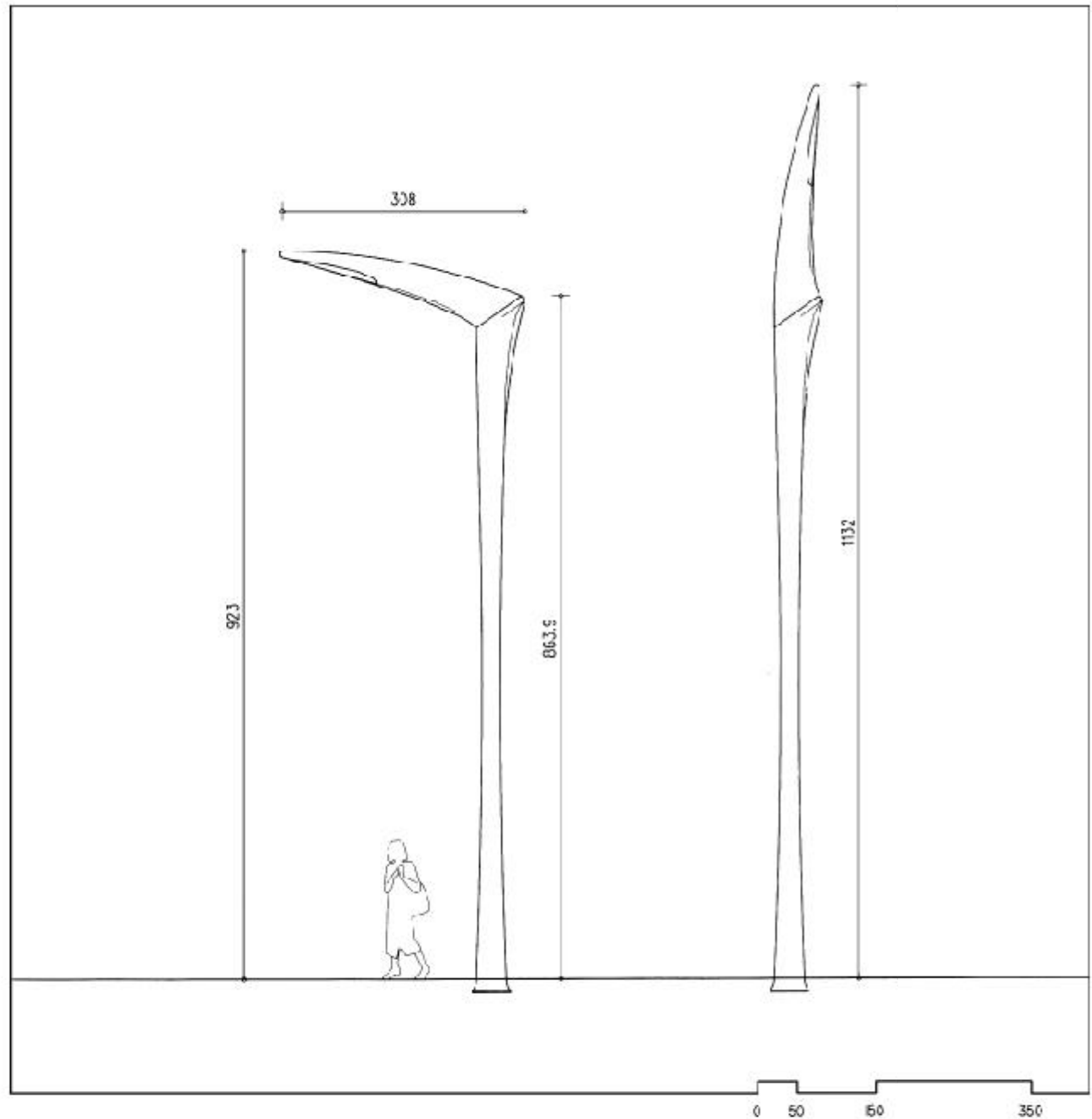
•디자이너: Philippe Starck(1991)

•제조회사: JCDECAUX, S.A. Mobilier Urbain

•치수: Total daytime height 1,132cm
Total nighttime height 923cm
Light source height 900cm
Night span 308cm

•제품설명: 도심지역에 알맞는 램프 기둥. 주된 특징은 조명기구의 회전이며, 낮시간에는 기둥의 연장에 의해 수직형이 되고 밤에는 모터로 작동되어 약 79도 기울어진다.

•특성과 재질: GS주물로 제조되고 금속느낌의 칠로 마감된 조직적 형태의 기둥. 기둥의 기저부에는 전력 구획이, 꼭대기에는 회전 모터가 내장되어 있다. 조명재료는 투명유리로 둘러싸인 70에서 250W의 램프가 있는 금속느낌의 페인트로 마감된 크롬도금된 알루미늄 합금이다. 조명은 조명기구가 밤의 기울어진 위치에 있을 때 켜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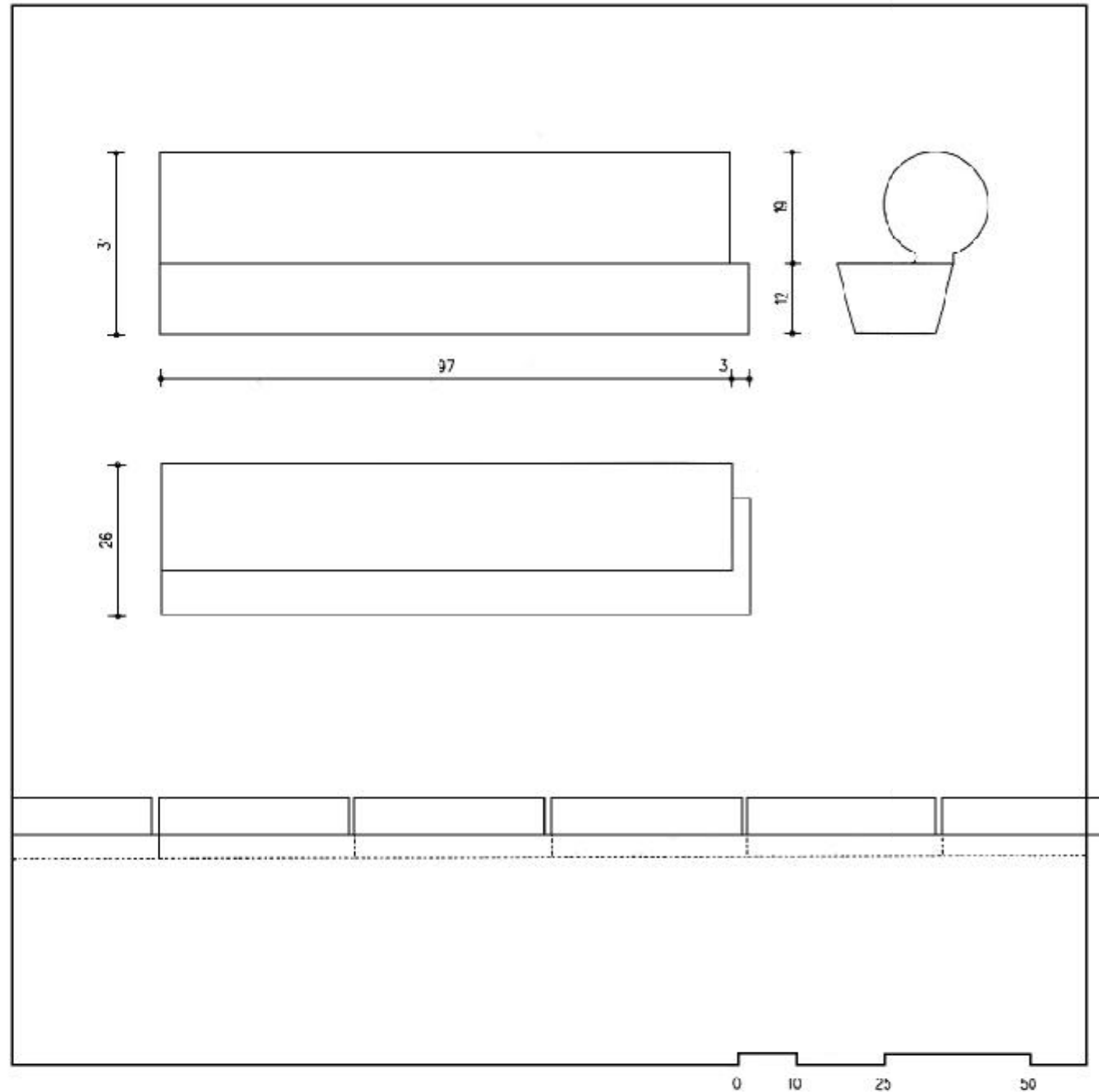
•디자이너: Helio Pinon-Albert Viaplana(1991)

•제조회사: ESCOFET 1886, S.A.

•치수: Total height 31cm
Projecting height 19cm
Lenght 100cm
Width 26cm

•제품설명: 정면부분의 각으로 구성된 면과 원형부분을 일정하게 맞추어 정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8cm의 직경의 원기둥 돌로 구성 되었으며 주 사용용도는 잔디와 꽃등을 인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특성과 재질: 개개의 조각들은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질감은 돌을 거칠게 마감한 것 처럼 처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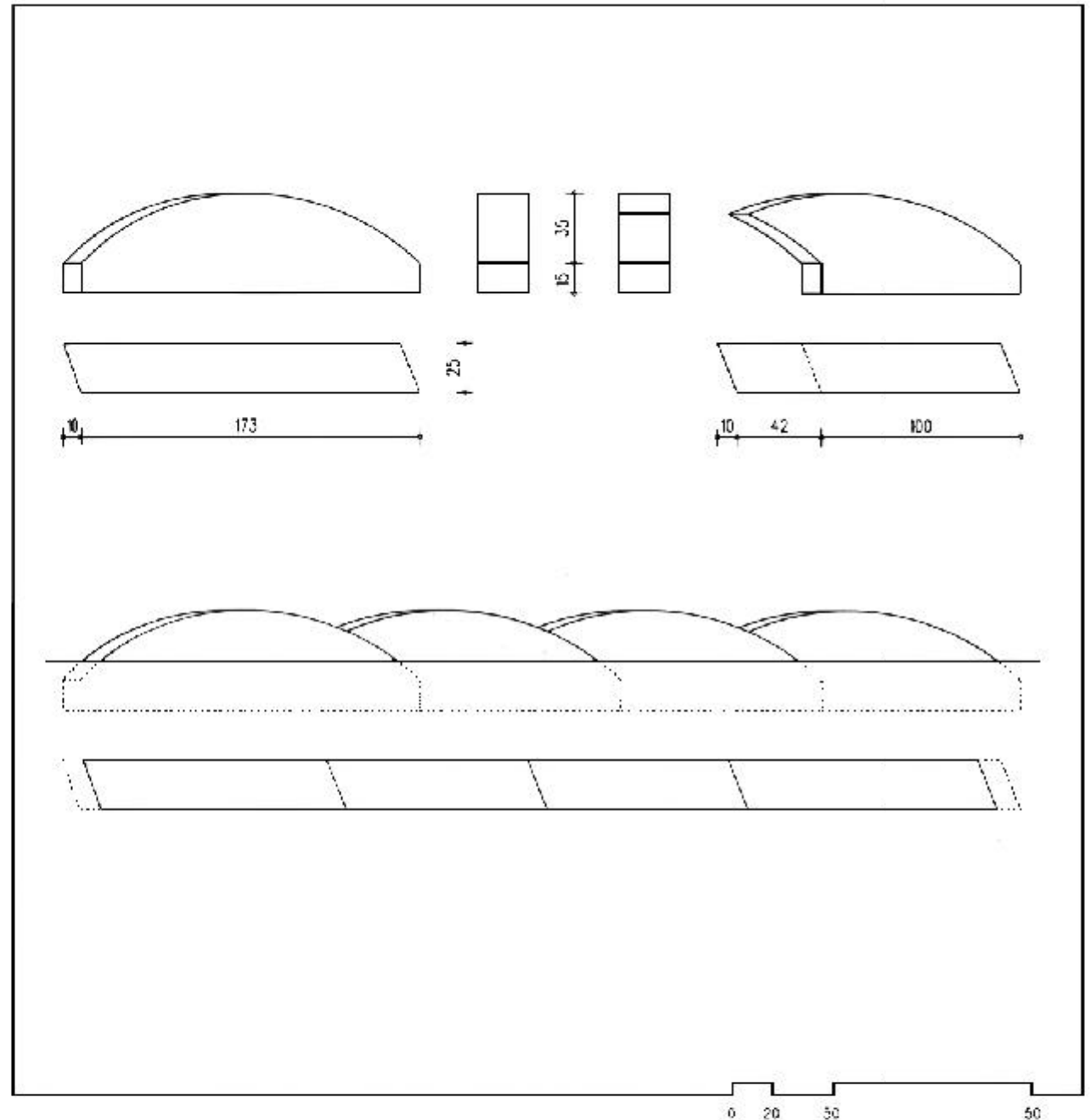
•디자이너: Josep Antone Megias(1991)

•제조회사: Canteras AGRAMAR, 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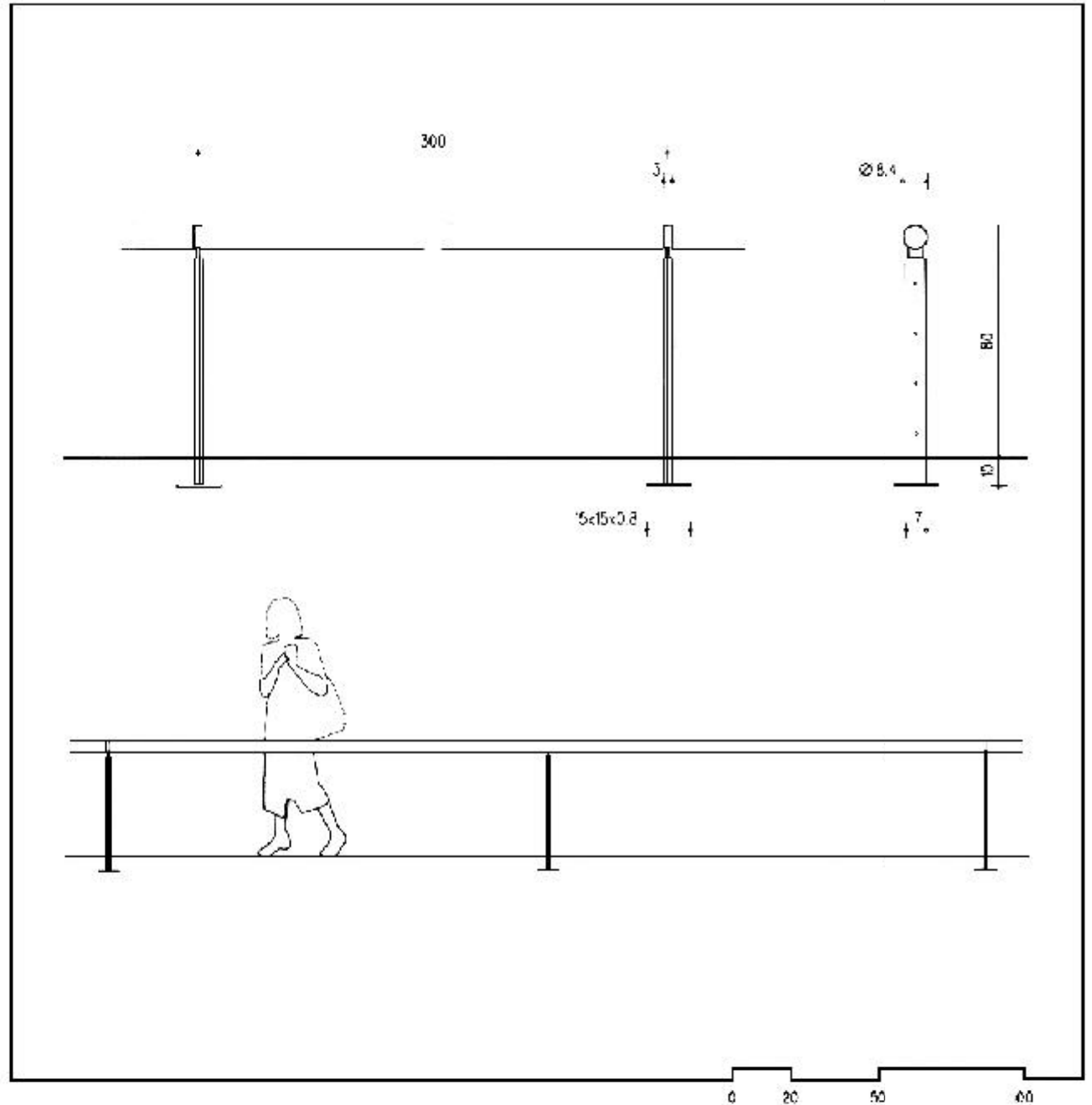
•치수: Total hight 50cm
Emerging height 25cm
Length 183cm(starting piece)
/52cm(complementary piece)
Width 25cm

•제품설명: 보행자 지역을 경계짓고 보호하기 위해 화강암으로 제작된 단순하고 세련된 제품이다.
한줄로 정렬하기 위해 겹쳐지는 모듈시스템을 이용.

•특성과 재질: 노출된 옆면이 거칠게 마감된 화강암으로 표현.
처음 시작하는 조각은 반경 135cm원주의 호형태 (활모양)
다른 조각들은 줄을 맞춰 정리하도록 서로맞춰 겹쳐지도록 한면이 잘려진 단면을 가진, 잘린 조각의 반경은 136cm.



- ◆디자이너: Montse Periel(1993)
- ◆제조회사: SANTA & COLE, S.A. Division Urbana.
- ◆치수: Support 7x1x75cm, 5x1x75cm
파이프-두께2mm, 길이3m, 직경8cm
- ◆제품설명: 외형적 표현을 최소화한 보행자용 방벽으로, 연속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 눈이 튀지 않는 방법으로 어느부분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 ◆특성과 재질: 볼트가 박혀진 스테인레스 스틸관과 지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스테인레스 스틸관의 난간, 난간은 높이와 관의 지름이 여러 종류가 있다.



•디자이너: Jean-Michel Wilmotte(1990)

•제조회사: JCDECAUX, S.A. Mobilier Urbain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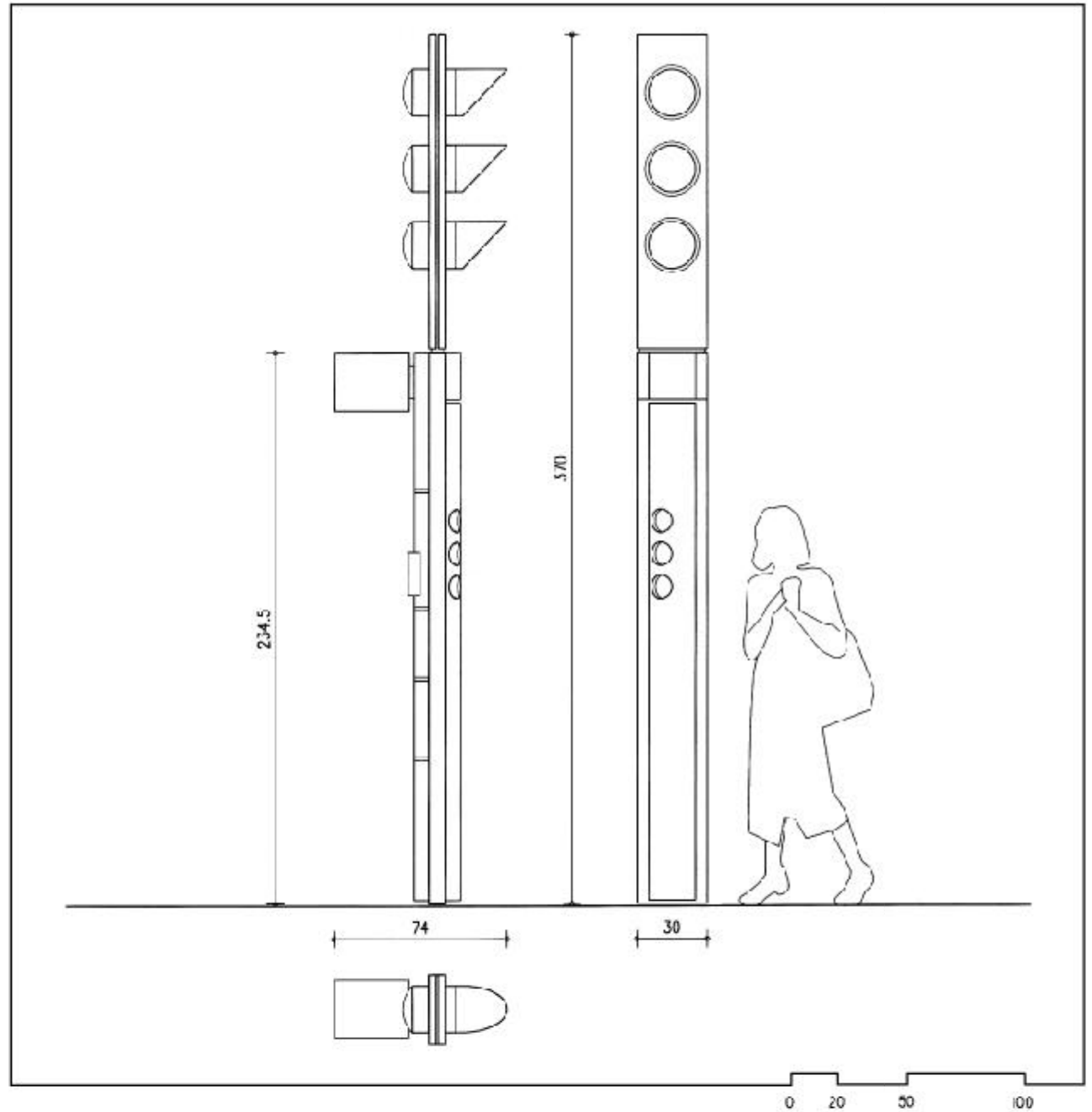
Total height	370cm
Total height pedestrian box	235cm
Total width	30cm
Total depth	74cm(including sun visor and pedestrian box)

•제품설명:

파리의 champs-Elysees가로정비 계획에 의한 재시설로 디자인 되어졌다. 이 제품은 단순성과 절제된 디자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원래의 신호등과 비교하여 보면 상당히 진보된, 현대적 이미지를 제공하지만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신호등은 3개의 주물로 구성되어있으며 3개의 신호등이 위 아래를 배열되어 있다. 윗 신호등은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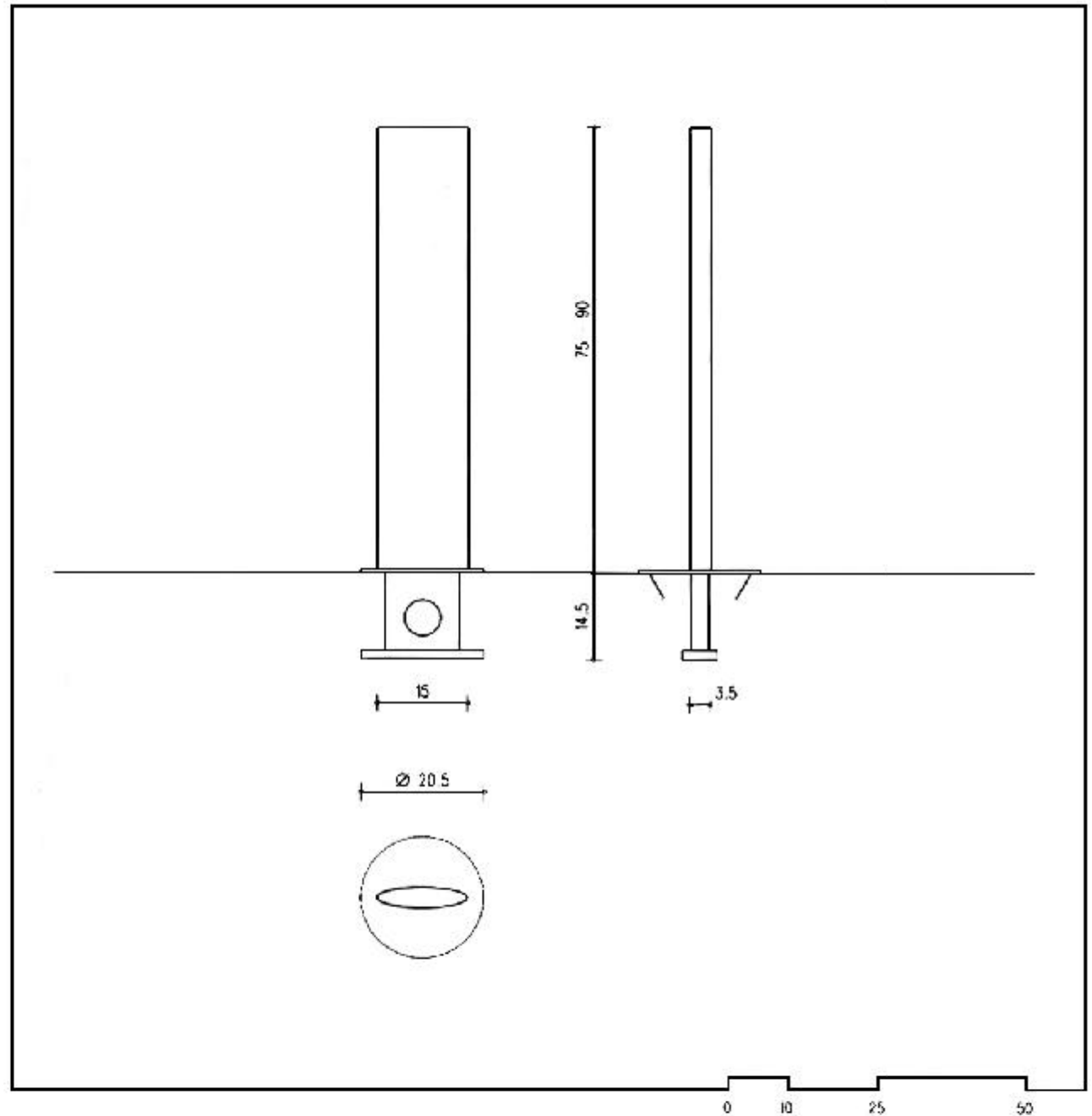
•특성과 재질:

이 신호등의 형태는 보는 각도에 따라 원기둥의 형태와 각면의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다. 주된재료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었으며, 유광스테인레스 스틸이 이 신호등의 외관 모습을 강점으로 보여지고 있다. 20cm 직경의 신호등과 형광튜브 조명이 내장되어 있다. 신호등의 기둥 중앙부분에 직경10cm의 3개의 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 보행자를 위한 2개의 신호등과 경찰을 위한 1개의 등이 배열되어 있다.



- 디자이너: LA NAVE(1990)
- 제조회사: INDUSTRIAS SALUDIES, S.A.
- 치수: Total height 89.5/ 104.5cm
(Standard/Spedcial)
Height above pavement 75/90 cm
Base 15x3.5cm

- 제품설명: 단순하고 세련된 도시품의 모양의 차량통제를 위한 타원형 블라드.
이 형태는 보는 각도에 따라 충돌의 강약에 영향을 미친다.
- 특성과 재질: 산화방지를 위한 특수칠과 검은 Oxiron으로 칠해진 타원형의 고강도 금속 주물 기둥이다.
재료는 스테인레스 스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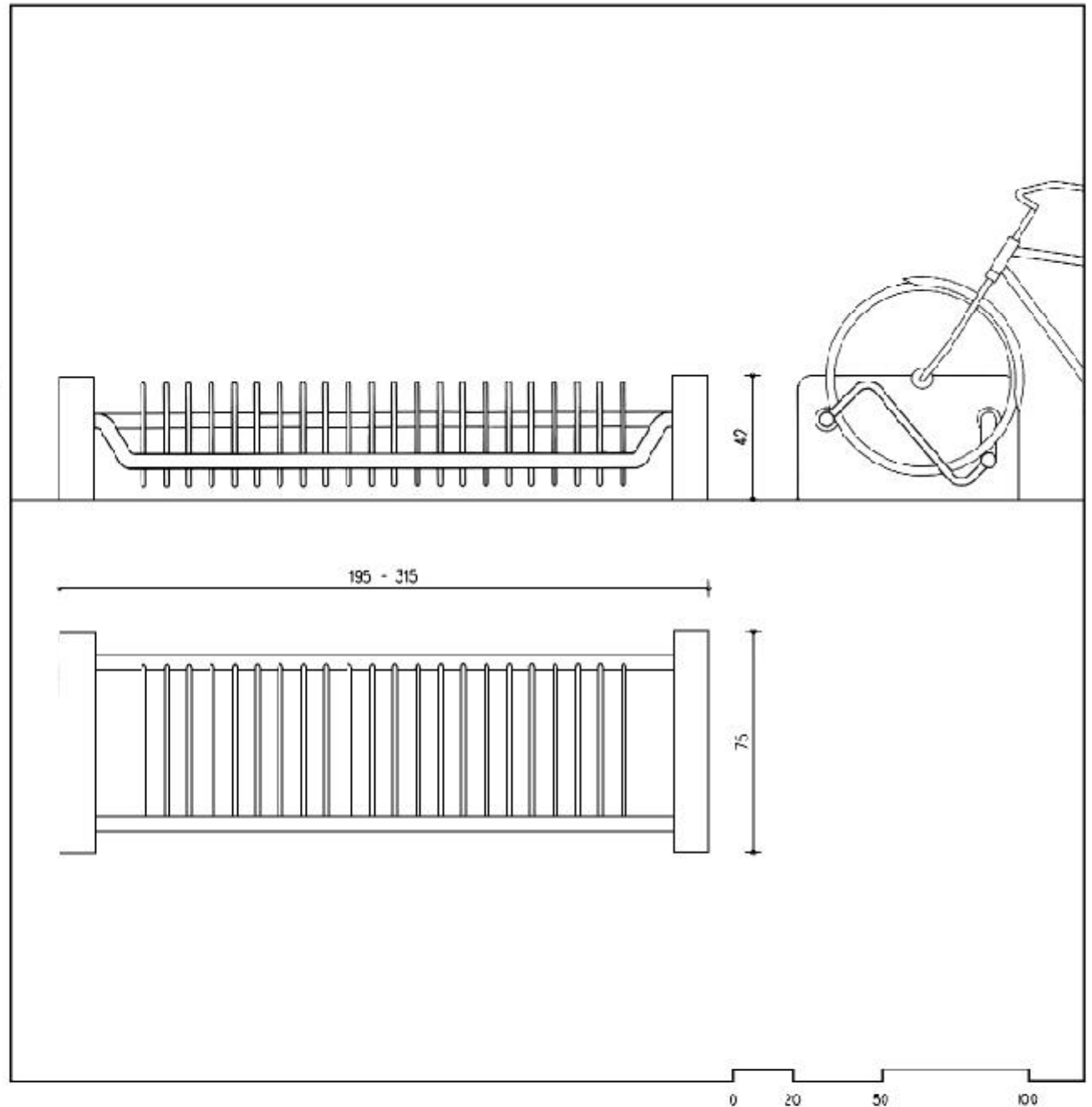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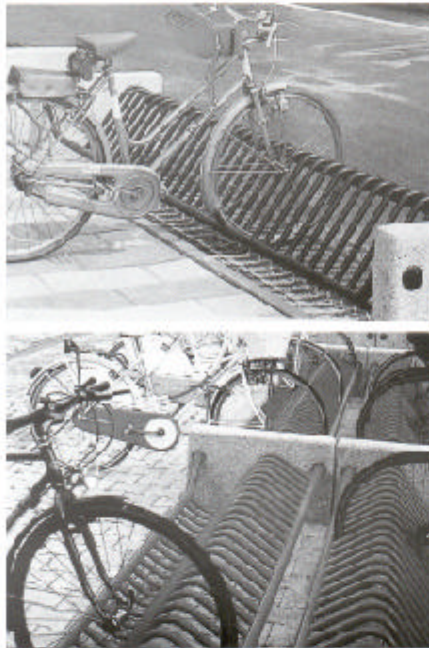
•디자이너: Alfredo Tasca(1990)

•제조회사: MEALCO, S.p.A.

•치수: Total height 42cm
Total length 195cm(5pl)/255cm(7pl)/
315(9pl)
Width 75cm

•제품설명: 두개의 콘크리트 기저부에 달린 파이프 구조에 용접된 창살형태의 금속관으로 만들어짐.
5,7또는 9개의 자전거를 수용할 수 있는 세개의 길이가 공급됨.

•특성과 재질: 주축이 되는 관(Structural tubes)은 40mm의 주물 금속관이고, 창살모양의 관은 25mm이며, 모두 열처리된 아연도금과 에나멜칠이 되어 있음. 지지대는 75x42x12cm의 sand마감된 강화 콘크리트 두 조각이며 주축이 되는 관에 이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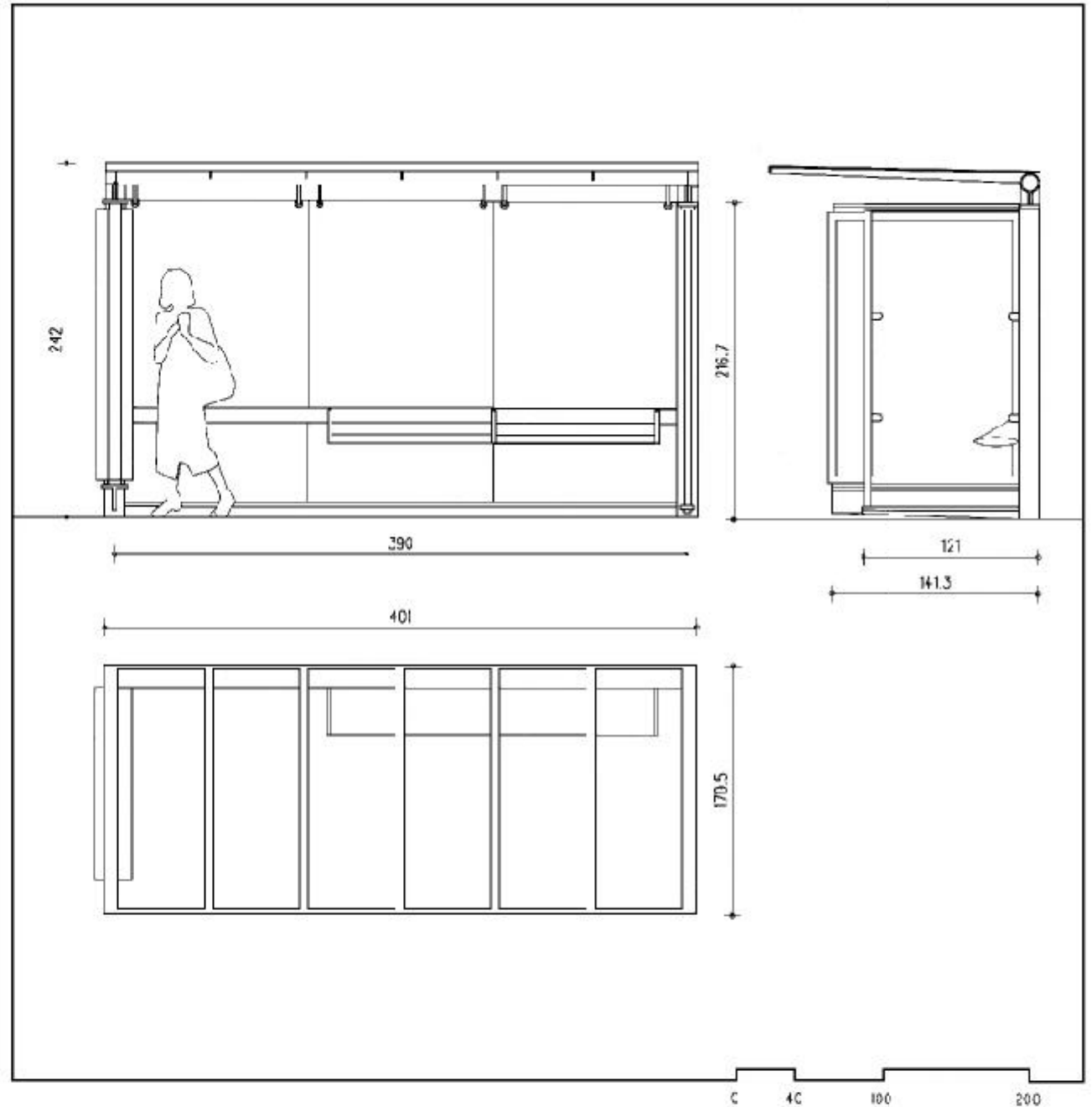
•디자이너: Norman Foster(1991)

•제조회사: JCDECAUX, S.A. Mobilier Urbain.

•치수: Shelter	Length	401cm
	Depth	170.5cm
	Total height	242cm
Board	Total	185x130cm
	Visible surface	172x116cm

•제품설명: 메탈그레이 에나멜질이 된 금속 알루미늄, 안전유리로 조합된 버스정류장 대합실. 4인용 의자와 이중양면의 광고판과 안내판이 있음.

•특성과 재질: 조립지붕 광고판과 옆면 유리판을 지탱해주는 두개의 아연도금된 금속관 기둥으로 구성된 구조. 기둥은 4인용 의자를 지탱, 뒤쪽의 유리면을 보호해주는 하나의 가로대에 의해 중앙부분으로 결합된다. 3개의 형광판 박스조명과 버스노선의 일정표가 부착.



C 4C 10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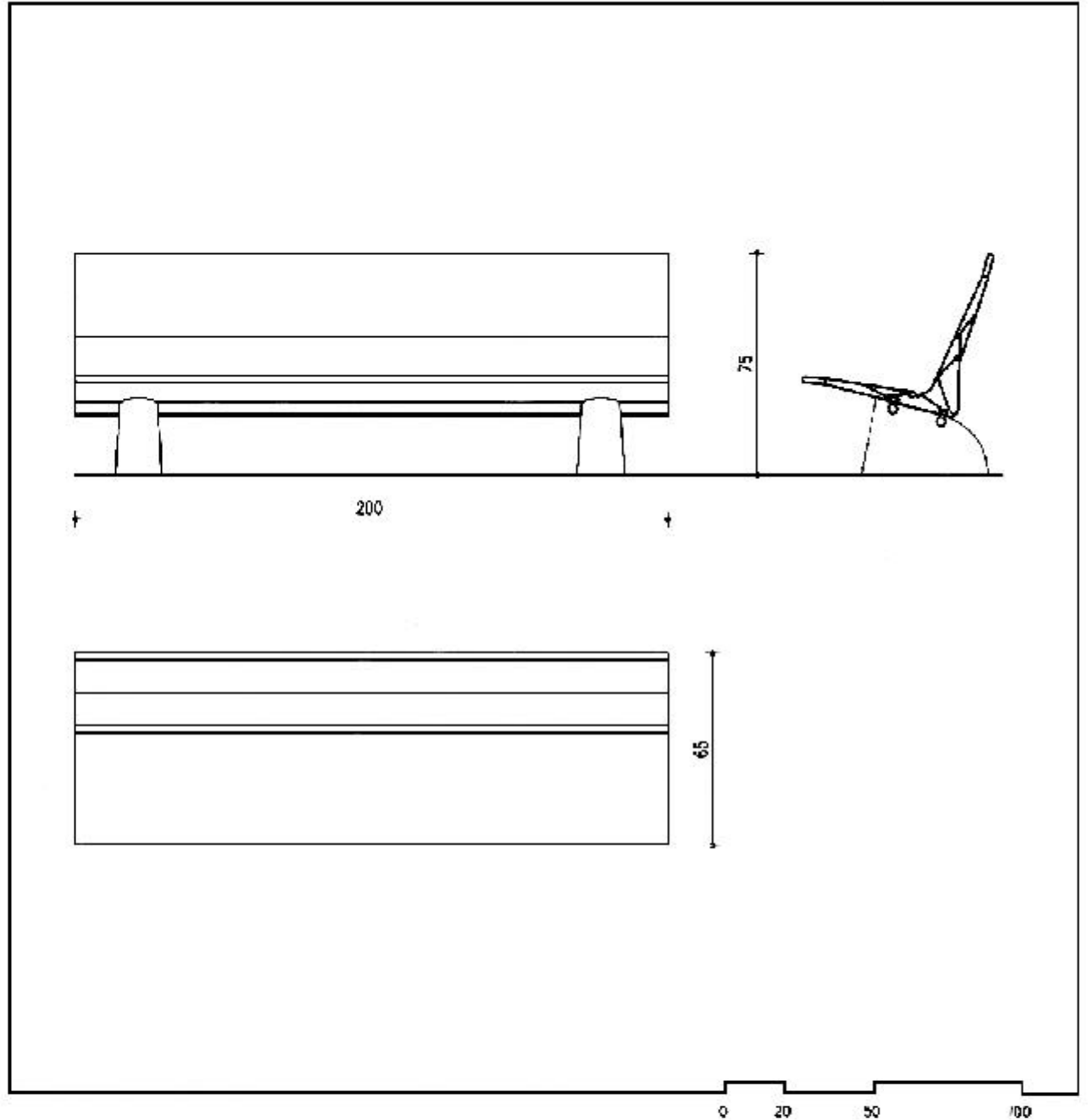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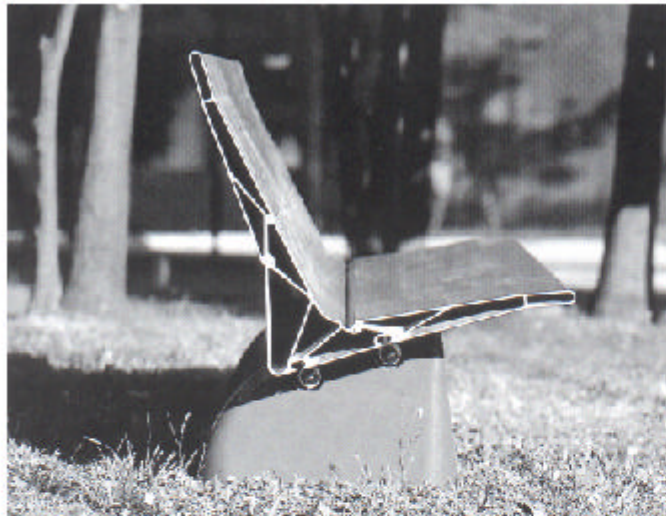
•디자이너: De Ferrari-Jacomussi-Germak-Laurini(1988)

•제조회사: ALUMIX, S.p.a. Aluhabitat Arredo Urb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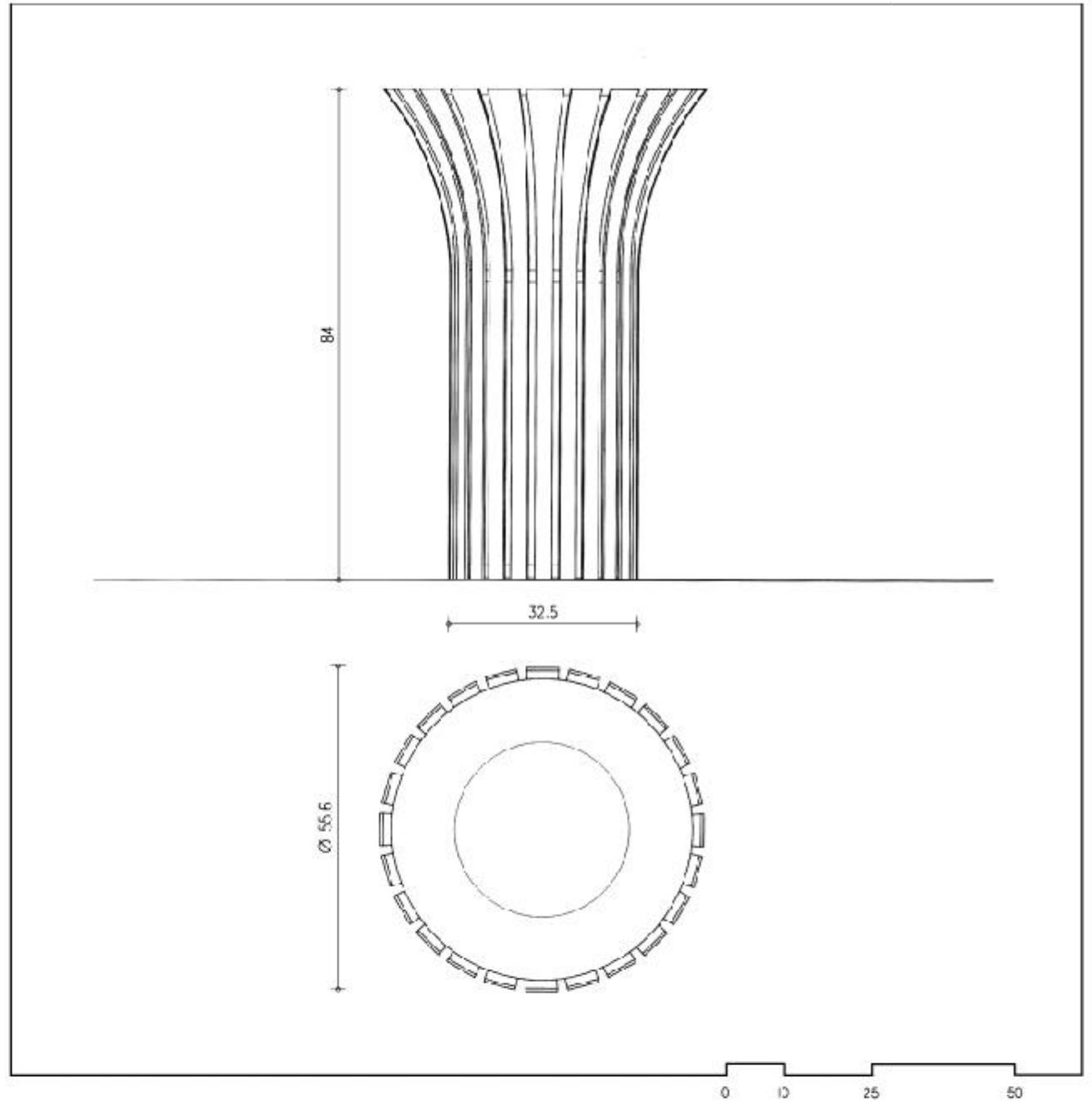
•치수: Height 38cm to seat
75cm to backrest
Length 200cm(standard),
but can be up to 6meters
Width 65cm

•제품설명: 세측면이 접합된 알루미늄 실외벤취.
최대한 편안하게 디자인된 인간공학적 굴곡을
가진 단순한 형태

•특성과 재질: 도금된 볼트류, 회색의 특수 처리된 주물,
알루미늄 지지대, 그리고 산화처리된 자연색상의
알루미늄 좌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루미늄이 사출성형을 길이 6M의 벤치가
하나의 UNIT로 만들어 질 수 있다.



- ◆디자이너: Andree Putman(1990)
- ◆제작회사: JCDECAUX, S.A. Mobilier Urbain
- ◆치수: Height 84cm
Diameter at top 55.6cm
Base diameter 36cm
Capacity 60litres
- ◆제품설명: 나팔꽃 모양의 벌어진 원기둥형 휴지통이며 몸체와 내부용기로 구성. 고전적인 파리의 휴지통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 디자인된 제품.
- ◆특성과 재질: 금속테두리틀(투입구부분) 중심으로 1UNIT의 금속판이 연결되어 형성된 몸체. 내부용기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음. 주재료는 아연도금과 열처리된 폴리에스터 코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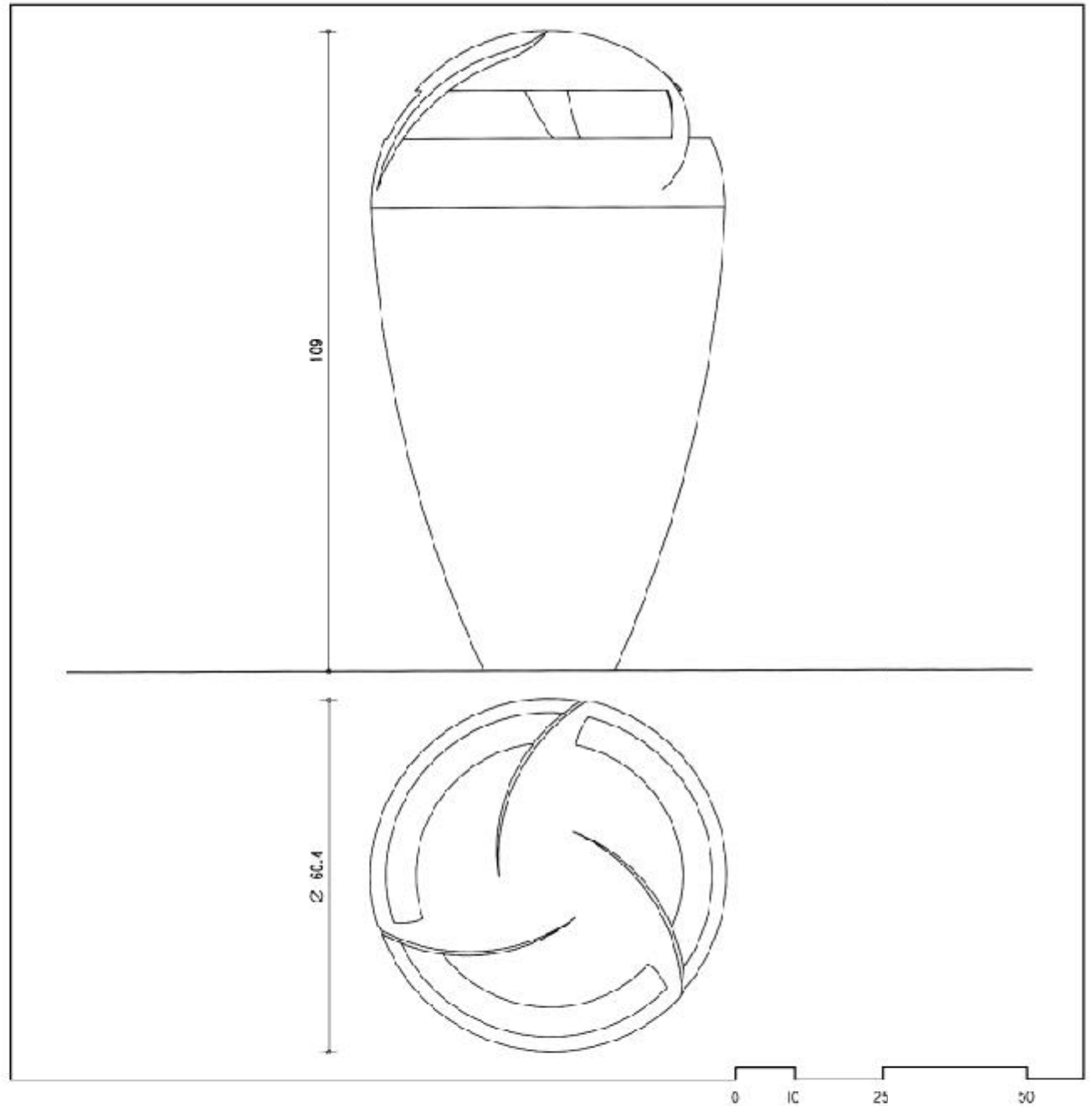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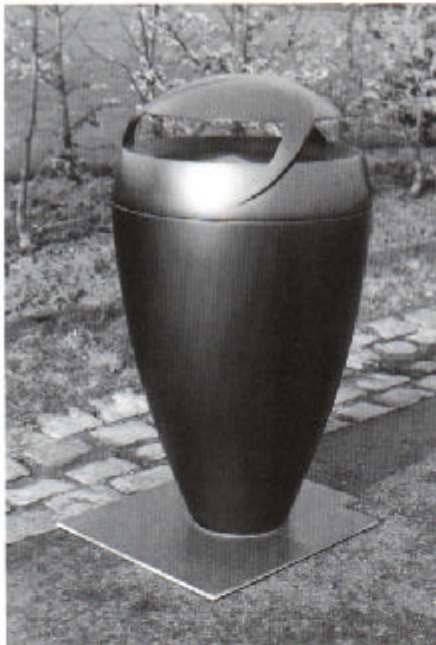
◆디자이너: Philippe Starck(1992)

◆제작회사: JCDECAUX,S.A. Mobilier Urbain.

◆치수: Height 109 cm
Diameter 60.4 cm
Capacity 80 litres

◆제품설명: 도심지역에 알맞는 미래지향적 형태를 지닌 소형의 실외 휴지통 원추형의 몸체와 투입구가 세방향인 덮개류로 구성

◆특성과 재질: 몸체의 재료 FT 25, 주물금속 아연도금처리와 폴리우레탄 페인트의 이중처리된 마감형성. 덮개는 크롬도금, AS13 알루미늄 주물. 칼라는 메탈그레이 폴리우레탄 덮개는 열고 닫을 수 있는 잠금장치. 고밀도로 구조된 폴리에틸렌의 내부용기. 바닥부분에 고정장치와 배수장치가 되어 있음.



◆디자이너: Antoni Rosello(1994)

◆제조회사: ESTEVA, S.A.

◆치수: Length 17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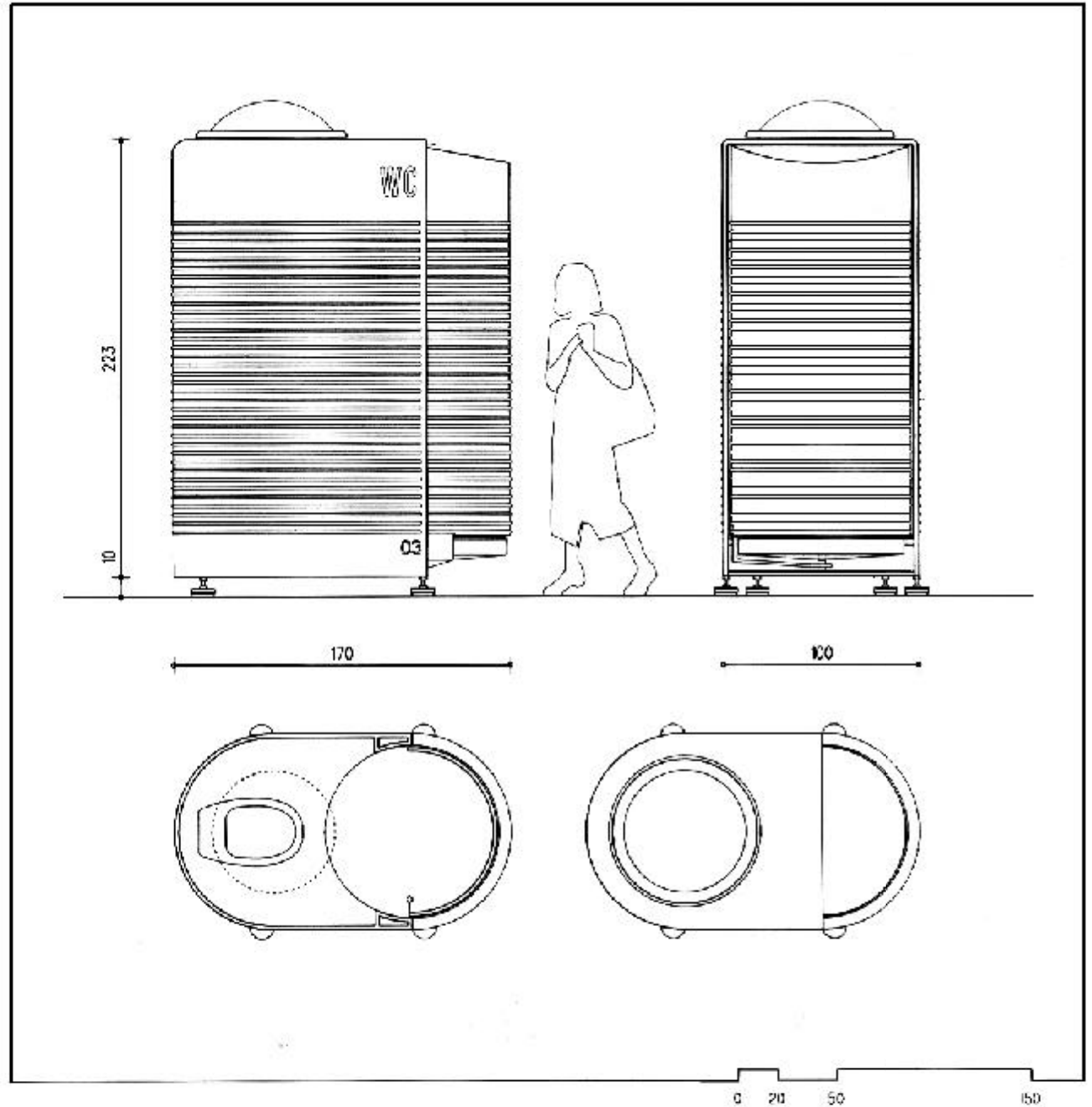
Height 233 cm

Width 10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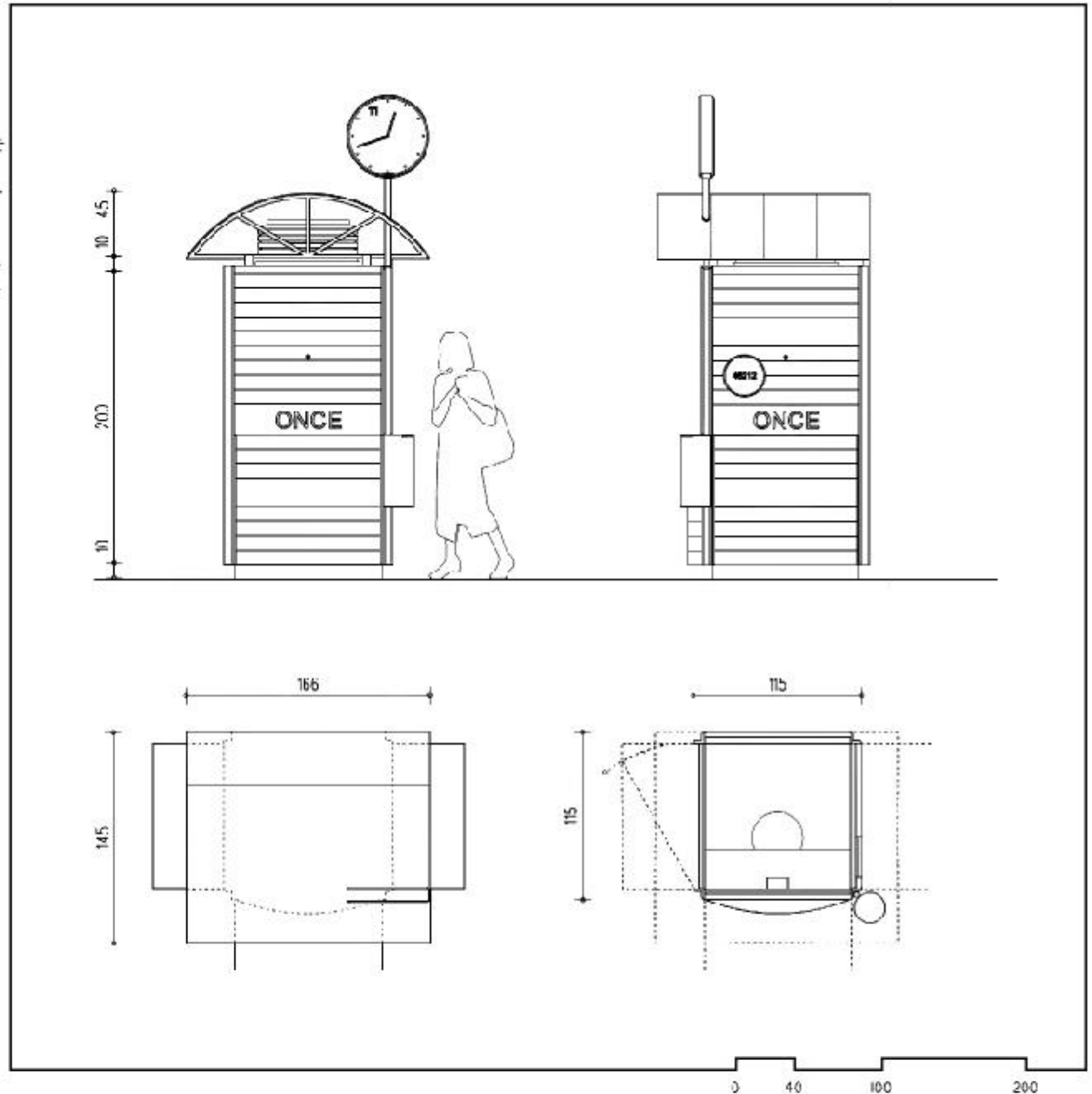
◆제품설명: 어느 장소에나 설치될 수 있는 소형의 스테인레스 스틸의 부스로 이동가능. 타원형v테로 청소하기 용이하며, 둥근 회전문은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졌다.

◆특성과 재질: 회전축을 이용한 회전문과 미끄럼을 방지하는 스테인레스 스틸의 바닥과 변기.

조명으로 사용하는 반구형태의 지붕과 화학용액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밀폐 용접된 강화유리의 지하탱크가 설치. 35mm두께의 양면 판을 구성하는 폴리우레탄과 중간층에 강화유리의 벽구조로 형성.



- 디자이너: Antoni Rosello(1986)
- 제조회사: O.N.C.E. (Organization for the Blind)Barcelona Branch.
- 치수: Height 255cm
Base 115x115cm
- 제품설명: 시각장애인을 돕기위한 O.N.C.E 복권판매를 하는 가판대.
외형상으로 소형, 초소형 건축물의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품목.
닫았을 때는 폴리에스터의 각진 기둥.
열었을때 옆부분 3면의 지붕이 작동하기 쉬운 장치로 열어 올려져서 강한 햇빛을 차단해주는 천막이 되는 또다른 모습이 된다. 곡선의 지붕은 이중 기능을 가진다.
환모양의 덮개기능과 냉방과 온방장치를 포함하는 에어컨디션 시스템을 보호하는 기능.
- 특성과 재질: 주물 알루미늄의 내구성있는 구조.
벽판은 자동진화되는 수지로 만들어진 화이버글래스의 폴리에스터.두개의 판 중간에 끼워진 40mm두께의 폴리우레탄단열재, 미끄럼 방지 고무가 깔린 내부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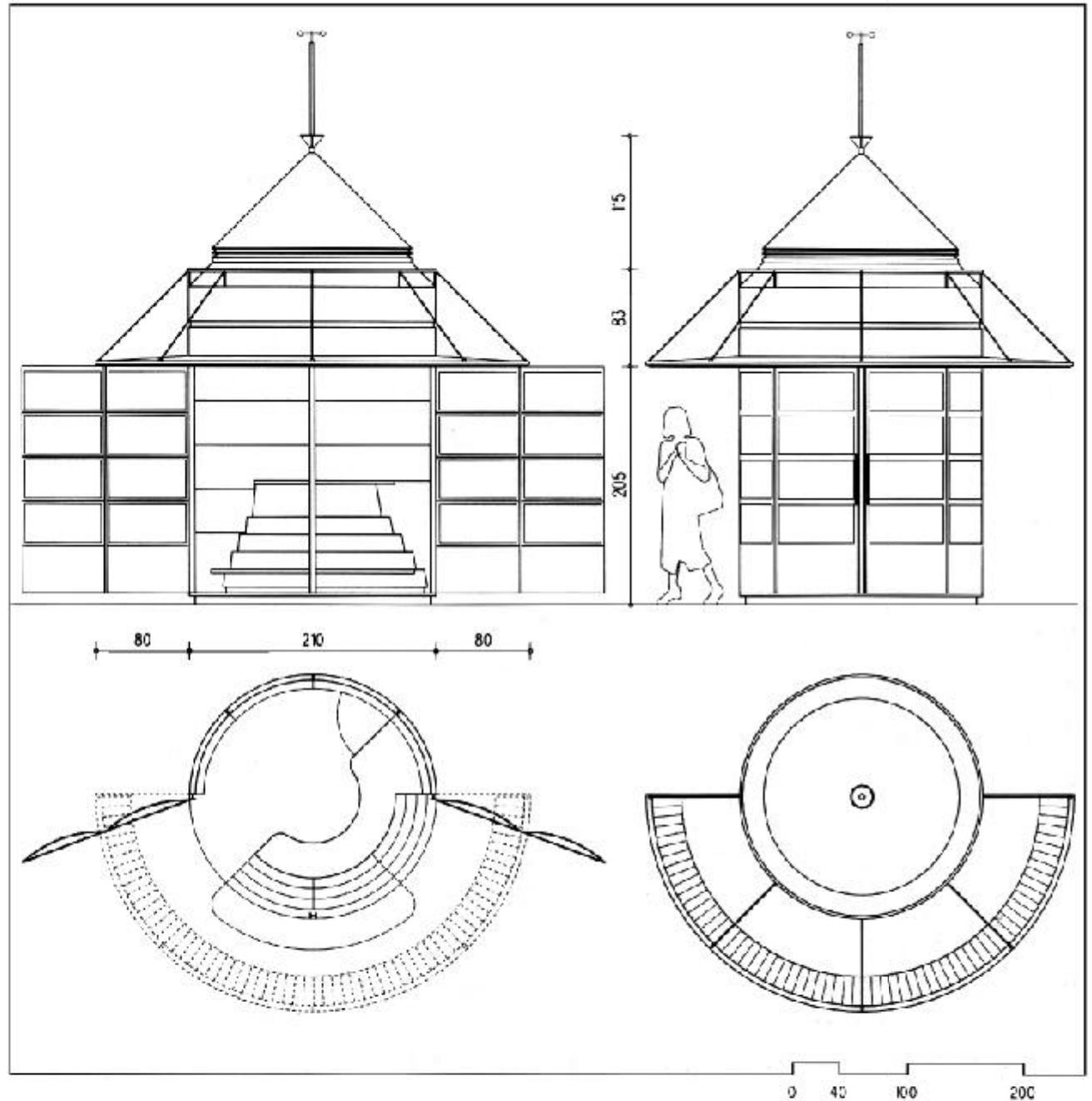
•디자이너: Antoni Rosello(1991)

•제조회사: MICROARQUITECTURA, S.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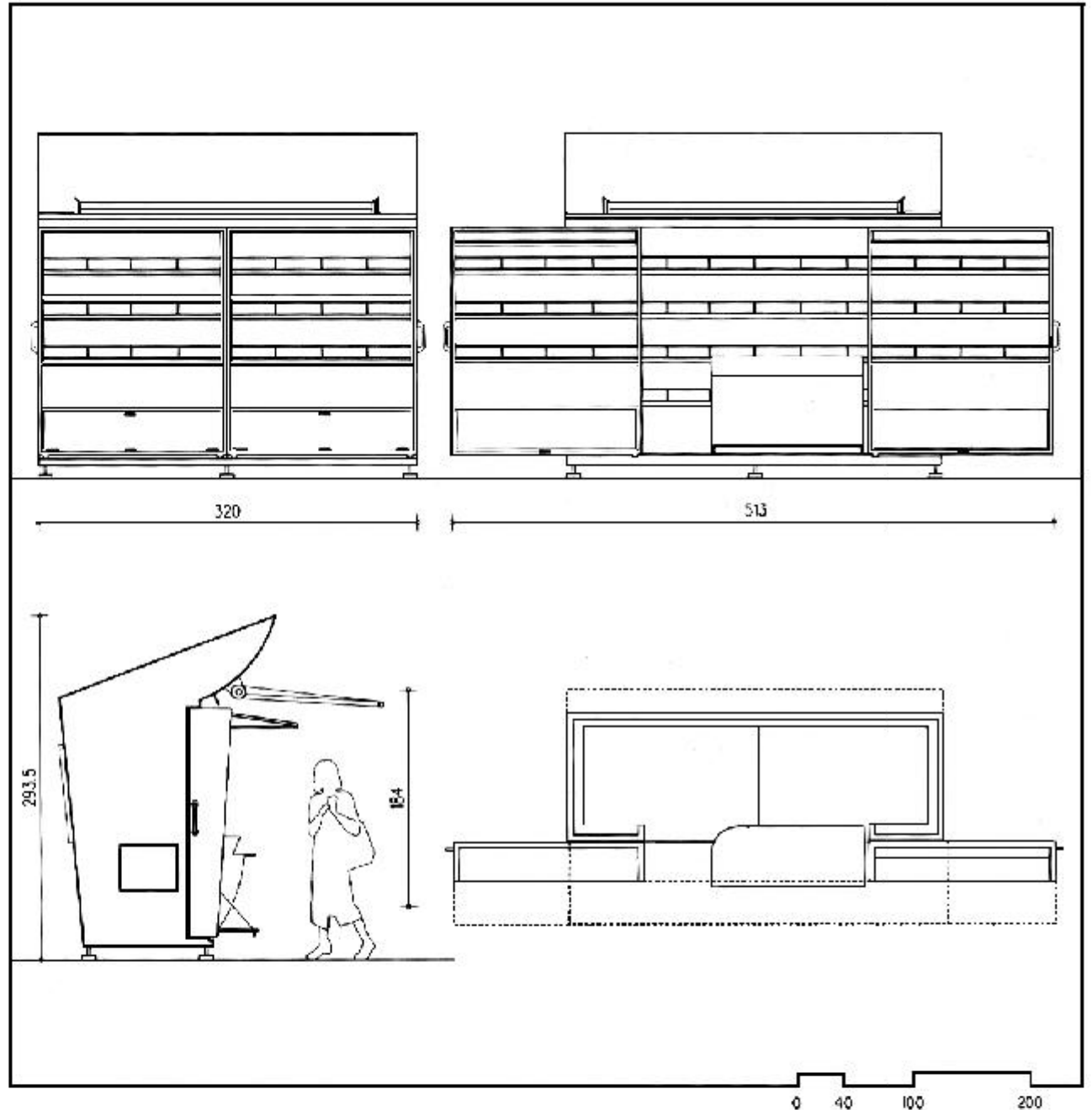
•치수: Plan diameter 210 cm
Total exterior height 380 cm
Overhang placement height 205 cm
Display area (press) 15.5m²approx.

•제품설명: 원추모양의 지붕과 원기둥형태를 지닌 다용도 가관점. 작은 크기의 이 가관점은 도심 어느곳이나 설치 가능. 문을 열었을때는 원통의 반쪽이 합쳐져 4개의 넓은 진열공간이 형성된다.

•특성과 재질: 이 가관대는 내부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신문 판매대, 매표소, 안내소, 꽃판매대등 다용도 가관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몸체는 폴리에스터, 강화 유리 덮개는 화이버 글래스의 이중층.



- 디자이너: Antoni Rosello(1993)
- 제작회사: MICROARZUITECTURA, S.L.
- 치수: Small/Medium/Large
 Plan surface area(closed) 2.24m²/4.48m²/7.18m²
 Total exterior height 290cm
 Furniture height 195cm
 Exhibition zone dept 140cm
 Roof depth 180cm
 Open length 256cm/513cm/513cm
 Closed length 160cm/320cm/320cm
 Display surface area 6.24m²/12.48m²/12.48m²
- 제품설명: 도로변이나 좁은 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직사각형 형태의 신문 가판대이다. 진열대는 수평으로 움직이는 볼락이장 형식의 잠지 선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
- 특성과 재질: 레일과 선반위의 열림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피스톤기동으로 위로 열리는 문이 있다.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소, 중, 대형이 있다. 몸체선반, 지붕은 화이버글래스로 된 폴리에스터 외장재로 4cm 두께의 단열 벽체로 이루어졌으며 색상은 RAL카드에서 선택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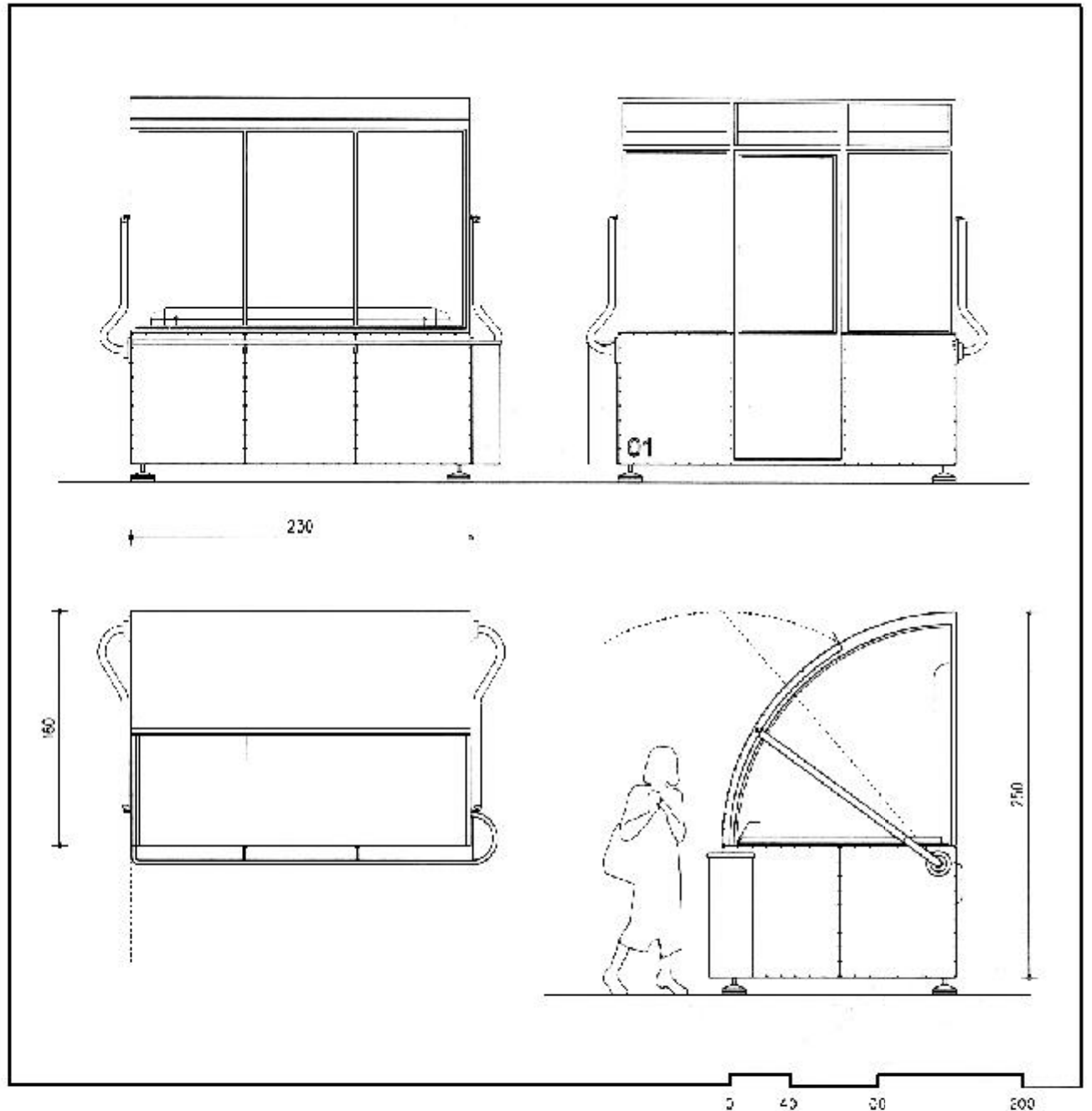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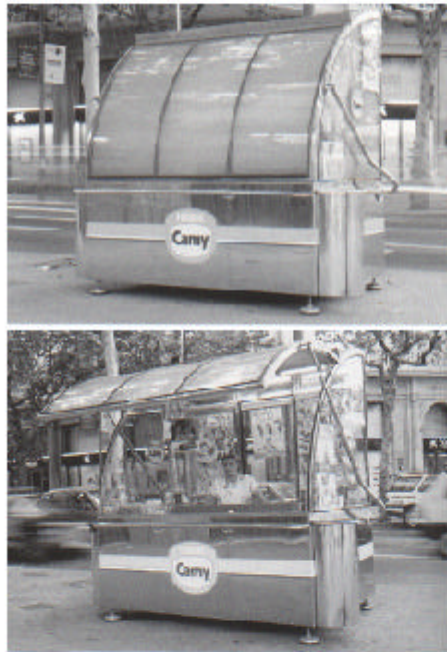
•디자이너: Antoni Rosello(1991)

•제작회사: ESTEVA, S.A.

•치수: Length 230cm
Width 160cm
Height 250cm

•제품설명: 이동식 가판대이며 쉽게 설치 할 수 있는 간편한 모양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설.
하단부에 계산대, 냉장고, 수납공간 그리고 필요시설이 구성.
상단부의 덮개는 전체적으로 투명하며, 막(빛가리개)구조로도 사용.

•특성과 재질: 뒷면의 유리는 빛차단과 사용하지 않을 때를 위한 블라인더가 설치.
수압식 개폐방법과 세가지의 아이스크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
구조와 외장재는 스테인레스 스틸, 벽체와 계산대는 안전유리와 폴리에스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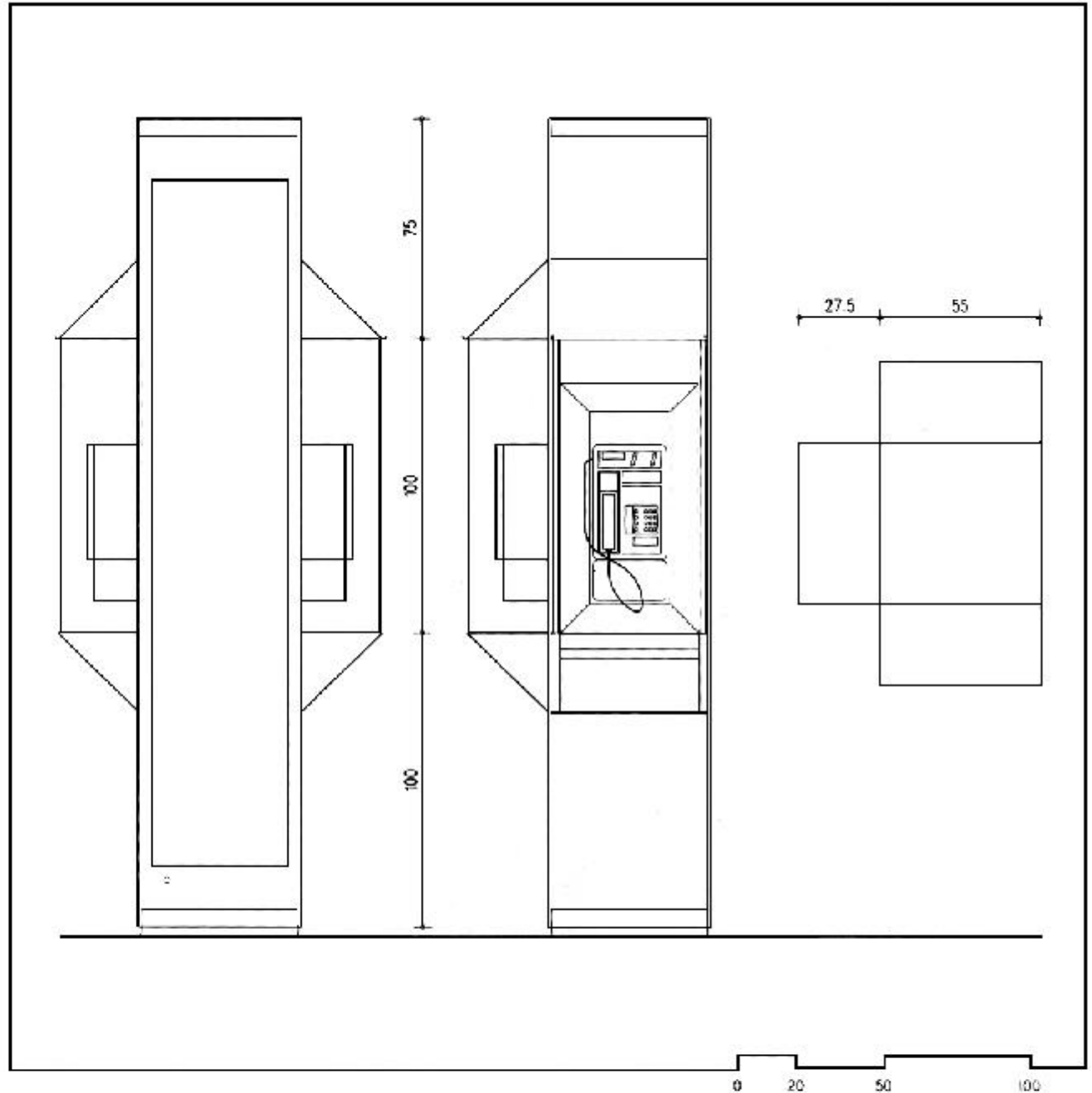
•디자이너: Josep Ma. Civit(Taula de Disseny)(1989)

•제작회사: Public Telephones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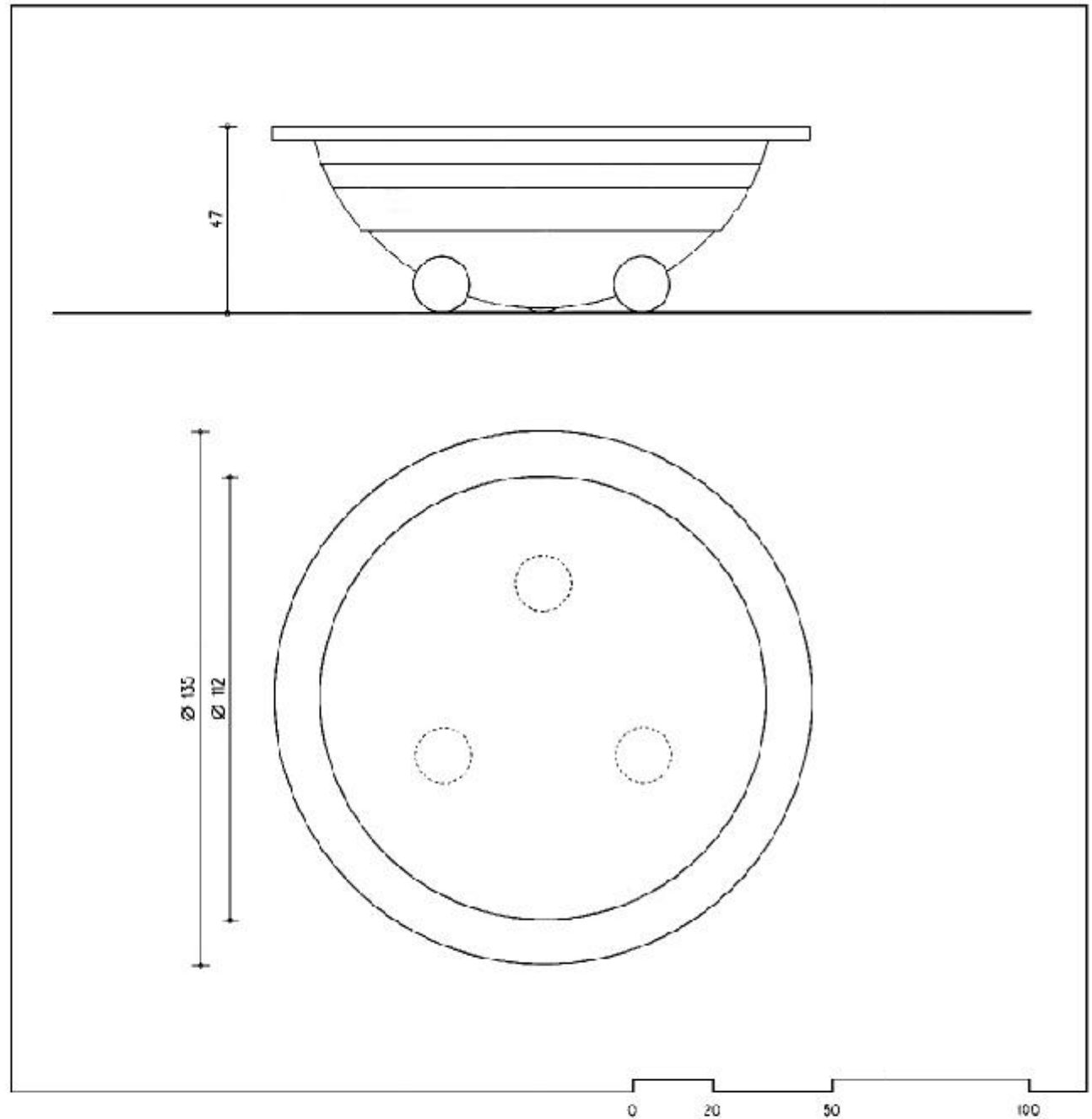
•치수: Total height 275.2 cm
Base dimensions 55x55 cm
With 1telephone 85x55 cm
With 2telephone 115x55 cm
With 3telephone 115x85 cm

•제품설명: 한개, 두개, 또는 세개의 공중전화를 고정시킬 수 있는 철판으로 된 정사각형 기둥이 형성. 장애인을 위해 낮은 부분에 설치 가능하며, 옆면은 광고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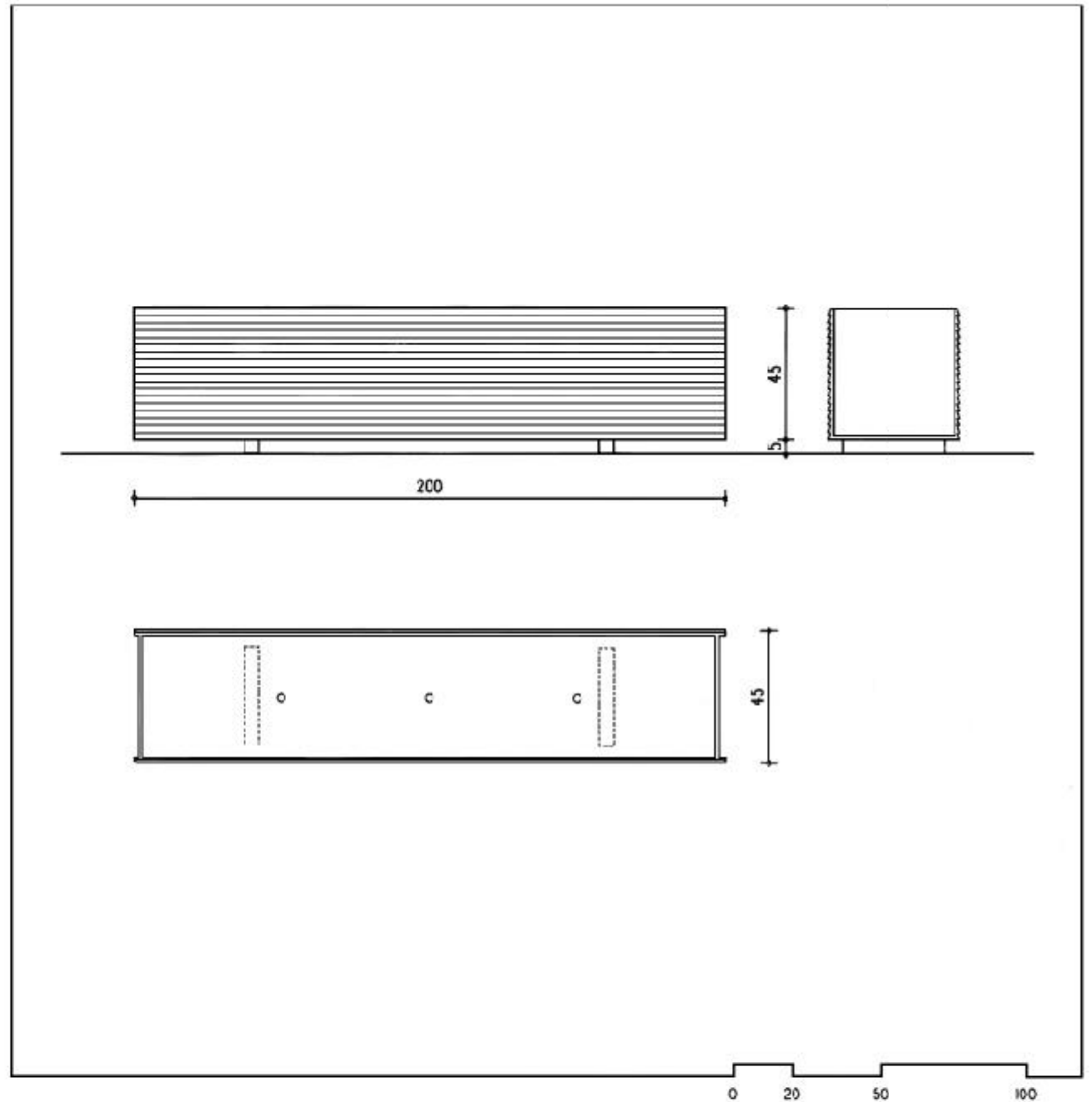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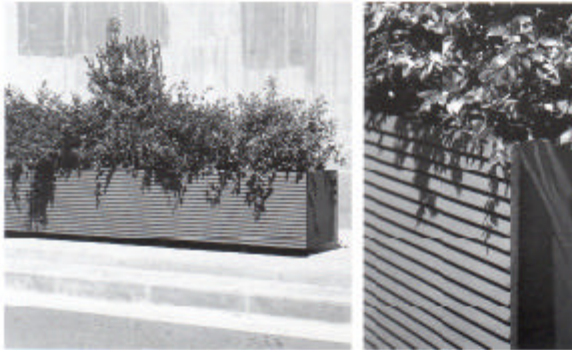
•특성과 재질: 1.5mm의 아연도금된 구멍뚫린 철판에 전화기가 부착되며 측면부분중 한 부분은 들과 강화유리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전화기의 위부분에 조명이 설치, 낮은 곳에 정리대가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정리대가 설치되어 있다.



- 디자이너: Jaume Bach-Gabriel Mora(1982)
- 제조회사: Fundiciones de Hierros COLOMER,S.A.
- 치수: Maximum diameter 135 cm
Soil diameter 112 cm
Height 47 cm
- 제품설명: 꽃류와 관목류에 맞출 수 있는 크기의반구체 형태의 주물꽃 상자.
심을 수 있는 부분이 넓어 보행자 도로구역에 적합한 품목이다.
- 특성과 재질: 검은 Oxiron칠이 된 계단모양의 외부 표면을 가진 일체형 철주물 꽃상자.
안전성을 위해 같은 재료와 마감처리로 몸체에 부착된 세개의 원형 다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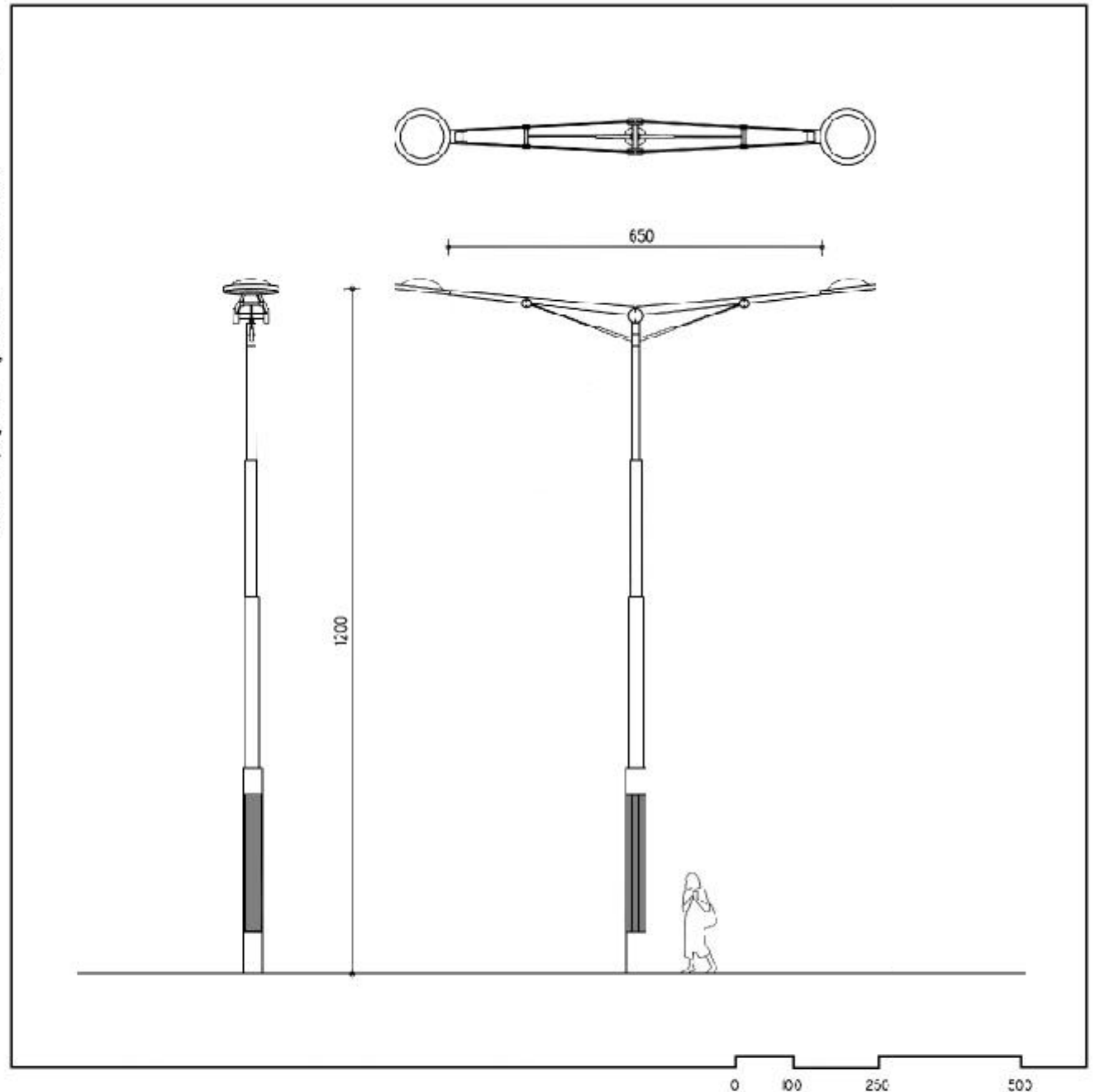
- 디자이너: Jaume Artigues(1993)
- 제조회사: SATA & COLE, S.A. Division Urbana
- 치수: Length 200 cm
Height 50 cm
Width 45 cm
- 제품설명: 토양이 식물을 심기에 부적당한 지역, 일시적으로 설계된 정역을 위해 푸른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풍의 칸막이.
각각의 부분을 결합시켜 물을 공급받아 관목, 식물 구역을 정렬 시킬 수 있다.
- 특성: 두개의 주된 표면이 틈니모양으로 구성된 일체형 주물 꽃상자.
두 옆면은 다른 꽃상자를 부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 디자이너: Jean-Michel Wilmotte(1990)
- 제조회사: JCDECAUX, S.A. Mobilier Urbain.
- 치수: Total height 1,200cm (height of light source)
 Base height 360cm
 Base diameter 35cm
 Lamp diameter 96cm
 Span 800cm

•제품설명: Paris의 Champw-Elysees의 쇄신을 위해 가장 단순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유적과 고유의 가구의 존중을 보여주는 현대성을 지닌 디자인 제품이다. 깃대가 장착된 점점 좁아지는 원뿔형의 기둥으로 된 양방향의 램프 기둥.

•특성과 재질: 직경 15, 25, 25cm의 세개의 원뿔형터로 된 기둥, 열처리 도금(heat-galvanized)된 금속으로 폴리에스터 파우더 코팅칠이 되어 있으며, 밑부분은 아연도금된 주물 금속이다. 조명기구의 양방향으로나 대(arms)는 화장암 같아 보이도록 페인트 마감된 주물 알루미늄이며, 지지대부분은 고풍택 스텔레스 스틸 외장이다. 스텔레스 스틸의 조명기구는 파리의 거리 조명 법규에 준수하여 보도쪽에는 흰 나트륨 빛(sodium light)을, 도록쪽에는 오렌지 빛을 비춘다.



◆디자이너: Jordi Henrich-Olga Tarraso(1991)

◆제조회사: ABB Metron, S.A.

◆치수: Height above pavement 190cm

Frame diameter 46cm

Lighting unit diameter 27cm

◆제품설명: 주변지역에 조명을 비추주기도 하는 상당히 큰 사이즈의 원기둥형 신호표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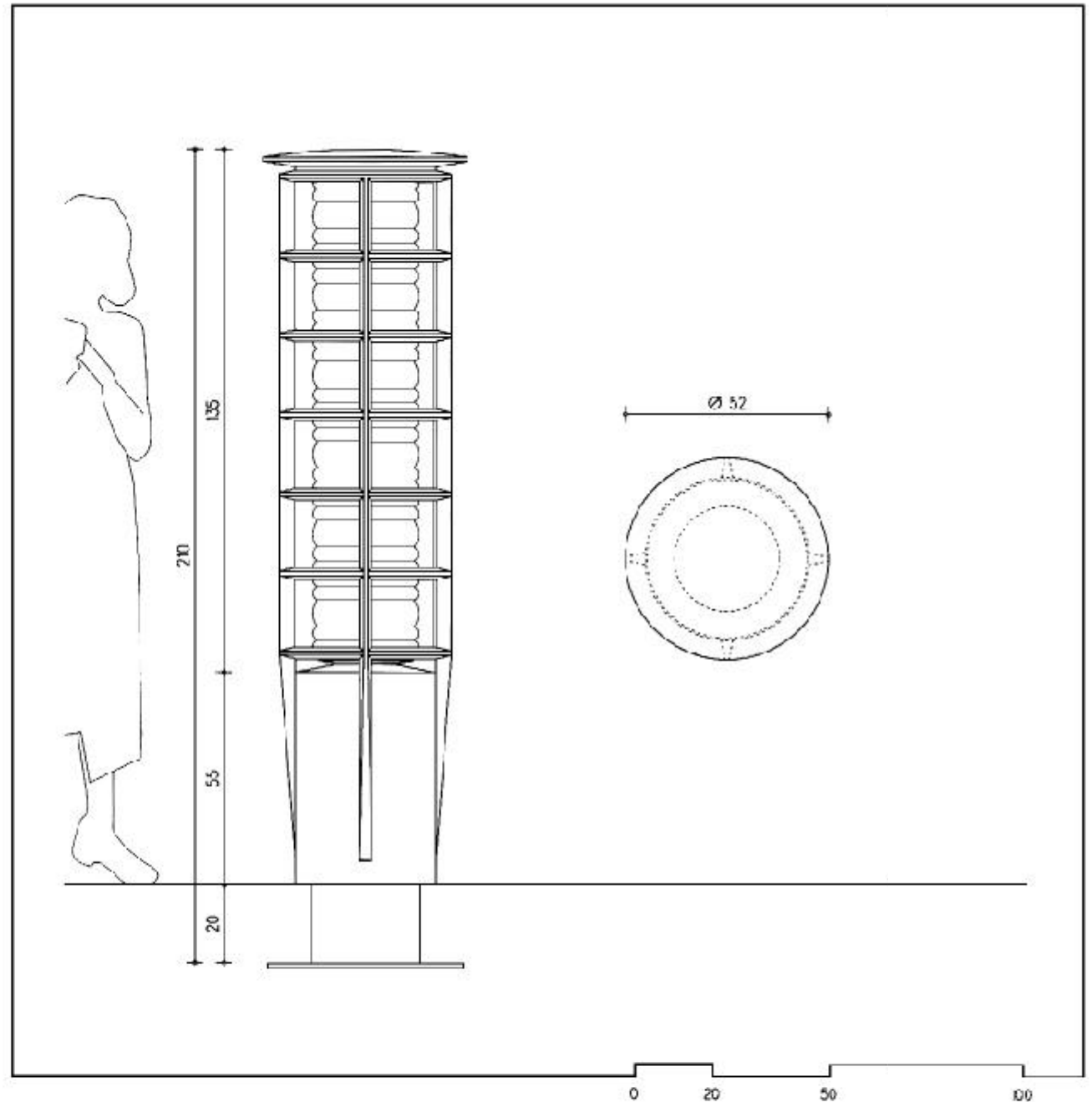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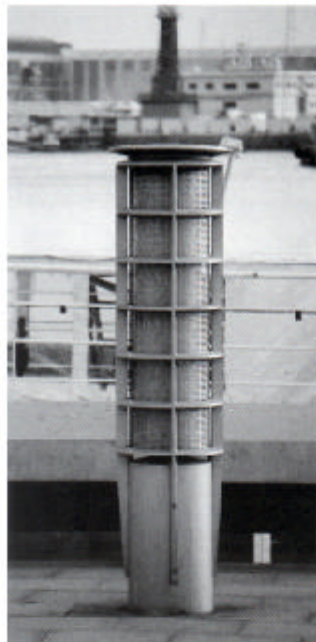
넓은 항구지역에 사용하도록 디자인됨.

◆특성과 재질: 500x500mm 밀부분판에 용접된, 점검을 위한 문이 달린 5mm의 아연도금된 금속판에 설치된 기저부.

5개의 중간부분 링, 아래쪽 한개, 윗쪽한개로 만들어진 프레임. 위쪽 한 개는 주물 알루미늄으로 세공 마감처리된 덮개가 있음.

내부에는 가늘게 구멍이 뚫린 스텐레스 스틸 판 안에 조명 보호장치가 있다.

조명부는 두께가 변경가능한 방열 Holophone 글래스로 된 6개의 원기둥모양의 부분들로 만들어짐.



•디자이너: Andreu Arriola-Carme Fiol(1993)

•제조회사: LUXTEC, S.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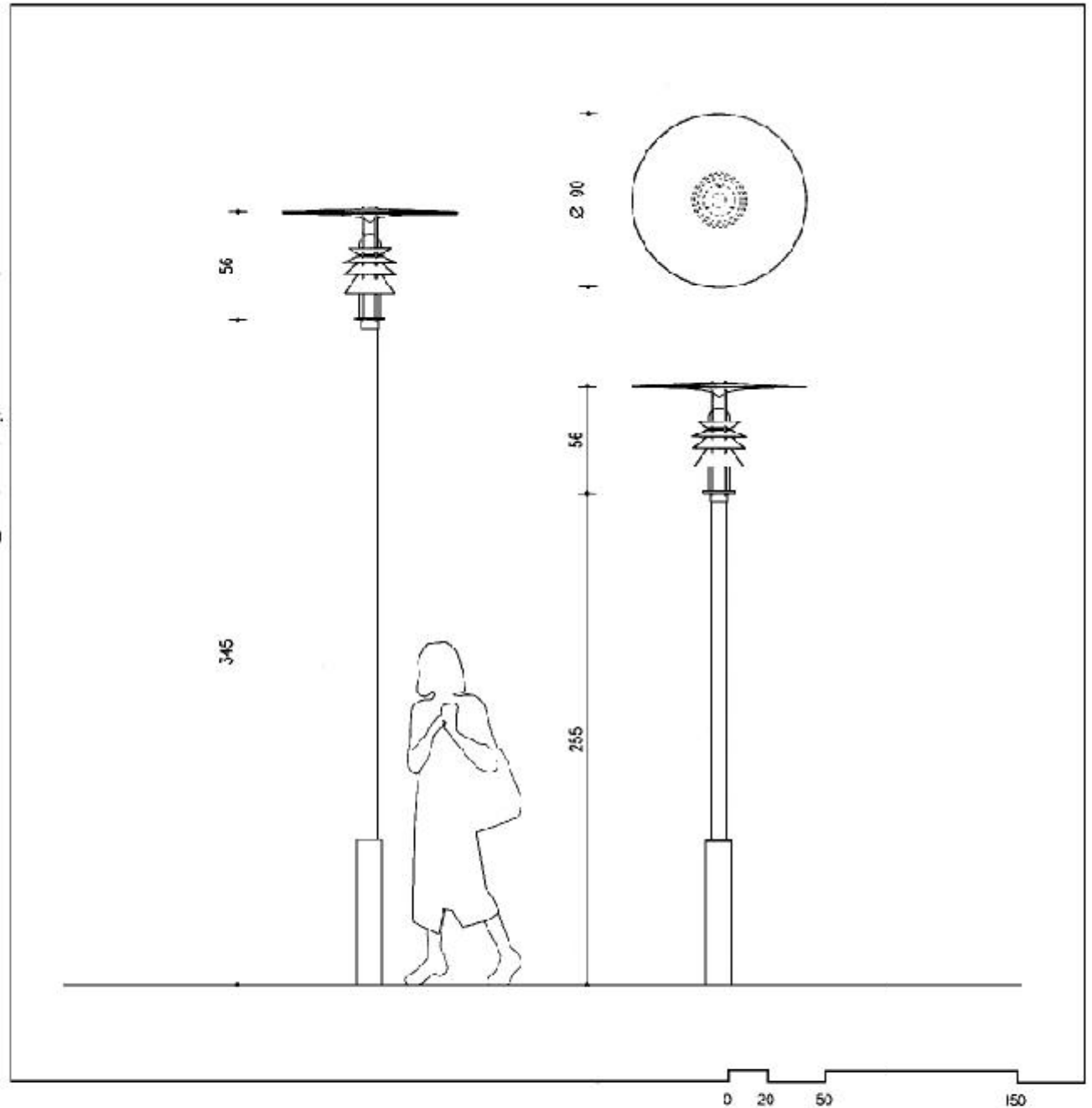
•치수: Column height 255/345cm
Arm height 30cm
Arm length 50cm
Arm width 30cm
Light height 0.5/55cm
Light diameter 70/90cm

•제품설명:

금속 조명 기구. 빛이 비스듬히 기울어지는 원뿔대의 조명기구의 정렬(range)과, 꼭대기부분이 등각계 쉼꼴린 반사막으로 구성된 공공장소를 위한 간접 조명.

•특성과 재질:

기둥은 직경63.5/76, 129/154mm의 거친 락커칠로 마감된 두개의 원통형 스텐레스 스틸로 제작됨. 벽면 길이대는 거칠거칠한 락커칠 마감이된 직경 30, 40mm의 두개의 스텐레스 스틸 관으로형성되어 있고, 직경 30cm, 높이 10cm의 같은 재질의 원통형 박스가 같이 있다. 조명기구는 125와 250W의 수은 전구 전구가 있는 두가지 크기로 제작되며, 윗부분에 스텐레스 스틸 반사막이 있는 세개의 용접된 금속축대의 세시가 포함된다. 빛을 퍼뜨리기 위한 4개의 스텐레스 스틸관 원뿔대 반사경이 세시 중간에 끼워져 있다. 모두 기둥이나 길이대를 보호하기 위한 스텐레스 스틸 기둥(Plinth)에 고정되어 있다. 거울 광택나는 스텐레스 스틸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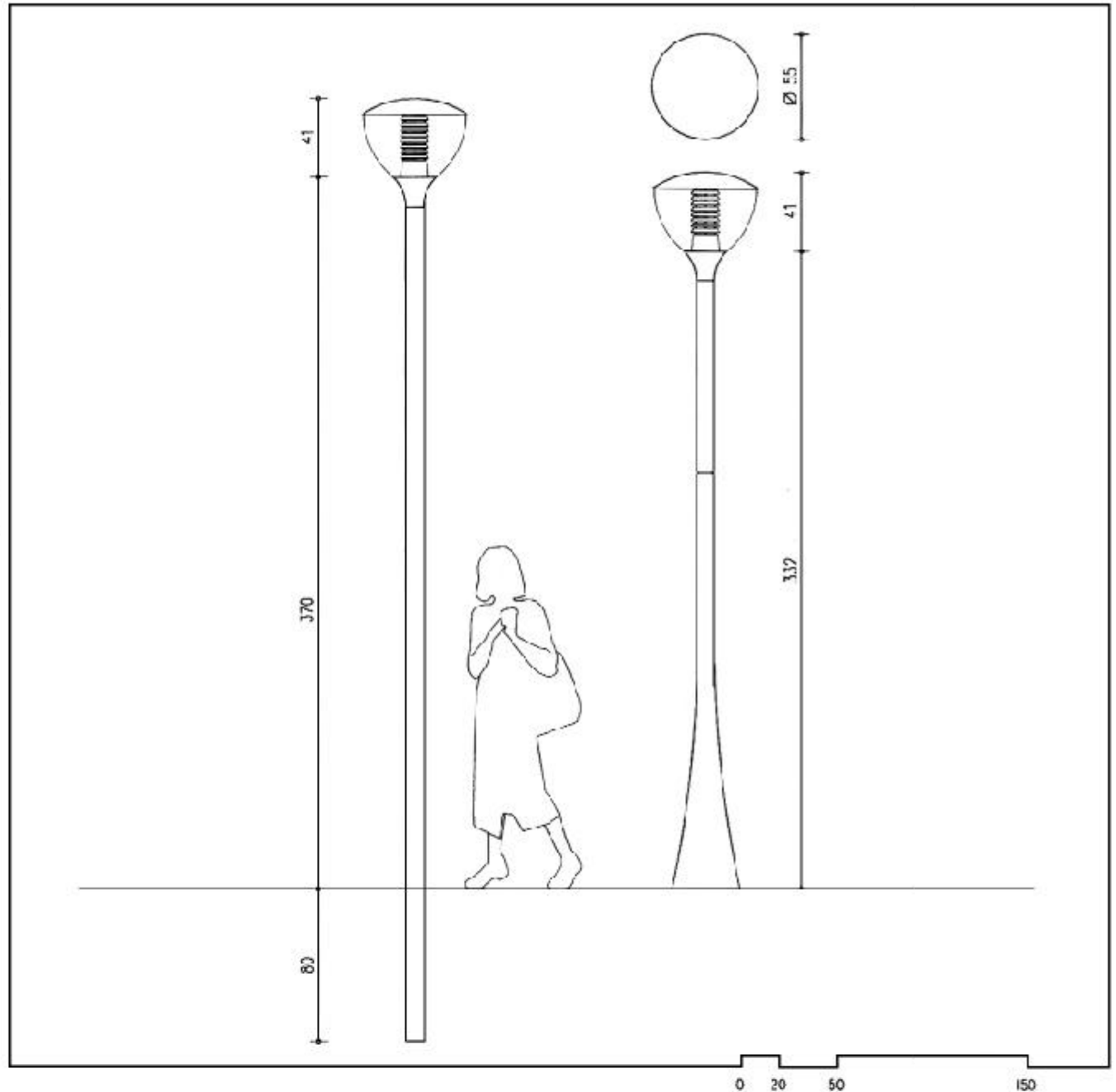
•디자이너: Valerio Sacchetti(1992)

•제조회사: IGUZZINI Illuminazione, S.R.L.

•치수: Lighting unit Diameter 55cm
Height 41cm
Posts Shaped height 370cm
Cylindrical height 332cm
Arm Length 61cm

•제품설명: 전통적인 형태에서 착안된, 시골과 도시의 역사적인 장소에 필요한 전통적인 램프의 복사제품의 대안물로 제공된 램프. 현대적이며 고전적인 형태로 추상적이며, 주위배경과의 조를 누그러뜨린다. 조립할때 서로 결합이 되는 부분들은 원통형 기둥이나 다른 부분의 기둥, 벽면 정착물에도 사용될 수 있다.

•특성과 재질: 전기 콘센트를 위한 금속틀을 포함하는 시각적인 부분은 투명하거나 하얀 파열 방지 강화유리로, 뒷쪽의 단합부분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다양한 부분의 기둥, 벽면에 장착시키기 위한 주물 알루미늄 걸이(arms), 바닥판이 있는 원통형 기둥, 또는 도로에 고정된 회색의 금속기둥에 고정될 수 있다.



•디자이너: Norman Foster(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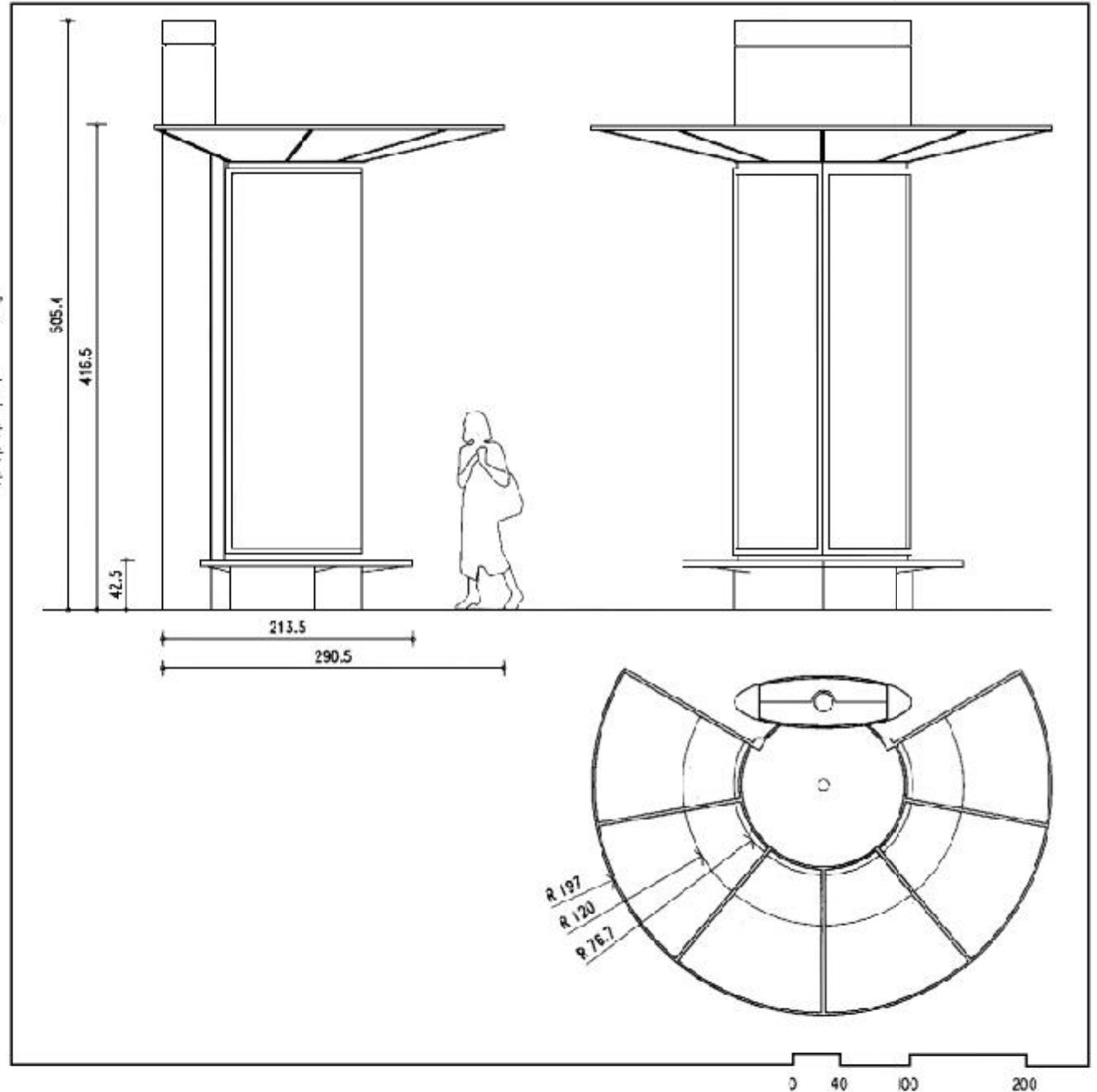
•제조회사: JCDECAUX, S.A. Mobilier Urbain

•치수:

Exhibition surface area(3 posters)	318.4x132.5cm
Total height	505.4cm
Canopy height	416.5cm
Column diameter	143.6cm
Canopy diameter	394cm
Bench diameter	420cm
Bench height	42.5cm

•제품설명: 광고 포스터와 시정안내를 진열하는 기둥으로, 이용은 제작자에 의해 조정되며 정기적으로 포스터가 변경된다.

•특성 및 재질: 밑부분에는 불박이형 벤치가 있고, 몸체는 원형으로 분할된 정보면(2개의 포스터)과 뒷쪽의 다른면은 하나의 포스터가 부착되는 좀 더 높은 타원형 구역이 있다. 꼭대기 부분에는 벤치와 일치하게 원기둥의 3분의 2가 덮이는 차양이 설치되어 있음.



•디자이너: Jean-Michel Wilmotte(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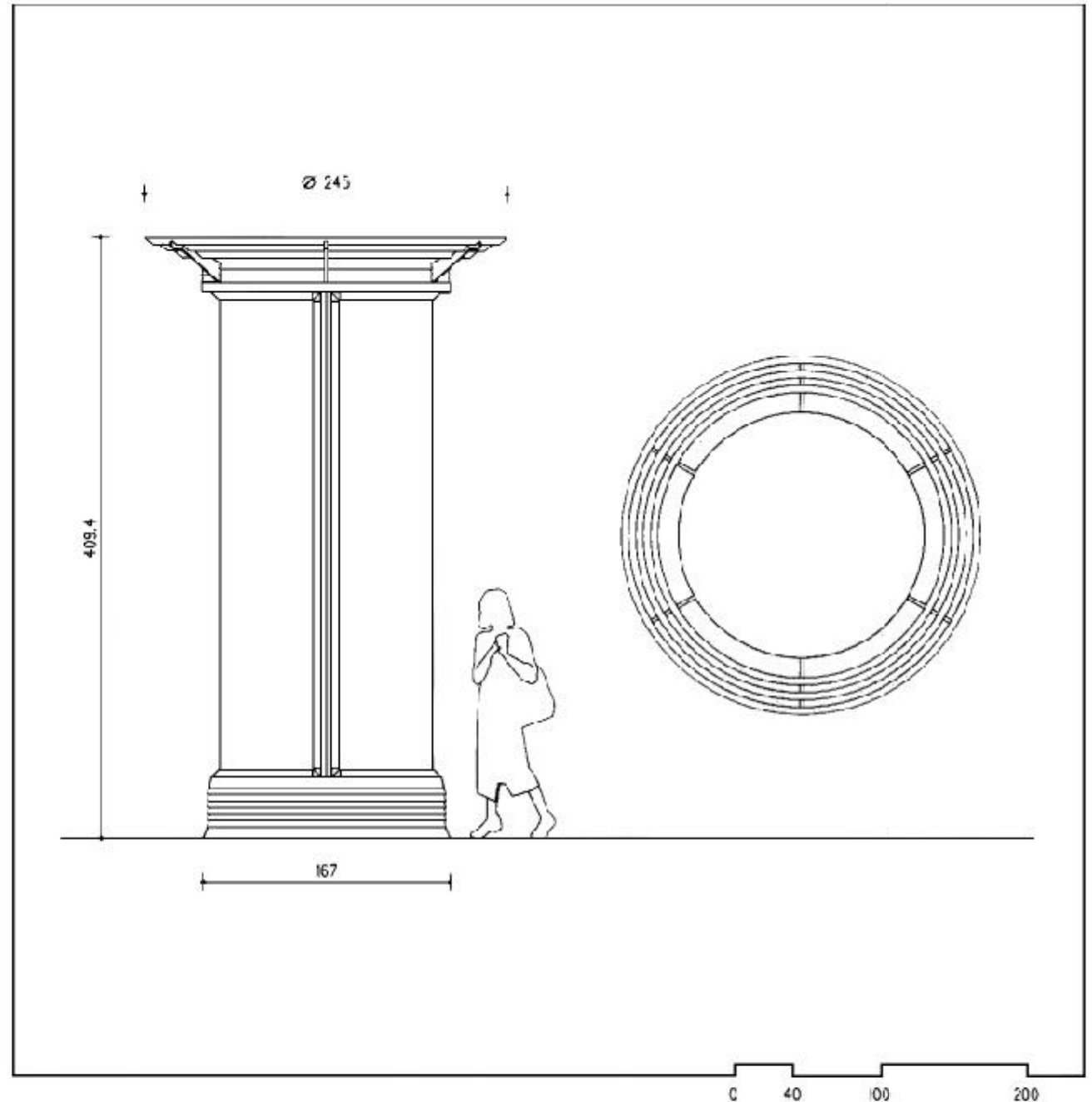
•제조회사: JCDECAUX, S.A. Mobilier Urbain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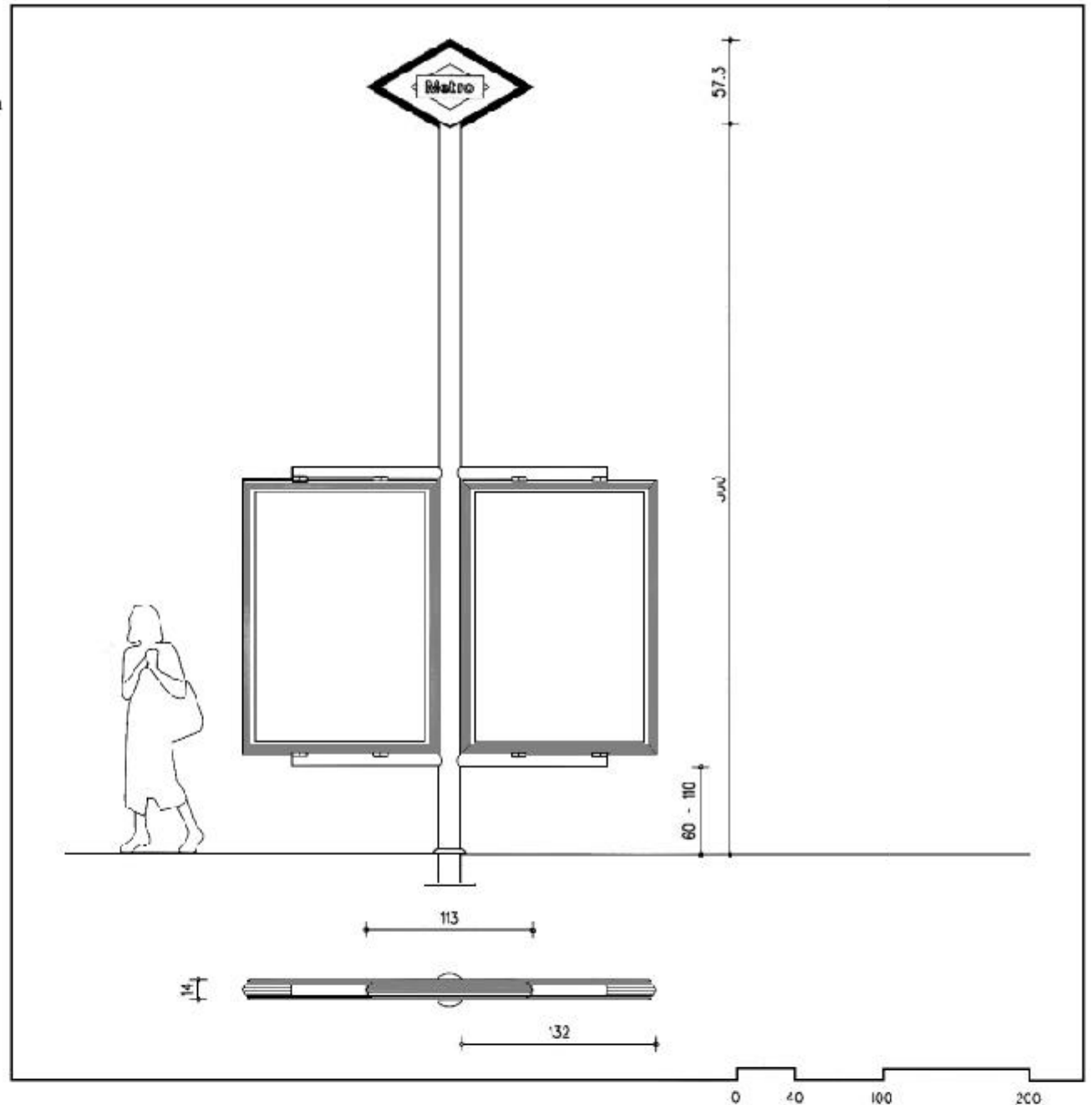
Exhibition surface area(3 posters)	318.4x132.5cm
Total height	409.9cm
Height under canopy	7.4cm
Column diameter	143.6cm
Canopy diameter	245cm
Base plinth diameter	167cm

•제품설명: 원기둥 형태의 다용도 정보를 위한 시스템이다. 원기둥 둘레에 3장의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으며 금속 주물로 제작되었다. 지붕부분에 3개의 원이 원기둥의 모습을 단순함에서 탈피시킨 제품이다.

•특성과 재질: 아연도금 처리된 몸체와 특수 열처리된 폴리에스터코팅으로 마감되어 있다. 배어링판 위에 부착되어 있는 몸체는 포스터를 교환할 때 용이하게 고안되어 있으며 몸체 내부에 58W의 형광등이 12개 부착되어 있다. 지붕의 3개의 원은 우천시 빗방울을 모으는 작용을 하고 있다. 마감처리의 칼라는 진한 회색 메탈릭 칠로 되어 있다.



- 디자이너: Oscar Tusquets(1994)
- 제조회사: URBASER. Mobiliario Urbano. Grupo Dragados y Construcciones.
- 치수: Total height 557.3cm
 Height from ground at lowest point
 High double model 110cm
 Low Double and Low Single 60cm
 Post diameter 14cm
- 제품설명: Information과 싸인 시스템을 겸한 스트리트 퍼니처이며 특별히 '마드리드시'를 위해 고안된 제품이다.한개의 원기둥에 2개의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으며 윗부분의 로고는 원기둥에 특수 조립 시스템으로 형성되어 있다. 3가지의 종류(높이가 높은 중간과 양면, 패널, 낮고 한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 특성과 재질: 주 재료는 스테인레스 스틸의 광택마감 처리 되었으며 로고 부분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전광판의 내부는 조명의 광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계와 프레임은 특수코팅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개개의 광고판은 원기둥으로부터 부착되어 있는 2개의 양쪽 스테인레스 스틸 관에 부착된다. 전기의 공급은 가로변의 조명기구(가로등)와 연결되어 사용된다.



•디자이너: Estrella Ordonez-Enric Pericas(S.E.U.)(1992)

•제조회사: ESCOFET 1886, S.A.

•치수:

Square surround 120cm along side by 20cm thick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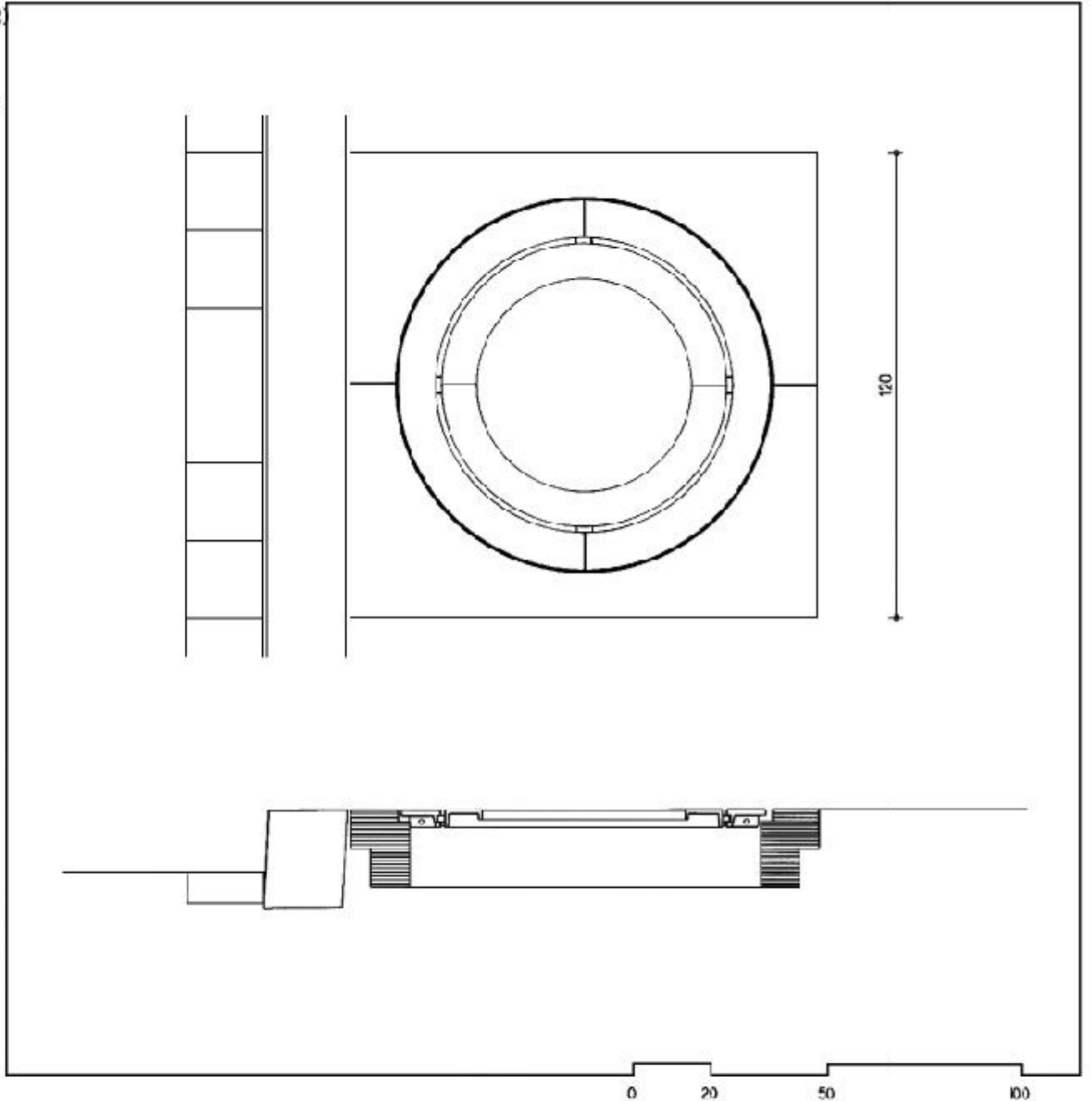
Round surround Exterior diameter 97cm and interior 95.5cm by 20cm along edge

Large riug Exterior diameter 95cm and interior 75cm

Small ring Exterior diameter 71.8cm and interior 53cm

•제품설명: 가로수 보호를 위한 이 덮개류는 가로수를 부분과 보행고안에서의 가로수 덮개류 부분과 접하는 부분을 나누어 고안되었다. 네모난 정사각형은 120x120의 크기로 되어 있으며 2cm의 두께의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가로수 보호 덮개는 1개 또는 2개의 원피로 되어 있는데 원피의 폭은 20cm로 제작, 바깥 원피와 안의 원피에 약간의 공간이 열려 있는 특징이 있다.

•특성과 재질: 가로수 덮개는 2개의 원피를 가질 수 있는 특징 75cm와 53cm의 내부 원형으로 구성. 사용시 바닥면의 레벨을 일정히 해야 하는 시공상의 주의 를 요하는 제품이며 원형덮개의 마감은 거칠고 진한 회색의 특수코팅으로 처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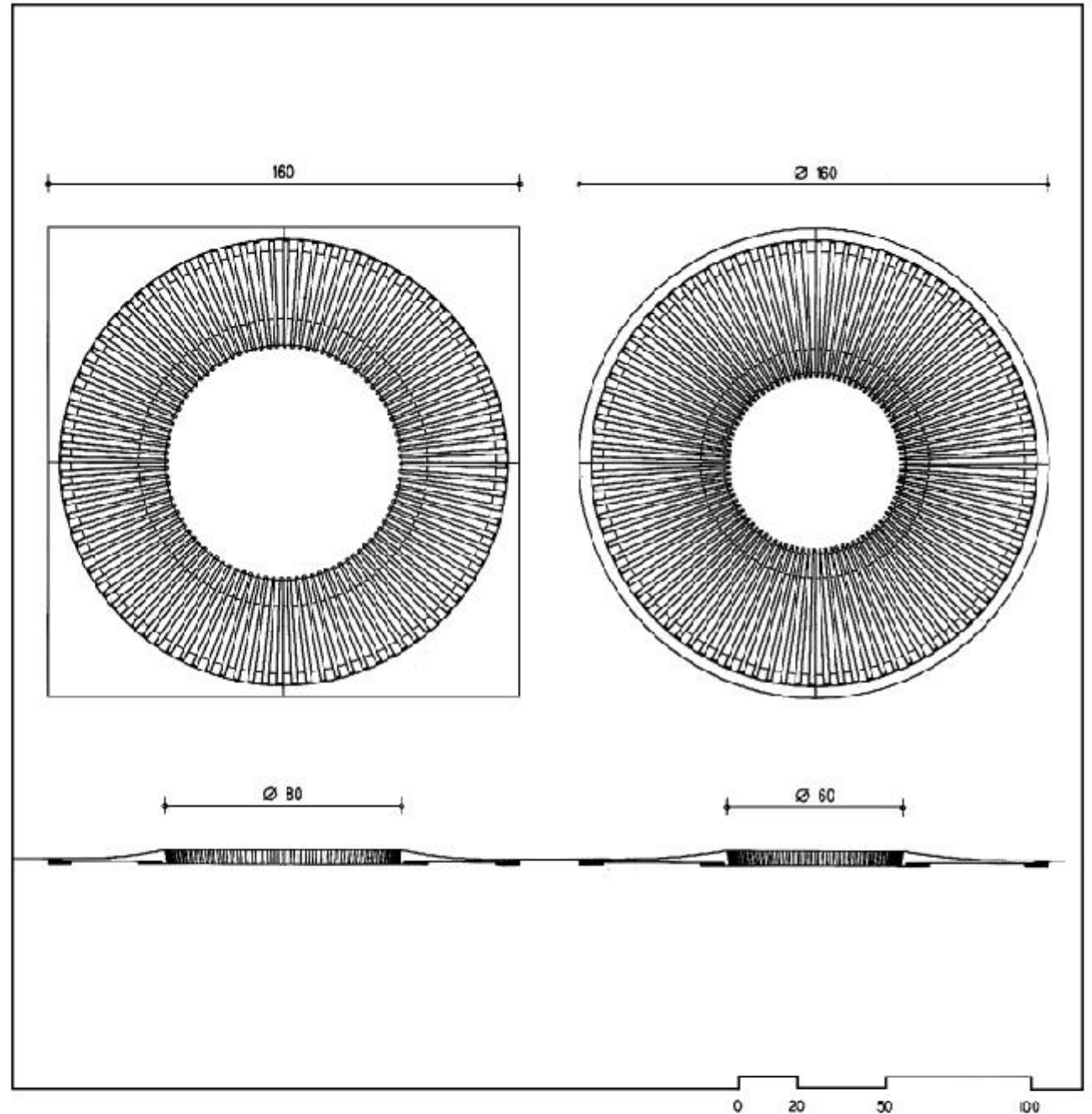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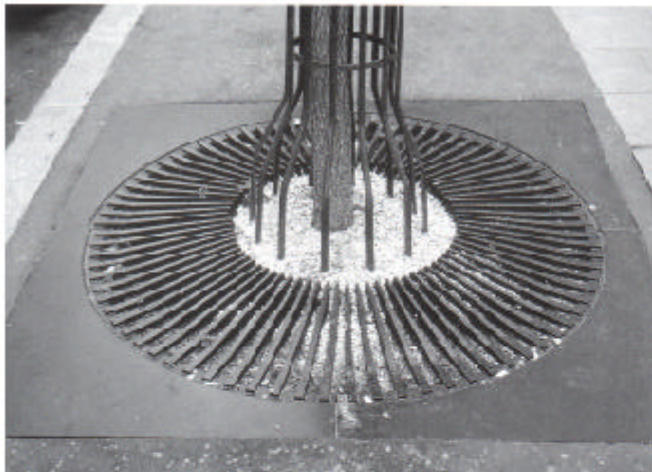
•디자이너: CANAL Atelier d'Architecture(1986)

•제조회사: ACIERIES DE CHARLEVILLE

•치수: Square 160x160cm
Round diam. 160cm
Free interior space diam. 80 or 60cm
(for both types)

•제품설명: 주물금속으로 제작된 가로수 덮개는 4조각으로 연결된 각각의 UNIT가 조합하여 한개의 제품으로 완성된다.
단순하지만 디자인의 견고함과 일체성이 돋보인다.
원형과 사각진 모양 그 종류로 생산되고 있다.

•특성과 재질: 주물금속으로 같은 주물(mould)에서 생산되며 덮개류와 가로수 지지대를 병행하고 있다.
모양은 견고한 프레임으로 구성되며 원형과 각형이 있다.
중앙부분은 바깥부분의 프레임보다 두껍지만 가볍게 제작되어 있는 특성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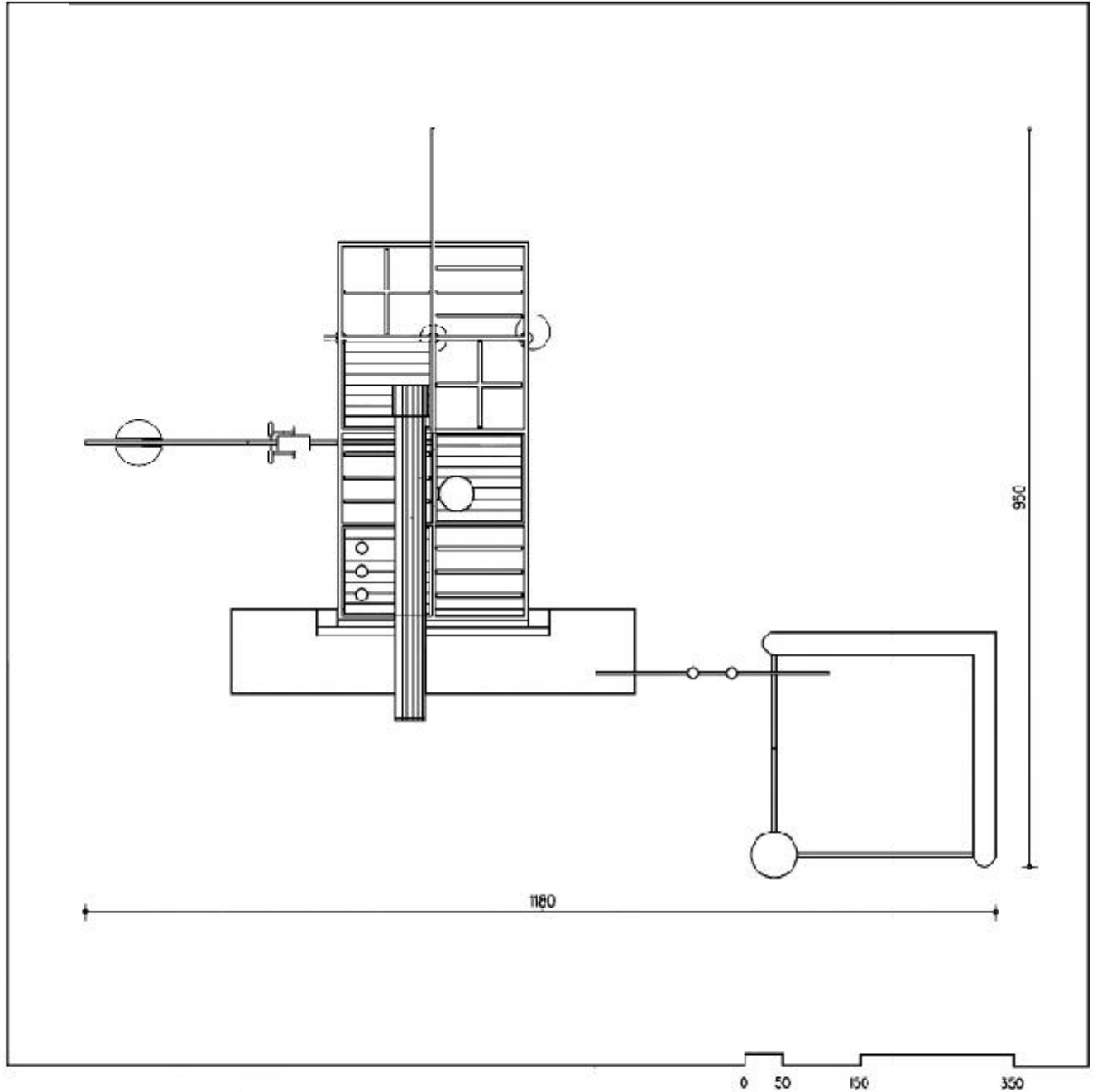
•디자이너: Roberto Ferreira-Elsa Lopez(1982)

•제조회사: CONTENUR, 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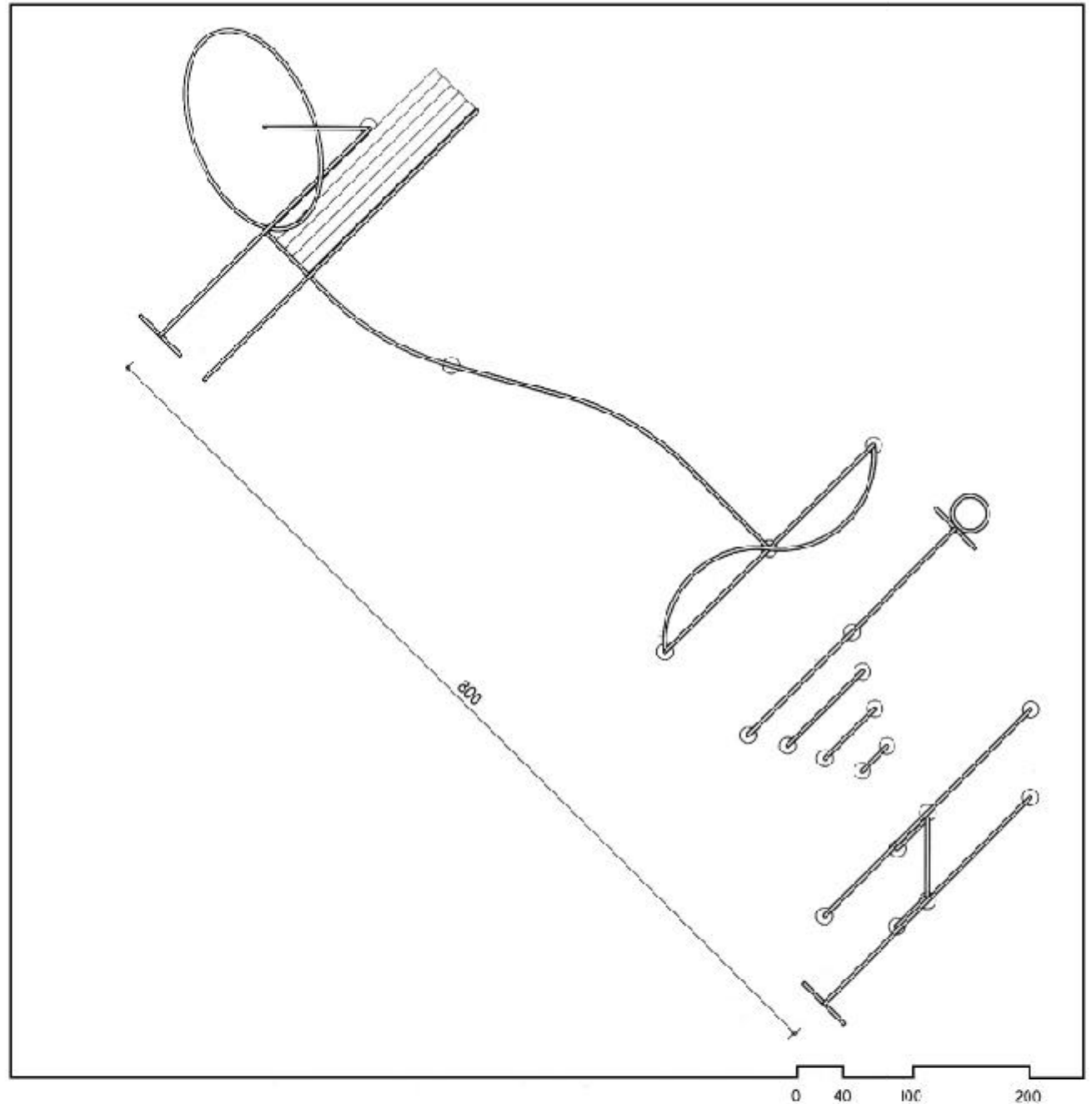
•치수: 120x120cm의 grid.
(*치수는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함)

•제품설명: Plano Indiado 어린이 게임기구는 나무와 스테인레스 스틸 등 강한 재료로 구성.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도 어린이의 상상력과 충분한 놀이기능을 발달시키도록 디자인 되었다.

•특성과 재료: 120cmx120cm의 망이 설치되고, 두개의 단계를 조합하거나, 위아래에 설치되어진 다양한 놀이 아이템의 지지대 역할을 한다. 경사진면은 다양한 조합으로 맞추어 질 수 있다. 벽, 원통, 그네, 고리, 모래구덩이, 다리, 탑등.
재료는 스테인레스 스틸이며 스틸 자체의 칼라(기본적인 색상으로 폴리아미드로 코팅된 금속관)를 가지고 있다.



- 디자이너: Antoni Rosello(1991)
- 제조회사: Fundiciones de Hierros COLOMER, S.A.
- 치수: 300x50cm, 320x230cm, 470x120cm의 모듈 시스템으로 구성.
- 제품설명: 올림픽아 게임기구는 어린이들이 오르내리기, 뛰기, 균형잡기등의 기본적인 신체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설치형태의 다양성과 구조로 이루어 졌으며 쉽게 설치 될 수 있다.
- 특성과 재료: 같은 구성요소를 가지고 모듈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기구는 직경 3cm와 4cm의 스테인레스 스틸관으로 형성.



2. 적용과 분석 총괄표 (표-5)

환경, 제품, 시설류	종 류	국내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국내사례			국외사례			
		양호	보통	미흡	대표적 사례 검토			
					디자이너	제조회사		
1	랜드마크적 요소	A 출입구(Gate)의 이미지			●	1-C-1	Philippe Starck(1991)	JCDECAUX, S.A. Mobilier Urbain
		B 모뉴먼트(Monument)			●	1-C-2	Frank O. Gehry	
		C 그 지방 특유의 이미지(Symbolic Image)			●			
2	이동 질서를 부여하는 요소	A 자동차 교통에 관한 요소(인도와 차도)			●	2-A-1	Helio Pinon-AlbertViaplana(1991)	ESCOFET 1886, S.A. Canteras AGRAMAR, S.A. SANTA & COLE, S.A. Mobilier Urbana. JCDECAUX, S.A. Mobilier Urbain INDUSTRIAS SALUDIES, S.A.
		B 가드레일과 바리케이트		◎	●	2-A-2	Josep Antoni Megias(1991)	
		C 험프(Hump)		◎	●	2-B	Montse Periel(1993)	
		D 방음벽		◎		2-F	Jean-Michel Wilmotte(1990)	
		E 중앙분리대		◎	●	2-H	LA NAVE(1990)	
		F 신호등 System		◎				
		G 장애인을 위한 System			●			
		H 블라드		◎				
3	이동을 도와주는 요소	A 공공교통 시설의 디자인		◎	●	3-A	Alfredo Tasca(1990)	METALCO, S.p.A. JCDECAUX, S.A. Mobilier Urbain.
		B 택시, 버스, 지하철의 셸트류			●	3-B	Norman Foster(1991)	
4	휴식을 도와주는 요소	A 벤치류		◎	●	4-A	DeFerrari-Jacomussi-Germak-Laurini(1988)	ALUMIX, S.p.a. Aluhabitat Arredo Urbano. JCDEAUX, S.A. Mobilier Urbain JCDEAUX, S.A. Mobilier Urbain. ESTEVA, S.A. O.N.C.E. (Organization for the Blind)Barcelona Branch. MICROARQUITECTURA, S.L. MICROARQUITECTURA, S.L. ESTEVA, S.A. Public Telephones Department
		B 셸트류			●	4-D-2	Andree Putman(1990)	
		C 파골라			●	4-E	Philippe Starck(1992)	
		D 휴지통 & 식수대			●	4-F-1	Antoni Rosello(1994)	
		E 공공 화장실		◎	●	4-F-2	Antoni Rosello(1986)	
		F 가관점			●	4-F-3	Antoni Rosello(1991)	
		G 전화 부스(Booth)			●	4-F-4	Antoni Rosello(1993)	
					●	4-G	Antoni Rosello(1991)	
5	자연을 도입한 요소	A 녹화장치			●	5-A-1	Josep Ma. Civit(Taula de Disseny)(1989)	Fundiciones de Hierros COLOMER, S.A. SANTA & COLE, S.A. Division Urbana
		B Steet Furniture System			●	5-A-2	Jaume Bach-Gabriel Mora(1982)	
6	빛과 조명을 연출하는 요소	A 가로등 체계		◎	●	6-A	Jaume Artigues(1993)	JCDECAUX, S.A. Mobilier Urbain ABB Metron, S.A. LUXTEC, S.L. IGUZZINI Illuminazione, S.R.L.
		B 지역성, 고유성을 위한 조명등 System			●	6-B-1	Jean-Michel Wilmotte(1990)	
		C 랜드마크와 심볼			●	6-B-2	Jordi Henrich-Olga Tarraso(1991)	
7	도시기능이 표출하는 요소	A Sign System		◎	●	6-B-3	Andreu Arriola-Carme Fiol(1993)	JCDECAUX, S.A. Mobilier Urbain JCDECAUX, S.A. Mobilier Urbain URBASER. Mobilier Urbain- Grupo Dragados y Construcciones. ESCOFET 1886, S.A. ACIERIES DE CHARLEVILLE
		B 맨홀			●	7-A-1	Valerio Sacchetti(1992)	
		C 가로수 지지대			●	7-A-2	Norman Foster(1990)	
		D 가로수 덮개류, 드레인			●	7-A-3	Jean-Michel Wilmotte(1992)	
		E 보도블록		◎	●	7-D-1	Oscar Tusquets(1994)	
8	놀이의 기능적 요소	A 놀이터와 공원시설		◎	●	7-D-2	Estrella Ordonez-Enric Pericas(S.E.U)(1992)	CONTENUR, S.A. Fundiciones de Hierros COLOMER, S.A.
					●	8-A-1	CANAL Atelier d'Architecture(1986)	
					8-A-2	Roberto Ferreira-Elsa Lopez(1982)		
						Antoni Rosello(1991)		

제 3 장 버네쿨러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버네쿨러(Vernacular)라는 용어는 과거로부터 잔존하여 왔으나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았으며 널리 이해되지도 않았고 버네쿨러 디자인의 실체인 문화적 사물(Cultural Object)도 사라져 희귀해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과정에서 진행 조사하여야 할 버네쿨러 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개념의 인식과 용어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제 분야(공예, 산업, 건축, 조경, 환경, 시각)와의 연계성 파악을 통하여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여 그 의미와 혼돈을 피하고, 버네쿨러의 특성과 배경 등을 고찰하여 그 의미를 발견하며 이를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연구 과제의 바탕을 형성하고자 한다.

제1절 버네쿨러 디자인의 연구배경 및 필요성

한 지역의 지리적, 풍토적 자연경관과 인종적인 배경아래서 민중의 일상적인 생활 양식과 자연스러운 욕구에 의해 이루어진 버네쿨러 디자인은 실용적이고 유기적인 조형과 문제해결이라는 면에서 오늘날 디자인의 시사하는바가 커 자연(Nature) 및 과학기술(Technology)과 함께 현대디자인의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되어있다. 즉 버네쿨러적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사물은 특정한 개인의 의지보다는 관습적인 방법과 생활환경의 지배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시각적 결성을 위한 조형보다는 노동량을 경감시키기 위한 실제기능에 중점을 두어 무의식 중 생활속에 베어 있는 해박한 미의식이 투영되었기 때문에 현대의 장식이 결제된 기능주의 양식과 상통하며 각 지역별로 독특한 생활환경에 적응하기위하여 생물학적인 진화과정처럼 여러 대를 거치면서 형태의 승연과 사용성의 개선이 이루어져 유기적인 문제 해결과정과 생태계의 적응하는 인간중심의 디자인 전통을 보여준다.

이러한 버네쿨러 디자인이 가지는 중요성과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버네쿨러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인 순수미술이나 미술공예 분야에 비해 미미한 상태이다. 이는 우리의 민속도구 분화를 단순히 비과학적인 후진성의 산물로 인식하여 소홀히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18세기 이후부터 동양보다 앞서기 시작한 서구물질 문명의 유입은 우리의 전통 문화 체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이 조선 말기의 쇠국정책과 식민지 지배는 근대 산업사회화의 지체와 서구문물에 의한 문화적 지배를 가속시켰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생활체제는 약화되거나 단절되어 상대적으로 우리의 문화적 배경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과소평가 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만연케 하였다. 근래에 와서 외래문화의 일방적 지배에 의해서

생겨난 문화적 소외감과 급격한 산업사회화로 야기된 부정적 측면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과거의 전통문화에서 찾고자 하는 흐름에 의해 우리 고유의 것에 대한 가치 정립이 새롭게 요구되어지기 시작했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우리의 전통이 갖고 있는 직관적 성질을 산업기술과 결합시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이상아래 전통 문화의 현대적 수용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예술 중심적인 고정관념에 억눌려 우리의 전통조형이 갖고 있는 직관적인 특질을 주로 일부 계층을 위한 전통회화나 미술공예에서만 찾으려 했기 때문에 실제 대다수의 민중에 의해 이루어져온 민속적인 생활문화가 소외되어 진정한 직관적인 특질이 무엇인가를 혼란케 하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디자인의 제 분야에 수용된 전통적 조형의 특질들을 피상적이고 역사주의적인 반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버네쿨러적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생활문화 즉 민속도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 분야는 디자인적인 시각에서 거의 연구, 분석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디자인 사적인 면에서 한국의 산업·환경디자인과 우리의 버네쿨러 디자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한국의 현대디자인은 서구에서 인식시켜온 외래문화로 우리의 전통과는 비교적 무관한 개념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디자인 개념이 산업혁명이후 예술과 산업기술의 결합을 바탕으로 서구에서 먼저 출발되어 우리의 전통 수공예 개념에서 한국의 산업디자인이 분화, 발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전통적인 버네쿨러 디자인 작품속에도 현대 디자인의 뿌리로 연결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버네쿨러 디자인을 현대디자인과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전통적 직관의 특질을 파악하고, 그 현대적 의의와 바람직한 수용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전통문화의 특수성을 보존한다는 점과 오늘날 디자인에 있어서 해결하는 데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제2절 버네쿨러 디자인에 대한 정의

1. 버네쿨러 디자인의 요소별 특성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서 그 어의를 본다면 버네쿨러(Vernacular: [ver-nákye-ler])는 '자국어, 방언, 전문용어, 일상구어의, 지방 특유의 풍토적인' 등이 있다. 또, 한 지방의 고유의 언어, 특히 교육에 의해서 정제된 언어나 표준어와 비교하여 일상언어, 매일 사용되는 언어와 사투리로 정의하고 있다. 존 코벤호벤(John A. Kouwenhoven)은 그의 저서(Made in America)에서 버네

쿨러는 용어를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발전시켰으며 이 용어를 건축이나 건물과 연관시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디자인 분야를 설명하는데도 사용하였다. 디자인 용어로서의 버네쿨러는 문화적 사물에 나타난 그 지역의 민속적 특성을 일컫는 표현이며 지역적인 전통적인 전통이 지니는 특성을 의미한다.

존 파일(John Pile)교수는 버네쿨러 디자인을 디자인의 3가지 근원적인 요소(자연, 버네쿨러, 과학기술)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곧 버네쿨러가 디자인을 통한 그 지역 나름대로의 전통의 미와 모습을 고도로 발달된 현대 디자인의 영역에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독특한 문화를 재창조”해낼 수 있는 디자인의 “원천적인 개념”이라 설명하고 있다. 에드워드 스미스(Edward Lucie Smith)는 그의 저서에서 좀 더 넓은 뜻으로 지역적인 전통이 지니는 특성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버네쿨러는 1857년 스코트(George Gilbert Scott)가 처음으로 디자인에 사용하였으며* 건축 분야에서도 브룬스킬(Brunskill, 1961)이 1939년경 인용한 이래로 브룬스킬은 ‘세련된(Polite)’에 대조되는 뜻으로 레포폴트(Rapoport, 1969)는 ‘하이-스타일(High-style)’에 대조되는 것으로 클래식(Classic, 1968)은 ‘학술적(Academic)’에 대조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의가 동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버네쿨러 디자인의 전통은(대부분은 농민들의 전통)은 지리적, 풍토적 생활환경과 양식에 따라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장식적 요소가 지배적인 전통사회의 문화적 영향 아래 이러한 특성이 그 시대의 장식적인 Style로 표현되기도 하여 수공예적인 개념으로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디자인 사가들의 일반적인 경험이나 엄밀한 의미에서 수공예 자체를 버네쿨러 디자인이라 하기에는 실제 생활도구의 적지 않은 부분들이 자연재료를 간단히 가공하는 방법이나 혹은 산업적 방식 즉 수공예적인 관점과 구별되는 수공업적 방법으로 만들어져 그 수용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버네쿨러 디자인은 버네쿨러적 전통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을 경우 수공예 뿐만 아니라 수공업적 생업에 의하거나 자연소재를 간단히 변형시킨 민속도구도 그 대상으로 넣는 것이 타당하다.

버네쿨러 디자인의 특성을 요소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생업자와 소비자

- 생업자는 전문교육을 받지 않는 일반 민중이다.
 - 생업자와 소비자는 동일인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 생활권내에 거주한다.
 - 자연속에 내재되어있는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작가 미상이다.
-

-
- 한 개인이나 특정집단에 의해 일시적으로 개혁된 물건은 버네쿨러 디자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대상 및 욕구

- 사회적 신문상징을 위한 Status Symbol, 종교양식에 관계된 Ceremonial Function의 - 물이나 개인적 기여를 위한 장식적 미술공예품이 아닌 실생활 도구가 중심을 이룬다.
- 육체적 노동 경감을 위한 실생활의 욕구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다. 방법론

- 일반적으로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방법이 아닌 일상적인 개념이나 습관적인 방법에 의한다.(시대적 특성)
버네쿨러 디자인의 시대적 상황의 관점으로 판단하여 보면 비록 계획적인 방법으로 구상하여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으로 미루어 보아 버네쿨러 디자인에 포함될 수 있는 점도 포함하고 있다.
- 드로잉이나 모델마케팅에 의한 수정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구전에 의해서 개선된다.
- 특정한 개인의 의지보다는 생활 환경의 지배아래 여러대를 거치며 반복되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정, 문제점이 점차적으로 해결되고 최소화되어 방법론상 생태계의 유기적인 진화과정과 흡사하다.

라. 조형과 기능

- 실생활이 욕구 충족을 위해 실제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장식이 절제된 소박한 생활의 미가 버네쿨러 디자인의 조형적 특질이다.
- 마감처리가 정교하지 않다.

마. 상징성

- 노동과 실용성을 형태에서 상-하나 버네쿨러 디자인의 상징적 특징은 도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과정에서 형성되는 규범 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상과 같이 정리하여 볼 때 버네쿨러 디자인이란 생활 전반에 걸친 환경을 대상으로 일반 대중들이 그 주체를 이루고 있으며 그 지역의 사회 문화적인 전통에서 이루어져 온 지방성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고, 지역적인 풍토적 속성을 반영한 것으로 생활속의 일상적인 개념이나 습관적인 방법에 의해 표현되어 졌던 사물로 판단된다.

2. 버네쿨러 디자인과 전통과의 관계

버네쿨러 디자인의 우리 어원을 고찰하여 볼 때 민속, 풍속, 토속 등과 같은 유사한 의미로 살펴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어느 특정한 단어가 버네쿨러와 동일시된다고 정의 내려진 바는 없다. 또한 전통과의 불명확한 개념 정립은 자칫 의미의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 이에 각 용어의 명확한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그 차이점을 규명하여 보고 이를 통하여 버네쿨러 디자인이라는 어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의미의 혼돈을 피하고자 한다.

“전통(傳統, Tradition)”이란 말은 문자이외의 수단으로 무엇인가를 전수하는 행위 자체나 전수되는 문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문화내용 중에서도 특히 하나의 문화를 특색 지우는 뚜렷한 요소 또는 요소들이 긴 역사를 지니고 있을 때 그 요소들의 집합을 좁은 의미에서 ‘전통’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전통은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 후세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줄 수 있는 고유가치를 지녀야 하고 그것은 시대라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새롭게 살수 있는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즉 한 민족의 전통이라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꿰어지는 문화적 맥락으로서 시간성, 공간성, 주체성의 세 요소의 종합에 의해 만들어지고 존재되어 진다.

‘시간성’의 관점에서 전통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느 만큼의 시간적 지속성 가졌던 현상이라야 하고 적어도 상당기간동안 내려왔던 현상이어야 한다.

‘공간적 특성’으로는 지역성을 가진다. 역사를 통하여 각 시대를 거쳐 전승되어 내려오는 한 지역의 사회적 집단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 다.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적 소산이며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된 인간의 행동, 관습, 습성은 전통을 형성하는 기본이고, 그 지역의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인문적 여건이 전통을 형성하는 것이다.

‘주체성’으로써 전통의 주체자는 민족이다. 종종 계층에 따라 민족을 상류 계층과 민중의 전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전통은 민족의 생활 문화 속에서 생성된다. 전통은 특수인이나 어느 한 개인의 것이 아니며 만인의 공감에 집약되었을 때 전통으로 계승되는 것이어서 전통에는 주체자의 의식이나 생활이 반영되기 마련이며 민족적 공감이라는 바탕 없이는 전통의 힘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전통은 민족적 공감에 의해 형성되어 공간적 한계에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고 되살아나 오늘에 거쳐 미래에 이르는 것으로 어떤점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핵심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이란 어느 한 민족이나 국가가 서로 지역을 달리하여 다른 민족

이나 국가 또는 지역과는 달리 어떤 특색을 끊임 없이 닦고 가꾸어 가면서 새로운 요소를 더해가는 그 특색의 총체이며 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야 한다. 또, 전통의 주체는 인간이고 그 인간을 위하여 전통은 존재의 의미가 성립되어야 한다.

한편, 보편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전통'이라는 용어는 지배계층의 문화를 일컬어 쓰이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문화, 경제, 역사적 특성상 민중(평민층)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만한 여력이 지배계층인 양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으며 더욱이 그 보존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적 전통계승은 일반적으로 상류층의 고급문화로부터 전승되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은 실제로 대다수 민중들의 보편적인 문화양식이라기 보다는 특수 신분을 위한 대표성을 띤 문화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버네쿨러 디자인은 민중들의 문화를 대변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 기술적 혜택을 받지 못한 일반대다수 서민들의 실생활양식이다. 또한 문화, 기술의 발전으로 쉽게 사장되어 버리고 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성에 의한 독특한 문화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버네쿨러는 우리 일반 민중을 대표하는 전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버네쿨러의 특성상 대표성이 부족하고 현대에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의 전통이라는 범주에 속하지 못하고, 오늘날 인식의 부족에서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이 가지는 지역성과 공간성의 부분에서는 버네쿨러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주체성에 있어 특수계층과 특정인에 의해 전승되어온 것을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전통적으로 지속되어온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장인들의 손에 의해 전승되어 온 관계로 위에서 설명한 버네쿨러 디자인의 특징이 알려지지 않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사항과 연결하여 볼 때, 전통에 대해서 그 뜻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 3 절 한국 버네쿨러 디자인의 특징

한국의 버네쿨러 디자인은 구석기시대 이래 한반도에서 사용되어온 민중의 실생활도구에 존재하여 왔으며 생활방식의 구체적 구현이라는 점에서 민중 문화의 전통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민속공예의 범주에서 다루어져온 민속도구에 내재하는 디자인적 요소는 의도적인 조형작업이 배제되었다는 점에서도 장식적인 조형의 대상이 아니라는 선입관 때문에 공예미술 분야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되어 사적인 측면은 물론 전통문화의 현대적 수용이라는 관점에서도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 항상 창출되어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놓여져 그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사물은 생활문화의 제요소”라는 막스빌(Max Bill)의 말과 같이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디자인행위의 중심대상이 실생활도구이며 이렇게 디자인된 인위적 환경이 우리의 생활의식을 규정한다고 볼 때 실생활도구가 갖는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속 생활도구에 나타난 조형적 특질의 파악은 전통문화의 올바른 인식의 근원적 요소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속생활도구에 나타나는 기본적 특성은 허버드리이드(Herbert Lead)가 농민예술의 특징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보편성이라고 하였듯이 소박, 단순하고 추상적, 보수주의적인 면에서 범세계적이라 할 수 있으며 생활에 밀접한 기본적인 도구들일수록 그 보편성은 보다 광범위해진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도구들은 형태와 기능상에서 변화와 진화를 이미 A.D 500년경에 끝내고 오늘날의 형태와 거의 유사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간단한 도구일수록 기술적인 제약이 적으며, 경제적 기술이 약한 민중이므로 생활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문제해결과정에서 형태인자 구별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속 생활도구에 나타나 보이는 보편성의 특질은 기본적인 형식에 있어서의 보편성에 지나지 않으며 풍토적인 특성, 인종적, 역사적 조건 등에 의해 도구의 종류와 질적인 다양함에서 차이가 생겨나 각기 고유의 생활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마다의 독특한 버네쿨러적 전통이 보여지는 것이다. 한국의 일반적 조형문화는 중국의 문화영향권 안에 있었으나 목공품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풍토적 환경과 생활의식의 상이한 점에서 중국과 다른 조형적 특성을 지녔는데 자연에 순응하는 민족적 기질과 생활의 소박한 미의식이 무의식중에 투영된 많은 민속생활도구들은 다소 거친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갖는 자연미와 장식을 절제한 기능적인 형태에서 오는 건실한 창조미가 돋보여 기능주의 디자인미학에 바탕을 둔 현대적인 제품을 연

상케 한다.

이러한 한국의 버네쿨러 디자인의 특성은 전래되어온 민속 생활도구에 내재하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미적 감수성과 기능에 대한 노력에 있으며 이를 연구, 정리하기 위해서는 미술공예나 민속공예의 관점에서 벗어나 디자인적인 시각으로 대상에 접근, 연구,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민속생활 도구문화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통해 형성요인과 변화과정 전통수공업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 대상의 종류와 재료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디자인의 제 조건에 의해 기능과 미를 연구, 분석하여 한국의 버네쿨러 디자인의 특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1. 버네쿨러 디자인의 형성과 전개

디자인 행위는 자연환경, 시대적 환경이라는 매체 속에서 실체화되고 진행되어진다. 제한된 환경에 대한 욕구 충족의 발로로서 나타나며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인 제한 요소에 의해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특정한 상황과 그 상황에 해당하는 조건 및 욕구 속에서 디자인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자연적 환경과 미적 감수성은 물론 생활양식과 사회구조, 예술적 상황, 노동 조직력과 생산품의 이동 수단과 방법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형성에 구속력을 지닌다. 따라서 이런 요인들은 디자인에 있어 미적 형식과 기능상의 특질을 결정 짓는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버네쿨러 디자인의 표현에 있어서 가공방법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자연에 인공을 가해 변형시킨 민중의 생활도구 모두가 버네쿨러적 특성을 지니므로 버네쿨러 디자인의 역사적 전개는 인류가 최초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구석기시대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후퇴한 상황이 민중과 분화되고 그들을 위한 미적 기능이나 상대적 기능이 강한 미술공예개념이 생겨나 조형에 대한 욕구가 실용적 가치추구를 벗어나기 이전의 도구문화는 그 자체가 버네쿨러 디자인의 대상인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미적 특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본 연구 과제의 효율적인 적용과 응용을 위해서는 우리 문화와 미를 형성시켜온 요인들 풍토, 토속, 민속에 대한 관계와 버네쿨러 디자인의 역사적 전개는 바로 우리의 생활문화사라 할 수 있어 각 시대별로 논리의 전개에 필요한 부분을 요약,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버네쿨러와 풍토, 토속, 민속

“풍토”는 한 민족이 살아 온 어떤 지역의 기후, 지형, 식생 등을 총칭하는 말로, 자연형상이 인간에게 미치는 현상을 심리적, 사회적으로 총칭하는 개

념으로서 근래에 유행어처럼 쓰는 풍토는 다분히 문화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정치 풍토, 한국적 풍토 등과 같이 일반적인 경향, 상황 또는 풍조란 뜻을 지니고 있다. 넓은 지역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고되고 생활화 되고 집단이나 사회적으로 공통성 또는 경향을 지니고 있을 때에 풍토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모든 사물은 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각자의 독특한 지각 방식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인다. 풍토는 이러한 지각 방식에 영향을 주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조형 예술은 바로 그 바탕 위에 그려진 그림이 되는 것이다. 풍토는 어떤 내용을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 축적시키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의식세계의 수면으로 우리 조형 의식을 드러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토속”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무척 어렵지만, 그 의미로서 전원풍의 것, 집에서 만든 것, 또는 전통적인 어떤 것을 들 수 있다. 보통 오늘날의 정의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자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곳의 원주민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을 가르킨다. 즉, 그 지역의 기술이나 자원 그리고 지역 환경 -기후, 전통, 경제-에 맞게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토속은 지적인 경향을 갖지 못하며, 지역적인 형태에 충실하고 거의 외부지역으로 부터의 개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토속의 특성은 이론적, 미학적인 선택의 결여, 대지와 미기후와의 검토, 주변환경에 대한 배려, 자연적이면서 약간의 인공성을 함유, 기존 질서 내에서의 약간의 변형 등으로 말할 수 있다.

“민속”은 환경을 같이하는 속에서 형성, 성장된 생활의 결과를 말한다. 그들이 속해 있는 자연적 환경과 역사적 환경,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가운데 신앙과 지혜로 엮어낸 생활 풍속양식을 말한다. 엘리트 문화를 대변하는 고급설계 전통보다 훨씬 더 다수의 문화와 실제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또한, 이러한 민속은 인공환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개의 의미는 개념적으로 유사하며, 상기에서 언급한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다. 근원적으로 각지방의 풍토적 배경 하에서 지역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토속’이나 동일한 사회, 문화적 배경 하에서 일반 민중 생활양식을 대변하는 ‘민속’의 개념들이 버네쿨러 의미의 근원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시대별 관점에서의 버네쿨러 디자인

가. 상고시대

구석기시대는 도구문화의 보편적인 특질아래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채집과

사냥생활의 기본적인 연장이었던, 타제석기, 마제석기, 뼈나 뿔로 만든 칼 뼈 바늘 등이 사용되었으나 이 시대의 한반도거주민들은 우리 한민족의 직관적인 직접적인 조상이 아니고 신석기시대 이래 북방민족을 이루는 알타이족 일부 즉 예맥족이 만주와 한반도로 이주해와 우리 한민족의 근간을 이뤘다. 신석기시대(전기 B.C 6000 ~B.C 3500, 중기 B.C 3300 ~B.C 2000, 후기 B.C 2000 ~B.C 1000)에는 토기, 목기, 수파가공품, 가죽제품, 막고제품 등이 주로 만들어져 사용되었으며 넓은 의미의 북방족 유목지대의 비채도 문화권에 속하면서 토기는 즐문토기, 무문토기, 석기시대의 말기에는 김해토기와 같은 비질토기가 만들어 졌다. 즐문토기는 시대가 내려가면서 점점 타문면적이 줄어들다가 마침내 무문토기로 바뀌었다. 한때 토기의 전면에 타종문이 시문되나 그 모체인 중국토기의 영향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고 문양은 없어져 신라토기로 발전하여 다시 무문토기가 된다. 농경은 즐문토기시대 말경(북부지방 B.C 7-6세기, 남부지방 B.C 2세기경) 화북지방의 농경문화의 영향을 받은 무문토기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재배와 수확에 필요한 농기구류와 정착생활에 수반되는 생활용구류등 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원시농경시대의 최초의 경작물은 피, 기장 등이었으며 조, 보리, 콩 등이 3-4세기경 백제에 벼작이 전해지기 전까지 화전법으로 경작되었다. 이 시기에 멧돌 및 시루등이 사용되었고 명주, 삼베는 삼국시대이전에, 모시는 신라시대이전에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농경의 발달로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청동기와 철기로 대표되는 금속문화를 갖게 되는데 청동기문화는 대략 B.C 10세기경 북쪽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철의 채취와 제련, 주조, 단조기술 등은 삼한시대에 일반화되었다. 솟대와 따비로 밭을 경작하는 모습이 새겨진 농경문의구 등 청동기유물과 ‘삼국지’ 부여전에 쟁기, 호미, 괭이 등 농구에 대한 기록을 보아 농구류나 생활도구류 등의 용도나 형태가 이때부터 오늘날과 비슷하게 안정되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삼국시대

삼국이 정립된 이후 A.D 1-2세기경에는 논농사기술과 철기문화가 널리 수반되면서 농업경제가 크게 진전되었다. 그에 따라 경제가 안정되어 사회문화가 분명해져 신분에 의한 식별로 여러 종류의 공장이 나타나고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세련된 공예미술품이 만들어지나 일부의 생활용품들은 여전히 자급자족의 형태에서 만들어졌다.

수공품이 조선의 성격을 지니면서 더욱 발달되고 관영공장과 솟씨있는 장인의 출현으로 공예 각 분야의 기법이 이 시기부터 자리잡기 시작되어 종류

도 다양해졌다.

우리 나라의 독특한 화각공예기법의 시작도 이 시기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화각법은 원래 당나라때에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대모에 채색하는 복홍 또는 복채라는 동일한 장식기법을 도입한 것을 계기로 해서 시작된 것이라 추정된다. 그래서 다른 공예의 분야와 마찬가지로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에 이미 화각공예가 시작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신라시대부터 수공적 신분의 계층에 의한 수공예도 나타났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목기를 만드는 마전, 책상과 반상류를 만드는 궤개전곡, 버들가지와 대나무로 상자를 만드는 양전, 여러 가지 기물에 칠을 하는 칠전, 채색을 위한 채관 등이 직제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삼국시대의 토기는 굵은 방식이 불완전하여 질이 약했으나 A.D 1세기에서 4세기경에 걸쳐 남쪽 해안지방에서는 터널식 요지를 사용하여 경질의 회청색토기를 만들게 되었고 삼국중 신라의 토기가 가장 발달하였다.

삼국시대의 금속을 다루는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많은 도구들이 금속으로 만들어졌는데 고구려에서는 한의 금속철기문화의 영향을 받아 채광, 야금의 화학적 처리과정 등 금속수공업의 제문제에 대한 기술이 발달하였는데 주조는 흙이나 돌로 형을 만들고 녹은 금속을 부어넣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가공을 위해 날카롭고 녹은 금속을 부어넣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가공을 위해 날카롭고 단단한 질의 공구가 사용되었다. 신라의 야금술은 노천 채광방법에서 농기구, 불상, 장신구 등의 수요가 늘어난 통일신라시대부터 목탄 탄소방법에 의한 대대적인 풀무 시설로 발전되어 기술수용이 당나라보다 높았다. 신라의 야금 금속직제로는 철유전과 남하소관이 있어 금속분야의 수공업은 관청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 졌으며 백제에서는 검도와 같은 도부에서 병기류를 생산하였고 외국에 단공과 철정을 내보내기까지 하였다.

백제초기의 고분으로 추정된 서울 구의동 고분발굴(1977년 잠실재계발에 따른 발굴, 서울대)에서 나온 쇠도끼, 세발쇠스랑, 호미, 낫, 쟁이, 쟁기, 보습을 보면 삽처럼 생긴 호미를 제외하고는 농기구의 형태가 오늘날과 거의 다름 없어 이와 같은 버네쿨러적 민속도구들은 A.D 500년도를 전후하여 형태의 원형이 거의 결정되었고 기물의 종류도 대부분 다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 고려시대

민중적인 생활도구들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를 거치며 형태와 기능에 있어 거의 정형화되었고 통일신라에서 전승된 바탕아래 생물의 진화과정처럼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며 아주 천천히 변모하여 왔으므로 고려시대에 들

어 특별한 변화는 없었으나 고려왕조의 정신적 배경이 불교에 있었던 만큼 공예미술이나 일상생활의 용구도 불교적인 색채가 농후해 진다. 불교의 융성과 부족사회의 팽창으로 각종 불구가 제작되고 부족취미에 맞는 화려한 도자기가 생산되는데 고려청자가 그 대표적 예일 것이다.

고려초기에는 신라토기의 기술이 전승되어 신라장식에 가까운 토기가 사용되었고 고려토기들은 회흑색의 색조를 지닌 무문토기가 주종을 이루었다. 형태는 신라장식에서 많이 탈피하여 고려적인 기형이 나타나는데 대담하게 물레자리를 내는 등 물레질 수준이 높아졌다.

고려청자는 7세기무렵부터 시작된 오랜 전통의 기법 아래 고려초인 10세기에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며, 중국 도자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청자와 백자의 탄생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청자에 대한 편애로 백자는 수요가 적었으며 10세기무렵은 재래식 토기가 자기로 점차 바뀌어 가는 시대이나 일반민중의 대부분은 토기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2세기 후반 청자상감기법이 전입되며 1157년에는 청자기와도 만들어져 사용되었는데 고려청자의 특색은 세루상감법에 있으며 이것은 고려의 독창적인 수법으로 금이나 동을 상감한 동기의 입사기법이나 나전칠기기법을 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감문양으로는 운학문, 포유수금문, 야국문이 즐겨 쓰였는데 이러한 문창의 배경에는 불교적인 당시 고려인의 정신세계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2세기 중엽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절정을 이루었던 고려청자는 13세기 후반부터 점점 쇠퇴하여 단정하고 우아한 멋보다 실용성과 안정성이 강조되는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는 국운의 쇠퇴로 지배계급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다시 민중화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목칠공예는 현존하는 것이 드물지만 '고려도경'에 나전으로 만든 안장을 극정교라고 표현한 점으로 보아 당시 상당히 우수한 나전칠기제품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관영공방으로 중상서에 소목장을 두었다.

금속분야에서는 고려 향완과 청동정병의 입사기술이 돋보이며 관부에서는 군기사를 두어 금속제품을 생산하였다.

고려사의 잡식서에 마식이, 또 '선화태사고려도경'에 토산물로 저마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공기조에 당복백저포라고 되어있음을 볼 때 일반민중은 삼베와 모시를 상용하였고 염색되지 않은 흰 옷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다.

고려의 채색은 특정한 분야에 한정되어 사용되었는데 그 색상의 종류로는 대략 청감색으로 감색, 녹색, 청색, 오색 등이 있고 자주와 붉은 빛으로는 단, 비 등 황색계로는 적황색, 주황 등이 있었다.

통일신라시대이래 시작된 승려 수공예는 고려시대에도 이어져 무명이나 모시의 직조와 유리기와제조 등에 승려가 삼흥하였으며 수척, 화척, 양수척이라 불리는 서민집단에 의해 버들고리가 생산되었다.

라.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한마디로 철저한 평범의 세계, 다시 말해서 민중의 일상도구뿐만 아니라 미술공예품의 조형세계까지도 소박하고 간소한 실용적인 멋을 지니어 버네쿨러 디자인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의 시대적 특성과 풍토적 특성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 나타난 결과로 목공품이나 백자 및 기타 생활용구 등에서 그 특질이 잘 드러나 보인다.

조선시대의 시대적 특성은 무엇보다도 삼국이후 천년 가까이 지배되어온 불교의 영향이 비불종유정책에 의해 감소되어 신비롭고 유연한 불교문화의 귀족적 성격에서 탈피, 근엄한 유교의 영향아래 절제, 검소한 유교문화로 변화되었다 라는 데 있다. 유교적인 금욕주의 중용사상과 조출한 생활여건이 특출하고 화려한 경향이나 기법을 억제하였고 풍토성을 배경으로 한 전통적인 자연주의가 여기에 작용해 조야하다고 까지 할 무식, 무화의 조선적인 특질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질은 바로 한국의 버네쿨러 디자인의 성격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시대의 농촌민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민구가 생활도구들이기에 더 솔직하게 감정이나 의식이 반영되고 더 강하게 기능성이 표출되었으며 장식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농촌사회 역시 온전한 공상적 수공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농업 위주의 농가에서 여가를 이용한 부업적 수공업형태로 생활도구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주로 자급자족을 위한 직조, 농경기구, 가구식기, 조리기구, 초막제품 등이었다. 이러한 물품들은 원료의 생산과 가공이 자체에서 이루어지고 도시수공업과 달리 특수한 기술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민중 누구나 만들 수 있었으며 만들어진 여분은 물물 교환되거나 시도에 판매되었다.

조선백자나 목공품은 민중이나 장인, 그 누구에 의해 만들어 졌건간에 관계없이 민중의 소박하고 간소한 버네쿨러 디자인전통에 다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백자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고려말에 이르러 청자기가 쇠퇴하여 계룡산 주변에서 시작된 분청사기가 발달하였고 이것이 이조에 연장되어 초기에는 백자보다 분청사기가 널리 사용되었다.

조선초기 이후에는 분청자기가 사라지고 백자가 나타나는데 대강 무늬없는 소문의 것과 양각, 음각, 상감의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백자는 견실한 형태에 기능적이며 인간적인 파스함이 표현되어 평범한 속에 조형미를 느끼게 하며 고용섭선생이 말했듯이 무기교의 기교를 느끼게 한다.

인공적인 제식이 절제된 백자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미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자연의 표현인 것이다.

조선시대의 목공품에서는 백자에서 볼 수 있는 소박, 간소한 미에 실용적인 면이 더욱 돋보이는데 이는 금속장식을 줄이고 나무가 갖는 재질감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소박하면서도 견고한 조형을 이루는데서 연유한다.

일반민중들이 사용한 목공품은 산간부락이나 농촌에서 소농소공적형태나 부업으로 만들어졌으며 제작기법은 구조와 결합이 별다른 공정없이 연장으로만 깎고 다듬어서 완성하거나 물레에 걸어서 깎아내는 즉 간단한 기계사용방식이 대부분이었으며 복잡한 구성과 장식공정을 필요로 하는 짐이나 농등은 민간공장이나 관영공장에 의해 주로 만들어졌다. 조선시대의 관영공장은 경공장에 목장, 소목장, 표등장, 목요장과 관찰사 예하의 외공장이 있었으며, 외공장은 지역특색이 농후한 목공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지방일수록 장인의 기능이 민속적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소반의 예를 보더라도 해주반이니 통영반, 나주반이니 하여 명지방별로 일정한 특색을 보이는데 이러한 지방적 성격의 차이는 토산품을 낳게하며 민속적 특징을 짙게 하였다.

조선시대의 민속도구 내지는 민속적인 전통아래 만들어진 수공예품들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버네쿨러적인 진화의 마지막 단계로 버네쿨러 디자인의 주 연구대상인 것이다. 즉 버네쿨러 디자인의 진화과정은 자연의 진화과정과 같아 환경에 순응 못하는 요소는 사라지고 가장 시대성과 풍토성에 적합한 요소들이 남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버네쿨러 디자인이 오늘날의 디자인에 수용하기 적합한 요소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조선시대를 그 중심으로(1400~196년대) 의, 식, 주 및 산업과 관련되어 비교적 전래적 생활 방식과 도구의 정신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일반 서민들의 생활 안에서 쓰여지던 도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시대 이후로 그 범위 중심에 둔 점은 고려 등 그 이전 시대의 전통문화 유산은 면면히 계승되어 다음시대 근저에 깔려 있으리라는 추측과 조선시대는 비교적 자료수집 등, 연구가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연구의 방법은 국내에서 출간된 관련 서적과 사진 자료 및 현장 조사를 토대로 하였다.

제 4 절 버네쿨러 디자인의 분야별 특징 사례 연구

버네쿨러 디자인과 가장 밀접하고 활용성이 높은 3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서로의 이론적 발전과정과 상호 연계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1. 버네클러 디자인과 공예분야

버네클러 디자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생활문화의 중심인 공예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공예가 이루어 온 성과에 내재하는 특질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조형분야에서 공예라는 개념처럼 광범위하고 그 범주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용어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철학에서 모든 학문이 시작되었듯이 조형예술의 모든 분야가 공예 개념에서 분화되어 나와 그 경계가 중복되어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공예 그 자체 안에서도 용도, 재료와 기술, 생활 방식, 생업자와 사용자 등에 의해 다시 분류되기 때문이다.

가. 공예의 역사적 발전 단계

공예는 크게 세가지와 역사적 단계를 거쳐왔다. 이 단계에 따라 정의와 범위가 조금씩 달라 졌는데 이를 살펴보면,

(1) 수공예 단계

모든 것이 공예였던 시기로 모든 제작과정은 손을 사용하는 과정이었고, 만들어진 물건은 실질적인 것이든 의식에 사용되는 것이든 또는 장식품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수공예의 산물이었다.

수공예는 노동방법에 있어서 유기적인 연속성을 지녀 감수성의 연속적인 연결을 보여주었으며 노동자가 미나 양식미, 양식같은 특질을 의미하는 활동이 아닌 실생활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연적인 활동이고 미는 노동의 자연스러운 부업물이었다. 이 단계는 다음 단계에도 민속적인 형태로 유지되면서 산업화 이전까지 수공예로 만들어진 사물에 나타나는 감수성의 일관된 유지는 오늘날에도 공예의 가장 중요한 특질로 인식되고 있다.

(2) 순수미술과 공예의 개념적 구분 단계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진행되면서 순수미술과 공예개념간의 개념적 분류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되는 단계이다. 회화나 조각에서 점차 용의 기능이 배제되면서 순수와 비 순수의 구분이 나타나기 시작되었고 공예는 일반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낮게 평가 되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Arts와 Crafts라는 단어가 명확히 구분되어 쓰이지 않았으며 일부 계획을 위한 귀족적인 미술공예와 대중을 위한 민속공예가 확실한 형태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3) 산업혁명에서의 구분 단계

산업혁명과 더불어 기계 제조 상품(Machine-Products)작업을 Applied Arts, Industrial Arts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구분하여 후에 Industrial Design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고, 공예의 개념은 Hand Crafts로 한정되어 버렸다. 또한 민속공예는 각 지역마다 전승되어온 전통기법과 그 고장의 산업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내는 조형예술로서, 기구적 성격을 지닌 것을 민속공예에서 제외하는 소극적 이해와 좀더 포괄적인 해석으로 생업자가 누구인가 확인됨 없이 백성의 생활에 널리 쓰여진 수공적 성격을 띤 모든 유형적 재료와 기술로 정의하여 다소 고급한 공예품류와 농가의 단순, 소박한 농기구류에 이르는 많은 유형적 재료를 민속공예에 포함시키는 적극적 이해가 있다. 여기서 포괄적인 민속공예의 정의는 버네쿨러 디자인의 정의와 거의 같으며 그 대상도 동일하다. 그래서 버네쿨러 디자인이 민속디자인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생활 문화의 중심인 공예와의 관계에서 보다 명확히 버네쿨러 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다. 버네쿨러 디자인은 공예와 민속공예 개념과 의미 상통하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민속공예는 각 지역마다 전승되어 온 전통기법과 그 고장의 산물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내는 조형예술이다. 포괄적인 해석으로 생산자가 누구인가 구속됨 없이 민중의 생활에 널리 쓰여진 수공적 성격을 띤 모든 유형적 자료와 기술로 정의하고, 소극적 해석으로 다소 고급한 공예품류와 농가의 단순, 소박한 농기구류에 이르는 많은 유형적 자료를 민속공예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포괄적인 민속공예의 정의는 버네쿨러 디자인의 정의와 거의 같으며 그 대상도 동일하다. 그래서 버네쿨러 디자인이 민속 디자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편으로 민속공예는 공예의 한 분야로서의 분류적 표현이지만, 버네쿨러 디자인은 디자인적 시각에서 전통적인 문화적 목적(Cultural Aim or Cultural Purpose)에 내재하는 특질을 나타내는 분석적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더 포괄적이다. 그러므로 두 용어는 같은 내용과 같은 대상을 정의한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시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버네쿨러 디자인은 공예에서 이루어져 온 성과 중에서 버네쿨러적인 전통을 지닌 사물의 특질을 디자인적인 시각에서 표현할 때 쓰이는 용어로서 공예에서의 버네쿨러 활용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재에도 실생활에서 그 사용을 찾아 볼 수 있다.

나. 공예의 버네쿨러적 요소

공예의 버네쿨러적 요소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

생산자는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민중이며, 생산자와 소비자는 동일인이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현 생활권내에 주거한다.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는 디자인과 마차가지로 작가 미상이고,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일시적으로 개혁된 물건은 버네쿨러 디자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대상 및 욕구의 관계

사회적 신분 상징을 위한 신분 표적(Status Symbol), 개인적 기호를 위한 장식적 미술 공예품이 아닌 실생활 도구가 중심을 이룬다. 육체적 노동 경감을 위한 실생활의 욕구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2. 버네쿨러 디자인과 건축·조경분야

가. 건축

건축에서의 버네쿨러는 지역적인 가옥 유형이나 스타일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지방 고유의 재료들을 사용하고 그 지방의 지리적이고 기후적 조건에 순응할 수 있는 또는 그 지역의 고유의 역사를 반영하기도 한다.

버네쿨러 디자인 가운데서 가장 현저하고 개인적이면서 순수하게 종족적 특색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주거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주거 공간은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 등의 여러 조건에 따라 민족, 종족마다 각기 상이한 디자인 패턴을 보이는데 이러한 시각에서 본 버네쿨러 디자인은 다른 말로 민족, 종족 건축이라고도 표현된다. 민족건축은 오랜 옛날부터 조정되어 오며 반복, 복제되어 한 문화권에서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공유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한옥은 오래전부터 역학적인 구조의미를 나타냄으로써 옛 성인들의 슬기롭음과 뛰어난 건축미를 보여주고 있다. 밖으로 표출되는 우리 나라 건축의 대표적 특징은 지붕과 단청, 바시미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이 내재하고 있는 조형적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의 초가지붕은 자연의 형태를 닮으려는 의식보다는 짚이 만들어주는 자연스러움의 형태를 존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초가지붕의 자연스러움은 모나지 않고 둥그스름해서 구수하고 은근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두툼하여 꾸밈없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것이다. 즉 우리를 긴장시키기 보다는 긴장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작용한다. 이에 반하여 기와 지붕은 양식이 갖추어진 건축으로서 조율된 형태의 철저한 계획성 아래 지어졌기 때문에 초가지붕과는 다른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 건축의 또 다른 한가지 특징은 단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귀족적인 면을 지니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시각적 의미 전달로 이해하기 바란다.

우리 나라 단청은 세련되고 섬세한 구성이라도 도안은 편이하고 시채용이성을 도모하며 명쾌한 장식성과 낙천적 표현으로 된 것이 특징이다. 색채는 음지와 양지를 가려 쓰고 수직재의 강조와 가로재의 경쾌성을 고조하도록 도재하여 건물의 구조 부재의 힘을 배려한 배색법을 썼으며 규율있게 배색하고 반복 처리하여 색조에 울동을 부여, 변화와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색의 청탁·명암을 헤아려 그 효율을 높이고 흑과 백을 능숙히 다루어 빛의 농담, 도채법과 대조색의 나열 순위 등의 완성되었다.

나. 조경

버네쿨러조경(Vernacular Landscape)역시 그 정의 상 전문적인 조경가나 디자인에 의해 생성되어진 것이 아닌 지역적 전통으로부터 또는 지역적 소재를 이용하여 조성되거나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조경디자인이나 형태를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버네쿨러 조경의 한 단면으로서 민가의 정원 양식을 살펴본다면, 정원은 특수한 계층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다만 약간의 식재 방법 위주로 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화단 형식에 있어 안살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화단을 조성하고 관목류의 꽃나무를 심는 정도이다. 집안의 여유 있는 빈터는 모두 텃밭으로 이용되며 부식 조달 공간으로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대 시설로서 근래에는 그 효율성이 약화되어 버린 장독대 공간, 휴식의 장이 되기도 한 우물가에 꽃밭을 가꾸기도 하였다. 우리의 주생활 문화는 마당과 함께 발달하였으며, 이를 둘러싸던 담은 여러 형태로 발전하였다. 민가 담장은 가장 낭만적인 짜리울에서부터 돌담, 토담, 흙벽돌담 등이 있으며, 놓는 양태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담장을 둘러서 내부를 보호하는 성격을 띄었다. 우리 정원의 버네쿨러적 특색은 정원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려는 것처럼 꾸미지 않은 듯 꾸며 놓은 초원의 모습이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버네쿨러 조경은 생활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생활 문화와 자연 공간이며, 현대의 기능주의 조경 디자인과 같이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무형의 자원인 선조들의 사상과 자연관 그리고 그들 생활 실체를 명확히 한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서로 구분하기보다는 유기적으로 서로 보완하며, 버네쿨러 디자인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버네쿨러 디자인과 산업디자인분야

가. 산업디자인과 버네쿨러 디자인의 관계

“산업디자인은 재료와 방법을 가장 생업적이며, 경제적으로 조직하고 어떤 기능을 창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결합시키는 행위이다.” 그것은 단순히 외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제품의 총체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또한 디자인은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인 요소, 생태학적인 필연성, 재료, 형태, 색상, 양감, 공간의 심리적인 효과 그리고 이들의 상호관계를 이루게 하는 사고를 결합시키는 행위이다.” 하고 모홀리 네기(Moholy Nagy)가 정의한 산업디자인과 버네쿨러 디자인은 생업수단과 디자인방법론 생산과 소비상황에서 구별되나 미적인 기능이나 상징적인 기능보다 물의 1차적 실제 기능에 중점을 두는 기능주의적 조형과 각각 일반민중과 대중을 위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상통하는 바가 크며 버네쿨러적 조형에서 보여주는 유지적인 문제 해결은 인간중심의 디자인을 지향하는 현대산업 디자인에 중요한 참고결과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산업디자인이라 함은 총체적 개념으로 실생활에서 활용하였던 모든 생활도구들이 포함된다. 또한 실생활에 활용하였던 많은 물건 및 도구들은 현 시점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현대 생활의 유형에서 더 이상 사용 불필요한 품목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과정에서는 버네쿨러 디자인의 품목별 분석과 사례연구·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 5절 버네쿨러 디자인의 품목별 분석

1. 의복류



종이상갓



누비바지, 적고비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민족의 의복류의 모습들은 주변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 기본형식은 우리만의 고유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때로는 순수하게 때로는 화려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복식은 인간 생활의 직접적 표현인 까닭에, 처음에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만 있었으나 차츰 한 겨레를 이루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시대의 사회성과 문화상을 반영하게 되었다.

우리민족은 북방의 기마 민족으로서 만주와 한반도에 자리를 잡았다. 따라서 의복도 추위에 강하고 수렵과 유목에 적합한 것으로 발전해 갔다. 뒤이어 농경생활이 시작되고 인접 국가와의 교류로 문화를 흡수하면서 더욱 풍요로와 졌으나, 우리민족 고유복식의 기본형식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요즘 실용한복의 모습도 보이지만...)

고유복식의 기본형식은 유, 고, 상, 포를 중심으로 갈모, 대, 화가 첨부된다. 유는 상의이며, 고는 바지, 상은 치마를 말한다. 여기에 갈모를 쓰고 허리에 대를 매고 가죽신을 신어 포피로서의 의복 형태를 갖추었으며, 그 위에 포를 더해 한대성 의복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이러한 형식은 삼국시대 이전 부족국가 시기에 이미 마련되었으며, 그것이 점점 정제되면서 장식과 의장이 풍부해졌다.

1-1 관류



갓갓갓

관모의 발생은 머리를 정리하고 추위, 비, 눈을 피하기 위한 자연적인 환경에서 출발하여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로 발전되는데 각저총 씨름도, 무용총 태권도와 삼실총 장사도에는 상투모양이 보이고 있어 남자의 상투형은 최고의 수발형태로 보이며 이에 필요한 관모가 필요할 것이다. 감신총 기마인 물상은 립을 쓰고있어 비, 눈, 햇빛을 피하기 위한 실용적인 관모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용총의 승이나 무용수 각저총의 씨름꾼 등 기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자까지 관모를 쓰고 있어서 조선시대에 탈모를 불허하던 풍습은 오랜 전통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다양한 종류의 관모류가 보이고 있어 당시의 관모가 이미 남자의 계급을 상징하는 표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관의 착용은 양반들에게만 허용되었고 관모와 탕건은 모든 직급의 관리들에게 공통적인 것이었다.

여자의 경우는 관모보다 머리 모양에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백제에서도 혼녀는 머리를 땅아 뒤로 늘어뜨리고 기혼녀는 두갈래로 나누어 위로 들 어올린다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류의 분류를 크게 일상용과 재래용으로 구분 하여 계급과
분의 차이를 배제한 관류 자체에서 표현되어졌던 모습들의 연구에 그 중점
을 두어 진행하였다.

• 갓과 갓집-조선, 은행나무

갓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애용하던 나들이 쓰개로 신분제 따라 만든 재질의
차등이 있었다. 모자와 차양을 말총으로 엮어 만든 마미립과 실같이 가늘게
조갠 대오리로 엮어 가는 명주실 그물을 입힌 진사립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 양태의 넓이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넓을 때는 지름이 50cm가 넘
기도 했다.

말총으로 망을 떠서 만든 갓은 비나 햇볕 그리고 바람이나 추위를 막기에는
너무나 얇고 투명하다. 사실 갓의 멋은 썼지만 쓰지 않은 것처럼 머리가 환
희 들여다보이도록 한 그 투과성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갓을 써도 상투와
망건의 얼비치는 실루엣이 보이고 그때마다 달리 나타나며 환상의 물결처럼
어른거리는 겹무늬의 효과가 그 멋의 핵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삿갓은 갈대로 만들었는데, 역시 갈대를 반으로 쪼개 우산을 편것 만큼 넓게
엮어 쓰고 나가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젖을 염려가 없었다. 삿갓을 쓰고
도롱이를 입는 것이 우기의 복장인데, 도롱이를 이곳에서는 도랭이라고 했고
반드시 밖은 띠, 안은 왕골을 대서 겹으로 엮었다.

• 망건과 망건통-조선

망건은 갓을 쓰기 전에 이마 위쪽에서 뒤로 감아 매는 띠모양의 망으로 된
쓰개이다. 여기에는 풍장과 관자가 달려있어서 갓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
다. 관자는 옥관자, 금관자 등의 재질로서 신분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를 넣어두는 자그마한 통에도 마음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 굴레-조선 비단천에 자수

첫돌맞이 어린이가 쓰는 의례용 모자이다. 이 어린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평생 동안 부귀, 영화등의 온갖 복을 누리라는 기원의 뜻이 담긴 자수 무늬
와 칠보, 보석 따위로 화려하게 꾸민다. 제물 멩기가 달렸으며, 주로 경기도
와 황해도, 평안도 지방에서 많이 사용했다.

• 탕건

집안에서 쓰는 모자

• 초립

짚으로 만든 일반인(상인)들의 모자

- **흑·백전립**

돼지털로 만들어 졌으며 주로 궁을 보호하는 '포졸'들이 썼던 모자

- **주립**

주술을 하는 여인(무당)들이 썼던 모자

- **남바위**

겨울철에 썼던 모자

- **화관, 족두리**

결혼을 위한 행사에 쓰여졌던 모자

- **월유관**

궁중에서 의례 행사때 사용하였던 관

1-2 신류



말신

우리 나라의 신은 조선시대까지 목이 긴 화와 목이 없고 운두만 있는 혜 등 그 기본 형태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화는 북방 유목 민족의 신이고 혜는 남방계의 신인데, 우리 나라의 지리 및 기후 조건의 영향으로 이질적인 두 계통의 신이 함께 사용되었다.

사용 용도에 따라 일상용과 의전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용 재료에 따라 가죽신(갓신), 나막신, 짚신, 고무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날씨에 따라 마른신과 진신으로 구분되었으며, 사용 계층에 따라 왕족이 신던 석·흑피화·백관들의 흑피혜·목화, 양반층의 태사혜·발막신·당혜·운혜, 서민들의 미투리·짚신·나막신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신의 특징적(디자인)요소에 대해서 이어령 선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한국의 신은 그것이 나무든 가죽이든 고무신이든 반드시 신발코의 중심점을 지니고 있다.”

모든 선, 모든 텍스처가 한 곳으로 모인다. 그러나 거기에서 힘이 뭉쳐 굳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뭉친 힘을 풀어 빼낸다. 그것이 표족하게 솟은 나막신, 고무신, 버선 등에서 볼 수 있는 그 신발코이다.

그런데 짚신은 신발코의 부분이 텅빈 구멍으로 뚫려있다. 그래서 온갖 짚신의 아름다움은 빈 것을 향해서 응집된 선을 이룬다. 비어 있거나 동그랗게 솟아난 신발코의 그 미학은 바로 한국인의 문화가 ‘푸는 문화’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 **갓신(가죽신)**

갓신 가운데 태사혜는 양반 계층의 남자가 신던 것으로 형겅이나 가죽으로 울을 하고 코와 두축에 선으로 무늬를 새겼으며 밑창은 푸른 안가죽을 댄

화려한 신이며, 발막신은 상류층 노인이 신었던 것으로 두축과 코에 꿰맨 술기가 없고 코끝이 넓적하며 가죽 조각을 대고 경분을 칠했다. 또한 당혜는 상류층 부녀자나 양반집 규수가 혼수를 장만할 때 준비하는 귀한 신으로, 신코에 당초문을 수놓았으며 홍색 바탕에 청색 무늬를 놓은 것은 홍목맹이라 하였는데 청목맹이는 나이 든 사람이 신었다. 당혜와 형태가 비슷한 것으로 운혜가 있는데, 바닥은 가죽을 맨 단창이고 용 같은 것을 대고 곱게 기워 아름답게 꾸몄다. 이밖에 수혜라고도 불리는 꽃신이 있는데 배를 여러 겹 붙인 위에 청홍색의 무늬 있는 비단을 두르고 다시 바탕색과 반대되는 색실로 패화, 대나무, 나비등을 수놓아 아름답게 꾸몄다.

갓신은 재료 가공 및 제작 등에 있어 여러 단계를 걸쳐 만들어진 까닭에 매우 견고하며 내구성이 우수하다. 신발 하단부의 구조 및 형태는 보행에 편리하고 신발 변형에 대비하여 곡선을 취하였으며, 앞코 부분의 말아 올림은 버선의 형태와 조화를 이뤄, 주변물과의 형태적 배려를 엿볼 수 있다. 신발 밑창에 징을 박음으로써 내구성 강화는 물론, 험한 길에서도 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 나막신(정신): 나막신, 정신-조선, 피나무, 소가죽

비오는 날 버선발이 물에 젖지 않도록 신는 버선으로 나막신은 가벼운 나무속을 파내어 만들고, 정신은 쇠가죽을 몇겹 붙여서 만들고 기름을 먹여 물이 새어들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바닥에는 무쇠 징을 박았다. 나막신은 급격지, 정신은 진신이라고도 한다.

남녀노소 신분에 구애 없이 신었으며,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들어졌다. 초기의 형태는 평판에 끈을 달아 일본의 계다와 같았는데 거기에 사방 올을 하고 굽을 다는 형식으로 발달하면서 나무를 배 모양으로 파고 밑에 굽이 두 개 달린 오늘날 볼 수 있는 나막신으로 변화되었다. 나막신은 무겁고 비활동적이어서 말을 타거나 먼 거리를 갈 때는 신지 않았다.

• 짚신

벚짚으로 삼은 짚신은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이 애용하던 신발이었다. 서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짚신을 신어야 발이 편할 수 있었고, 먼 길 떠나는 나그네는 괴나리 봇짐에 몇 켤레씩이나 매어 달았다. 주막집 봉숫방에 머무는 장돌뱅이들은 밤마다 늦도록 서로 정담을 나누며 짚신을 삼았다. 그래야 내일의 길이 수월하게 기약되었다.

초혜 또는 초리라고 한 짚신 종류는 재료에 따라서 짚신(벚짚) 미투리 왕골신 부들신 등으로 불렸다. 추운 북방에서 주로 만들어 사용했던 가죽신과 비교되는 남방계의 신발인데,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기록에 나온다.

또한 짚신은 때와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와 이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상제가 상을 당하면 ‘엄지신’ 이라는 것을 만들어 신었으며, 눈이 많이 쌓인 산길에서는 물푸레나무의 가지를 둥글게 휘어 새끼와 짚으로 칭칭 감아 만든 ‘설피’를, 미끄러운 길에서는 울을 높여 깊숙히 찬 ‘둥구미신’ 등을 신었다.

• 고무신

지금도 노부인이 애용하는 고무신은 가장 오래된 신발의 원 모습인 짚신을 닮아있다. 고무신이 이 땅에 보급된 시기는 1910-1920년대로 추정된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제조된 것이 유입 사용되었으나, 눈에 익숙하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비단신 형태의 한국식 고무신이 출현하자 그간 비단신을 마음대로 신을 수 없었던 서민들로부터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며, 급기야 고무신 선풍으로까지 이어져 대중적인 신발로 애용되었다.

1-3 의복류

1-3-1 포(두루마기)



두루마기

우리 나라 양반들은 사랑방에 거처할 때나 내실에 들 때에도 반드시 의관을 갖추었다. 따라서 실내에서도 바지저고리 탈모를 불허했기 때문에 편복포가 발달하였고 이에 따른 다양한 관모류가 나타나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포와 흑립이었으며 남북을 대표하는 전통 옷차림이었다. 조선을 방문했던 이방인의 견문록에는 갓, 도포차림에 관심을 보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 창외 중치막 첩리 학창외 주의 도포 답호 등이 있다.

• 도포

선조실록에 도포에 관한 기록이 처음 보이고 있다. 고종조 복제개혁으로 폐지될 때까지 사대부의 편복으로 애용되었다.

혜원 풍속도에서 기녀들과 어울려 풍류를 즐기는 한가로운 장면은 특히 인상적이다.

도포는 청색을 길복으로 백색을 상복으로 입었으며 유생들은 공복 또는 제복으로 겸용하였다. 겨울에는 무명이나 명주로 여름에는 모시 베를 재료로 사용했다. 직령에 광수이며 뒤가 진동선 까지 트인 뒷자락 위로 전삼을 덧대어 승마시 속옷자락이 보이지 않도록 안배되어 있다. 세조대를 가슴에 매는데 당상관은 홍색으로 당하관은 청색, 상주는 흰색으로 구별하였다. 한말 일반계층에서 젊은이는 자색, 중년층에서 남색을 노인들은 옥색이나 회색을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의 복식현상을 ‘포의 문화’라고 할 정도로 다양하게 포를 애용한

것은 ‘풍성한 형태감을 존중한 미적 욕구의 산물이다. 포는 추위나 더위 등 물리적인 환경의 요구에 의해 착용되었다기 보다는, 착용자의 위엄이나 법도를 지키기 위해 착용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므로 포는 의례에서는 필수적인 의복이었고, 체면을 중시했던 양반계급에서는 평상시에도 항상 착용했던 의복이다.

1-3-2 저고리

고구려 고분벽화 인물의 가선된 긴저고리는 시대를 따라 점차 단소화의 차이만 보일 뿐 기본구조에 대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단소화 경향은 허리띠가 불필요하게 되었고 고름으로 앞을 여미게 되었다.

한 인물의 저고리에서 크기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작은 저고리 위에 큰 저고리를 덧입었을 것이며 큰 저고리는 모두 양옆이 트여있어 겹쳐입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2종류의 양식은 후에 저고리와 당의로 되었다.

저고리의 단소화는 1900년대를 전후로 결정에 이르게 되어 저고리 길이가 15cm가 되므로써 소매와 도련이 일직선이 되는 극단적인 유행이 있었으나 잠시 뿐이었고 여전도사와, 유학생들의 양장이 소개되고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 옷은 활동복으로 변해 1930년대 전후 짧은 통치마에 긴 저고리가 유행되기도 했으나 다시금 단소화의 흐름은 계속되었다.

겨울용 저고리는 비단이나 명주 무명에 솜을 넣어 따뜻하게 하였으며 솜을 알뜰하게 두어 정교하게 누빈 누비저고리, 상침을 한 상침저고리, 겹저고리, 깨끼적삼 등을 계절에 맞는 옷감을 사용하여 용도에 따라 적합한 바느질 방법으로 4계절의 복식문화를 창조해낸 조상들의 슬기에 감탄하게 된다.

1-3-3 바지

남·녀 모두 겹옷으로 착용하고 있으며 통이 넓은 바지인 관고, 대구고와 좁은 바지인 세고, 궁고로 대별된다. 무용총 접견도에 주인은 넓은 바지, 시자는 좁은 바지를 입고 있어 신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상당한 지위의 인물로 추정되는 쌍영총 기마인물도 상당히 넓은 바지를 입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좁은 바지를 입고 있다. 바지는 부리를 묶어 보행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음부터 넉넉하게 만들어 접어 입도록 고안하였다. 말하자면 한국 바지의 허리춤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누가 입어도 되도록 융통성을 부여한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몸이 불어나면 좀 덜 조이면 되고 몸이 마르면 더 조여 입으면 된다. 여자 치마도 몸에 두르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가 가늘든 굵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남자 것이든 여자 것이든 한국 옷은 치수라는 합리성을 넘어선 산물로서

그때 그때의 상황에 융통성있게 적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서민들이 평상시에 입던 바지는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통이 넓은 바지와 통이 좁은 바지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의 옷에서 가장 압도적인 것은 바지이다.”

1-3-4 치마

치마의 구조는 바지의 구조보다 더욱 단순하여 착용자의 취향이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한층 증가된다. 치마폭과 허리띠로 이루어진 간단한 구조를 갖는 치마는 커다란 사각형의 천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며, 착용했을 때 일정한 형태를 갖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치마는 인체에 착용되었을 때 그 자체가 갖는 극히 자연스럽고 단순한 모습으로 착용자의 울동에 따라 유동적인 형태와 선을 제공한다.

고려 도경에서 여자들이 치마폭이 넓은 것을 선호하여 치마 한 개에 7-8필이 소용되었다는 다소 이해하기 곤란한 기록도 있으나 풍속도의 미인도는 둔부를 강조한 하후상박형의 실루엣이다. 등장한 인물들의 모두가 이러한 스타일인데 치마자락을 추켜 입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동적인미를 표현하고 있다. 치마 허리와 속옷바지가 조심스럽게 노출되므로 해서 남자들의 시선을 기대하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이때의 착장법은 속옷의 발달을 가져와 조선조 말기의 유물 중에는 바지의 무릎 부분부터 아래까지 고급스런 옷감으로 바느질된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속옷을 보면 맨 처음부터 속속곳, 바지 단속곳, 치마의 순서로 입게되며 왕실에서는 이외에 무지기와 대수염이 있는데 무지기는 삼흡, 오흡, 칠흡무지기라 하여 모시로 길이가 각기 다른 치마를 만들어 한 허리에 달아 치마 속에 받쳐입었다.

조선 초의 조출한 치마는 저고리의 단소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장대화된다. 단소화된 저고리와 장대화된 치마는 ‘상박하후’의 형태미를 연출하였으며 착용자의 착장 모습에서 인체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게 되므로, 이 확대된 공간에 대한 장식의지가 작용하게 된다.

1-3-5 기타 의복류

• 백저포

고려시대 유물중 유일한 것이며 현존하는 최고의 복식이다. 충남 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에서 발원문과 함께 발견되었는데 발원연대가 충목왕2년(1346)으로 되는 고려말엽의 유물이다.

고려도경의 기록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사대부의 편복차림으로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 구군복

조선조 후기 무관의 군복이다. 국가의 기강을 상징하는 복장으로 전립 동 다리옷 전복 목화로 일습을 갖춘다. 환도·동개·등채·병부를 갖추면 정장이 된다.

동다리옷은 길은 주황색 소매는 붉은색으로 하여 길과 소매를 달리 한 데서 부쳐진 이름이다. 뒤, 양옆이 트여있어 활동하기 편리하게 되어있다. 전복은 일명 담호라고도 한다. 현존유물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

• 당의

당의는 왕비 대군부인 공주, 옹주, 관직자부인의 소복으로 착용되었다. 덕온공주 당의는 자색직금단으로 된 겨울용 당의와 녹색금박인 여름용 홀당의가 있는데 당코깃에 소매가 좁고 소매부리에 거들지가 달려있다. 세종대학 소장품인 전 왕비당의는 녹색 난봉문단에 오조룡보가 부착되어 있고 모양은 비슷하다. 당의에는 화관과 족두리를 겸용한다.

1-4 장신구

한국의 여인들이 몸을 단장하고 그 매무새를 더 한층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꾸민 몸치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각종 패물, 즉 노리개와 주머니, 귀걸이와 지환, 머리를 치장하는 수식품, 옷을 여미기 위한 단추 등으로 대별할 수가 있다.

1-4-7-1 노리개



노리개는 저고리의 겹고름, 안고름 또는 치마허리에 차는, 여인의 몸치레 가운데 대표적인 패물이다.

노리개는 자칫 단조롭게 보이기 쉬운 우리 고유의상의 외관에 액센트를 주므로써 생동감마저 느끼게 하는 화사한 분위기를 창출해 주기도 하는데, 이렇듯 노리개는 한복의 구성면에서 볼 때도 단연 구심점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다.

노리개는 궁중은 물론 상류사회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애용되어 온 것으로 나라의 궁중의식이나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에 패용하였으며, 간단한 것은 일상 때에도 즐겨 패용하였다. 또한 양반 계급에서는 집안에 전래하는 노리개를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 그 가풍을 전하고 애정을 나타내는 소중한 것이었다. 이러한 노리개는 계절에 따라 또는 그 재료와 크기에 따라 패용하는 위치나 사용법이 달랐다.

노리개의 구조, 재료, 그리고 형태에 대해서 분류하여 파악해 본다.

• **재료:** 주된 재료는 금속류로 금, 은, 동 그리고 옥석류 등을 주로 사용하

였다.

▪ **형태:** 자연에 바탕을 둔 소재들을 사용하였으며 (동물류, 식물류..등) 이러한 것들은 대개 장수를 빌고 액을 피하고 혹은 복을 빌고 어떤 신앙적 염원을 바라는 뜻에서 수용된 것이었다.

▪ **구조:** 띠돈, 다회, 주체, 매듭, 술등 다섯가지로 주로 구성되어있다.

향낭: 규방, 내실, 또는 궁의 내인들의 손에서 주단 종류들로 만들어졌으며 형태와 색상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문양을 수놓아 장식미를 돋보이게 하였다.

1-4-7-2 주머니

주머니의 형태는 크게 나누어서 각형(귀주머니 혹은 줌치)과 환형(두루주머니 혹은 염낭)의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겉감은 견이나 목면, 안감은 목면이나 질이 낮은 견이고 색상은 백옥색, 적, 청, 자주, 남, 담녹 등의 바탕색에 자수를 놓은 것이 많고 각종 금은세공물을 장식한 것도 적지 않다. 주머니 끈에는 흔히 은파란의 타래버선, 안경집, 자물쇠 등과 연밥 장식이나 혹은 별돈을 장식으로 달기도 하였다.

이들 주머니는 남녀를 막론하고 찻으며, 그 신분에 따라 천과 색과 그 부금 여부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1-4-7-3 머리꾸미개

수식에는 갖가지 형태의 크고 작은 비녀와 뒤꽂이가 있었고, 상류계급에서만 사용되던 첩지, 떨잠 등이 있었으며, 또한 여러 가지 모양과 이름을 가진 땃기가 있었다. 비녀나 땃기는 머리를 수발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면서 한편 장식의 역할도 하였으나, 첩지나 떨잠은 부녀가 예장할 때에 머리 위에 꾸미는 장식품의 일종이었으며, 뒤꽂이는 쪽진머리 뒤에 꽂았던 비녀 이외의 각종 수식품을 말한다.

▪ 비녀

기혼녀의 쪽진머리에 필수적인 수식으로 엮은 머리가 가체로 인해 사치가 심해지자, 이에 영조 때 발제개혁을 단행하여, 이후부터 쪽진머리가 일반화되면서 비녀도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비녀머리의 수식에 따라 매죽잠, 용잠, 석류잠, 말뚝잠, 호도잠, 버섯잠 등으로 부르고, 그 재료에는 은, 도금, 백동, 놋쇠, 옥, 산호, 진주, 나무, 뼈 등이 있다. 금은주옥으로 만들어진 비녀는 상류계급에서나 사용할 수 있었고 서민층 부녀는 동, 백동, 나무, 뼈 등으로 된 비녀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크고 길이가 긴 비녀는 의식용이고 짧고 작은 것은 평소에 꽂으며, 또한 재료를 달리하여 계절에 맞

추어 꽃았다.

• **빗치개**

빗치개는 여인에게 있어 머리를 빗는 도구 중 빗 이외에 가장 필요성이 많은 것으로, 백동, 동, 뼈로 만들었는데 대개 빗이나 빗집 등과 같이 경대에 간직해 둔다.

첩지: 첩지는 엮은 머리 대신 쪽진머리를 하게 하고 이에 더하여 족두리를 권장한 데서 생겨난 것이라 하겠는데, 이것은 조선조 여인의 특수한 수식품의 하나였다 할 것이다.

첩지는 족두리나 화관같은 것을 쓸 때에 걸려서 고정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류계급이라도 예장을 갖추는 때 외에는 하지 않으며, 궁중에서는 평시에도 하고 있어 신분의 상하를 표시하기도 한다.

첩지머리는 왕비는 도금으로 용·봉황, 내명부·외명부는 도금·은·흑각으로 개구리를 만들어 좌우로 긴 머리털을 달았는데, 이것을 가리마 가운데에 중심을 두고 뒤에서 머리와 한데 묶어 쪽을 쥘 머리모양이다.

1-4-7-4 액서사리

• **침낭**

침낭은 ‘바늘집’ 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금속제도 있으나 자수로도 만들어 노리개 삼아 패용도 하였는데, 아랫 부분에는 머리카락을 넣어 바늘을 꽂게 되어 있고, 윗부분은 뚜껑의 역할을 하고 있어 아래 부분을 닫게 되어 있다.

• **장도**

장도는 노리개에 찬 것을 패도라고 하였으며, 주머니 속에 지닌 것을 낭도라고 하여 장신구 겸 규방 부녀의 호신용을 겸하는데다가 일상의 실용성까지 어울려 지녔던 것이다.

장도에는 또 은젓가락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젓가락으로도 사용하고 음식가운데 독의 유무를 분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 **지환**

조선조 여인의 생활은 엄격한 가부장적 제도 밑에서, 오직 부덕을 닦아야 하는 것이 당시 여인에게 부과된 의무였기 때문에, 자신의 몸치장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조선초기부터 금은의 사용금지와 더불어 복식금제 또한 엄했기 때문에 사치성을 띤 과분한 수식은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환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가락지’ 와 ‘반지’가 있었는데, 조선시대의 것으로 남은 유물의 지환은 은 또는 백동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궁중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밖에 파랑, 옥, 마노, 호박, 비취, 진주, 동으로 만든 것이 있어 그 종류에 따라 계절에 맞추어 끼기도 하였는데, 기교면에서

는 지극히 단순한 것이 있어 오히려 그 단순성이 조선시대의 특징이 되고 있다.

• **귀고리, 귀걸이**

세종실록 11년(1429) 2월 조에 보면, 사대부 자제의 금은의 귀고리는 금은의 사용금지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초에 남자의 '귀고리'로서의 이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귀를 뚫는 것은 유교사상에 비추어 볼 때 불효한 행위라 하여, 선조 5년에 하교하여 금지시키니, 이후부터 우리 나라 여인들의 이식은 모습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형태가 바꾸어짐에 따라 평상시에 이식하는 습속은 그 자취를 감추어 갔던 것이며, 더욱이 남자의 이식은 볼 수 없게 되었다.

• **단추**

단추는 조선조 여인에게 있어 원래는 포류에 속하는 적의, 노의, 장삼, 원삼 등이나 사용하였던 것이며, 저고리나 적삼에는 옷고름을 달고 단추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인데, 구한말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간편함을 따라 흔히 여름철 적삼에 옷고름 대신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마고자 등에 고름 대신 사용하였으며 기타 미관상 간편하게 처리되어야 할 곳에만 달았었다.

이에는 금은, 옥석으로 만든 단추와 끈으로 만든 맺은 단추가 있었는데, 금은, 옥석으로 만든 단추는 나비, 국화, 박쥐 등의 모양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문양을 넣어 세공기술 면에서는 다른 장식물이나 다를 바 없었으며, 맺은 단추는 보통 입는 옷에 많이 사용하였다.

2. 보자기류



명주조각옷보

보자기는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두루 쓰인 고유의 생활용품으로서 옛 선조의 신아, 세계관, 인생관과 무관하지 않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천으로 제작한 것이 주종을 이루나, 밥상이나 목판을 덮는 식지보와 같은 경우 기름종이로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보자기는 짜는 물건의 부피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또 물건의 성질에 따라 그 형태도 달라진다. 서양의 가방과는 달리 유통성과 다기능의 차이가 드러나는 유무상통으로 디자인되었다.

보자기는 사용계층에 따라 궁보와 민보로 대별된다. 민보는 제작방법에 따라 조각보, 수보, 식지보, 판보, 그림보, 등으로 분류된다.

또 구조에 따라서 홑보, 겹보, 솜보, 누비보,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홑보는 말 그대로 홑겹으로 꾸민 보자기를 말하며, 겹보는 안감을 대서 이중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솜보는 안에다 솜을 두고 겹으로 만든 보자기로서 깨지거나 다치기 쉬운 물건을 보관하는 데 사용했다. 누비보는 솜을 두어 누빈 보자기이다.

문양을 만드는 방법에 의해 분류하면 당채로 그린 당채보, 금분을 찍은 금박보, 보판에 물감을 묻혀 찍어낸 판보 등을 들 수 있으며 재료로 사용된 직물을 기준으로 명주보, 사보, 단보, 모시보, 무명보, 베보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색상도 하나의 분류기준이 될 수 있으나 주요한 기준은 되지 못하고 부차적으로 채용된다.

보자기는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대표적 양식으로는 조각보와 수보를 나눌 수 있다. 조각보는 남은 자투리를 활용해 만든 것이다. 폐품 활용이라는 생활속에서 번뜩이는 지혜의 소산으로 일반서민층에서 주로 통용되었다. 이러한 자투리천은 잣배기 배갯모나 골무 저고리 앞섶을 작은 오색조각으로 꾸미기도 했다. 그리고 조각들을 이어간다는 연장개념이 장수를 축원하는 의미와 연결되어 성하게 한 요인의 하나로 추측된다.

구성미가 빼어난 조각보는 어떤 패턴을 형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결합되었으나 산만하다거나 전체속에 통합되지 못하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아 계산된 질서의 미보다 한층 더 높은 감추어진 수리의 미학에 의한 창출해낸 탁월한 예술적 대상이다.

수보는 문양으로는 수화문, 학, 봉황 등의 시조와 나비, 풀, 벌레, 등이 시문되어 있으며 음양오행설의 자연계 기본색상인 오색이 주조색상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문양이 배열된 형태는 대칭형과 방사형이 지배적으로 많다. 위의 문양들은 자연물을 단순화시켜 그 자연물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최소한 요구되는 요소만을 남겨 전체적으로 풍요로운 문양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보의 고귀한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다.

3. 용기류

3- ㄱ-1 저장

독

우리민족의식 생활에서 독(옹기)은 우리를 자연과 친숙하게 맺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였으며 동시에 조상들이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슬기를 빚은 천연의 그릇으로 가장 전통적인 생활 용기이다.

특히 사용용도의 다양함에도 그 특징적 요소가 있으나 독이 가지는 순수한 의미는 우리의 정성을 담아 저장하는 그릇으로 각종 김치류와 젓갈류, 장류 등 발효식품을 담는 저장구로 일정한 크기와 생김새(투박한 멋)없이 실질적인 사용성과 그 효율성에 준하여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생김새(기후적 조건으로 인한 모양의 변화)와 문양들이 차이가 있으며 그 사례들을 살펴본다.

• 경기도독(서울독)

타지방의 독에 비해 훌쩍하고 꺾지달린 뚜껑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경상도독

표면에 나타나있는 난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 **경상도독**

입부분이 좁은 것이 특징이며 이는 따뜻한 기후로 인한 발효식품의 효율적 저장방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독의 형태는 어깨부분이 각이 진것과 각이지지 않는 형태의 모습들이 표현되어지고 있다. 또한 독의 외형에서는 둥근형(계란형)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졌다.

• **전라도독**

입 부분이 좁으며 마치 항아리의 모습을 확대해 놓은듯한 소박, 검소한 외형을 지닌 여성적(어머니)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옹기의 특성적 요소를 정리하여 보면

• **통기성**: 옹기의 기본 재료인 태토에는 작은 모래알갱이가 수없이 함유되어 있고 유약 또한 부엽토의 일종인 약토의 재료 형성되어 있어, 산화 번조의 제작기법으로 소성시 점토질과 모래 알갱이가 고열에 의해 이완되어 그릇 전체 표면에 미세한 숨구멍이 생긴다. 또한 문양을 넣는 과정에서 이미 시유된 잿물을 손가락나 나무조각으로 긁어냄으로써 미적 표현은 물론 숨구멍을 트여주는 역할을 하게되며, 옹기의 밑부분은 본연의 태토 그대로 놓아두어 상하좌우 어느곳이든 통풍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음식물을 오래도록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 **방부성**: 우리의 양식인 동시에 생활의 바탕이 되기도 한 발효식품(미생물을 이용하여 식품의 본질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가장 발달된 조리 식품)은, 사람도 숨이 막히거나 순환계통이 막히면 살 수 없듯이, 순환하고 상통하는 숨쉬는 그릇이 아니면 맛이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식품으로서의 효과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옹기가 주요 저장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

• **자연환원성**: 그릇에 금이 가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자연적으로 토화 현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습기 있는 땅속에 묻히거나 노출된 상태에서는 풍화작용에 쉽게 제모습을 잃고 원래의 상태인 흙으로 환원된다.

• **경제성**: 옹기의 재료인 흙은 자연으로부터 쉽게 얻어지고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간단한 설비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이처럼 옹기는 발효식품의 보관 뿐만 아니라 식생활(양념단지, 물동이, 수저통등)과 일상생활(화로, 등잔, 약탕과, 약기류, 문구류 등), 주거생활(옹기 굴뚝, 옹기 기와) 및 신앙생활(성주단지, 조왕단지)등에 있어 폭넓게 사용되었다.

• **항아리**: 옛날 부터 넓은 지역에 걸쳐 써왔으나 토기 발명 이후 최초로 만

들어진 것은 아래보다 위가 약간 벌어진 주발 모양의 옹기뿐이었으며, 항아리가 만들어진 것은 그보다 뒤의 세대에 있어서였다. 인류가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신석기시대에 이르러 대략 짙그릇 항아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역사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승되고 있다.

▪ **초항아리:** 초항아리에는 국화잎모양이나 대나무의 잎모양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단지 이러한 무늬들이 보기에 좋으라고 한 것만이 아니라 항아리속에서 발효가 잘 되도록 가는 숨구멍을 터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옛사람들의 멋과 슬기를 엿볼 수 있다.

이 항에서는 대표적으로 표현되어졌던 분청사기와 백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분청사기:** 14C 고려후기 고려시대를 이끌어오던 불교사회의 내세를 추구하는 관념이 유학의 가르침에 따라 현실에 치중하는 사회로 변화하게 된다. 그전의 청자는 귀족적이며 종교적인 영향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청자또한 실생활에 필요한 검소한 것으로 변화하며 문양이 대범하여지고 표현기법도 간략해지기 시작하고 대량생산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상감청자의 모습은 대중화되며 분청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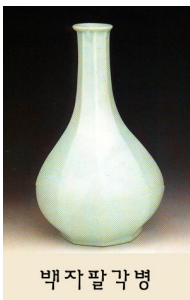
분청은 회청색의 몸체에 백토를 바르거나 또는 문양을 굽어내거나 산화철로 그림을 그린 것으로 한국인의 독자적인 창안에 의한 이채로운 심미감을 지니는 것이다. 15C에서 16C를 거치며 하얗게 분장한 면 위에 철화, 선각, 박지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며 그 표현방식은 익살스러움이 있고 정돈되지 않은 듯 수더분하며, 그 형태와 문양은 자유롭고, 구애받을 것 없는 분방함, 박진감 넘치는 표형으로 현대적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미의 원형을 간직한 가장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를 잡았다.

옛날 우리의 사기장들은 대를 이어가며 평생 도자기를 만들었으나 그 생활은 무척 가난하였고 무명으로 평생 무덤속에서 자연과 같이 자연의 일부가 되어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도자기를 만들며 그 특질은 도자기에 배어 꾸밈없는 아름다움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일본의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미감을 갖는 지배계급들의 문화와 맞아 조선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일본인들은 조선의 좋은 차잔을 갖는 것은 부와 명예의

상징으로써 하나의 성과로 바꿀 수 있는 가치를 지니게 되며 마침내 신기로 까지 부르게 된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조선도공이 만드는 막사발은 보물(이도다완)이 되어 일본인들이 도자기 전쟁이라 부르는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 도자기에 대한 경모감을 갖고 그들이 데려간 도공들은 일본도자기 산업의 중심이 되었다.

그후 조선의 분청사기는 임진왜란으로 인한 도공과 가마의 상실 사회적 변화를 거치며 점차 백자화 되어가며 사라지게 되었다.



백자팔각병

• **백자** : 도자기 발달과정에서 청자가 발전하여 백자가 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14C 도자기는 중국으로부터 청자에서 백자중심으로 변화한다. 당시 중국과 더불어 유일하게 백자를 만들 수 있었던 우리나라는 왕실을 중심으로 은기를 대신하여 백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조선시대가 시작되면서 유학을 중심으로 사대부들이 새 왕조의 중심세력을 이루며 백자 문화가 크게 성행하였다. 당시 중국의 자기는 유럽인에게는 중국을 자기라 할 만큼 선망의 대상이었으나 우리는 중국의 화려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만의 멋을 찾아 독자적인 백자문화를 이루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숙하지만 이미 10세기에 백자가 발생하였고 11세기 후반이 되면 고려백자 특유의 약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청자상감의 발달과 함께 백자에 청자토, 자토, 백토등으로 상감하는 상감백자도 만들어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백자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초기의 백자는 형체가 활달하고 당당하며 이제 백자가 조선시대 도자기의 대표적인 존재로 정착하게 되었음을 알게 해 주었다. 백자에는 회청을 안료로 그림을 그린 청화백자와 철화백자 등이 있으나 어느것이나 다 백자의 큰 범위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당시(17C)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도예기술을 받아들여 아리타 도자기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유럽인은 일본의 자기기술을 배워 18C초 유럽 자기를 만드는데 성공하며 거기에 소뼈를 태운 재를 첨가한 본 차이나를 생산하게 된다.

조선의 백자는 조선 사대부의 생각이 스민 청초하고 간결하면서도 기품 있는 당시 중국, 일본과 뚜렷이 대비되는 독특한 품격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장 조선사회의 특징적 모습을 갖고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갖는 문양 용, 모란당초, 소나무, 매화, 학 등을 여백을 살리며 간결하게 표현되는 양식은 그것을 바라보면 마치 자연과 마주한 듯한 아름다움을 느

질 수 있는 것이 조선백자의 특징이다. 조선 도자기라고 하면 백자라 할 조선백자는 검소, 질박, 결백함을 가치관으로 중요하게 여겨온 우리 백의 민족의 상징이기도 하다.

3-ㄱ-2 조리



333

• **솔** : 우리음식문화의 특징은 온식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바탕을 둔 식사기구가 솔과 뚝배기이다. 솔은 밥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고(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었지만-)뚝배기는 더운 음식을 즐겨먹는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그 정서를 대변해주고 있다.

“이열 치열”의 관습으로 육개장, 삼계장, 찜, 등 식사할 때 꼭 국이 필요하여 여러종류의 국들이 발달하였거니와 국을 끓이는 데도 뼈나 육질 그리고 내장들의 동물성 식품을 오래 고아야 하는 그리고 식사중에도 온기가 식지않아 즐겨먹을 수 있는 우리의 음식문화의 특징과 솔과 뚝배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약탕기** : 한약을 다리는 약탕기에는 재료별로 살펴보면 유기약탕기, 돌약탕기, 옹기약탕기들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도 오늘날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지 약탕관이라 할 수 있다. 오지약탕관은 약재를 고무 우려내 한약의 진가를 발휘하는데는 더 좋은 것이 없으리라 본다. 약탕기의 모습은 몸통에서 자루가 달린것과 끈으로 매달 수 있는 형태의 것도 있다.

• **시루** : 시루의 종류에는 약시루, 질시루, 콩나물시루등이 있으며

ㄱ.약시루- 약초를 넣고 찌는데 주로 사용되었으며 보통시루보다 밑부분 전체에 작은 구멍이 뚫여 있다.

ㄴ.질시루- 곡식을 가루를 내어 증기를 이용하여 찌내는 기구로 사용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질 그릇으로 만들어 진 것이 대부분이며 오늘날에는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져 우리의 식생활에서 쓰는 도구의 변천과정을 엿볼 수있다.

ㄷ.콩나물 시루-콩나물 시루는 보통 떡을 찌는 질시루를 사용하기

도 하지만 특별히 콩나물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몸체가 시루에 비해 약간 길고 밑부분에 작은 구멍이 나 있다.

ㄹ.소줏거리-주로 곡식을 발효시켜 만드는 우리의 술도 이상적인 제조용기인 옹기에 의해 숙성되어 졌다. 명절이나 제사가 가까워지면 안방의 따뜻한 자리에서 누룩과 지에밥이 퀴퀴한 냄새를 풍기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웅크리고 앉아 있는 옹기를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이다. 일제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주세 제도가 개혁되어 여러 종류의 가양주들이 없어지고 주류 문화가 붕괴되면서 양조장엔 관허가 되어 있는 술독들만이 놓이게 되었다. 막걸리나 청주를 빚는 독말고 증류주 구별되는 소주를 고아내는 소줏고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방마다 특유의 모양을 내고 있으며 경상도지방에서 사용하였던 소줏거리는 꼭지모양이 깔대기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특유의 문양과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양쪽면에 손잡이를 만들었다. 또다른 오지 소줏거리는 상단부와 하단부의 크기가 틀리게 제작되어 꼭지모양을 길게 뽑아낸 모습을 하고 있다.

ㄹ.떡살- 농업위주의 우리 생활에서의 떡은 하늘과 모든 신들에게 제사드리는 제물이었으며 특별한 잔치가 있을 때 즐기는 귀중한 식품이었다. 절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떡에 문양이 새겨진 자기로 만든 떡살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떡살이 대부분이지만 옹기로 만들어진 것도 적지않다.

• 물과 옹기:

ㄱ.물두멍- 물동이에 길어온 물을 다시부어 여기에 담아쓰는 옹기이다.

ㄴ.서래기- 주로 독 뚜껑이나 그릇으로 쓰이는 굽이없는 오지 그릇이다.

ㄷ.질동이- 예전 여자아이들이 예닐곱살만 되면 수박동이라고도 부르는 이 작은 물동이를 이고 물 길는 훈련을 하였다.

ㄹ.오지주전자-손잡이가 오지로 된것도 있고 대나무나 쇠로 된것도 있다.

3- ㄱ-3 난방



화로

• 화로 :

화로의 용도는 많지만 특히 겨울이면 방마다 여기에 불을 담아 실온을 유지하고 불씨를 간직하는 데 사용되었다. 우리의 옛 생활감정에서는 화로가 방 안에서 아주 핵심적 존재로 여겨졌고 향리나 산촌의 생활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요긴하고 사랑 받던 존재였음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화로가 차지하는 자리는 일정제한이 없었다. 부엌에서부터 마루, 안방, 건너방, 사랑방 혹은 대문간, 안팎의 마당 등 어느 곳에도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다. 화로는 대개 촌가에서는 질화로나 무쇠화로였으며 특히 질화로가 가장 널리 애용되었다. 좀더 고급스러운 것으로는 놋화로와 돌화로가 있었지만 이들은 대개 도시와 향리의 여유있는 집안에서 사용되는 것이 통례였다. 돌화로는 그 자체가 장시간 보온에 유리한 특성이 있고 또 그 형태의 공예적 아름다움을 변화있게 보여주는 특이한 존재라 하겠다.

• 부손

화로의 재를 다독이는 부손도 오지나 질로 만들어 글자나 문양을 새기기도 한다.

3- 7-4 제기



제기는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고 조상을 경모하는 제례에 사용되는 그릇 및 관련 도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관을 중심으로 사용했던 것과 일반 개인이 사용했던 것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공공제례는 지배 계급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절차가 매우 복잡,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개인 제례는 권위보다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조상을 추모하거나 공경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기도 공공 제례의 경우 그 형태가 다양하고 가짓수도 많은 것에 비해 개인 제례는 단단하면서도 가짓수가 적다. 본 과제에서는 제기의 외형적 모습에서 표현되어지는 몇가지의 형태들을 분류하였다.

- 백자 사각 제기 ; 고기 및 과일을 주로 담는데 사용되었던 용기
- 백자 둥근 제기 ; 주로 과일류를 담는데 사용되었던 용기.
- 백자 재기 ; 국을 담는데 사용되었던 용기.

3- 7-5 병류

독과 항아리 부분에서 설명하였듯이 이조시대의 대부분의 백자병류들은 개성이 강한 아름다움의 경지를 열어준 조형작품들로 형태는 유연한 곡면으로 이루어지며 음각문양은 가늘고, 부드럽고, 세련되며 문양은 운학문, 작약문, 당초문 등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서민취향의 병류와 귀족중심의 병류들로 구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병류들은 실생활에 널리 쓰일 수 있는 소박하고 실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조선시대의 미철학과 유교정신을 가시적 형상으로 구현시킨 안정성과 소박함 단백함을 느끼게 한다.

종류별로는 자라병, 도자기병, 항아리, 편호, 술병 등으로 나눌수 있으며 이중 자라병은 주로 운반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들이 할 때 시종하는 하인들이 술이나 물을 채워 어깨에 메고 다니게 만든 술병이다.

3- 7-6 식기용

식기용으로 사용되었던 용기들은 시대적, 재료적 측면에서 여러 형태들로 구분지을수 있으나 크게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판단된다.

식기용으로 주로 사용되어졌던 유기로 만들어진 밥통류,합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였던 무늬사발등을 들 수 있다.

주전자류는 유기로 만들어진 주전자와 이후에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었던 알루마늄주전자는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오지주전자의 모습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용기 수저통과 유기로 제작되어진 다양한 형태의 국자와 주걱들도 우리의 식생활문화에서 얼마전 까지만 해도 흔히 볼 수 있는 부엌의 모습이 었다.

표주박은 나들이 때에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목이 마르면 샘물을 떠 마시는 여행용품이다. 생김새는 대부분은 복숭아를 반 쪼갠 형태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뜻이 있다. 주요재료로는 배나무, 느티나무, 나무 뿌리, 은, 지승, 종이 등이 있다. 고려시대에 청동으로 만든 천도형 표주박은 손잡이를 반쯤이 물을 마시는 형태로 꾸몄다.

이외의 기타용기류(3-7-7)에서는 요강, 대야, 거울, 놋쇠로 만들어진 작은 솔인 새옹 담배통과 담배함, 재떨이 등이 있으며 수반은 꽃을 꽂거나 수석따위를 담아 놓는데 쓰이는 용기로 사용되었다.

4. 가구류

4-1 탁자

4-1-1 사방탁자



4층사방
탁자장

조선시대 목공가구 중에서 가장 세련된 형태와 쾌격한 비례를 자랑한다. 골주와 층널로서만 높이 150-180cm정도로 올린 가구인데, 하부는 대부분 장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2-3단의 층널로 되어서 책이나 화병, 향로, 다완 등을 올려 놓으며 사랑방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형태에 따라 사방탁자, 장탁자로 부르며 용도에 의해 책탁자, 찬탁자로 분류된다. 사방탁자는 주로 정방형을 이룬 형태인데 흔히 쌍으로 사용하여 매우 다정하게 보이는 가구이다. 장탁자는 사방탁자와 같은 형태이지만 사주가 장방형을 이루고 2-3층으로 높이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책탁자는 장탁자의 일종이고 골주와 층널로만 구성된 것을 말하며 책을 꽂아 놓으므로 책탁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찬탁자는 2-3층으로 되어 형태는 장탁자와 비슷하지만 기둥이나 널판이 훨씬 두텁다. 사랑방탁자들은 일반적으로 배나무와 오동나무를 사용하였다.

4-1-2 제탁

일반적으로 제탁은 제사지낼 때 제상에 올릴 제수를 얹어 놓은 탁자를 말하며 제기제탁자는 제탁과 제기제가 합쳐진 특이한 형태의 탁자이다. 대부분의 탁자들은 수직적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지만 제탁은 수평적 움직임을 표현하여 마음의 경건함을 표현한 듯 하며 서민들의 신앙적 모습과 겸소한 기품이 서려있다.

4-1-3 탁자

우리의 잠자리인 동시에 주요 생활공간인 안방은 온돌로 이루어졌다. 바닥이 딱딱한 온돌방은 나이 많은 어른에게는 여생의 벗, 어린이에게는 구석까지 뛰어 다니는 운동장이 된다. 지금의 온돌을 장식하는 가구들에는 옛전통이 가득하여 우리 생활속에서 옛것과 오늘의 실용을 잘 이어준다.

우리들의 안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방이 확 트인 여러 층의 탁자가 그 같은 가구이다. 사방탁자는 네개의 기둥에 따라 아래층에 서랍과 책장을 만들기도 하였다. 사랑방에 두면 문방가구가 되고, 안방에서는 도자기등을 올려놓는 장식가구의 역할을 한다. 네기둥을 가늘게 하여 공간만 분할한 대담스러운 면분할이 특징이며 굳이 기교를 드러내지 않은 사방탁자는 겸손한 조선의 선비들 생활을 잘 전해준다. 기둥은 참죽나무나 배나무를, 널판은 오동나무나 소나무를 썼는데 불에 그을리거나 재로 문질러 광택을 없애고 나뭇결을 살렸다. 어느쪽에서 보나 소박한 선이 드러난다. 각 층간 비례의 미가 두드러지게 아름다워 간결 단순한 조선의 공예미를 대표한다는 평을 받는다.

4-2 상



사랑방은 주인의 대부분이 학문을 중요시하는 선비로, 사색에 잠기거나 그림과 시를 즐기며 후학을 기르는 학문의 온상인 동시에 손님을 맞아 인생과 정치를 논하는 사교의 장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랑방의 내부공간은 안정된 분위기가 필연적이어서 이에 적합한 크지 않은 공간에 단순한 구조, 쾌적한 비례, 간결한 선을 지닌 목가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더욱이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문방생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서안, 문갑, 탁자, 책장, 연상, 필통등 문방용구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제목으로는 광택이 없고 시각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럽고 소박한 질감의 오동나무와 소나무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느티나무와 먹감 등 무늬결이 좋은 나무를 이용하여 자연미를 살린 것과 은행나무에 십장생 또는 시와 문자 등을 정교하게 조각하여 장식성이 강조되고 귀족적인 품위를 나타낸 것 등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었다.

4-2-1 경상

경상은 사찰에서 불경을 읽을 때 사용하였으며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랑방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짐작된다. 경상에서는 매우 드문 구족형다리이고 두루마리 천판과 잘 어울려 경쾌하면서도 힘찬 느낌을 주는 경상과 옆으로 긴 두루마리 경전을 펼쳐보는 경상은 후기에는 서안으로도 제작되어지기도 하였다. 일반 민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주칠에 화려한 장식을 한 것도 있으며 깊숙한 공간을 만들어 여러 기물을 넣을 수 있도록 장롱의 형식을 함

제한 죽장경상이다. 일반적인 죽장가구와는 달리 많은 문양을 나타내지 않고 대나무를 직선으로만 연결하여 간략한 장식과 함께 단아한 감을 느끼게 한다.

4-2-2 서안

일반적으로 서안이 글을 쓰고 읽거나 간단한 서한문을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사랑방 가구로서의 서안은 우리가 요즈음 사용하는 책상의 용도보다 비교적 간편하게 이용되었을 것이며, 또 이 작은 서안이야말로 내객과 마주 앉은 주인의 위치를 지켜 주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러한 용도로는 책을 겨우 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면적이어도 충분하였을 것이다. 또한 서안은 학문을 위한 것이어서 시각적인 화사함보다는 정신적인 내면의 세계가 강조되고 있으며 사랑방 가구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나전흑칠 시문 서안

나전칠기 방법으로 제작된 이 서안은 칠면과 자개면이 때끄러운 평면이 되도록 잘 손질을 해야하는 제작상의 기법이 돋보이며 재료는 흔히 소나무를 사용하였다.

• 서안

이 서안들은 기물을 넣을 수 있는 서랍을 갖고 있는 좁은 서안과 넓은 서안이다. 가래나무에 주석으로된 박쥐형 들쇠가 있으며 깊숙이 넣어두는 문갑으로서의 실용성 보다는 연적, 필통등의 문방용품을 치장하여 사랑방 실내공간의 장식성을 강조한 공간문갑이다. 높은 다리와 쾌적한 공간구성이 비교적 좁은 사랑방에서 사용되었던 필수품이었다.

4-2-3 소반

소반은 좌식생활을 하는 우리의 주거환경에 맞추어 발달한 식탁이면서 주방과 거실이 분리된 생활공간에서 음식을 그릇에 담아 나르는 운반기능을 겸한 생활용구이다. 소반은 어느집에서나 갖추었던 꼭 필요한 살림살이의 하나였는데 한 집안에 적게는 3-4개, 많으면 수십개를 갖고 있었다. 소반은 대부분이 1인1반용으로 직경이 사람의 어깨너비를 넘지 않은 크기이고 높이는 앉은 사람의 가슴높이를 넘지않아 음식을 운반하는데 힘이 들지 않는 인체공학적 규격을 유지하고 있다.

소반은 매일 음식을 나르고 받치는 용구이므로 어느 생활용구보다 그 짜임이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소반에 쓰이는 목재는 잘 휘지 않고 변형이 되지 않는 은행나무, 피나무, 느티나무를 상판으로 쓰고 다리는 소나무를, 운각은 버드나무를 많이 썼다.

소반의 종류는 지방에 따라 사용계층에 따라 다양한 종류를 발전되었는데 마을마다 집집마다, 사장에 의한 제작이 많았으므로 그 규격도 일정치 않다. 소반은 쓰임새에 따라 개인용, 객용, 주안상, 제상, 교자상, 돌상등 각각의 형태와 크기로 발달하였고, 생산지에 따라 나주반, 해주반, 통영반, 충주반, 안주반등으로 기본형태가 다르며 사용계층에 따라 궁중반, 반가용과 일반민수용이 구분되어 종류가 다양하다.

• 지역

- ㄱ. 해주반-황해도 해주지방산으로 천판의 네 귀는 능형으로 굴러져 있다. 네 개의 다리로 된 일반적인 소반과는 달리 근자, 𠄎자, 꽃, 나비등이 투각된 두 개의 넓은 판각이 힘을 받도록 약간 외반되어 있다. 그 상에 앞뒤로 두 판각을 견고하게 받쳐 주고 천판의 힘을 보완해 주는 문-이 있다.
- ㄴ. 나주반-전라남도 나주지방산으로 굽은 변죽에 얇은 천판이 끼워져 있고 네 귀가 각지게 취접이 되어 있다. 그 아래 굽은 기둥이 운각에 끼워져 있는데 네 기둥 사이에 나주반 특유의 ㄱ 형 가락지가 견고하게 물려 있어 많은 힘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굽은 기둥과 선들로 인해 깔끔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주는 소반이다.
- ㄷ. 통영반-경상남도 통영지방산으로 천판의 네 귀가 굴러져 있고, 원통형의 다리가 천판에서 부터 내려와 초엽을 받치는 상중대와 하중대를 두르고 있다. 초엽에는 초문이 양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천판에는 통영지방 명산인 나전으로 운학, 송학, 천도등이 화려하게 시문되어 있다.
- ㄹ. 충주반(호족반)-소반의 다리 형태가 호랑이 다리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발목이 잘록하고 종아리가 날렵하게 처리되어 있다. 소반의 대부분의 이 형태로 죽절이나 초형의 풍혈을 달아 호화롭게 장식된 것도 있다. 경상의 다리도 호족에서 변형된 것이다. 재질은 은행나무, 피나무, 느티나무가 대부분이며 12각, 8각, 원형, 화형등 여러 종류가 있다.

• 용도별

- ㄱ. 원반- 굽은 통나무를 수동식 물레로 돌려 깎은 목반이다. 이 유형 중에는 거칠게 깎고 칠을 하지 않았거나 붉은 석간주칠을 한 것이 있는데, 이는 일상용품이기보다는 많이 제작해 놓았다가 여러 행사에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함이다. 대부분 강원도 지방에서 제작
-

되었고 주로 파기 쉬운 피나무로 만들었다.

- ㄴ. 반월반- 반면이 반달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특이한 형태의 소반이다. 용도는 확실치 않으나 사각소반의 한쪽에 덧붙여 너르게 사용했거나, 주전자나 기물을 올려놓는 결상으로, 또는 벽면에 붙여 놓아 화병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듯싶다.
- ㄷ. 공고상- 야외에서나 관청에서 식사할 때 머리에 이고 나르는 소반으로 번상이라고도 한다. 앞을 내다보기 위한 능형의 커다란 창이 두 개 있으며 양측면에는 손잡이 구멍이 뚫려 있다.
- ㄹ. 두리반-여럿이 둘러 앉아 음식을 먹거나 돌상을 차리기도 하고 크고 낮은 반이다. 넓은 판각에 亞자형, 권자형등이 투각된 것, 각이 없이 막힌 것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외에도 사용용도에 따라 널리 사용되어 졌던 사각반, 잔상 그리고 제사지낼 때 사용했던 제상등이 있다.

4-2-4 연상

벼루나 먹을 넣어 두거나 올려놓고 사용하도록된 문방구로서 사랑방용품 중 가장 애용되는 기구이다. 때로는 대나무나 자개, 주칠로 치장을 하였다. 처음에는 벼루만 넣는 연갑이었던 것이 후대에 와서는 지, 필, 묵까지 수장하는 연상으로 발전하여 갔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 직(장)방형 연상.

거의 직장방형에 가까운 연상이며 재료는 주로 오동나무를 사용하였다. 4면에 안상을 투각한 판을 세우고 모서리에는 국구거덜감잡이를 하였다. 밑에는 서랍을 달았고 뚜껑은 없다. 소박하면서도 격이 있는 단아한 문방각이다.

· 죽장연상

네 발 위에 서랍을 만들고 그 위에 칸막이한 벼루집이 있다. 재료의 사용을 살펴보면 살은 오동을 쓰고 배나무로 마구리를 단 다음 대나무를 켜서 표면에 붙였다. 다리는 배나무이고, 바닥판은 나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사례이다.

· 화류연상

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상자모양의 천판을 만들었다. 밑에도 판을 깔고 중간에는 띠를 돌려 보강하였고 제물국수물림 장식을 하였다. 나무는 화류를 써서 장중한 품위가 있다.

· 무늬 연상

뚜껑이 없는 연상이어서 벼루를 넣는 바닥에도 자개로 장식을 하고 있다.

상면에는 먼산이 보이고 강에는 몇척의 돛배가 떠있는 강변의 풍경이 끊임 없이 끊어낸 자개의 선으로 묘사되고, 연상의 사방 측면과 네 다리의 외면 전체에 화당초문, 화판, 사능형을 모은 화문등의 문양대로 장식하여 연상 전체를 자개로 감싼듯한 분위기로 표현되고 있다.

4-3 고비



대나무고비

우리나라의 주거구조는 평좌식 생활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낮은 가구를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넓은 벽면이 여백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벽면의 공간은 산수나 화조의 그림, 못걸이, 주연경, 고비등으로 장식되는데, 벽면을 꼭 차게 장식하는 것보다 여백을 살려 정리된 아름다움을 강조하게 된다.

고비는 색간지나 서한등을 끼워 벽면을 장식하는 가구로, 실내 분위기는 물론 주위의 가구들과 잘 조화되어야 하고 그 방 주인의 취향이나 안목에 맞게 마련해야 되므로 다양한 발달을 보게 되었다. 형태로는 불에 그을린 오동나무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고 검소한 질감을 살린 것, 앞판재에 사군자나 화조를 음각한 후 채색하여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건 듯한 효과를 낸 것, 시문을 음각한 것, 화사한 색종이로 화조를 오려 붙인 것, 대나무의 특성을 이용하여 굵고 가는 대를 휘거나 깎아 그 사이로 편지나 색간지가 투영되는 효과를 살린 것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안방용 고비는 화사하고 오밀조밀하며, 사랑방용은 단순하고 무게 있는 것이 많다.

4-4 장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구별이 뚜렷하므로 철에 따라 여러종류의 옷들이 필요하며 이것들을 넣어 보관할 수 있는 장과 농이 있어야한다. 여러층으로 되어 있어도 옆 널(울타리)이 길게 하나의 판으로 된 것은 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에는 2층과 3층장이 있다. 이에 반해 2층, 3층이 각각 분리되어 구성된 것을 농이라고 한다.

흔히 농과 함께 장롱이라 불리지만 이것은 대개 2층 또는 3층을 하나의 모체에 이어서 만든 것으로 단층장에서 5층장까지 있다. 내부는 의복을 접어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나뉘어 있고 여닫이로 된 문이 층마다 달려 있다. 여닫이문의 안은 칸을 분할하여 마치 서랍과 같은 구성적 묘미를 보여 주는데 실제 서랍이 달려 있는 것도 있다. 장은 만들어진 재료에 의하여 지장, 비단장, 화각장, 샷다리장, 죽장, 용목장, 자개장, 화류장, 먹감나무장으로 불리며 장의 층수와 금속자식에 따라 나비 이층장, 원양새 삼층장, 난초장등으로도 불리운다.

4-4-1 약장

상비약을 넣는 가정용 약장으로, 규칙적인 형태의 많은 서랍들과 오동넬로 된 하단면이 안정된 비례를 갖고 있다. 참죽나무판에 지분목서로 약명을 붙인 앞판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오동나무로 하여 약재보관에 필수적인 견습을 고려하였다. 하단은 반달이처럼 문을 연후 다시 양쪽으로 여닫도록 양 측면에 경첩이 달렸으며 그 안에 희귀약재나 독약재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여러개의 서랍장이 있다.

4-4-2 옷장

· 의걸이장

의걸이장은 내부 상보에 긴 막대(헛대)를 설치하여 옷을 구기지 않게 걸쳐 놓은 의장으로 두루마기나 치마 등의 긴 옷들을 넣어두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철에 따른 많은 의복이 필요하나 모두가 포개어 넣도록 되어 옷이 구겨지기 쉽고 또 꺼내기에 불편한 일반 장롱에 비해 매우 편리한 의장이다. 이러한 의걸이장들은 19세기 후반~20세기초에 성행하던 것으로 대부분 숨은 경첩과 붙박이 쥐꼬리자물쇠를 사용하고 또 대형이다.

의걸이장은 하층은 낮고 상층은 높은 2층장이 대부분이며, 단층으로 된 것은 문을 길게 한 장의 판재로 여닫이문을 만들거나 문이 위로 올라 붙어 있고 아래쪽을 깊게 처리한 것이 있다.

· 이층장

개판, 기둥, 하단의 머름칸, 두층의 문변자에 흑칠을 하고 골재와 주통에는 주칠을 하여 정리된 구획과 배색의 효과를 고려하였으며, 투각된 주석장식과 굵은 골재가 경쾌한 감을 표출하고 있다.

4-4-3 책장

책을 쉽게 넣고 꺼낼 수 있도록 크고 넓은 여닫이문을 설치하였다. 측면과 뒷널에까지 사방을 골재로 촘촘히 면분할하여 얇은 판재로도 많은 양의 책을 보관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계산되어 제작된 특징이 있다. 책장은 사용용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2층 책장, 3층 책장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4-4-4 찬장

우리나라 한옥의 부엌은 가족들이 기거하는 곳과 떨어진 공간에 있다. 부엌은 방바닥을 덮히는 온돌구조이기에 방보다 수평이 낮은 곳에서 불을 때었는데 이곳에서 난방과 취사를 겸하였다. 이와 같은 공간구성으로 부엌은 흙바닥을 바닥으로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식생활을 주관하는데 필요한 부엌가구는 부엌에 딸린 찬방이나 안방과 연결되는 대청에 놓였다.

대가에서는 부엌에 딸린 찬방이 마련되어 있어서 대청에는 가구를 놓지

않고 관혼상제의 4례를 치루거나 준비를 하는 곳으로 썼으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일반가옥에서는 안방과 연결되는 대청마루에 찬장과 뒤주, 찬탁을 놓고 소반, 합지박, 목판 등 여러 가지 부엌살림살이를 엮고, 걸어두며 사용하였다. 부엌살림 가운데 가구류로는 찬장, 목궤, 곡갑, 뒤주, 죽상이 나열되어 있다. 주방의 가구들은 여러 가지 제기용기, 식기, 곡식보관용이기에 기능을 따라 튼튼한 목재를 큼직큼직하게 분할하여 이용하였고 결구는 한옥을 짓듯이 튼튼하게 짰다. 따라서 간결하고 기품이 있으나 고담한 사랑방 가구, 귀족 취향의 화려한 안방가구에 비하여 복재의 맛을 그대로 살린 찬장, 찬탁, 뒤주, 소반, 행랑채의 반다지 등은 가장 토착적이고 한국적인 가구로 되고 있다.

• 이층찬장-굵은 소나무 기둥에 느티나무 판재로 구성되어 있는 장이 일반적이다. 소박하면서도 건강한 미를 전달 해주는 주방가구로서 부엌가구의 대표적 예이다.

찬방이나 대청 한 구석에 놓여진 각종 반상기와 제기종류들을 넣었으며 대개 2층, 3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검소한 무쇠장식을 주로 했다.

4-5 합



117

물건을 넣도록 된 상자류인데 합은 대체로 상부전면을 뚜껑으로 만들어 열도록 되어 있고 궤는 전면이나 상부를 두면으로 나눠 경첩을 달아 한 면만 열도록 된 형이다. 따라서 합은 뚜껑면이 경첩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에는 혼인시에 신랑이 채단과 혼서지를 넣어 신부에게 보내는 혼함 외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안방용으로 의복함, 족두리함, 보석함이 있다. 사랑방용으로는 도장함, 문서함, 관복함, 관모함, 돈궤가 있는데 사랑방이 서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서책이나 귀중문서를 넣어두는 크고 작은 합과 의류수장용 궤가 많다. 대부분 각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 썼으므로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 **관대판**-관복, 각대, 사모를 넣어두는 함으로 관리의 공복이나 혼례용 예복을 넣어 두는데 썼다.

• **서류함**-몸체에는 옷칠을 여러번 입히고 두터운 녹쇠장식, 들쇠, 자물쇠를 달아 사용하였다.

• **지함**-가느다란 대오리나 채, 고리버들 등으로 틀을 만들고 장지를 여러겹 붙여 만든 지함은 깨지지 않고 가벼운 외출용 함이다. 조임끈과 자물장치가 특이하다.

• **팔각함**-오동나무로 만들어 밑부분 네곳에 발을 달았다. 아래위측 각 모서리에 감잡이로 보강을 한것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앞면에 자물쇠를

단것이 특징이다.

• **예물함**-괴목으로 만들고 모서리에 감잡이로 보강하였다. 옆판의 이음새에는 큰 감잡이를 붙여 상자가 파손, 변형되지 않도록 하였다.

4-6 뒤주



통나무뒤주

뒤주는 곡식을 보관하는 께인데 그 형태는 고구려의 창고인 부경을 축소 한 모습이다. 목조 가옥과 같이 굵고 곧은 네 기둥에 넓직한 통나무판의 판재를 이용하여 짚는데 그 짜임이 튼튼하게 결구 되어있다.

뚜껑을 받치는 기둥의 주두에는 공포형태를 단순화하여 장식하였고, 귀한 곡식을 간수하기 위하여 굳게 채운 자물쇠는 4각의 자물쇠판과 함께 거명쇠로 붙여 간결하면서도 묵직하다 뚜껑은 뒤로 재껴 열도록 되어 있고 경첩이 없어 떼어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뒤주는 쌀 뒤주와 잡곡 뒤주가 있는데 쌀 뒤주는 보통 1-2가마를 채울 수 있는 크기로 느티나무를 사용한 것이 많고 잡곡 뒤주는 쌀 뒤주보다 작은 것이며 소나무 제품이 많다.

뒤주는 목조가옥을 짓듯이 큼직큼직한 목재를 사용하였기에 우둔스럽게 보이면서도 시원시원한 구성이 특이하다.

• 통나무 뒤주

둥근 통나무 속을 파내고 뚜껑을 달았다. 나무의 자연미를 그대로 드러내고 인공을 줄였기에 깊은 산골의 초옥을 연상시키는 토속적인 뒤주이나 거명쇠의 자물쇠장식을 보면 역시 귀한 곡식을 아껴 보관하던 살림살이였음을 알 수 있다.

4-7 반달이



강화반달이

우리의 생활가구는 전통적 가옥 구조에 딱 들어맞는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달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노라면 선인들의 뛰어난 미의식에 새삼 감탄하게 된다. 선과 소박의 미를 근간으로 하는 도고의 기능미가 바로 그것이다. 소박한 듯 하지만 보면 볼수록 세련된 모습, 뛰어나 디자인 감각으로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특히 안목 있는 유럽인들에게서 뜨거운 환영을 받는다. 예를 들어 강화 반달이를 살펴보면, 가로 세로의 비율이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해 비례미를 주는가 하면 경첩이나 문양이 정교하고, 배치도 거의 일정하다. 그 어느 지역의 반달이보다 기술과 안정감이 뛰어나고, 장인들의 혼이 배어 있어 생활가구에 깃든 소박한 선인들의 옛 정서를 느끼게 한다. 반달이는 지역별로 밀양반달이 남한산성반달이, 강화 반달이로 분류할 수 있다.

4-8 문갑



단문갑

문갑은 작은 문방구나 기타 기물을 수장하며 완상품을 진열하는 진열대 역할을 겸한 가구로서 특히 서재의 필수품이다. 보통 외문갑과 쌍문갑으로 분류되고 형태에 따라 책문갑, 난문갑이라고 하였다. 난문갑은 높이가 다양하며 서랍과 여닫이문 공간이 혼용되어 만들어 졌고 금구장식이 비교적 많이 부착되었다. 외문갑으로서 특질을 한 것은 아름다워 가히 서실에서 사용하였다. 안방용문갑은 주로 자개나 화류로 된 문갑이며 먹감나무나 오동으로 된 것도 썼지만 장식은 백동이나 숫쇠로 하였다.

• 단문갑

좌측에서 3번째문을 떼어내야만 다른 미닫이문을 움직일 수 있으므로 일명 병어리 문갑 또는 두껍달이 문갑이라 부른다.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나 외형상 부담을 주지 않으며 중요 문서나 기물을 깊숙이 넣어 보관할 수 있으므로 널리 애용되었다. 내부에는 휘가사나무로 된 7개의 서랍과 공간이 있다. 천판과 옆널은 오동나무, 울거미는 배나무, 복판은 물푸레나무이며 중심에 단순한 원형 돌쩌귀 장식이 있어 단아한 멋을 준다.

• 화류문갑

오동으로 된 뒤널과 바닥널을 제외하고는 표면에 화류 붙임을 한 것이다. 천판을 두껍게 하고 서랍과의 사이에 골을 파내어 두껍처럼 보이게 하여 육중한 느낌을 준다. 공간과 다리부분의 종횡이 복잡한 투각으로 구성된 것은 20세기초에 유행하던 전형적인 문갑형식이다. 외형이 두껍달이식 문갑으로 보이나 숨을 경첩을 사용하여 중심의 여닫이문을 연후 양쪽 끝을 미닫이문을 연 후 양쪽 끝을 미닫이식으로 열게 되어 있다. 외작으로 되어 있으나 본래는 두 짝이 한 조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며 전체에 화류 붙임을 하고 중앙에 백동과 동으로 태극을 나타낸 돌쩌귀장식을 달았다.

4-9 기타



경대

가구류에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으나 이 이외에도 많은 가구류가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던 경대, 바둑(장기)판, 팔걸이류 등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 경대

여자가 혼인할 때 가지고 가는 가장 중요한 혼수품목 중의 하나로서 여성 필수품이었다. 경대의 일반적인 형태는 하단에 여닫이 문이 있고 내부는 화장도구를 넣도록 서랍이 달려 있고 위면(뚜껑)내부에는 거울을 달아 필요시에 뚜껑을 열어 거울을 세워 쓰도록 된 소형 가구이다. 형태에 따라 가계수리경대, 사모세기 경대, 제비추리경대라 부르고 만든 재료에 따라 화각 경대, 자개경대, 화류경대라 부른다. 경대는 여성용품이지만 남자들이 상투를 틀

때 사용했던 경대도 있다.

• 팔걸이

대신이나 중신이 늙어서 벼슬을 그만둘 때 지팡이와 함께 하사받는 물건이다. 하지만 일반서민들도 자신들의 손으로 제작한 팔걸이들을 볼 수 있다. 앉았을 때 팔을 기대어 몸을 편하게 하라는 뜻에서 의침이라고도 불린다. 나무로 만들되 양편 끝은 조금 높고 가운데는 둥그랗고 오목하여 모가 없다. 가을이나 겨울에는 제면이라는 보온용 덮개를 씌운다. 기둥구실을 하는 측면에는 십장생무늬를 투각하거나 간단히 사과문을 장식하고 팔을 엮는 천판은 행자목으로 괴불모양을 곡선으로 처리하였다.

5. 악기류



거문고

‘악학궤범’에서는 음악의 계통에 따라 ‘아악’ ‘당악’ ‘향악’등 어떤 계통의 음악에 쓰이는 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누어 구분하는 방법이다. 아악에 편성되는 악기는 ‘아부’라 하고, 당악에 편성되던 악기는 ‘당부’ 향악에 편성되는 악기는 ‘향부’라 지칭하고 있다.

여기서는 현재 음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구분하여 분류하고자 하며 현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악기를 그 기능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현악기

연주방법	악기이름
활을 쓰는 악기	아쟁, 해금
술대로 타는 악기	거문고
손가락으로 타는 악기	가얏고, 대쟁, 금, 슬, 향비파, 당비파, 월금, 수공후, 와공후, 대공휴, 소공후,
채로 치는 악기	양금

▶ 관악기

연주방법		악기종류
가로부는 적	동근취구	대금, 중금, 당적
	U자 모양의 취구	지
세로부는 적(U자모양의 취구)		소, 약적, 통소, 단소
세로부는 피리(겹혀)		향피리, 세피리, 당피리, 태평소
김을 넣어 부는 생		생
기타		훈, 나각, 나발

▶ 타악기

음률에 따른 분류	악기 이름
고정 음률을 가진 악기	편종, 특종, 방항, 운라, 편경, 특경
고정 음률이 없는 악기	자바라, 징, 대금, 소금(쟁과리), 박, 축, 어, 부, 장고, 갈고, 절고, 진고, 좌고, 교방고, 용고, 중고, 건고, 삭고, 응고, 뇌도, 영고, 영도, 노고, 노도, 도, 소고,

5-1 현악기



월금

• 거문고: 솔대로 줄을 치거나 떠서 연주하는 악기는 거문고 뿐이다. 거문고의 형태를 살펴보면, 앞판은 오동나무, 뒤판은 단단한 밤나무로 만든 몸체 위에 명주실로 끈 6줄과 회목으로 만든 16개의 꺾이 얹혀져 있다. 대부분의 악기를 수직의 자세로 세워 연주하는데 반해 거문고는 사람의 무릎 위와 땅바닥 위에 놓혀질 때 비로소 연주할수 있다.

• 대(소공후): 재공후는 23줄이고, 소공후는 13줄이다. 현재 국립국악원에 있는 이 종류의 악기는 1937년에 북경에서 사온 것으로 연주법은 모르며 사용되지도 않는다.

• 수공후: 현재 국립국악원에 보존되고 있는 21줄의 수공후는 작한 함화진 아악사장이 1937년에 북경에서 사온 것이고, 연주법도 모르는 채 악기만 전한다.

• 향비파: 향비파는 고구려의 오현비파와 같은 악기로서 곧은 목에 5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그 연주법을 잃었다.

• 월금: 월금의 다른 이름은 완함이다. '월금'이라는 이름은 공명통이 달처럼 둥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고구려 고분의 벽화에 이미 이 종류의 악기가 보이며, '악학궤범'에서는 "다만 향악에만 쓰인다" 라고 하였다. 현재는 다른 비파류와 함께 연주법을 잃었고 그 악기만이 전해 온다.

• 가얏고: 가얏고는 조금 가늘픈 음색으로 여성적이다 그런 관계로 여성들이 즐기던 악기로 알려져 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동나무로 판을 만들지만 뒷면을 배모양으로 파서 만든다.

• 아쟁: '악학궤범'에서는 ' 예전에는 당악에만 썼으나 지금은 향악에도 쓴다.' 라고 전하고 있으며 현악기 가운데 가장 좁은 음역을 가지고 있으며 저음악기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5-2 관악기



나팔리, 영가, 농각

• 소: 이 악기는 16개의 길고 짧은 관을 일렬로 세워서 16종류의 음을 낼수 있으며, 그 형태가 봉황의 날개를 형상화 하였다하여 '봉소' 라고 하기도 한다.

• 날나리, 영가, 농각: 일반적으로 농촌, 어촌에서 일반서민들이 즐겨 사용하던 악기이며 그 형태가 점차 변하면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 나팔: 길이가 약1미터 정도의 긴 나팔을 나팔이라 일컫는다. 지금은 그 모양이 변했지만 농악등에 편성되어 전해져오고 있다.

• 생: 생에 속하는 악기는 고구려, 백제 때에 이미 있었고 고려시대 이후로 계속 사용되어온 악기이다.

• 훈: 훈의 형태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저울추 모양을 하고 있는것과 계란 모양, 공모양 등이 있으며 우리고유의 훈은 저울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 향피리는 대풍류, 무용 반주, 대편성의 관현 합두에서 주선을 구실을 하는 중추적인 악기이다.

당피리는 이 악기는 주로 당악계 음악에 편성되었다. 음역도 황종에서 청림 또는 청남려까지 당악 본래의 음역을 유지하고 있다.

세피리는 비교적 음량이 작은 거문고, 가얏고, 양금과 같은 현악기가 중심되는 줄풍류에 편성된다.

• 적, 통소, 단소

적: 지공은 뒤에 1개 앞에 5개가 있으며 12울 사청성을 낸다.

통소: 지금의 정악에 쓰이는 통소에는 청공이 없어지고 민속악에 쓰이는 통소에는 청공이 있다.

단소: 통소의 개량악기로 향악연주에 맞도록 다시 만들어진 악기로 여겨진다. 그 음색이 맑고 청아하며, 가련하고 배우기 쉬운 까닭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

• 나각: '나' 또는 '소라' 라고도 한다. 자연생 소라의 껍속한 부분에 구멍을 뚫거나 그 구멍 취구를 만들어 꽃아 불기도 한다.

5-3 타악기



정, 쟁가리

• 영도: '악학궤범' 에 실린 이 악기는 8개의 북면을 가지고 있다. 이 북의 8면은 지신제 가운데 영신악의 8성과 일치하는 숫자이다.

• 도 : 북 하나를 긴 장대에 꿰어 매단 '도' 는 '악학궤범' 에서도 "그림만 전할뿐 쓰지 않는다" 라고 전해지고 있다.

• 운라: 낫 겹시모양의 나 10매를 틀에 매달아서 작은 망치로 한한를 때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 축: 음악의 시작을 뜻하는 축은 푸른색을 칠하여 동쪽에 놓고 음악이 끝남을 알리는 '어'는 흰색을 칠하여 서쪽에 놓는다. 지금도 공자묘의 제향때에는 이처럼 옛법식대로 사용하고 있다.

• 교방고: 대고와 같이 북통 둘레에 통이 그려져 있고, 진고처럼 네발로 된 틀 위에 올려놓되 북의 가죽을 쉬운면이 위로 가도록 북틀에 걸어 사용하였다.

• 징, 쟁가리: 농악에서 쟁과리는 그 음색이 강하고 높은 것을 수쟁가리라고 하여 상쇠가 치고, 음색이 부드럽고 낮은 것은 암쟁가리라고 하여 부쇠가 된다. 농악놀이의 모든 과정은 상쇠의 지휘에 따라 진행된다. 현재에도 사물놀이에 사용되고 있는 애정깊은 우리의 타악기이다.

- **결고**: 요즘도 절고는 종묘나 문묘등 제례악의 등가에 편성되고 있으며 치는 법도 문묘악이나 종묘악 구분없이 동일시 되고 있다.
- **자바라**: 바라춤을 출 때 사용하는 작은북으로 손잡이가 없는것도 있다.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민속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소 고**: 종악에 사용하는 작은 북으로 손잡이가 없는 것도 있다.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민속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부**: 부를 치는 법은 아홉조각으로 쪼개진 재나무로 향아리의 변두리(모서리)를 치는 것이다. 주로 장단을 짚어주는 리듬악기 구실을 한다.
- **박**: 이 악기는 삼국시대부터 사용하였으며 고나현 합주, 춤 등에서 사용한다. 예전에는 음악의 시작과 끝맺음을 지휘할 뿐만 아니라, 때장단에 한 번씩 쳐서 마루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음악을 시작할 때는 한 번 치고 끝낼 때는 세 번을 친다.
- **갈 고**: 갈고는 두손에 채를 들고 치기 때문에 양장고 라고도 한다. 이 악기는 그 크기나 모양이 장고와 일치한다. 음을 조절하는 축수가 양쪽으로 조이게 되어 있다.
- **대 고**: 북통의 양면에 고리를 박고 그 고리에 끈을 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로 민속무와 군례에 사용되고 있다.
- **장 고**: 이 악기는 오른손에 채를 들고 치고 왼손으로는 북을 친다 해서 장고라고 이름지어 졌다. 또 공명통의 양쪽머리는 크고 중간허리는 가늘다 하여 '세요고' 라고도 한다.

6. 농기구류



맹돌과햇다익

한민족의 생업은 예로부터 농경이 주축을 이루고 농경 작업에는 필수적으로 연장이 수반되는데 그것이 농기구이다.

농기구는 농작물의 파종, 재배, 수확에서 가공까지의 농경 과정에 쓰이는 연장이다. 이러한 농기구는 농사를 짓는데 쓰이는 연장이지만 단순한 연장으로서의 의의를 벗어나서 우리 민족 문화의 기원을 규명하고, 경제사를 밝히며, 생활사를 엮어 나가고 지역에 따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적인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농기구류에서는 농기구가 가지는 민속적, 통속적인 조형의 미를 지니고 있는 원천적인(근원적인) 느낌들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리라 판단된다.

아울러 본 과제에서는 농기구류를 3부분(가공, 경작, 운반)으로 나누어 이해하기 쉽게 분류하여 각 부분마다 사용 방법과 용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농기구에 대한 분류는 1969년 김광연의 '한국의 농기구' 저서에서 지어 가는 과정에서 115가지의 농기구를 16종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 가는 연장: 쟁기, 극쟁이, 따비, 가래, 팽이, 쇠스랑
- 삶는 연장: 씨래, 전지, 나래, 곰방메, 고무래, 발고무래, 끄계
- 씨뿌리는 연장: 다래끼, 종다래끼
- 거름주는 연장: 오줌장군, 거름통, 똥바가지, 귀때동이, 소매구덩이, 삼태기, 개똥삼태기, 소 매구시, 새갓통
- 매는 연장: 호미
- 물대는 연장: 두레, 맞두레, 용두레, 무자위, 두레박
- 거두는 연장: 낫, 전지
- 터는 연장: 개상, 그네, 도리깨, 벼훑이
- 말리는 연장: 멍석, 도래방석, 밭, 거적, 얼루기
- 고르는 연장: 풍구, 바람개비, 키, 부뚜, 체, 쳇다리
- 알곡 및 가루 내는 연장: 물레방아, 물방아(통방아), 연자매, 디덜방아, 외다리방아, 매통, 절구, 돌확, 맷돌, 매향지, 매향판, 맷방석, 맷돌다리
- 운반 연장: 길마, 걸채, 밭채, 옹구, 거지계, 지계, 쟁기지계, 바소거리, 거름지계, 우차, 망 태기, 주루막, 다루깨, 바구니, 광주리, 포아리
- 갈무리 연장: 섬, 가마니, 중태, 독 및 두뜨레방석, 채독, 통가리, 밤우리, 나락두지, 떡서리, 떡둥구미, 소쿠리, 뒤웅박
- 축산 연장: 구유, 소죽바가지, 작두, 손작두, 어리, 둥우리
- 농산 제조 연장: 베틀, 물레, 씨아, 돌물레, 기름틀, 자리(섬)틀, 가마니틀, 신틀
- 기타 연장: 갈퀴, 넝가래, 도롱이, 샷갓, 메, 말, 되, 비, 바가지, 살포, 함지, 태, 팡개, 물풀 개

6-1 가공



키

가공 농기구에서는 고르는 연장, 말리는 연장, 가루 내기 위한 연장, 저장 을 위한 연장 그리고 농산 제조 연장(짜는 연장)을 이 범주에 포함시켜 쉽게 풀이해 보고자 한다.

1. 고르는 연장: 키, 풍구, 바람개비, 체, 쳇다리, 도리깨, 넝가래 등이 있다.
2. 말리는 연장: 멍석, 도래 방석, 밭, 거적, 얼루기
3. 가루 내기 위한 연장: 디덜방아, 물방아, 물레방아, 연자방아, 맷돌, 돌확, 갈돌, 절구, 메
4. 저장을 위한 연장: 구유, 섬, 바구니, 둥구미
5. 농산 제조 연장: 베틀, 물레, 작두, 날틀, 새끼가마니, 신, 자리를 짜는 틀, 씨아, 전지, 날줄 그리고 기름틀, 국수틀, 약틀 등이 있다.

- 도리깨: 곡식의 이삭을 두드려서 알갱이를 떠는데 쓰인 것으로 기름한 작

대기 끝에 두 개나 세 개의 회초리를 잡아매서 휘둘러 치게 되었다.

• **물레**: 솜이나 틀 따위의 섬유를 짜아 실을 뽑아내는데 쓰이는 틀이다. 나무로 된 여러 개의 물레 살을 동줄로 엮어매어 보통 6각 또는 8각 물레를 만들고 가운데에 굴동을 박아 꼭지 마리로 돌리게 되어 있다.

• **물방아, 디딜방아**: 디딜방아와 연자매 등은 주로 알곡과 가루를 내는데 쓰이던 연장이다. 그 옛모습은 석기 시대의 연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국수틀, 짚신들**: 농산 제조 연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음식물과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기본적 구조를 갖춘 도구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였다.

• **풍구**: 풍구는 초보적인 기계 장치로 되어 있는데 익은 쌀, 보리, 밀, 콩, 팥 등 곡식의 쪽정이, 겨, 먼지들을 가려내는 데에 쓰였다.

• **전지**: 끝이 Y자 모양으로 된 대나무를 양쪽에 세우고 모시물을 있는데 쓰는 도구이다.

• **날줄**:

• **연자매, 뺏들**: 주로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 때나 물에 불린 곡식 등을 갈 때에 쓰는 때 의 하나이다. 곰보처럼 엮은 둥글넓적한 두개의 아랫돌과 윗돌을 한 짝으로, 아랫돌의 중심에 박은 중쇠에 윗돌 중심부의 구멍을 맞추어 회전하게 하고 윗돌에 구멍을 꿰뚫어 파서 갈 것을 넣게 하였으며 윗돌 옆에 수직으로 달려 있는 뺏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돌려 간다. 익을 뺏들질이라고 하며 뺏들질을 할때는 뺏들 아래쪽을 커다란 함지에 고정시켜 놓고 위쪽의 중심부에 있는 구멍을 중쇠에 끼워 맞추고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가는 데 한 사람은 갈 것을 넣으면서 돌릴 때 호흡을 제대로 맞추어야만 뺏들질이 쉽고 고르게 잘 된다.

• **키**: 곡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담고 까불러서 쪽정이나 검부러기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에 쓰는 기구이다. 앞이 넓고 편평하고 뒤는 좁고 우긋하게 고리버들이나 대쪽 같은 것으로 걸어 만들어 곡식을 담고 끼부르면 가벼운 것은 날아가거나 앞에 남고, 무거운 것은 귀로 모여 구분할 수 있게 했다.

• **절구**: 절구의 사용은 돌 또는 나무로 만들어진 절구통에 곡식을 넣어 주로 알곡과 가루를 만드는데 쓰였으며 떡을 만들 때에도 사용하였다.

• **때**: 물건을 칠 때 쓰이는 연장이며 주로 방아를 찧거나 떡을 쥘 때에 주로 사용하였다.

• **되(말)**: 곡식이나 소금 또는 액체 등을 분량의 한 단위에 맞도록 만든 그릇이다. 보통1말은 10되를 지칭한다. 옛날에는 직,정방향의 나무 또는 쇠로 만들었으며 요즘은 원통형으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 **구유**: 굵은 통나무를 파서 만드는 것으로 여기에 말,소의 죽이나 여물을 담아 주었다.

· **작두**: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용하였던 도구이며 한 사람은 작두 밥을 대어서 작두질을 한다. 가족에게 먹일 여물을 준비하는데 주로 사용되었으며 기타 곡물들을 자르는데 사용되었다.

· **찌아**: 목화의 씨를 빼는 기구로 대개 장방향의 나무토막으로 몸체를 삼아 두 개의 기둥을 박고 그 아래쪽을 작은 판때기로 가로질러 가렛장 비슷하게 고정시켜 사용되었던 도구이다.

6-2 경작



보습

· 농작물 파종을 위한 도구 (갈, 삶기, 씨뿌리기)

논사(밭)를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땅을 일구고, 덩어리진 흙을 부수고 바닥을 편편하게 삶아야 씨를 부리거나 심을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연장으로는 쟁이, 따비, 쟁기, 가래, 보습, 곰방매, 고무래, 갈퀴 등이 사용되었고 씨래와 발나래 등은 주로 2인 이상으로 그 사용 용도가 진일보된 농기구류이다.

· **쟁이**: 주로 흙을 파고 깨며, 김매기 등에 사용되었고 밭을 일구거나 정지 작업을 할 때 사용되었던 도구이며 가짓잎쟁이, 곡쟁이, 삽쟁이, 왜쟁이 등이 있다.

· **따비**: 가장 원시적인 농기구의 하나로 논밭을 가는데 쓰이던 도구이다.

· **쟁기**: 쟁기의 골격은 술과 성에로 이루어지며, 술 끝에 보습을 끼우고 사용하였으며 소를 이용해 논밭을 가는데 쓰이는 도구이다.

· **보습**: 술 끝에 끼우는 쇠로 삽과 비슷하게 생겼다. 이것은 땅을 갈아 흙덩이를 일으키는 데 사용하였다.

· **가래**: 흙을 파헤치는 기구로 날을 끼운 넓적한 몸체 긴 자루를 잡고 두사람은 줄을 잡아 당기어 흙을 파서 던지는데 사용하였으며 도랑을 치고 논둑을 쌓거나 깎을 때에 쓰인다.

· **쇠스랑**: 쇠스랑은 농기구의 하나로 쇠로 갈퀴 모양을 만들고 'ㄱ' 자로 구부러진 한 끝에 긴 나무 자루를 박았다.

밭은 보통 세 개가 일반적이거나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것도 있다. 논둑을 까고 새로 붙일 때 파서 옆고 흙덩이를 깨서 고르기도 한다. 또 밭을 파고 흙덩이를 쳐서 골을 내고 반반하게 고르기도 하며, 씨뿌린 뒤에 이것으로 덮기도 한다. 감자, 고구마, 무 등을 캐기도 하며 두엄을 쳐내는 데에도 쓰이는 등 용도가 다양하다.

· **씨래**: 갈아 놓은 논바닥을 반반하게 고르거나 흙덩이를 깨는데 쓰이는 연모이다.

· **평상씨래**: 씨래를 2-3개정도 나란히 붙인 것으로 평상 모양과 흡사하다 하여 평상씨래라 한다.

- **발나래**: 나무판 아래 쇠로 만든 날을 붙여서 흙덩이를 부수는데 쓰이는 도구이다.
- **번지**: 씨래질을 한 뒤 번지치기라 하여 씨래밭에 보통 긴 네모꼴의 널판을 대어서 사용한다.
- **곰방매**: 논밭의 흙덩어리를 깨뜨리는데 쓰이며, 골을 탄 뒤에 바닥을 고르고 씨뿌린 뒤에 흙을 덮는데 예도 사용한다.
- **고무래**: 곰방매와 같은 용도로 쓰이면서 곡식을 알리거나 너는데 예도 사용되었다.
- **갈퀴**: 곡물이나 풀잎, 낙엽, 검불 등을 긁어모으는 농기구의 하나이다. 여러 개의 대쪽이나 찌리, 철사 등의 끝을 갈고랑이처럼 되게 휘어 부챗살 모양으로 가지런하게 펴고 춤(띠, 치마)을 매었다. 뒤는 끝을 오므리고 긴 자루를 달았다.

6-3 운반



용두래

가공 도구와 경작 도구를 제외한 밭과 논 농사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던 거름을 주는 연장과 물을 대는 용구 그리고 수확된(또는 되지 않은)농작물을 옮기는 도구를 총괄하여 운반 농기구류의 분류에 포함시켰다.

- **거름통**: 주로 고체의 거름을 넣어 논밭으로 옮기는데 사용되어 졌던 용기이다.
- **장군**: 거름을 주는 연장으로 오줌 등을 넣어 지계에 옮겨 농토에 뿌리게 된다.
- **용두래**: 통나무를 배모양으로 길쭉하고 둥글게 파서 몸통을 만들고 그 가운데 양쪽으로 작은 구멍을 뚫어 가는 나무를 끼우고 끈을 맨 것이다. 한 곳에 고인 물을 다른 곳으로 퍼 옮기는데 사용되어졌다.
- **바소거리**: 바소거리는 부서러기 짐을 나르기 위해 지계에 얹어 사용 한 것으로 겹었다 폼다 할 수 있다. 이 지계는 농어촌에서는 필수품으로 농어민들의 생업의 현장에 늘 있었던 도구이다.
- **달구지**: 동물을 이용한 운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소나 말 등에 채워서 그 위에 물건을 얹어 운반한 도구이다.
- **발채**: 일명 '결채' 라고도 하며 소등의 길마 위에 얹어 버나 보릿단 등을 실어 나르는데 쓴 도구이다.
- **맞두래**: 특히 높은 언덕 같은 높은 곳에 물을 덜 때 사용되었다.
- **지계**: 짐을 얹어 사람이 지고 다니는 우리 나라 특유의 운반 기구로 곧은, 나뭇가지가 비스듬히 옆으로 돌친 장나무 두 개를 잘라 위는 좁고 아래는 약간 벌어지게 나란히 세우고 사이에 나무나 장쇠를 가로질러 사계를 맞추고 있다. 등이 닿는 곳은 짚을 엮어 두툼히 맥 아래 위로 밑배를 두 개 걸

어 등에 지도록 만든 것이다.

· 무자위: 전체가 소달구지 바퀴 모양으로 한 개의 축위에 많은 판을 나선형으로 붙인 것으로 물을 옮기는데 사용되어졌다.

7. 짚풀류



말갈푸럭이

서민의 문화, 서민의 예술, 생산자 농민들이 가꾸어온 문화로 대변 할 수 있는 짚풀 공예품들은 일반적으로 수명이 짧은 편이다. 짚, 풀 공예품들은 농촌에서 아무렇게나 쓰던 물건이라 남아 잘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1970년대 초 '새마을 운동'으로 초가집을 비롯한 우리 고유의 멋과 마을의 모습들은 점차 사라져 갔으며,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그 원천들도 오늘의 시점에서 찾기 어려운 부분이라 하겠다.

일찍이 우리 조상은 곡식 담은 그릇 (신발, 돛자리, 계란 꾸러미, 지붕 등)을 모두 짚으로 엮어 만들었다. 짚그릇은 방습효과가 뛰어나 곡물이 썩거나 상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짚으로 만든 그릇에는 섬, 먹서리 짚독, 가마니, 둥구미, 종파리기, 씨오쟁이 등이 있다. 이 그릇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기능성과 조형미를 갖추고 있어 자연재를 활용한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솜씨를 엿볼 수 있다.

그것이 죽어서 다시 곡물을 보호하는 그릇으로 재생되고, 다시 거름으로 환원되는 순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부분에서는 짚풀이 갖는 생활 속에서의 행위(행태) 및 사용 방법과 용도에 따라 저장(보관)의 기능과 생활에서의 짚이 갖는 특징적 요소를 분류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7-1 저장(보관)



바구니

· **풀뒤주:** 쌀, 콩, 팥 등 곡식류를 저장하는 뒤주로 풀류로 만들어졌다 하여 풀뒤주라고 일컬어 진다. 자연물을 자연물의 재료에 보관하여 자연과 합일하는 선인들의 지혜가 서려 있는 저장 용기이다.

· **바구니:** 대나 싸리짚 등으로 둥글고 깊숙하게 만든 그릇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집트에서는 5천년 전의 제법이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전라 남도 담양의 죽세공이 유명하며 대를 가늘게 조개어 섬세한 세공을 하거나 또는 염색을 하는데 아름답게 만든 것은 우리나라 특산품으로 애용되고 있다.

· **섬:** 일반적으로 가마니라고 하지만 가마니는 일제시대때 개량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고유의 것을 섬이라고 하며 짚으로 돛자리 치듯이 쳐서

만든 것으로 곡식, 소금 등을 운반하는 데에 쓰인다.

· **달걀꾸러미**: 한국의 계란 꾸러미는 형태와 구조를 노출시킨 아름다움, 깨지지 않는 내용물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기능성, 그리고 포장내용을 남에게 알려주는 정보성의 세가지 특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포장 문화의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짚과 계란은 그 색채에 있어서나 직선과 원형의 기하학적 균형, 촉감 등에서 완벽한 대조와 조화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 **달걀망태**: 달걀을 모아 두던 망태기

· **둥구미**: 짚으로 둥글게 엮은 것으로 보통 갈무리하는데 쓰였으며 부인들이 머리에 이고, 곡물이나 채소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되었다.

· **쌀독**: 짚으로 만들어진 쌀독은 풀뒤투와 마찬가지로 곡물들을 저장, 보관하여 사용하던 독을 말하지만 쌀독은 매일 몇 차례씩 사용되었던 농민들의 땀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이다. 근자에 짚으로 만들어진 쌀독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며 벼짚과 보리짚을 주로 사용하였다.

· **지승호리병**: 삼을 자세에 돌려 노를 꼬며 한지를 가늘게 오려 되면 돌을 말려 안에 삼노가든 지노가 된다. 이 지승호리병은 '삼노든 지노'로 만들어진 특이한 용기이다.

· **통발**: 어촌에서 고리를 잡을 때 사용하였던 기구이다.

7-2 생활



소쿠리

· **누에발**: 찌리로 만들었으며 누에를 칠 때 사용되었다.

· **낮망태**: 여러 가지 기구를 넣어 걸어 두는 용구이지만 어깨에 걸고 씨를 뿌릴 때 사용하기도 한다.

· **도래 방석**: 짚으로 만든 것으로 곡식을 털고 골라 햇볕에 말리는데 쓰인다.

· **깎방석**: 부엌에서 물을 때거나 나물따위를 다듬을 때 아낙네들이 깔고 앉은 방석이라 깎방석이라 불린다.

· **저자망태**: 벼짚이나 왕골숙과 모시 겹질과 짚을 섞어 만들었으며 전라도 지방에서는 둥구미를 망태기라 일컫는다.

· **닭동우리**: 닭이 알을 품는 곳을 닭동우리라 한다.

· **둥구미, 둥구미 도시락**: 벼짚, 왕골숙과 모시 겹질과 짚을 섞어 만들었으며 저자망태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 도시락은 참과 식사를 위해 만들어진 용기로 주로 버들가지로 만들었다.

· **삼태기**: 주로 거름을 담아 논밭에 뿌리는데 쓰인다.

· **매주들**:

· **박다귀**:

- 키: 곡식이나 다른 물건을 까불려서 쪽정이, 검부더기를 없애는데 쓰인다.
- 정등벌립: 정등을 엮은 모자로 예로부터 제주도의 특산품이었다. 오늘날에는 관광상품으로 변모된 정등벌립이 존재하고 있다.
- 채반: 곡물 등을 펼쳐 말리거나, 다른 용도로는 물기를 거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 비: 갈꽃과 억새꽃으로 만든 노화지, 자루가 짧은 것은 한지를 바를 때 또는 만들 때 사용되었던 비가 있다.
- 소쿠리: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는 연장은 따로 없고 바구니, 소쿠리등 여러 용기가 사용된다. 보통 대로 만들며 울이 깊고 모양이 둥글다.
- 도롱이: 벼짚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안은 왕골을 대기도 한다. 샷갓과 도롱이를 입는 것이 우기의 복장이었다.

8. 조명류



등가

한국인들은 밤은 어두워야 비로소 밤이다. 그러므로 그 밤을 비치는 조명 역시 대낮의 빛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달빛이나 별빛처럼 으스스한 광채를 이상으로 삼는다.

조명효과보다는 밤만 아니라 낮에도 볼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고 빨강과 파란길을 사용했다. 그냥 밝은 달이 아니라 구름속에 가린 달빛을 더욱 좋아한 한국인들은 빛을 찬다. 깊으로 종이로, 그렇지 않으면 창살 같은 나무로 청사초롱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의 조명기구들은 비과학적으로 보인다. 반사경을 달아 그 조명도를 높인다든지, 유리처럼 투명한 재료를 쓴다든지 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빛의 확산을 막고 가리는 비 기능적인 재료 또는 그러한 디자인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비 과학이 아니라 과학 이상의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의 소산이다. 석등처럼 불빛을 켜지 않는 등 그 역설의 등이 아마도 한국인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등이었을는지도 모른다.

이 부분에서는 등잔류, 촛대류, 석등류로 분류하여 그 특징과 의미를 조사하여 보았다.

8-1 등잔류



유색유안국 등잔류

전기가 없었던 예전에 방안의 어둠을 밝히는 데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등잔불을 부유한 사람들은 촛대를 켰었다. 가난한 집에서는 어쩌다 쇠고기국을 끓이면 등잔기름으로 사용할 굳기름을 걸기도 하였다. 석유가 수입되기 전인 100여년 전만 해도 우리서민들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였던 불이 등잔이었다.

등잔은 시대와 사용재료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등잔류들이 나타나고 있으

며 이러한 등잔의 종류와 기능을 분류 정리해 그 특징적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토기등잔, 목등잔, 철제등잔, 유기등잔, 도자등잔, 등가, 호야등, 조족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토기등잔**-토기로 만든 등잔은 삼국시대에 주로 사용하였던 등기구로 알려져 있다. 현존하는 유물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 자체가 귀중한 자료로 남아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등식 토기등잔의 기능과 사용의 특징적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상단부와 하단부로 나누어지며 상단부에는 5개의 반구모양이 원틀 둘레에 연결되어 있으며 하단부에서는 기름을 넣는 곳으로 추정되며 이 부분을 통해 상단부의 5개의 부분등잔으로 기름을 일정한 유량으로 분리 공급하였던 등기구로 판단된다.

외형상 보여지는 모습은 신라시대의 토기류, 상등과 같은 이미지로 와 닿고 있으며 일반서민 보다는 상당한 계층의 부류에서 사용되었던 등기구로 여겨진다.

▪ **목등잔**-목등잔은 토기등잔과 같은 시기(또는 이전에)로부터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등기구이다. 등기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은 목등잔이다. 목등잔은 다른 재질의 등잔과 비교하여 그 재료의 수명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조선 후기의 것들이 남아 있다. 목등잔을 등경과 등가로 나누어 살펴보면, 등경은 등잔을 적당한 높이에 엮도록 한 등대로서 '등경걸이'라고도 부른다. 대표적인 등경의 형태는 넓직한 하반에 3-4개의 걸이용 단이 있는 기둥이 세워져, 필요한 높이의 단에 등잔 걸이를 걸치고 등잔을 그 위에 얹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등잔 밑에는 우각형, 유방형, 타구형의 기름받이를 달아 심지에서 떨어지는 불순물을 받도록 하였으며, 상하귀천의 구별 없이 가장 애용된 실내 등기 양식이다. 등경은 청동, 철, 놋쇠의 금속재와 함께 나무를 주재료로 하였는데, 그 중 나무로 만든 등경은 각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자가제작하였으므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 **철제등잔**

철제등잔은 조선 중기로 접어들면서 많이 만들어진 양식이다. 쇠가 지닌 단단하고 유연한 성질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매우 유용한 시설장비, 도구등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특히 순도가 비교적 높은 무쇠로는 솥이나 화로, 등잔 등을 만들었다. 철제 등잔은 고려시대의 염주형 문양에서 점차 죽결형 문양으로 변모해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불후리와 같은 장식 부분이 파손되는 등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인 모양이 아름답고 화려하다.

• 유기등잔

유기등잔은 주로 안방에서 사용되었다. 둥근 받침에 몇단의 걸이용 기둥을 세우고 등잔과 기름받이를 위아래로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름받이는 등잔의 기름이 타면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기둥에 걸이용 단을 만든 것은 필요에 따라 등잔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둥의 상단부는 고사리 말림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양식은 고려시대에서도 나타난다.

• 도자등잔

뚜껑에 심지꽃이가 따로 붙은 백자 서등과 호형등잔은 석유 수입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등잔은 잠깐 사용되다가 사라진 것들인데, 석유의 인화성 때문에 등잔의 뚜껑위로 심지를 뽑아 올려 사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처음 석유가 유입된 것은 고종 13년(1876년)기록이 나타나는데, 유입 초기에는 궁궐에서 사용되다가 점차 양반가와 중인, 그리고 일반 서민들에게로 퍼져나갔다. 등잔과 밑받침을 함께 붙여 구워낸 백자 등잔은 주로 책상에 얹어서 책을 읽을 때 사용하면 서등의 일종이다. 서등의 몸체에는 죽절문을 다양하게 넣어 전체 곡선이 잘 살아나도록 하였다. 특히, 기둥 가운데 부분에 자연목을 사용하고 상하부는 도자기로 연결된 '상하부도자기등잔'은 한층 더 아름다운 모습을 느끼게한다.

백자 서등 가운데는 조도를 높이기 위해 두 개 또는 네 개의 심지를 등잔 뚜껑에 박아 사용한 것도 있다. 심지가 두 개 또는 네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름이 많이 소모되어, 일명 '부자등잔'이라고도 한다. 이들 등잔 역시 등잔의 앞음새는 죽절문으로 처리하고 받침으로 이어지는 부분의 아름다운 곡선을 살려 자연스럽게 전체균형을 맞추었다.

• 등가

한편, 걸이용 단이 없이 상반부에 등잔을 엮도록 만든 것을 등가라고 하는데, 이 역시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등가는 대체로 석유 등잔이 쓰이면서 점차 보편화되었다. 장식은 주로 받침대에 행해져서 대매듭, 줄구슬, 끈노새김, 기하학적 돌을 새김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밑받침은 보통 재떨이를 겸해서 사용하는 실용성이 돋보이지만, 간혹 연꽃같은 새김을 해서 한껏 멋을 낸 경우도 있다. 굽에는 별다른 장식없이 흑 기름이 튀더라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턱을 만들어 두는 정도로 마무리했다.

• 벽걸이 등잔

조선 후기에 사용된 벽걸이 등잔의 손잡이 부분에는 나무, 새, 꽃 등을 대치문양으로 사용하여 장식성을 살리면서도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고 평면으로 단순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벽의 못에 걸도록 손잡이 안쪽에 홈을 파고 바깥쪽에는 장식을 했으며, 등잔을 걸치는 부분분과 아래 받침 부분으로 나

뉘어져 있어 기능적이고 단순한 조형적 특성을 지닌다.

• **좌등**

좌등은 주로 상류사회에서 사용된 조명기구인데, 실내의 적절한 공간에 놓여 방 전체를 은은하게 비춰준다. ‘바닥등’이라고도 하며 서등과 장등이 있다. 서등은 얇은 나무판으로 상자를 만들어 앞면에 문을 내고 위면에 원형 환기공을 낸 뒤 검은 칠을 한 것으로, 내부에 등잔을 넣도록 고안된 것이다. 문을 열면 등불이 책을 곧바로 비추어 글을 읽는데 주로 사용되었으므로 서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조선 후기 석유가 수입된 이후부터는 자기로 만든 백자 서등이 널리 사용되었다. 내부에 철로 만든 간단한 등경을 고정시켜 설치한 것도 있으며, 크기는 높이 25cm 정도의 소형에서 70cm에 달하는 큰 것까지 있다. 장등은 각재나 반죽, 오죽으로 기둥을 만든 사각, 육각, 팔각의 장방형 등으로 표면에 기름종이를 발랐으며, 유리가 수입된 후에는 유리를 끼워 사용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양식에는 종류에 따라 밑에 서랍이 달려 있기도 하였는데, 여기에 인광노나 초, 짧은 촛대를 넣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등의 외형은 다양한 조각으로 장식하고 주칠을 한 화려한 가구양식을 보이고 있다.

• **제등**

제등은 밤에 다닐 때나 의, 예식에 사용하는 휴대용 조명기구로서 초롱, 등롱, 조족등, 조축, 유지등이 있다. 주로 철사, 놋쇠, 대나무, 나무 등으로 골격을 짜맞추고, 표면에는 한지나 깃을 발랐다. 위 부분에 손잡이를 달아 이동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었는데 등의 내부에 초를 넣은 것은 초롱, 등잔을 넣은 것은 등롱, 청사, 홍사를 씌운 것은 청사초롱, 홍사초롱이라 부른다. 청사, 홍사초롱은 주로 의, 예식용으로 사용하였던 붉은 비단으로 만든 초롱의 일종이다. 용머리가 장식된 긴 대 끝에 초롱을 달아 세우거나 뉘어 풍악의 진행과 멈춤을 알렸다.

• **조족등**

조족등은 궁중의 빈전이나 순라꾼이 야경을 돌 때 사용하였던 것으로 그 형태가 박과 같다하여 박등, 도적을 잡을 때 사용한다 하여 도적등, 또는 조적등이라고도 불렀다. 등의 형태를 보면 뼈대는 대가지나 쇠로 만들고 표면에는 누비주름 무늬의 기름종이를 두겹게 바르는데, 밑은 잘라 틈었다. 위 쪽에는 손잡이를 붙이고 등의 내부에는 초를 꽂는 철제의 회전용 돌쩌귀가 있어, 등을 상하좌우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

• **호야등**

석유가 수입되면서 만들어진 호형등잔은 한일합방 이후 일본인들이 자기네 아리다가마에서 대량생산한 등잔 서너개와 우리 것 한 개를 맞바꾸어 우리 나라에는 그다지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8-2 쫓대



우리의 안방문화를 밝혔던 초는 귀하고 비쌌던 까닭에 상례, 제례 그리고 혼례때에는 초를 키는 것을 예로 삼았다. 일찍이 낙랑시대의 유물에서 청동제 쫓대가 발견되어 초와 쫓대가 이 시기부터 사용되었으리라 사려된다. 이러한 이유는 초는 그당시 원료의 최소함과 계급사회에 의한 사용과 구입이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환경을 대변해 주기도 한다.

삼국시대에도 쫓대가 제작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 때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금동수정 장식쫓대'를 들 수 있으며, 고려때에는 주로 청동 쫓대가 사용되었다. 불교가 왕성했던 삼국시대, 고려시대와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쫓대가 여러 형태로 확산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쫓대도 등잔과 마찬가지로 재료에 따라 사용계층과 형태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편적으로 쫓대는 서민들의 직접적인 자가생산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관계로 시대별 변천과정에서 표출되었던 모습과 재료별 특징을 정리하여 보면 그 일치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재료별분류(청동, 무쇠, 철제, 목제, 유제쫓대)를 통하여 쫓대가 지닌 미학적, 조형적 측면을 분석해 보았다.

• 청동쫓대

사발을 엮어놓은 형태의 쫓대받침에 염주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초받침을 엮어 초를 꽂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둥의 염주문은 크기가 다른 두 형태의 염주문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비례와 안정감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이 잡혀있어 고려시대의 탁월한 조형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사리말림형 청동등경은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멋이 풍겨,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 무쇠쫓대

무쇠바탕에 일일이 은실을 박아 만든 쫓대로, 만든 사람의 수고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육각형의 화선과 쫓대의 이음새 부분에 '희'자 문양이 조각되어 있다. 쫓대 기둥 상단부에 화선의 이음새를 달고 회전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 불막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분해와 조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사대부 집안의 사랑방에서 사용했던 것이다. 불판과 초받침, 화선이 육각으로 전체적인 균형이 잘 잡힌 매우 고급스러운 쫓대이다.

• 철제쫓대-철제 쫓대는 철제등잔과 같이 조선중기때 많이 만들어져 일반서민들에게 많이 보급된 생활의 필수품이었다. 철제등잔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염주형 문양과 죽절형 문양들이 절제되어 가면서 형태적인 면에서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단순, 검소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쫓대의 비례와 균형미는 오늘날의 소위 굿 디자인 제품들에 비해 훨씬 절제된 미로 나타나고 있다.

· 목재촛대

등기구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가장 많이 남아있는 목촛대는 다른 재질(청동, 쇠, 유기)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재료의 수명한계가 짧은 편이다. 상하 귀천의 구별없이 가장 많이 애용된 실내의 등기구류이다. 일반적으로 목제촛대는 서민들이 직접 자가생산방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형태적 면에서는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서민이 직접 제작한 이러한 등기구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실질적, 기능적 형태적 측면들을 살펴보면 무속적 느낌의 촛대(솟대와 유사한 모습)와 여러 재료들을 종합하여 사용한 조각적 느낌의 촛대, 목제등류와 같은 일반적 형태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촛대들로 구분지를 수 있다.

· 유제촛대

촛대에는 일상생활용과 의, 예식용, 그리고 이동용인 수초가 있다. 기본 형태는 복발형 받침위에 죽결형, 염주형, 장구형의 기둥이 서 있고 그 위에 짧은 초꽃이 축이 달린 받침접시가 있어 초를 안전하게 꽂도록 한 것으로, 주로 의, 예식에 쌍으로 사용하였다. 반면 일상생활용 촛대는 박쥐형, 나비형, 원형, 파초형등 불후리가 달린 것으로, 편리하게 사용, 보관할 수 있도록 분해와 조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8-3 석등



봉도사세존비각앞석등

우리나라의 고대 조형 미술품 가운데 불교 미술은 길에 있어서나 양에 있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작품은 불상과 탑파가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많이 띄는 조형물로서 석등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갖게 된다. 불자들이 연등 불공 행사를 빼놓지않고 하는 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연등 시설 가운데 석등이 불탑에 이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점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불상과 탑파에 비해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석등이 실용적인 조명시설로 여겨지는 만큼 수적으로 적은 것도 주목되는 점이라 하겠다. 또한 조명 시설로 인식되는 이 석등은 어느곳이나 시설될 수 있는 조형 미술품인 데도 불구하고 궁궐이나 저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이 주목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석등 자료를 살펴볼 것 같으면 불사나 능묘 시설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조명 시설인 동시에 신앙심을 일으키는 종교적인 조형물로 믿어진다. 석등의 기원에 대하여는 명확치 않으나 적어도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조형 미술품인 것임은 틀림없는 것이라 하겠다. 삼국시대에 속하는 석등으로 추정되는 초기의 작품은 백제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를 비롯하여 불교를 정립하고 성장시킨 중국이나 일본의 석등 조형 미술보다 조형적, 미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느낌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서 우리나라석등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석등의 모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물론 인도, 중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모두 평면 8각형인 것으로 미루어 8각 석등이 기본형인 동시에 전형 양식인 듯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것으로 믿어지는 석등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백제 지역에서 발생하여, 장려하고 발전한 시대는 통일 신라시대로 그의 종류는 다종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이를 계승, 개선시킨 고려시대는 혁신적인 경향이 높은 시대로서 석등 또한 보수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형태의 석등을 개발, 발전시켜왔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고려에서 개선한 모습을 계승하는 동시에 사찰전용으로 사용하던 석등을 조선 왕조의 능과 사대부들의 묘에 설치하는 풍습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석등은 사용처에 따라 그 종류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처로는 불전처, 부도처, 그리고 능, 묘등 네곳으로 구분되고 있다.

• 불전처의 석등

불전처의 석등으로는 조형 양식과 전형양식과 사자 양식, 6각양식, 4각 양식 등의 종류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들 종류의 석등이 놓여진 초기 위치는 불전과 탑 사이가 되며 이곳에 놓여 있는 등명은 조명의 효과를 기하는 데도 있지만 부처님의 진리의 등불로서 바로 불타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법사자가 떠받치고 있는 화사석이 불타의 광명을 뜻하며 또한 화사석의 여백에 조각된 사천왕상이나 보살상이 조각되어 있는 점에서 그렇게 추정되기도 한다.

• 부도처의 석등

부도처의 석등 위치는 부도 앞에 놓여지는 것으로 최초의 청량사 석탑 앞과 선림원사지 앞 석등을 비롯하여 충북 청원군 청룡사지와 경기도 회암사 석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신록사의 나옹선사부도 앞 석등은 원당형 양식의 석등의 등장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양식은 조선시대에는 왕릉에서 주류가 되고 있다.

• 능처의 석등

능처의 석등의 출현은 고려의 공민왕릉에 있는 4각형의 석등에서 알 수 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신록사 석등 양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 묘처의 석등

못에 출현된 석등을 장명등이라 부르는데 주로 4각 가옥 양식의 석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고려시대에 발생된 4각 석등(방형 석등)이 조선시대 들어서면서 민가 묘처의 장명등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9. 문방구류

우리 선조들은 고고한 지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생활이 소박하고 품위가 있으면서도 멋을 지니고 살아왔다. 시와 서화를 즐기는 우리나라 선비들의 기품 있는 풍류와 이런 선비들의 멋이 가장 상징적으로 표출된 곳이 사랑이다. 사랑은 아녀자들의 주거 생활 공간인 안채와는 전혀 다른 선비들만의 생활 공간이었다. 선비들은 이곳에서 벗과 더불어 시를 읊고 서화를 논하고 담소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문방, 즉 선비들의 방이라고 일컬었다. 이러한 문방에서 없어서는 안될 종이, 붓, 먹, 벼를 문방의 사우라고 한다.

9-1 붓



붓과 받침대

붓에 대한 사전적의미와 용어를 살펴보면 서화용구의 하나로 짐승의 털을 추려서 모아 원추형으로 만들어 죽관 또는 목축에 고정시킨 것으로 호의 끝을 붓, 호의 끝부분 반을 전호, 그의 필두따지의 짧은 털은 부호라 한다. 털로 된 모필 이외에도 죽필, 고필, 갈필등 특수한 것이 있다. 호는 주로 토끼털, 양털을 비롯하여 이리, 너구리, 사슴, 족제비, 말, 고양이, 노루 등의 털과 쥐수염, 달털, 태발 등으로 붓을 맨다. 털이 부드러운 붓을 유호필, 탄력이 든 털로 맨 붓을 강호필이라 하고 유호에 강호심을 박은 것을 겸호필이라 한다. 또 털의 길이가 긴 것을 장봉, 짧은 것을 단봉, 보통의 것을 중봉이라 한다.

붓은 그 쓰이는 재료와 필장 그리고 생산하는 지방별로 다양하다. 한국인들은 최고를 부드러운 붓을 만들어 쓰기의 선비문화를 만들었다. 붓은 아무리 힘을 주어 써도 종이가 찢어지는 법이 없는 아주 기능적인 것이다. 붓은 부드럽게 때문에 모든 힘을 받아 전달한다.

섬세하고 오묘한 정신의 리듬까지를 전달하여 쓴다는 것은 온 몸의 힘을 받는 흔적이고, 이미 의미가 아니라 정신 그 자체를 나타내는 흔적인 것이다.

9-2 벼루



충정시호벼루

벼루는 먹을 갈아 글이나 그림을 그릴 때 쓰기 위한 도구이다. 벼루가 일반적으로 쓰인 시기는 중국의 진나라 때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한 시기와 조사는 생략하기로 한다.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벼루는 대부분 남석으로 만들어졌으며 일상생활에서 늘 지니고 있던 관계로 또는 너무 흔해서 그 가치와 정의에 대해서 회피해온 만큼은 사실이라 하겠다.

국내산으로 대표되는 남포벼루는 충남 남포현 성주산밑에서 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평북 위원에서 나는 벼루돌인 청석도 전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벼루는 생산지에 따라 그 특징과 성격(재질)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원지대에서 나는 벼루는 바록이 좋고, 강가에서 나는 벼루는 발묵은 비교적 좋은 편이나 붓이 빨리 모질어 진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 전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벼루의 이름은 벼루의 모양이나 조각, 문양을 주제로 짓는 것이 관례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벼루의 이름을 정리하여 그 숨은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 **금연**

· **난월연**: 달과 난조각

· **일월연**: 해와 달을 조각

· **매죽무늬 일월연**: 일월연(해와 달) 둘레 매죽무늬 장식

· **문무연**: 문인과 무인의 모습을 조각

· **신구연**: 신령한 거북을 조각

· **팔괘연**: 팔괘가 조각

· **운룡연**: 구름속의 연조각

· **매월연**: 달과 매를 조각

· **삼우연**: 소나무, 대나무, 매화를 조각

· **심지연**: 마음 심(心)자가 조각되어 있다.

9-3 먹



먹통

우리나라의 먹의 종류는 채석먹과 무채먹이 있다. 대부분의 채석먹은 한 면에 먹이름을 금박 또는 은박으로 쓰고 한면에는 여러 가지 색으로 그림을 그렸다.

무채먹에도 여러종류가 있으며 양각으로 그림이 그려진 먹도 있다. 일반적으로 채석먹에 표현되고 있는 그림들을 열거하여 보면 불국사 다보탑, 산정그림, 북두칠성, 독립문과 태극, 책과 문구, 책거리, 주전자, 송, 죽, 매 그리고 바위, 구름과 용, 십장생, 산수와누각, 달밤, 연꽃 등의 풍경들이 그려져 있다.

무채먹에서는 구름위에 봉이나는 그림(한림종월), 부벽루그림(모란봉), 구름과 용(용담자운) 남대문, 광화문, 산수화, 용과 봉(용비 봉문) 등의 문양들이 표현되고 있다. 먹을 갈아서 휴대하기 쉽게 만든 도구들은 가벼운 외출을 할 때 지니고 다닌 용품으로서 먹통, 행연, 목적 등이 있다.

9-4 종이

인간생활이 항상 발전되면서 기록해야할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죽간, 목찰, 겸백(비단)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인간은 제지 기술을 창제하였다.



책

우리나라의 종이는 전국각지의 입지조건에 맞게 생산하였으며, 경상도는 발이 많으므로 모질지(보리짚 사용), 전라도는 논이 많으므로 고정지(벼짚 사용), 충청도는 한산모시의 원료인 마가 많으므로 마골지를 생산했다.

우리의 전통종이류를 재료의 사용에 따라 간단히 구분하여 보면

• 닥종이

닥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우리고유의 종이를 만들었다. 닥나무의 채취, 닥 삶기, 닥껍질 벗기기, 건조시키기, 담그기, 닥삶기, 표백하기, 티고르기, 닥죽 만들기, 종이뜨기 등의 여러공정을 거쳐 생산하고 있다. 현재에도 원주지방에서 고유의 전통방식을 이용한 닥종이가 생산되고 있다.

• 대나무 종이

종이를 만들 때는 대나무의 순과 굵은 줄기를 사용하는데 죽순으로 만드는 것이 처리 공정이 비료적 쉽지만 주로 굵은줄기를 사용한다. 단단한 섬유를 무르게 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매우 정성 들여 만들지 않으면 거친 섬유다발이 보이게 된다.

그러나 잘 만들면 대의 섬유는 가늘 뿐 아니라 균일하기 때문에 품질이 매우 좋다.

• 벧짚 · 보리짚 · 귀리종이

고정지는 벧짚이나 보릿짚, 귀리 등의 단섬유로 만든 종이를 일컫는다. 이들은 단독으로는 이용하지 못하고 닥, 마, 뽕나무 등의 장섬유 재료와 혼합하여 사용해야만 한다. 조선 시대 세종 때는 장섬유와 단섬유를 5:1의 비율로 섞어 썼다고 한다. 이러한 재료는 비교적 얻기가 쉽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지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와 1940, 50년대의 기계지에도 사용되었으며 중국에서는 화선지에 이를 사용해 왔다.

• 마지

마는 종이가 발명될 때부터 이용된 재료로 종이 원료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주로 넣마나 어망이 사용되었는데 저마와 대마의 폐포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조선시대 초기에는 겨릅대도 사용되었으며 후기에는 마닐라마 등도 이용하였다. 황벽 등으로 염색하여 황색을 낸 것을 ‘황마지’라고 하는데 이는 예전에 불경을 쓰거나 간행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 안피지

일본에서 자생하는 안피를 이용하여 만든 종지로 반투명이면서택있는 매우 품질이 좋은 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초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 때에는 일본의 종이가 품질이 좋아 왜저를 들여와 종이를 만들고 이를 재배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안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는 좀더 일찍 우리나라에 반입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면지

생목화를 종이원료로 사용한 예는 없으며 주로 마와 마찬가지로 닝마를 이용하여 만든다. 고려 말에 목화 재배가 행하여진 점으로 보아 그 이후에 면지가 만들어 졌다고 생각되지만 실지로 조선 초기까지는 면이 종이 제조에 이용된 것 같지 않다.

서양 종이는 면 닝마만을 사용한 종이가 대부분인데 순수하게 면만을 사용하여 만든 종이는 거의 없고 다른 원료와 혼합하여 제조한 것이 많다. 면으로 만든 종이는 닥종이보다 간편하게 제조할 수 있지만 광택이 적고 부푼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질기고 발묵 효과가 좋다.

• 뽕나무 종이

뽕나무는 닥나무와 비슷한 시기에 종이 원료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누에를 쳤기 때문에 뽕나무는 비교적 구하기 쉬웠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된 원료였다. 닥종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닥나무를 대신하여 종이 원료로 많이 사용되었다.

• 울무종이(의이지)

울무를 종이 원료로 사용한 최초의 기록이 보이는 것은 조선시대 초기이며 후기까지 여러번에 걸쳐 기록에 나타나고 있어서 많이 제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울무도 다른 재료와 함께 혼합하여 종이를 만들 수 있으며 품질이 좋다.

우리나라의 종이 이름은 원료, 생산지, 용도 등에 따라 한 종류가 두 세가지로 불리는 경우가 있어 어떤 종이가 어느 이름에 해당하는지는 전문적 지식 없이는 분별하기 어렵다. 본 항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와 상류계층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시전’과 ‘운문지’, ‘색간지’, ‘색간지 두루말이’가 있으며 종이를 보관하는 서간통이 있다.

• **시전**: 중앙에 활짝 핀 모란이 있는 것으로 작가 이름 밑에 부장이라는 도장이 찍혔다. 아래는 수양버들과 군마가 있는 시전으로 모자외지보라는 글씨와 음각의 둥근 도장, 양각의 네모 도장이 찍힌 것이다.

• **운문지**: 간지의 일종으로 추상화처럼 여러 가지 모양의 구름이 서로 얽혀 이리 저리 움직이는 듯한 구름무늬가 있는 종이다.

• **색간지 봉투**: 너비가 8.5센티미터, 길이가 39센티미터나 되는 색간지 봉투로 간찰지의 봉투가 아니라 혼서지용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색간지**: 은박 가루를 뿌린 낙은지이기 때문에 앞뒷면 모두 반짝거리는 고급지이다. 가로55 센티미터, 길이 28센티미터의 색지에 1.5센티미터의 행간33행이 붉은색으로 그어져 있다.

• **색지 두루말이**: 우리나라의 색지는 조정에서나 썼기 때문에 그리 흔하지 않고 염색도 대궐 안의 제용감이라는 기관에서 한 것으로 생각된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귀한 고급품이었던 화려한 모습의 색지 두루말이이다.

10. 문양류

10-1 금속



봉수선막형

전통문양에는 자연에 대한 외경과 신령스러운 정감이 깃들여 있고 이상세계에의 동경, 행복의 기구, 애정의 충만과 길상의 축원 등이 담겨 있으며 태양과 달이 함께 뜨고 지며, 사계절의 화초들이 동시에 피고 지는 환상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또한 그 속에는 아기자기한 장식미와 더불어 우리 민족 고유의 미의식과 정서가 살아 숨쉬고 있다. 문양은 그 소재가 무엇인가에 따라 짐승, 조류, 어패류, 곤충, 양서류, 식물, 광물, 기하문양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연현상, 길상벽사, 다산기자, 수복장수, 공명출세, 부귀유여, 부부하합, 가내평안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양 표현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되풀이 그림으로서의 상투적 양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문양을 그리는 제작자들은 통속적 집단 가치 감정이 상징화되어 있는 틀에 박힌 도상을 그리는데 만족했던 것이다. 따라서 문양은 순수감상용 그림의 경우처럼 잘 그리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그러한 예술적 욕심이 없이 소박한 생활욕구에 따라 전해 내려오는 도상의 틀을 존중하면서 그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사사람들은 기억력을 활용하여 사물의 이미지를 기억해 냄으로써 실제 사물들이 눈앞에 없는데도 마치 그것이 자신의 앞에 있는 듯이 다루는 표상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는 실제와 흡사한 거라는 문제 보다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다.

다시 말해 전통 문양은 단순히 감상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기원을 담은 주술적 대상으로서의 상징적 표현물인 동시에 자연과 우주에 대한 외경심이 깃들여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자연의 생태를 인간 중심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인간중심주의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문양의 모습이 비교적 잘 표현되고 있는 금속류에 대한 문양 분석과 와당, 전의 문양, 직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문양 그리고 채화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문양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0-1-1 고리와 뺨침대

고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장식의 형태로서 철기시대 이후 각종 기물에 부착되어 왔다. 환봉이나 각봉 등의 금속재를 구부려 만든 작은 손잡이를 고리라고 한다. 이 고리는 부착할 때에 구조상의 강화를 위해 배목에 걸거나 사슬 고리에 연결되거나 한다.

고리는 기본적으로 원형을 이루고 있으면서 큰 대문, 분합문, 창문, 각종 서랍, 목가구의 여닫이문의 자물쇠 앞바탕 위에 매달려지며, 개폐 기능의 자연스런 형태로 고안되어 쓰여지고 있다. 또한 각종 기물의 작은 부속 역할에서부터 잡아당기거나 걸거나 매거나 들어올리거나 하는 용도로서 고리의 기능은 필연적인 것이다. 곧 화약통, 표주박, 고비, 전통, 대고, 햇대, 부손, 부젓가락 등 작은 부분이지만 기능적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들쇠에서와 같이 고리도 고리 받침 위에 배목과 함께 연결되어 장식성을 강조하며 조형적 조화를 이루게 된다.

· **금동투조문비고리** : 안압지 출토 문비고리로서 고리가 없이 고리 받침만 투조되어 있다.

· **천도형고리**: 원형의 고리받침 위에 배목과 함께 연결되어 기능과 장식성을 강조한 천도형 고리이다.

· **둥근형과 화형문고리** : 일반적으로 투박한 형태와 깨끗이 마무리된 문고리가 있으며 철재 원형 받침과 원형고리의 조화의 멋이 내포되어 있다.

· **뺨침대란** 위아래로 여닫는 목물의 중앙에 붙어 있는 긴막대형의 금속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함이나 궤, 반달이 등의 뚜껑이나 위판에 붙어 몸판과 연결되며 여닫을 때 들쇠의 기능과 함께 자물통을 끼울 수 있도록 보조 역할도 한다. 목공품의 구조나 크기에 따라서 뺨침대는 길이와 두께를 달리한다. 뺨침대는 뚜껑을 젖혀 놓았을 때 뚜껑의 무게를 받쳐 주어 경첩에 무리가 오는 것을 막아준다. 곧 반달이와 같이 큰 문판에는 그 무게를 지탱하도록 넓고 두껍고 짧은 쇠붙이를 쓰며, 작은 함이나 궤 등과 같이 뚜껑을 위로 여는 구조에는 가늘고 긴 뺨침대가 사용된다.

대체로 뺨침대에는 간단한 줄무늬를 새기거나 기하학적인 형태의 문양을 장식한 것이 많으며 길이에 따라 끝 부분에 화형, 물형 등으로 변화를 주며 입체적으로 장식 형태를 만들고 있다. 형태에 따라서 몽땅뺨침대, 선뺨침대, 꺾쇠형 뺨침대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 **주석제 뺨침대** : 주철이된 함의 둥근 자물쇠 앞바탕에 장식된 주석제 뺨침대로서 연꽃 가운데 한쌍의 동자상이 양각된 특색있는 뺨침대이다.

· **몽땅뺨침대** : 길이가 짧은 뺨침대로서 마디마디마다 문양을 넣어 만들었다. 타출과 투공으로 원형을 그린 앞바탕의 투박함과 대조적이다.

· **타출된 뺨침대**: 뺨침대 장식으로 방울정을 금속판 뒤에 대고 때려서 무늬가 돌출 되도록 하였으며 입체적이 정연한 기하미가 돋보인다.

10-1-2 자물쇠

자물쇠는 귀중품을 보관하고 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용도로 고안해 낸 장식의 일종이다.

이는 여닫게 되어 있는 목물의 구조 부위에 채워지거나 부착되어 열쇠로 열도록 한 구조를 지니게 된다.

지방에 따라 자물통, 쇠통, 소통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열쇠는 열대, 개금, 건 등으로도 부른다. 작은 함에서부터 장, 농, 책장, 뒤주, 꽃간 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고안 되어 제작되었으며 사용 방법 또한 여러 가지이다. 이러한 자물쇠 장식은 기능 위주의 역할이 주목적이거나 그 형태와 크기가 목공품의 무게에 안정감을 더해 주므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게 된다. 또한 똑같은 자물쇠형일지라도 열쇠의 모양은 각기 다르며 작동 방법도 분류되는 형태에 따라 다른 점이 주목된다.

자물쇠가 걸려지는 부위의 장식들로는 뽕침대, 고리, 앞바탕들의 구조와 어울리어 그 기능이 발휘된다. 일반적으로 자물통들은 주물 기법이나 판금 기법으로 제작되어 팽처리를 하여 마감하였다. 재료에 따라 주석, 철, 백동제 등이 있으며 작은 형태는 주로 자물쇠 앞바탕도 상당히 다양하며 화려하게 부착된다. 반달이, 궤 등의 목직함 가구에는 철제 자물쇠가 주로 부착되어 시각적인 안정감을 돋보이게 하였으며 은입사로 시문되어 있는 것도 있어 더욱 그 가구의 품위를 더해 준다.

자물쇠는 기능 위주의 장식이므로 형태에 따라 그 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기능별과 형태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볼락이형과 독립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태별로 살펴보면 은혈자물쇠, 선자물쇠, 두겹달이 자물쇠, 꺾쇠형자물쇠, 독립형자물쇠, ㄷ자형자물쇠, 물형자물쇠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은혈 자물쇠**: 자물통이 없거나 자물쇠 장치가 감추어져 있거나 앞바탕위에 열쇠 구멍만 보이도록 하여 잠글 수 있도록 한 형태이며 일명 병어리 자물쇠라고 한다.

· **선자물쇠** : 좁고 긴 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어 쥐꼬리 같다 하여 쥐꼬리형 자물쇠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하학적인 단순미를 느끼게 하는 요소가 있다.

· **꺾쇠형자물쇠** : 주철 경대의 꺾인 부분에 부착된 자물쇠로서 보상하형의 자물쇠 앞바탕에는 만자문과 무늬가 투각, 조이되어 있고 거북의 머리를 밀어 올림으로써 열게끔 되어 있는 자물쇠이다.

· **ㄷ자형 자물쇠**: 함의 표면에 다양하게 투각되어 장식된 문양들을 고려하여 단순하게 처리된 주석제 앞바탕과 자물쇠이다.

· **물형자물쇠**: 이층장의 문짝에 부착된 화형 자물쇠 앞바탕과 봉어 자물쇠이다. 앞바탕에는 나비 문양이 투각되어 있다.

대칭이 되는 두 개의 금속판 기동축을 중심으로 서로 맞물리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장치를 경첩이라 한다. 경첩은 문판을 몸체에 잇대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로 여닫이문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장치이다. 이러한 경첩은 큰 가구 및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어진 것으로 다른 어느것 보다도 완벽한 기능이 요구된다. 예전에는 두 개의 금속판이 겹치지며 문이 열린다 하여 '경첩'이라고도 하였다.

경첩의 원리는 옛부터 거의 변화됨이 없이 제작되어 왔으나 대칭 되는 몸판의 형태는 구조물의 형식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장식성이 풍부하게 제작되었다. 또한 구조적인 기능에 따라 왼쪽, 오른쪽 또는 위아래로 여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부착된 외형에 따라 노출형 경첩과 숨은 경첩으로 분류된다. 노출형 경첩은 기동을 중심으로 한 좌우 대칭 되는 금속판이 목가구 전면에 보이도록 부착시킨 것이고, 실용적 기능과 장식적 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첩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목공품 가운데 안방용 가구인 장, 농, 함, 경대, 반닫이 등에 주로 달았는데 형태나 문양이 상당히 다양하여 장식의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어 여간 흥미롭지 않다.

반면 숨은 경첩은 기동축의 좌우 또는 대칭으로 반복되어 부착되므로 가구 전면에서 볼 때 앞바탕 형태를 중심으로 장식 보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아래로 열리는 여닫이문에는 나무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하여 크고 긴 형태의 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이를 장경첩이라 하여 작은 경첩의 단경첩과 비교하여 구분짓기도 한다. 이 경첩은 금속판을 목가구의 안쪽에 부착시킨 것으로 전면에서는 한일(-)형의 단순한 기동쇠만 보이며 장식의 실용적 기능만을 살린 것을 말한다. 숨은 경첩은 책장, 의거리장, 문갑 등 사랑방 가구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자연적인 나무 무늬결의 미가 돋보이며 선비들의 기호에 어울리도록 최소한의 장식이 배치되어 있는 단아한 의장에 주로 부착되어 있다.

• **실패형 경첩**-백동으로 된 실패형 경첩으로 투각 기하문은 재단용 날정으로 파냈다.

• **약과형 경첩**-만자문이 투각된 약과형 경첩으로 철 장식과 당채의 색감이 잘 조화되어 있다.

• **저고리형 경첩**-주된 재료는 백동을 이용하였으며 저고리모양같다하여 저고리형 경첩이라 일컬어진다.

• **칠보문 경첩**-대표적인 길상무늬(문양)의 하나로 돈의형태, 방승형태, 서각형태등으로 장식에 주로 쓰였다.

• **호리병형 경첩**-활형 들쇠와 봉수선화형 들쇠 받침이 호리병형의 경첩과

잘 조화되어 있다.

10-1-4 감잡이, 귀잡이 통귀잡

목가구에 있어 구조상의 접합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의 보강을 위하여 부착시키는 장식을 감잡이라 부른다. 조선조의 목공품은 제작상 전면의 윗부분과 천판의 옆부분, 곧 가로맞춤은 사귀물림으로 하고 각 부재의 세로맞춤은 갑풀이나 민어풀을 사용하여 대못으로 고정하여 맞댄이음, 수문장이음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감잡이는 판과 기둥, 기둥과 기둥, 판과 판 등 짜임이나 접합 부위를 양면으로 튼튼히 잡아 기능의 보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목재의 경제성과 견고한 부착성, 모서리 마무리의 미관성 등을 모두 해결한 것이 감잡이이다. 감잡이라는 이름을 감아서 잡아 준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 같기도 하며 형태에 따라 거머리 같은 모양이라 하여 거머리 장식, 도는 가락지 장식이라고도 부른다.

감잡이에는 목공품의 부위에 따라 개판 감잡이, 허릿대 감잡이 족통 감잡이, 몸통 감잡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체로 ㄱ자나 ㄴ자형으로 전면과 옆면의 위판과 옆면에 부착시켰는데 전면의 끝부분에 투각된 문양으로 장식하는 것이 보통이다. 좌우 대칭이 되는 단순형, 약과형, 제비초리형, 국수형, 초형, 불로초형 등이 주로 쓰였다.

감잡이의 일종으로서 새발 감잡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조족철 곧 새의 발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으로 목공품의 쇠목, 동자 기둥과 같은 울거미 구조 위에 보강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는 장식을 말한다. 총무에서는 ‘정자’라고도 말한다. 주로 十자형, ㄷ, ㄴ, ㄱ자형으로 교차되는 부위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 부착된다. 대개 끝 부분에 각종 형태를 표현해 장식미를 드러낸다.

- **몸통 감잡이**-가구의 모서리나 접합부분의 견고한 부착성과 미관성을 해결해 주는 감잡이이다.
 - **국수형 감잡이**- 옷칠이 벗겨진 나무 가구에 부착된 감잡이로서 네모형 감잡이의 길이가 더욱 늘어난 길쭉한 국수형이다.
 - **망두형 새발 감잡이**- 새발 장식 위에 매화 문양이 투각, 조이되어 있다.
 - **귀잡이(귀장식)**- 목공품의 모서리가 되는 부위 곧 귀 부분에 대는 장식으로 목재의 취약성 및 구조적 보강을 위하여 부착된다. 감잡이는 ㄱ자형, ㄴ자형 등 입체적으로 목물의 구조를 보강하는 데 비하여 귀잡이는 평면적으로 부착된다. 대부분 장이나 농 등에서 두 목재가 이어지는 접합 부위에 직각으로 부착되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를 평귀잡이라한다. 또한 여달이문의
-

전면 네 귀통이에 부착되는 경우에 이를 문귀잡이 또는 문작귀라 하여 구별이 된다. 형태는 90도 좌우 대칭형과 45도 좌우 대칭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약과형, 반원형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 **칠보문 귀장식**- 장롱의 몸체 부분과 다리부분에 장식된 귀잡이로 칠보문양이 투각되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 **만자문 귀장식**- 만자문이 투각된 귀장식이다.

- **통귀잡**- 목공물에서 3면이 모이는 귀통이 부분을 통재로 감싸 주는 장식으로 모서리에 고깔을 씌운 것 같다 하여 일명 고깔 장식, 또는 귀싸개 장식이라 부른다. 이는 외부의 물체가 목가구에 직접 닿거나 닿기 쉬움을 방지하며 전체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보강 조치 장식을 겸하므로 입체적으로 제작되었다. 대체로 3면이 펼친 그림으로 재단되어 한 면을 땀으로 고정시켰다. 작은 목물인 경대, 빗집, 서류함 등에 사용되고 있다.

- **석류형 통귀잡**- 각 모서리를 중심으로 사실적인 석류형이 대칭되도록 연결했으며 좌우면에 만자문을 투각하였다.

- **석류형 통귀잡** - 석류형태를 단순화하여 양면에는 방울문을 투각하였다.

10-1-5 들쇠

목공품의 위판이나 큰 가구류의 좌우 옆널에 부착되어 손으로 잡아서 들어 올리거나 서랍이나 문짝에 부착되어 잡아당길 수 있도록 장치된 손잡이를 통틀어 들쇠라고 한다. 들쇠란 들어 올린다는 기능에서 명칭되었으리라고 보며 역시 장식성보다 기능적인 역할이 중요하므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기물의 좌우에 부착된 경우가 많다. 들거나 잡아당기는 기능에서 볼 때 대체로 고리는 작은 손잡이요, 들쇠는 좀 큰 손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능 이외에 목공품의 구조상 형태의 변화를 주기 위해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 작은 기물이나 서랍 들쇠는 들쇠 받침위에 다양한 형태와 더불어 강한 장식성이 배풀어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들쇠와 받침은 상대적으로 미적 보완 관계를 유지하여 연결되어 있다. 또한 들쇠가 닿는 부분에 배꼽 장식이라는 광두정을 부착해 목재의 마모성에 대비하는 미적, 기능적 역할에 배려를 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들쇠는 들쇠 받침 위에 배목을 박아 연결한 것이 대부분이나 몸체에 직접 박은 것들도 있다. 들쇠의 형태는 활형이나 박쥐형이 가장 많이 애용되었으며 그 밖에 학, 물고기, 완자, ㄷ자, 나비, 풀잎 등의 형이 사용되었다.

- **박쥐형 들쇠 받침과 활형 들쇠**-박쥐의 머리와 꼬리부분을 강조한 들쇠 받침, 각진배목, 활형 들쇠가 잘 조화되어 있다.

- **박쥐형 들쇠**- 활작 펼친 박쥐의 두 날개와 몸통부분이 타출되어 활동성을 느끼게 한다.

- **짙제비형 들쇠**- 옛부터 제비는 우리의 사랑을 받아온 길조이다. 짙제비형 들쇠 받침과 활형들쇠가 조화되어 있다.
- **완자형 들쇠**- 원형의 들쇠 받침과 투각된 완자형 들쇠의 양끝이 곡옥형을 이루어 부드러움을 준다.
- **조이된 들쇠받침과 들쇠**- 백동으로된 들쇠받침과 들쇠위에 점문, 수자문, 선문등이 조이되어 있다.
- **매꽃형 들쇠받침과 박쥐형들쇠**- 선이 굵은 박쥐 위에 투각 만자문과 투각된 매와문이 특징적이다.

10-2 막새, 전

10-2-1 막새



만자문

보통 기와에 막새를 달아 처마 끝을 마무리하는 기와로 비가 기와 밑으로 들이치는 것을 막는 실용성과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의장성의 기능이 있다. 수키와에는 원반형, 암키와에는 반달형 막새가 붙었다. 수막새 무늬의 주제는 시대, 국가를 막론하고 대부분 연꽃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그 모양이 각각 특색이 있어서 시대구분의 잣대가 된다. 삼국시대의 막새기와를 살펴보면 고구려는 활달함이, 백제는 소박, 단순함이, 신라는 정교함이 드러나 보이며, 이러한 막새기와의 문양들은 조선시대까지 그 맥을 유지하고 있다.

• 수막새

수키와의 한쪽 끝에 원형의 드림새를 덧붙여 제작한 것으로 목조건물의 지붕에 이어져 형성된 기왓등 끝에 사용된다. 수막새는 막새와 수키와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막새는 외측에 둥근 주연이 있고 내측에 여러 가지 문양이 장식되어 있는데 그 중심부에는 둥그런자방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제작된 수막새의 주연부는 무늬가 장식되지 않는 소문대가 위주였으나, 통일신라 이후에 제작된 수막새의 주연부는 주문이나 꽃무늬가 새겨져 시기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막새는 삼국시대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그런데 막새의 표면에는 연꽃, 보상화, 귀면, 금수 등의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다채롭게 변화되고 있는데 연꽃무늬가 주체적인 시문 단위로 채용되고 있다. 아울러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는 타원막새에는 연꽃과 기린 등이 다양하게 장식되어 이쁘는데 막새의 주연부에는 주문이나 당초무늬등이 새겨져 있다.

• 암막새

암키와의 한쪽 끝에 약간 위로 휜 장방형의 드림새를 덧붙여 제작한 것으로, 목조 건물의 지붕에 이어져 형성된 기왓골 끝에 사용되고 있다. 암막새

는 막새와 암키와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암막새는 외측에 네모난 주연부가 있는데 대부분 주문이 장식되고 있으며 그 내측에 덩굴과 같은 좌우 대칭형의 꽃무늬가 새겨지고 있다.

• **귀면, 연꽃무늬 수막새**

삼국시대에 귀면막새와 연꽃무늬막새가 발달했는데 뿔, 큰 눈망울과 콧구멍, 크게 벌린 입과 뾰족한 이빨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신라 공예의 수준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막새기와는 추녀 끝이 썩지 않도록 보호하며 집안에 잡귀가 침범하는 것을 막아주는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얼굴무늬수막새**

사람의 얼굴이 장식되어있는 막새는 살짝웃는 모습에 눈, 코, 입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서 이채롭다. 현재에도 이 얼굴수막새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 **화엽,선무늬수막새**

조선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이 막새는 기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장식성이나 미관성이 약화되는 전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서민문화와 귀족적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시대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다.

10-2-2 전

건축용 재료의 하나인 ‘전’은 벽돌과 그 모양이 비슷하지만 벽돌은 벽을 쌓는 재료인 반면 ‘전’은 벽면의 문양을 장식하기 위한 재질로 이해하는 것이 옳으리라 판단된다. 오늘의 벽면과 바닥재 타일과 비교하여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전’은 흙을 구워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넓게 만들어 이부분에 여러 가지 문양을 새긴다. ‘전’들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다. 전의 종류는 사용용도에 따라 조건, 방전, 공전등이 있으며 조건은 성벽, 묘실용등으로 사용되었으며 대부분의 형태는 직사각형을 형성하고 있다. 방전은 주로 바닥재로 사용되었으며 무문전, 유문전, 녹유전이 있다. 공전은 묘실에 사용되었고 표면에 화상무늬를 새긴 것이 많은 편이다.

전은 전 자체의 문양 외에 전을 어떻게 쌓고 놓느냐에 따라 점선무늬, 직선무늬, 직선과 면무늬, 공선무늬를 나타낸다. 또한 전을 이용해 담의 무늬를 표현할 경우, 반복되는 직선과 공선 그리고 면으로 형성하는 기법, 형태를 평면적으로 묘사해 내는 형상무늬기법, 부조와 투조의 입체적 기법 등으로, 단순한 미적 표현은 물론 자연과 신에 대한 섭리에 대처하고 순응하는 등의 깊은 뜻을 내포한다.

10-3 직물



호랑이 문양

직물에서 표현되어지는 문양들은 너무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본 항에서는 일반 서민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사신(청룡, 백호, 주작, 현무)과 사형(용, 봉황, 기린, 거북)은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서민들의 즐겨 사용하였던 생활 속의 직물에서 문양을 살펴보는 것이 본과제의 주제와 합당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직물에 표현되어진 여러 문양들을 생활 속의 직물에서 표현되어진 여러 유형의 문양들을 분석 하여보면 동물 문양, 식물 문양, 조류 문양, 물고기 문양, 곤충 문양, 추상 문양 등으로 대표 할 수 있다.

· **동물 문양:** 동물 문양에는 호랑이, 사슴, 코끼리, 원숭이, 토끼, 해태, 고양이 등의 모습들이 일반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 **식물 문양:** 식물 문양에는 가장 널리 쓰인 연꽃 무늬 문양, 당초 문양, 소나무 문양, 모란 문양, 봉숭아 문양, 석류 문양, 파초 문양, 영지 문양, 호로박, 느티나무, 버드나무 등이 있다.

· **조류 문양:** 조류 문양에는 학을 비롯하여 박쥐 문양, 닭문양, 공작문양, 원앙문양, 기러기문양, 오리문양, 꿩문양, 까치문양등이 있다.

· **물고기 문양:** 물고기 문양에는 잉어 문양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딱히 어떤 어종의 표현이라 명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이는 전하고 있는 문양의 표현만으로는 정확치 않은 관계이다.

· **곤충 문양:** 나비와 매미 문양이 대표적이다.

· **추상 문양:** 팔괘 문양, 만자문양, 여의두문양, 부귀 기호문양, 회문양, 수복자 문양, 쌍희자문양 그리고 연환문양등이 알려져있다.

10-4 단청



천장반자초의 연화문

단청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집의 벽, 기둥, 천장 같은 건축 가구 부재에 여러가지 빛깔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려 놓은 것 또는 그 일을 가리키고 있으나, 좀더 넓은 의미로서는 조각 형상이나 공예품 등에 채화하는 것과 서, 회, 화의 개념을 통틀어 하는 말이다. 현대에 이르러 단청에 대한 의미는 주로 건축물에 그려지는 채화로 인식되기도 한다. 건물에서 표현되는 단청 무늬(문양)에 대한 의미를 정리하여 보면 단청이란 주로 목조 건물에 여러 가지 색으로 무늬를 그려 아름답게 장식하는 장식을 말한다. 이런 단청의 역사는 원시 인류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신비한 힘을 비롯하여 맹수, 맹금, 독충 등의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몸에 여러 가지 색을 칠하거나 혹은 문신하며 그들이 일상 사용하던 도구에도 여러 모양의 무늬로 장식하던 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도 삼국 시대와 고려 시대 그리고 유교 당시에 밑바탕을 둔 유건축의 청이 있으며 시대를 달리 하면서 점차 발전하고 또한 문양의 양식 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조선 후기 때부터 단청의 성숙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당시 생활 조건의 하나였던 주거 지역에 여러 가지

장식적 채색 그림을 남기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던가를 짐작하게 한다. 건축물에 단청이 필요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건축물의 영구 보존을 위한 목적이며 둘째, 재질의 조악성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이며 셋째, 궁전 위풍과 또는 법당의 회엄 장엄을 위한 목적이며 넷째, 기념물인 성격으로서 전시, 기록을 위한 목적이다.

단청은 건축의 조형적 아름다움의 조건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 표현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까지 우리 나라의 옛 목조 건축이 남아 존재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조선시대의 것으로서, 일부 고려 말엽의 양식을 지닌 조선시대 건축의 양상을 복원 적으로 추정하여 봄으로써 우리 선조들의 건축 의장에 대한 미의식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단청 문양의 경우는 그 무늬가 시문되는 부위의 성격과 양식적인 특성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물체의 정신적인 성격에 따라 질서와 체계있게 의장 되었다. 따라서 다양하고 다채로운 의장 요소들은 일정한 위치에 놓여지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하늘을 의미하는 곳에는 그에 맞는 상징적인 문양을 넣고, 지상에 있어야 할 것은 아래로 내려와서 자리잡게 마련이다. 몸체에는 몸체대로 현실적인 무늬를 넣어 현세와 미래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강조하였다.

건축물에 있어서 단청 문양의 양상은 구성되는 부위에 따라 크게 4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맨 윗부분인 천상을 나타내는 부위에는 천계의 신격이 표현된 천장 문양이 그려지고 둘째, 그 아래 하늘 주위의 여러 상징적인 세계를 평방, 창방, 도리, 대량 등 천장을 받치고 있는 부재에다 갖가지 상서로운 오색 구름과 무지개, 연꽃 장식을 장엄한다. 셋째, 하늘을 받치고 있는 천체의 역할을 하는 기둥에는 오색 구름이나 성의처럼 너울이 드리워진다. 넷째, 기둥 아래에는 현세에 사는 인물들의 권위와 존엄성을 표현한 붉은색, 푸른색으로 단조롭게 의장 한다. 이렇듯 자연과의 조화를 이룰 때에 건축물과 그 속에 사는 인간은 부적으로 하고 자연을 주적으로 삼아 자연에 순응하여 자연과 자기가 일체가 되려는 의식의 조화를 중요시하였다.

10-5 부채



나주유지국두선

우리의 전통 부채는 깃털로 만든 우선, 자루가 달린 둥근 부채인 단선 겹었다 폼다 폼다 할수 있는 접선 그리고 모양이나 용도가 틀린 별선 등으로 크게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부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종류에 그 목적성을 두기 이전에 본 항에서는 부채에 나타나 있는 문양과 부채의 외형적 형태와 구조를 통하여 한국의 문양을 이해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 **흑칠접선**: 우리 나라의 우수한 부채 기술이 돋보이는 제품이며 제작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고려 시대에는 중국과 일본에 그 기술을 전하기도 했다. 밝고 어두운 부분의 조화가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 **합죽선**: 옛 부채에는 그림과 글을 한 구절씩 적어 넣어 시회를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었다. 현재에도 전라도의 전주 지방이 합죽선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살이 한 곳으로 모일 때의 살의 퍼짐은 삼차원적 디자인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 **태극선** : 태극 문양을 오려 붙이거나 그려서 장식한 부채이며 여러 형태의 태극 문양이 오늘날까지 이용되고 있으나 원래 태극의 역동적인 선의 움직임을 망각한 체 장식의 느낌만 주고 있는 현실이다.

· **연엽선과 곱장통영단선**: 연엽선 부채의 모양이 연 잎과 같은 것이다. 부챗살을 구부려 연맥을 살리고 선 면 형태도 연잎처럼 하였다. 살을 구부려 마치 산과 하늘에서 뛰노는 동물들의 모습을 부채의 표면에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있다.

· **연엽선**: 연잎과 연꽃을 그린 단선이며, 최근에 제작되었지만 조합하지 않은 순수한 맛이 있다.

· **담양 피죽 팔덕선**: 팔덕선은 대개 부챗살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기 좋고 용도도 다양하며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져 이름 또한 다양하다. 담양 지방에서 대나무 껍질을 벗겨 만든 부채이며 엮어진 모양과 색의 조화에 서민들의 순수한 멋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나주유지꼭두선**: 선 면에 들기름을 먹인 부채이다. 부챗살의 움직임이 마치 새의 깃들이 쫘여 있는 듯 하다.

· **윤선**: 윤선은 차바퀴처럼 둥글고 이러한 모양은 단선과 원선에 많이 표현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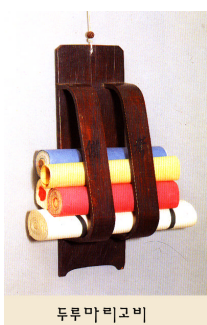
· **대륜선**: 접선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으며 폈을 때는 360도로 펼쳐서 사용하였다. 강한 색의 대비와 살의 움직임이 시사하는 의미가 깊다.

· **통영미선**: 통영의 선 공방에서 제작된 단선인 이 부채는 손잡이의 조각이 특이했는데 그것은 당과 싸움을 걱정하여 화합하라는 의미의 조각이 있는 것이 이채롭다.

· **꼭두선**: 가운데는 살을 구부려 놓은 꼭두단선에 흑칠을 한 것이다. 왼쪽은 미선으로 부챗살을 드물게 놓고 실로 중간 중간을 구부린 것이며 오른쪽은 꼭두선이다.

· **효자선**: 선 면의 밑이 좁고 위는 넓어 스스로 부치며 불편하지만 남을 부쳐 줌 시원하다. 자루에 “ 효자선 ” 이라는 글씨를 새겨 방에 걸어 두어 웃어른을 부쳐 드릴 수 있게 했다.

10-6 종이 공예



두부마 리고비

일반적을 한지 공예 작품들을 살펴보면 사용 계층이 일반 서민을 중심으로 사대부의 집 그리고 농, 어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아에 소속된 지장들이 만들어 각처에 납품한 것과 후기에 민가에서 만들어 판매하거나 가정에서 소일거리로 만들어 사용한 작품들도 많이 있다. 숨씨 있는 장인들이 만든 기물들은 섬세하며 규격이나 색상의 배열, 무늬를 오린 숨씨 등이 뛰어난 반면에 일반 서민들이 소일거리로 만든 물건들은 숨씨가 뒤떨어진 것이 많다.

아름답게 물들인 오색의 색지로 만들어진 많은 공예품들을 보면 실용적인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기능성과 더불어 장식적인 효과를 아울러 갖추고 있어 색채의 아름다움과 조형미 그리고 선을 잘 조화시켜 만든 훌륭한 예술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지 공예품은 그 시대의 다양한 사용 계층 특히 선비들이나 여인들의 기호물이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희구하였는가는 그 무늬들이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신앙적 의미와 함께 민중 예술의 여성적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재료의 특성으로 인해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며 오래도록 지니고 사용하여도 싫증이 나지 않고 정감을 더해 가는 것도 한지 공예의 또 다른 특성이라 하겠다.

이 항에서도 부채항과 마찬가지로 종이로 제작된 생활 용품들을 통하여 문양을 이해, 파악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 **반전고리:** 종이 공예품들을 보면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기능성과 장식적인 효과를 아울러 갖추고 있어 색채의 아름다움과 조형미 그리고 선을 잘 조화시켜 만든 훌륭한 예술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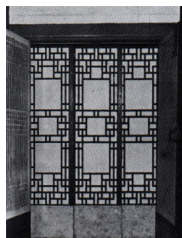
· **실첩:** 바느질이나 수놓을 때 실을 분류하기 좋도록 칸을 여럿 두었고 접으면 보관하기 좋도록 만들어 졌다. 종이로 만들어진 실첩의 형태적 변화와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지사각상자:**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오색 전지 기법으로 문양을 표현한 이 상자는 크기도 다양하게 만들어 졌으며 실용적인 면과 장식적 면이 어우러져 있다.

· **지갓(안쪽):** 대나무로 살을 만들고 그 위에 기름을 먹인 한지를 발라서 만든 모자이다. 안쪽 면의 한 점을 중심으로 퍼져 나가는 모습이 무작위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 **갓집:** 전, 조선 후기, 갓을 넣어 두는 상자로 갓상자라고도 한다. 갓을 사용하지 않을 때 갓을 넣어 보관하는데 후지를 이용하여 상자를 만들고 기름을 먹이거나 옷칠을 하고 그 표면 의장을 색지로 무늬를 오려 붙여 장식하였다.

10-7 창호



아자영문

우리 나라의 전통적 건축양식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창호의 의장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옆에 위치하는 것이고, 또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관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의식적 관심이 많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이 창호는 어떠한 건물에나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의식의 발전도 굉장하여 그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와 같은 많은 종류의 창호도 몇 가지 유형내에서 발전되었고 그 범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장은 한국 고유의 맛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극단적으로 단순격자살을 기본으로 하는 일본식하고는 전혀 맛이 다르고, 또 문살이 밀

하고 복잡한 패턴으로 오직 규칙적 반복을 하는 중국식의 것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문살 의장은 대체로 유축적 또는 구심적으로 좌우를 대칭시키고 중앙부에 일개소 또는 이개소의 비교적 커다란 공백을 두고 그 공백의 갓 둘레나 옷은 창호 중앙의 대부에 밀하고 비반복성 문살 구성을 이루어 가는 멋진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문살의 문양은 이것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몇 가지 기본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주로 되는 것은 세살문, 원자문, 이지문, 혼화문, 그리고 꽃살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세살문**: 창호의 장자부분을 문살로 등분한 것으로써 그 문살을 짜아 나가는 방식에 따라 세분화되기도 한다.

즉 가장 근원적이고 발생적인 것으로는 장자를 단순히 이지형으로 육등분한 것으로부터 정자형으로 짠 정자살문, 장자의 상, 중, 하에 문살이 나누어져 있는 띠살문, 문살을 빗대어 만든 빗살문 그리고 이 빗살문에 수직적으로가하여지는 솟을빗살문 등이 있다.

· **원자문**: 문살이 권자형으로 된 것으로서 때로는 권자문이라 하여 취급되기도 하는데, 이 양식은 문살 하나 하나가 모두 직선으로 된 이지문과는 달라서 직각으로 된 부분이 문양 속에 돌출하고 있는 문살을 말한다.

· **이지문**: 위에서 말한 원자문이 달라서 문살이 전부 직선부재로 되어 있으며 직선부재가 서로 짜여서 만드는 대소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구성되는 문양이다. 그러므로 원자문에 비하여 그 느낌이 정적이고 또한 안정된 것이다.

· **혼화문**: 원자문과 이지문이 적절히 혼용되어 구성된 혼화문은 비교적 고급 건축에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원자문에서 주는 동적인 변화성과 이지문에서 얻는 안정성을 겸유하여 이 양자 어느 것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느낌을 주는 문양으로서 그 고도의 창조성은 놀라운 것이다.

· **꽃살문**: 꽃살문은 위의 4가지 형태에 꽃무늬를 장식한 문으로 일반적으로 사찰이나 궁에서 볼 수 있는 문이다.

11. 환경물류

11-1 건물

한국의 주거문화는 선사시대의 움막과 원두막에서 출발하여 농촌의 삶을 대표하는 초가집의 둥근 지붕과 담장 하늘을 나는 듯한 지붕선을 가진 기와집 등에서 우리민족의 미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한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초가는 농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집으로 지붕을 이영으로 엮기 때문에 기와집처럼 날렵하고, 세련된 모습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수수하고 소박한 맛이 있다. 초가지붕의 둥글고 매끄럽지 못한 선은 우리네 동네의 나지막한 산등성이의 모습과 어우러져 있다. 기와집은 짙은 회색의 기와를 엮고 벽에는 호를 칠하는데 이들과 나무색이 짙어올려진 모습을 하고 있다. 왕궁이나 사

찰외에는 단청이 금지 되어 전체적으로 무채색의 대비된 색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꾸미지 않은 소박한 모습이 자연과 함께하는 정신, 정서적 서민문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가옥은 인간의 삶이 자연과 하나가 되도록 이루어진 열린공간이다.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재료와 구조로 되어있다.

짚과 흙을 섞은 흙벽과 한지를 바른 창을 통한 은은한 채광은 자연과 겸손하고 은은하게 화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11-1-1 한옥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집을 가리켜 '한옥' 이라 부른다.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입어 오던 비지저고리를 '한복' 이라 하고 김치나 된장찌개 등을 곁들여 밥상에 차린 음식을 '한식'이라 하듯이, 한옥은 이 땅에 세워지던 독특한 우리네 집을 일컫는다.

한국은 상류주택과 민가로 구분되는데 조선이후 유교 정책에 따라 남녀유별과 신분예에 의한 건축계획이 이루어져 사랑채, 안채, 행랑채와 이에 부속되는 마당으로 공간이 구성되는 것이 통례이다. 민가는 상류주택과는 달리 일반성에 더 우위를 차지하여, 생활공간인 건물과 작업공간인 마당으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적이다.

한옥은 다른 나라 살림집에는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구들이 있는 방과 마루가 함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들과 마루는 서로 이질적인 조직이다. 그 발생과 발달 경로도 각기 달라서, 구들은 추운 북방에서 시작된 것이고, 마루는 따뜻하고 습한 남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두 가지 특출한 요소가 한 건물에 동시에 채택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의 절충과 시행착오적 노력이 계속 되었을 것이다.

구들방으로만 되어 있는 집이 지금도 있다. 한편 마루만으로 되어 있는 집도 없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한옥이 아니라고는 물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은 한옥이 정형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지닌 귀중한 것이어서, 원초형의 한옥이라 불려지고 있다. 현재의 한옥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변화의 단계가 있었고, 많은 경로의 시련과 절충과 실험이 계속되어 왔었다. 그런 여러 내용들은 우리 내부의 진통에서도 비롯된 것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외국의 문물이 주는 자극에서도 새로운 내용을 축적하여, 원초형의 초가가 차츰 이상형의 살림집으로 적응하려는 진통을 거쳐서 드디어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한옥의 형태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원초형 살림집의 방바닥은 맨바닥이었다. 세계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살림집이건 그것이 지상의 것이라면 맨바닥인 것이 원초형의 기본으로 되어 있다.

지상의 대부분의 살림집은 맨바닥인가 마루를 깔 바닥인가로 나뉘어, 이 두 가지 커다란 흐름의 어느 한쪽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경향과 흐름은 마찬가지로였다. 북쪽에는 맨 바닥의 집이, 남쪽에서는 판상의 집이 서로 다른 배경을 두고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형적이 특

성, 즉 반도라는 특성은 대륙적인 요소와 해양적인 요소가 함께 자리잡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대륙적인 토상의 집과 해양적인 판상의 집이 동시에 존재하였던 것도 이런 지리적인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1-2-2 초가

초가지붕의 외형이나 윤곽은 그것을 구조하는 사람들의 심성에 따라 형상화한다. 무심하게 마음을 열어 지붕에 깔고 용마름을 덮은 듯하지만, 그들은 어려서부터 자연 속에서 함양해 온 그 나름의 인격에 따라 건축물을 축조하고 조형화해 나가는 것이다. 그와 지붕의 곡선이 일치하고 있다. 그것이 초가지붕만이 갖는 독특한 맛이며, 자연친화의 심성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맛이다. 산의 형상을 지붕의 형상 속에다 실현해낸 대담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초가지붕과 한국의 산세가 닮았다는 것은 우리 문화의 바탕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사대부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보면, 큼직큼직한 기와집들 부근에는 반드시 소규모의 초가들이 자리잡고 있다. 안동의 하외마을 등에서도 그런 양상이 목격된다. 큰 기와집에는 사대부와 토호들이 살고, 초가에는 그에 딸린 머슴이나 노비들이 살았다. 벼슬아치들은 머슴들의 집이 자신들의 집과 대등한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자신들보다 못한 집에서 살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런 풍조가 일반 서민들과 천민들의 집이 초가에 머물러 있도록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초가의 지붕은 태고 이래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을 지녀 왔다. 초가지붕은 뒷날 기와지붕의 형태를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초가지붕의 발달과 완성으로 기와지붕을 낳게 하는 모태였다고 할 수 있겠다.

11-1-3 너와

두꺼운 나무껍질이나 알팍한 나무판자, 얇은 판석을 써서 지붕을 이는 일을 '너와이기'라 하고, 그런 지붕을 '너와지붕' 또는 판옥이라 하며, 판옥에 쓰이는 재료들을 통틀어 '너와'라고 일컫는다. 그 중 나무껍질로 이은 지붕을 '굴피지붕'이라 하고 그런 지붕을 이은 집을 '굴피집'이라 하는데, 이는 굴피나무껍질이 지붕 이는 데 많이 쓰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굴피나무껍질 말고도 너와로 이용되는 종류는 여러 가지이다.

너와집은 그 지역에서 산출되는 재료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극히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어서 기와나 초가지붕과 같은 보편성은 지니지 못하고 있다. 너와집이나 굴피집은 보통 산림이 우거진 산간지방에 많다. 태백산맥, 소백산맥과 울릉도에서는 지금도 너와집, 굴피집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너와지붕을 이는 일은 널빤지, 나무껍질, 판석을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차근차근 겹쳐지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처마로부터 시작한다. 처마 끝에서부터

너외를 놓기 시작하여 물때에 따라 용마름을 향해 이어나가는데, 판석이나 목재의 질, 규격에 따라 이어지는 형상이 촘촘하게 걸리기도 하고 뜨게 이어지기도 한다. 돌은 자체의 무게가 있어 제자리에 잘 놓이기만 하면 요동이 없으나, 나무널반지는 가벼운 데다가 건습이나 온냉한 기후에 따라 수축이 심해 늘 불안정하므로 큰 돌맹이로 짓눌러 놓는다. 울릉도 처럼 바람이 심한 지역에서는 돌맹이를 촘촘히 늘어 놓는다.

너외는 자재 자체의 무게가 무겁거나 돌맹이의 무게가 가중되기도 해서 가구나 서까래 등이 초가지붕에 비하여 월등히 견실해야 한다. 목재가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면 지붕이 꺼져내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재가 넉넉하지 못한 고장에서는 목재 얻기가 어려워 너외집을 지을 엄두를 못 낸다. 부재를 넉넉하게 쓸 수 있는 태백산맥, 소백산맥, 울릉도 등지의 너외집은 귀틀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귀틀집은 웬만한 지붕이 무게를 끄덕없이 견디어 낸다. 설사 지붕 위에 많은 눈이 쌓인다고 해도 그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

너외집 역시 지역에 따라서는 태고적부터 발생했던 것으로 보아 틀림없을 것 같다. 지금처럼 발달된 도끼가 아니더라도 원시적이 도구로써 널빤지에 유사한 판대기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네모나고 일정한 크기와 두께의 널빤지를 쓰게 된 것은, 발달된 철제 연모가 출현한 이후부터였을 것이다.

너외집은 기와집이나 초가만큼 지붕의 곡선이 완연하지 못하다. 이는 자재가 거친 데에서 오는 결과로서, 더구나 나무판대기 너외집인 경우에는 짓눌러 놓은 돌들로 더한층 난잡하여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다. 너외를 잇는 데 못을 써서 고정 시켰다든가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 너외를 고정시켜 지붕의 곡선을 아름답게 하였던 기법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런 기법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고대에는 그전 기법이 있었을 가능성이 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1-1-4 정자

사전에서의 의미는 놀거나 쉬기위하여, 주로 경치를 관망하기 좋은곳에 아담하게 지은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정자의 대표적인 유형인 팔각정(팔모정)은 여덟모가 지게 지은 정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정자의 개념은 단지 사전적의미의 해석보다는 한국인의 정신과 정서적 문화의 한 맥락에서 정자가 지니고 있는 내면의 멋에 대해 정리 하고자 한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을 지을 때 먼저 터에 대한 관심과 그 공간에서의 장소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한국의 마을 어디를 가보아도 강물과 언덕 또는 절벽이 있는곳에 의례히 정자가 있는것을 볼 수있다.

이와같이 건축의 물질성보다도 그 주위의 환경쪽을 극대화시킬 때 생겨난 대표적인 건축양식의 한 모습이 팔각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정자에는 건축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벽, 안과 밖을 가르는 그 벽의 개념이란 것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팔각정은 벽이 아니라 단지 8면으로 분절된 열린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 8면의 각은 기둥 사이로 여덟장의 풍경을 볼 수 있다. 한국 건축양식과 마당 조경의 모습처럼 내부와 외부공간에 대한 일체성 그 미학이 함께 숨쉬고 있는 곳이 정자이다.

11-1-5 기와지붕

지붕은 집의 평면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같은 평면에서도 지붕의 모양이 여러 가지로 바뀌는 수가 있다. 기와지붕 구성의 기본형은 맞배, 팔작, 우진각, 모지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촌로들의 말에 따르면, 아직 홑집의 一자형 집일 때는 맞배지붕이 보통이고 살림이 좀 나아지면 팔작지붕을 만든다는 속설이 있기는 하나 이런 이야기 역시 아직은 뚜렷한 근거가 없다.

고구려시대에는 맞배지붕의 기와집에 상당히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기거했던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추녀가 없는 맞배지붕은 구조상 가장 간결하고 규모도 크지 않다. 맞배지붕은 용마루와 박공 위에 합각마루가 있을 뿐이다. 맞배지붕의 한쪽이나 좌우에, 편사하는 맞배지붕의 한쪽면만을 따로 떼어다 설치한 듯한 지붕이 있다. 이것은 초가지붕에서 간을 늘리기 위하여 덧달아낸 부분에 지붕을 씌우기 위한 방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 집에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 공존하는 수도 종종 있는데, ㄱ자형이나 ㄷ자형, ㄱ자형 등의 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심 건물은 팔작지붕이 되고 여기에 꺾이어 이어지는 부분이 맞배로 된다. 꺾인 부분도 팔작지붕으로 되는 경우가 도시에서는 흔하나, 시골에서는 드문 편이다. 이런 평면에 따른 지붕 구성을 평면형태에 따라 자집, ㄱ자집, ㄷ자집, ㄴ자집 지붕이라고 지칭한다.

11-1-6 들보와 서까래

들보와 서까래는 기와지붕을 받치는 구심적 역할을 하는 한국 전통 건축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서까래는 통나무 그대로의 모양을 약간 다듬은 것으로 그 자체가 자연의 순수한 모양과 선을 간직하고 있으며 제작 기법에 따른 인공적인 선의 흐름이 대들보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흐르고 있다.

인체와 비교해 보면 갈비뼈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과도 흡사한 들보와 서까래의 조화의미를 느낄 수 있다.

· 들보: 보편적으로 지붕이 하중을 떠받치는 굵은 나무로 기둥과 기둥을 가로지르는 큰 나무를 들보라고 한다. 들보와 들보 사이를 한 간이라고 하며 들보의 중심이 대는 중앙의 보를 대들보라고 한다. 대들보는 큰 들보라는 뜻으로 통들보, 합들보라고도 하며 기둥사이를 건너지르는 여러 개의 보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큰 보를 뜻하며 삼랑집에서는 이 큰 대들보만 걸린다.

· **서까래**: 지붕 판을 만들고 추녀를 구성하는 가늘고 긴 각재를 말한다. 지붕 귀에 오는 서까래는 길이가 모두 다르며, 추녀 옆 또는 위에 큰 못으로 박는다. 귀서까래는 일반면에 있는 평서까래에 평행으로 걸기도 하고 귀의 한 점에 부챗살처럼 되게 걸기도 하며, 또는 서까래의 연장선상의 한 점에 모이게 하여 방사형으로 거는 법도 있다. 평행으로 된 서까래를 평행귀서까래, 방사형으로 댄 것을 말굽서까래라 하며, 부챗살 모양으로 댄 것을 선자서까래라고 한다.

11-1-7 기둥과 주춧돌

방아를 짚을때의 돌(절구통)과 나무의 음, 양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기둥과 주춧돌은 한국의 궁궐, 사원, 일반 기와집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다양한 생김새와 형태가 변화되어 가는 현대에 이르러 그 모습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때론 간결하기도 하고 때론 투박하며, 때론 온유한 정감을 보여주고 있다.

· **기둥**: 기둥은 주춧돌 위에 세우는 나무를 기둥이라 부르는데, 이 기둥은 공간구성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다. 둥글게 다듬은 기둥을 둥구리기둥이라 하고, 네모진 기둥을 모기둥이라 한다. 쓰임에 따라 여러 가지 기둥이 사용되며, 따라서 그 이름도 여러 가지이다. 또 기둥은 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구성물이어서, 집을 지을 때 '입주상량' 이라고 하면 그 집이 이미 이룩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기둥은 그만큼 집에서 기본이 되는 구조물이다.

· **주춧돌**: 기둥을 따로 세우는 집에서는 터를 고르고 지경 다지고 방아질 하여 견착한 자리나 입사로 기초한 자리에 주춧돌을 놓는다.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는 일은 그만큼 발달된 건축법에 속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지표에 주춧돌을 놓는 것이 아니라 땅에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기둥을 박아 세웠다. 기둥이 쓰러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움집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살린 것인데, 움집자리를 파 보면 그 바닥에 기둥을 박았던 자리가 나란히 남아 있는 것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둥 자리는 굽은 수직의 구덩이로 남아 있기도, 약간 기울어진 각도로 패인 구멍도 있다.

11-1-8 창

한국의 문양 부분에서 창호의 모습에서 분류할 수 있는 종류와 그 특징적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본 부분에서는 전통 가옥에서 볼 수 있는 건축적 의미에서의 일차적인 창에 대해서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만 정리하기도 하다.

살림집에 있어서 빛은 소중한 것이다. 인간이 움집이나 혈거에서 생활할 때부터 습기를 피하고자 햇볕을 받아들여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었을 것으로 보인다. 햇볕은 질병을 예방하는 첩경이기도 해서 별을 죄고 빛을 받으려는 노력은 태고적부터 부단히 계속되어 왔으리라 짐작된다. 결국 이러한 생각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남향집

을 최상으로 여기게 하는 관념을 갖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동식인 집이 정착형의 살림집으로 바뀌고 땅바닥에 두터운 벽을 일으켜 세워 공간을 이룬 뒤로는, 벽의 일부를 뚫어 놓는 해와 지는 해의 빛과 별을 죄려고 한다. 인간이 삶의 울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변화에 끊임없이 자신의 시선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토벽에 구멍을 내어 만든 창이 있다. 엿살로 창살을 꾸민 것을 지금도 간간이 시골집에서 볼 수 있다. 아직도 벽에 구멍만 뚫은 상태인 채로 남겨진 것들도 있어 봉창의 원초형을 볼 수가 있다.

· **봉창**: 봉창이란 보통 창살 없이 구멍만 뚫린 여닫지 못하는 투각 또는 천공의 창을 말한다. 붙박이창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벽을 뚫고 그곳에 나무를 박아 만든 창을 뜻하기도 한다. 구멍을 바깥벽에만 뚫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간벽에도 만들어진다. 부엌과 안방 사이의 벽이 뚫리기도 하고, 부엌과 뒷마루와의 사이를 뚫기도 하며, 안방과 대청 사이의 벽에 구멍을 내기도 한다. 이렇게 구멍을 뚫는 것을 보통 화창을 연다고 한다. 화창은 봉창과는 용도가 달라, 조명만을 위한 구멍이다. 이런 구멍은 부엌과 안마당과의 사이의 벽에도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구멍이 크다. 구멍 아래쪽에 납대대한 돌이나 암키와와 같은 넓적한 것을 놓아 받침들을 만든 다음, 그곳에 관솔불을 지피기도 하며 불씨를 보존해 조명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부엌의 앞쪽 판 벽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아무렇게 하지 않고 제법 아름다운 무늬의 형태로 뚫었다. 이런 구멍을 통하여 별을 받고 빛도 얻고 배기나 통풍을 시키자는 의도인 것으로 여겨진다.

· **광창**: 봉창이 붙박이인 것처럼 광창도 고정되도록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때로는 여닫을 수 있게 구성한 것도 있으나 그것은 약간 유형이 다르다. 따라서 광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살대를 꽃아 만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살대를 무늬로 엮어 만든 것이다. 연귀한 울거미로 틀을 만들고 살을 끼워 창을 만들되 울거미가 중방 등에 고착되어 붙박이가 된 사창과, 울거미가 문얼굴에 설치되어 때로는 여닫을 수 있도록 다듬은 가는 나무오리를 수직으로 꽃아 나란히 세운 이른바 살창 구조이며, 붙박이이면서도 개폐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은 장살과 동살을 써서 너살, 피살, 빗살, 꽃살의 무늬를 구성한 만살창의 구조이다. 이중에서도 살창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원초적인 구조물이다.

· **창문**: 통풍이나 채광을 위하여 벽에다 낸 시설을 '창' 이라 부른다. 방에는 창과 함께 출입용의 문도 설치된다. 그러나 문과 창은 엄격하지 못하다. 창이 출입문의 구실을 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창문' 이라는 복합어가 그래서 생겨났

는지도 모른다. 시골집의 창문은 방 앞쪽에 나 있다. 방의 뒤편에나 있을 수도 있으나 이것뿐이어서 출입과 채광 그리고 통풍이 함께 해결된다. 본당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닫고 나면 빛을 받아들이는 구실을 하게 된다. 쪽마루가 있는 집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이런 집들의 창문은 여닫이만의 홑겹이며, 단단한 나무로 잔울거미에 중동 수장을 한 가닥들이고 삼작처럼 잔 창살을 메운다. 대나무나 오리나무, 버드나무 등을 가지고 석쇠무늬, 빗살무늬라 부르는 형상으로 문살을 엮는다.

11-1-9 수장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건너질러 꾸미는 나무들을 통틀어 수장이라 한다. 여기에 쓰이는 재목들을 수장재라 일컫는다. 사용되는 재목은 주로 쉰 낸 각재들이다. 이들은 기늘고 굵고 짧고 길고 하여 각양각색이며, 같은 굵기의 나무라도 쓰이는 장소나 용도에 따라 이름이 서로 다르고 마름질이 달리 되기도 한다. 그만큼 수장재는 복잡하고 일거리도 많아서 목수들이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건 뒤에 기와장인들이 산자엮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수장을 만드는 일을 한다. 집짓는 대부분의 시간이 이일에 소모된다. 수장재는 끼고, 박고, 잇고, 붙이고, 덧대는 일들이어서 '이음법' 과 '짜는 법'이 복잡하게 발달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수 아닌 사람들은 정확히 구분해서 말하기란 매우 어렵고 그 이름도 다양해서 처음 이것을 익히려는 사람들에게겐 난해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막상 이것들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검토하는 입장이 되면 소홀하게 넘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수장재는 전용 공간의 향유가 분명해지면서 벽체가 칸막이로 고착되었을 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구들과 마루가 함께 자리잡는 한옥의 정형이 이룩되면서 차츰 칸막이가 발전되었고 수장 재도 급격하게 진보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수장을 설치하는 데에는 성격상 벽체와 문얼굴과 마루 등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층집이며 멩예와 층층다리, 난간이나 마루도 이에 해당한다. 벽체에는 벽장, 다락 그리고 개홀레가 포함된다.

11-1-10 대문

예로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문을 내고 그에 따른 길을 내는 일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조건을 생각했다고 한다. 즉 문을 내는 일은 사람들의 '수복강녕'과 '부귀다담'을 위하여 큰 의미를 지닌다고 믿었다.

「산림경제」에는 문을 여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전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러한 이유를 짐작하게 된다.

우리의 서민 생활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문없이 살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울타리와 문이 없이 사는 순박한 마을이 시골에서 볼 수 있다.

대문은 살림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묘, 사사, 관아, 학교, 궁궐 등에도 있다. 읍성이나 산성에도 사대문, 사소문이 존재한다. 이들 고급스러운 문은 살림집에서

문을 만드는데 그것들이 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성된다.

대문은 위엄을 갖추기 위하여 문지방을 드높인 경우도 있으며 문지방을 아주 없애는 경우(주로 농가에서 나타남)는 쉽게 드나 들 수 있도록 한 경우와 문지방의 중간부분을 잘라서 필요에 따라 여 닫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대문은 만들어지는 형상에 따라 대문, 솟을대문, 평삼문, 솟을삼문 등으로 구분된다. 평삼문, 솟을삼문은 사당등에 구성되는 형식이다. 살림집에서도 삼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네 개의 기둥이 구성하는 삼면에 각각 문짝을 달아 삼문의 구실을 하도록 한 것이다. 고급의 집에서 얻어내어 살림집에 응용한 사례이기도 하다.

11-1-11 기단과 계단

처마 밑을 따라 흙, 잔디, 돌, 벽돌, 기와 그리고 강회 섞은 삼화토를 써서 마당보다 높직하게 쌓는 것을 죽담, 땃돌, 또는 기단이라고 한다. 기단은 한 벌만 설치하는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하 두 단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기단은 작은 돌과 흙을 섞어 쌓은 돌죽담과 진흙으로 굴림 백토를 만들어 토담집에 구조한 흙죽담, 쓰고 남은 기와를 흙에 박아 만든 디새죽담, 말뚝을 박아 무너지지 않도록 쌓은 것들이 있다.

기단을 구성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 낮은 죽담은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이 집쪽으로 튀어 오르는 것을 막고, 지표면보다 한 단 높게 함으로써 마당에 고인 물이 집안으로 스며들 수 없도록 했던 것이다. 죽담을 높직한 자리에 주인이 거처함으로써 하인 등 아랫것들을 내려다보면서 지시할 수 있는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함이었다.

'계'는 또한 '단'과는 다르다. 단은 축대 등으로 쌓아 올린 터전을 가리킨다. 계단은 장대석을 보석 삼아 그것만 쌓아올려 층계를 구성한 것과 그 좌우에 소맷돌을 놓아 장식한 것등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일반 백성들은 집에서 소맷돌을 장치한 돌계단은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이 조선조까지 지켜져 내려온 사항이다.

11-1-12 쇠장석

살림집을 치장하는 일은 주로 문살의 무늬를 바꾸거나 쇠장석을 다는 일에 치중되어 있다. 담에 꽃무늬를 넣거나 기둥에 주련을 달거나 편액을 거는 호시도 있으나, 이것은 넉넉한 집이라든지 학문이 높다든지 하는 이들의 집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반 백성들의 살림집이나 시골집들에서는 기능에 따라 쇠장석을 달아 치장하는 것 등이 고작이었다.

· **쇠장석**: 기본적인 것과 장식적인 것의 두 가지가 있다. 못, 배목, 고리, 황금, 화금, 들쇠(등자쇠, 걸쇠) 등은 기본적인 유형이고, 국화정, 광두정, 마늘못, 방환, 앞바탕쇠, 세발쇠, 제비초리쇠, 거므쇠, 지네철등은 비교적 장식 효과도 함께 지닌 유형이다.

· **풍경과 종:** 절 기타 누각 등이 처마 끝에다는 경쇠, 작은 종처럼 만들어 가운데 추를 달고 그 밑에 쇠조각으로 봉어 모양을 만들어 달아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며 쓸쓸하고도 맑은 소리를 낸다. 풍경은 옛날 중국에서 전래한 것으로 우리 조상들도 시원한 대청마루에 앉아 한가로이 풍경 소리를 들으며 시정을 돋구었다.

· **문고리:** 쇠붙이 문고리는 용도에 따라 그 모양이 여러 가지다. 덧문에 달리는 문고리는 배목에 가락지 모양의 둥근 테 하나만을 끼운 단환이다. 이런 문고리를 덧문 안쪽에도 박는데, 그럴 때에는 바깥 고리를 윗편에, 안쪽의 것을 아랫편에 박히도록 함이 일반적이다. 배목과 고리 사이에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으면 연환이라고 한다.

문고리는 둥근 고리가 많이 사용되지만, 네모진 것이 쓰이기도 한다. 둥근 고리를 원환이라 하고 네모진 것을 방환이라 부른다.

· **돌쩌귀:** 문벽선에 이돌쩌귀를 박고 문울거미에 솟돌쩌귀를 박은 뒤에 문짝을 들어다 끼우면 솟돌쩌귀축이 암돌쩌귀 구멍에 낀 안정된 채 작동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돌쩌귀에는, 나무에 박힐 못의 부분에 둥글게 토시처럼 말아서 만든 둥근 구멍이 있는 암돌쩌귀와, 그 구멍에 넉넉히 들어가 구멍 아래로 빼끔히 머리를 내밀 수 있을 만한 길이의 가는 축을 가진 솟돌쩌귀 등 두 가지가 있다.

· **비녀장:** 대청, 누마루, 정자의 사분합 등은 필요에 따라 열어 접은 뒤에 천장 쪽으로 들어올려 달아 건다. 이때 문짝을 달아 올릴 수 있도록 된 쇠붙이를 비녀장이라 한다. 비녀장 역시 암수 두 가지로 구성된다. 돌쩌귀는 암수가 각각 한 가닥이나, 비녀장은 인방에 박히는 암컷이 두 가닥으로 가운데를 벌리고 있다. 문짝에 박히는 수컷은 한 가닥이 되어 벌린 암컷의 사이로 들어가 끼인다. 암수컷 모두의 가운데에는 구멍이 나 있다.

· **들쇠(등자쇠):** '등자쇠' 라고도 하는 이 들쇠는 도리나 장여, 서까래 등에 못을 박아 걸어 두었다가 사분합 등의 문짝을 열어 들어올려 걸 때 한 끝을 받아 걸리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등자쇠가 두 가닥으로 구성되는 수도 있다. 마치 발을 걸게 된 쇠가 돌이 있어 좌우를 떠받는 것처럼 꼬는 햇대가 양쪽 끝에 받도록 한 것이다.

11-1-13 굴뚝

부엌의 아궁이는 난방과 취사가 겸해 있어 옛날 위정자들은 백성이 굶지 않고 연명하고 있는가 또 어느 집이 양식이 떨어졌는가를 굴뚝의 연기를 보고 알았다 한다.

굴뚝은 연통과 연가로 구분되나 두 개의 기능이 한데 합쳐 있는 것도 있다. 마치 절간의 탑처럼 맨 꼭대기에 새나 꽃봉오리 등을 장식하여 그 밑에 두세 개 또는 네

개를 뚫어 연기가 나가게끔 되어 있다.

· **강회굴뚝**: 흙과 냇물을 번갈아 가며 쌓아 올려 몸체를 빚고 그 위에 바닥을 떼어 낸 독을 얹었다. 또 비바람에 흙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날개를 둘러놓았다.

· **옹기굴뚝**: 이 굴뚝도 옹기로 편 것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대개 남녘의 하심도에 많다.

· **널구새**: 약 너비 20센티미터, 두께 3센티미터쯤 되는 널쪽을 네모로 붙여서 만든 굴뚝이다. 서너 곳에 띠를 둘러서 고정시켰다.

· **통구새**: 통나무 속을 뚫어서 세운 굴뚝이다. 통나무가 귀한 데서는 나무를 길이로 쪼개고 안쪽을 파낸 다음 다시 맞붙여 굴뚝으로 삼기도 한다.

11-2 조경



정자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한국 고유의 조경은 비정형적이고 유기적 흐름을 중요시하여 구성되었다. 또한 자연과의 합일하는 신비성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한국의 조원은 인공적 조형물을 숙된 것으로 생각하여, 모든 것을 자연에 잘 동화시키고자 하는 생각에 따라 조영된 것이다. 조형물은 자연과의 조화로 구성되어야 했으므로 건물을 세울 때 터를 잡는 일이 제일 중요했다. 그러기에 자연의 순리가 조원의 기본 질서로 존중되어 조영의 원리가 되었다.

물은 흐르고, 고이고, 넘치는 것이 순리이므로 연못을 만들고 폭포를 만들었다. 치형을 존중하여 자연을 허물지 않았고 토질을 변질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 습지면 습지에 잘 사는 나무를 심고 연못을 파거나 계간을 조성했으며 오늘의 우리현실에 시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 항에서는 궁궐이나 사원에 대한 조경에 대한 연구보다는 서민(민가)의 조경과 구성에 대해서 대표적인 조경의 바탕이 되는 뜰과 공간(마을)의 구성, 후원 그리고 우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1-2-1 민가의 조경 (경주 양동마을)

우리 나라 민가는 마을 전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집과 집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예로 경주 양동 마을 등을 들 수 있다.

경주 양동 마을은 산자락에 나뭇가지처럼 형성된 사대부 마을인데, 이곳에는 사당 앞에 향나무가 한두 그루씩 서 있다. 또 마을 앞에는 정자나무가 있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의사를 교환하는 대화의 터전을 마련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 민가는 공간 구성에서 마당의 배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대부 집은 대문간에 행랑채가 있고, 그 안으로 남자 주인의 생활 공간인 사랑채가 있으며, 그 안

으로 여자의 생활 공간인 안채가 있다. 사랑채에서 떨어진 공간에 별당이 있으며, 후원에 조상을 모신 사당이 있다. 사당은 유교를 숭상하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민가에 형성된 것이다.

이들 모든 별채의 건물마다 마당이 있다. 대문 밖의 마당은 타작 마당도 되고 농산물을 말리는 장소도 되기 때문에 가장 크다. 그리고 사랑 마당은 손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가마나 말을 타는 장소이기도 한데, 경우에 따라 혼례식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안채 마당보다 넓다. 안채 마당은 폐쇄된 여인들의 공간으로 가장 작은 마당을 형성한다. 길쌈도 하고, 팻돌이나 석구도 있으며, 고추 같은 것을 말리기도 하는 공간이다.

11-2-2 마당

한국의 마당은 보고 즐기는 대상이 아닌 가사를 처리하는 실생활의 공간으로서 그 의의가 깊다. 우리 나라 살림집에서는 예전부터 안마당이나 앞마당에는 나무나 꽃을 심어 정원을 꾸미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괴석을 석분에 심고, 화분을 철따라 바꾸어 팻돌이나 화계에 늘어놓는 일을 즐겨 하였다. 지금도 연경당 같은 고급주택에서는 그런 구성의 유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안마당을 전혀 꾸미지 않는 것이 철칙은 아니었다. 후원이 마땅하지 못한 집에서는 안뜰이나 앞뜰에 석가산을 쌓고 화목을 심어 꾸미기도 하였다.

11-2-3 후원



후원

안마당이나 앞뜰에 동산을 만들어 꾸미는 예가 넓지는 않으나,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뒷뜰이라고 부르는 후원에 조성한다.

후원은 집에서 가장 후미진 곳이며 아늑한 장소의, 후원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따뜻한 정감을 갖게 한다. 후원이란 곧 여성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별당이 있는 곳도 바로 이 후원이다.

'배산임수' 하는 곳에 위치한 살림집의 후원은 산세의 흐름과 계곡의 형성이 잠시 멈춘 자리이기도 하여서 산기와 수기가 이곳에 머문다. 그래서 이곳은 아이들이 타고난 정기를 배양하는 터전이 되고, 갖가지 꽃과 철철이 맛볼 수 있는 열매가 풍성하다. 후원은 그래서 생기가 솟고 활기에 넘친다. 반면에 사람이 없으면 정적하며 유연한 분위기를 지니는 그런 곳이기도 하다.

후원은 뒷동산에 연이어 있기 때문에 손질하지 않은 자연적 분위기가 그대로 후원에 가득하다. 그 자연에 부족한 부분만을 보충하면 가장 좋은 정원이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였다. 오늘날의 우리 생활 환경에서 이러한 선조들의 후원에 대한 개념이 지속적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비정리, 비개념적인 도시와 환경물의 연속성들은 사라졌을 것이다. 따라서 후원이 우리에게 주는 개념과 그 의미는 오늘의 현실과 도시환경속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생활공간에 미치는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 주고 있다.

11-2-4 우물

집터를 고르는 중에서 국면에 물이 흐르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물줄기가 이르는 수층을 통하여 터전의 길흉을 점칠 수 있다고도 하였다. 물은 그 만큼 인간 생활에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 사람의 몸체가 물로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명당의 물은 지표상의 명당수와 지하를 흐르는 수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하수는 양택 보다는 음택에서 중요시되는 것이지만, 수질로 장기가 사람의 몸에 퇴적되면 풍토병을 앓게 된다는 의방의 상식에 따라, 양택에서도 지하 수맥의 흐름이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물이나 샘을 통하여 얻어낸 지하수가 신선하여 잡물이 섞이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집터를 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여건이 되기도 하였다.

지금 경주 시내에는 '쪽샘'이라 속칭되는 솔집이 많은 골목이 있다. 이곳은 신라 때부터의 터전인데, 이곳에는 고분들이 산재하여 있고, 그 골목 어귀에는 공동우물로 보이는 큰 우물이 있다. 이는 바로 신라 때의 우물로 알려져 있는 쪽샘으로서, 큼직한 돌축으로 되어 있는 우물돌에는 '남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11-3 상징물

11-3-1 솟대



강원도 홍천군 솟대

· **건립동기**: 솟대란 나무나 돌로 만든 새의 모양을 장대나 돌기둥 위에 얹힌 마을의 무속적 신앙의 대상물이다. 일반적으로 솟대는 마을 입구에 홀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탑(돌무더기), 선돌, 신목, 그리고 장승 등과 함께 어우러져 있으며 그 마을의 하단신, 주신, 상당신으로 모셔지기도 하였으며 행주형 지세의 마을에 돛대를 나타내기 위하여 건립하기도 하였고, 급제를 기념하거나, 그 마을의 길제를 축하하기 위해 세우는 예도 있었다. 이 모두 공통적인 면은 마을의 제액초복이나 풍농 그리고 안녕을 위한 신앙적 대상이었다.

· **위치**: 솟대를 세우는 곳은 대체로 마을 어귀에 세운다. 마을의 입구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초자연적 존재들도 드나드는 곳으로 생각하였으며 재액, 악역, 부정에 대한 그들 자신의 마을을 강한 신성으로서 마을 밖의 부정을 막으려 했다. 또는 그 마을의 허한 곳이면 어디든지 세우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 솟대와는 달리 두세 군데 세우는 곳도 있다.

· **양상**: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솟대는 홀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대개는 다른 신앙 대상물과 여러 복합 양상을 띠면서 세워진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솟대 단독형, 솟대와 장승 복합형, 솟대와 탑복합형, 솟대, 장승, 탑복합형, 솟대 선돌복합형,

탑 또는 흙더미 위에 앉힌 솟대등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

이런 양상들은 솟대와 다른 기능을 가진 것들이 서로 보강하여 협조하는 즉 역할을 서로 공유하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11-3-2 장승

돌로 만든 석장승과 나무로 만든 목장승이 있는데, 대개 목장승이다. 지역간의 경계표 또는 이정표의 구실을 하지만 액운이 들었을 때나 질병이 전염되었을 때 제사 지내는 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함을 추측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소멸 과정에 있어서 찾아보기 어려우나 옛날에는 마을과 길목마다 거의 있었고, 사찰의 입구에도 있었다. 장승의 기원에 대해서는 고대의 성기(性器) 숭배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장생고에 속하는 사전(寺田)의 표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등, 또한 목장승은 솟대에서, 석장승은 선돌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확실한 기원은 알 수 없다.

11-3-3 무덤

무덤이나 피를 나타내는 한자어로는 묘, 충, 분 등이 있고, 제왕의 무덤은 특히 능이라 하여 구별하여 쓴다. 원래 '충'은 흙을 짚고 나무를 심은 무덤이고, '묘'는 흙을 짚는 대신에 건조물을 세운 무덤 등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혼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들을 총칭해서 분묘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묘제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한국의 무덤은 둥근 봉분이 솟아 있고 거기에 일반적으로 잔디를 심었기 때문에 중국의 묘와는 다른 느낌을 준다. 이는 비록 지하에 묻혀 있어도 하늘을 염원하는 마음이 어우러져 있다.

12.연장류

12-1-1 목공구



나무는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사용한 도구이자 재료였다. 인류는 주변에 흔히 있어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나무, 돌, 뼈 등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유기물인 나무는 대부분 썩거나 불에 타 없어지고 전하는 것은 거의 없다.

「나무는 단단하고 가공하기 쉬워서 생활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나무를 이용하여 불을 땔 뿐만 아니라 섬유질을 빼내어 종이를 만들기도 한다. 또한 단단한 성질을 이용하여 생활용구들이나 집, 다리 등의 구조물을 만들기도 한다.

나무를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을 만들려면 이에 따른 도구류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부분에서는 목공구류에 대해서 쓰이는 용도와 기능 그리고 목공구류에서 볼 수 있는 도구의 조형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톱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톱은 크기와 쓰임새에 따라 여러종류로 나뉘지만 크게 결톱, 자름톱, 돌림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결톱

나무를 섬유방향으로 켜는 톱으로 톱니의 모양은 70° 정도의 기운삼각형으로 날어김을 적게 하여 마모가 크지 않다. 켄 때는 톱니끝이 끌과 같은 역할을 해서 켜지게 된다.

원목을 주로 제재하는 대형톱도 있으며, 이때 톱양은 톱자루와 직각방향이다. 다른 이름으로 인거톱, 내림톱, 세로톱이라고 한다.

• 자름톱

나무의 섬유방향에 대해 직각으로 자르는 톱으로 톱니모양은 45° 정도의 삼각형으로, 날어김을 크게 좌우 두 줄로 만든다. 큰 원목을 자르는 톱은 톱양과 동발사이를 넓게 만들며, 톱양을 끼울 때는 톱자루와 평행한 방향으로 끼우며, 다른 이름으로는 단거톱, 동톱, 썰음톱, 가로톱이라 한다.

원목제재에 쓰이는 톱양을 톱틀에 끼우지 않고 양쪽에 손잡이만 사용하는 무랑톱도 있다.

• 쥐꼬리톱

나무에 곡선이나 구멍을 크게 낼 때 사용하는 것으로 톱니는 날어김을 하지 않고 막톱니로 되어있다. 일명 돌림톱, 쥐꼬리톱이라 한다. 톱날의 한쪽 끝에 손잡이를 달아서 사용하며 톱날 모습은 이 직선이나 ㄴ자 모양도 있다. 톱날이 좁고 두꺼우며 끝으로 갈수록 기늘어진다.

• 원목톱

나무를 자를 때 쓰던 톱이다. 톱의 몸이 휘어져 있고 톱니가 무척 크게 만들어져 있다.

12-1-2 자

길이, 너비, 두께, 각도 등을 재는 연장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자는 지역,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단위가 쓰였다.

• 정자자(丁字尺, 마레자)

두 개의 나무막대를 정자모양으로 대어 놓아 직각을 맞출 때 쓰는 자이다.

• 곡자(曲尺, 각자, 직각자)

길이를 재고 직각을 보는 것으로 ㄱ자 모양으로 생겨 있어 기역자라고 한다. 길이가 다른 2개의 나무를 직각으로 맞추어 만들었는데 긴 쪽을 장수, 짧은 쪽을 단수라 한다.

• 연귀자

창틀을 맞추거나 나무의 한쪽면을 경사지게 하여 마구리가 보이지 않고록 모서리를 맞추는 곳에 쓴다. 두 토막의 자를 서로 엮이켜 결합시켜 45°, 60° 등 일정한 각도

를 나타내며, 두 나무토막의 각도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또한 나무 판자에 일정한 각을 네모, 사다리꼴 모습으로 오려 사용하기도 한다.

12-1-3 그르개

나무의 한쪽 끝에서 일정한 거리로 평행선을 긋는데 쓰인 연장이다. 정사각형이나 사다리꼴의 나무 가운데를 네모지게 뚫고 그 곳에 나무막대를 끼운 형태로 나무막대에는 굵고자 하는 금의 수 만큼 못끝이 나와 있다. 췌기를 이용하여 나무를 원하는 치수 만큼 조절하여 고정시킨 뒤 모서리를 따라 두서너차례 그어대어 나무에 금을 정확하게 그어 같은 규격을 여러 개 재단해 낼 수 있는 다량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못 대신 칼날을 박아 넣어 얇은 나무판을 앞뒤로 그어대어 판재를 조깅 수 있는 조개기 그르개도 있다.

12-1-4 먹통

나무를 재단할 때 줄을 통기어 일직선으로 금을 긋는 아주 중요한 연장으로, 목재가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이 선을 그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목수 일을 배울 때 제일 마지막 단계로 습득하는 것이 이 먹줄 통기는 작업인 만큼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일이다.

먹통은 네모진 나무에 두 개의 굵을 뚫어 한쪽은 먹물 묻은 솜을 넣었고 다른 쪽에는 먹실을 감은 타래를 달아 놓는다. 먹줄은 타래칸에서 먹솜칸 사이에 뚫긴 작은 구멍을 따라 먹솜칸으로 가 먹물이 묻어 금을 긋는다. 실의 맨 앞에는 송곳이 있어 금을 굵고자 하는 곳에 꽃고 먹칼로 먹솜을 눌러주어 질에 먹이 잘 묻도록 하면서 줄을 풀어 반대쪽에 맞춘 뒤 먹줄을 들어 올렸다가 놓음으로서 선을 긋게 된다.

12-1-5 대패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대패는 예로부터 써오고 있는 날이 훑날인 '말이대패'와 일본 강점 후 왜식 대패가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 보급된 겹날인 '당김대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패는 생김새와 쓰임새에 따라 평대패, 곧날대패, 둥근대패, 오금대패, 뒤겹대패, 배꼽대패, 개장, 변장, 살밀이, 쌍사밀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평밀이 대패

평대패란 대뿔집과 대뿔날이 곧게 나 있는 대패로 평평한 나무를 미는데 쓰는데 대패질의 단계에 따라 선대패, 중대패, 딱음대패로 분류된다.

선대패는 톱이나 자귀로 켜낸 나무에 대패질을 처음 할 때 쓰는 대패로 쇠대패, 초련대패, 막대패, 거친대패 등으로 불려진다. 초벌로 깎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며 그에 따라 아기리는 대뿔밥이 잘 빠져나가도록 크게 만든다. 때에 따라서는 대뿔등 앞쪽에 당길손을 박아 2사람이 함께 대패질을 하기도 한다.

중대패는 센대패로 깎아낸 나무면을 곱게 미는 대패로 대패질을 대부분은 이 중대패로 마른질을 한다. 중대패로 대패질을 하였지만 때에 따라서는 먹감나무, 느티나무 등의 무늬를 나타내기 위한 장, 경대 등의 소목일에는 한번 더 대패질을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대패가 딱음대패이다. 잔대패, 마무리 대패, 고은대패, 다듬질 대패 등으로 불린다.

· **쟁사밀이 대패**

기둥이나 문고리 등에 2줄의 홈을 파는 것으로 크기가 다양하다. 그밖에 칼날대패, 옆굴림대패, 쇠실이대패등 있다.

· **개당**

홈을 팔 때 쓰는 대패로 홈의 크기에 따라 대팻날 크기가 달라진다. 개장이란 장 지나 판자 등을 끼우기 위해 파낸 홈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장이라 하면 개장대패를 일컫는다. 문틀의 홈을 팔 때나 장지끼우는 홈을 팔 때 사용되는 대패로 홈의 너비에 따라 날은 크리고 대팻날이 말들어진다. 전체적인 모습은 썰대날과 같이 대팻바닥 가운데가 튀어나와 턱이 진 모습이다.

· **굴림대패**

굴림대패에는 그 사용방법에 따라 둥근대패와 오금 대패로 나뉜다.

둥근대패는 나무를 둥글게 깎는데 쓰는 대패이다. 이삼층농의 가로쇠목, 농밀 띠, 굴도리, 서까래 등을 다듬을 때 사용한다.

오금대패는 나무겉면의 오목한 홈을 둥글게 깎는데 쓰는 대패로 대팻날과 대팻집 밑바닥의 가로지름면은 반달꼴이다.

· **귀집대패**

굽은 나무나 겹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구유, 이남박, 합지, 소반, 상다리 등을 깎아낼 때 쓰는 대패로 배대패, 뒤집대패, 뒤집이대해 등으로 불려진다.

대팻바닥의 길이 모습이 배의 밑부분처럼 유선형으로 생겼고 대팻집이 다른 대패에 비해 짧은 것이 특징이다. 밀이대패이다.

· **변당**

나무 가장자리를 곱게 밀거나 모서리를 턱지게 미는 대패이다. 대패질 할 때 깎아내야 할 두께를 표시하기 위해 두께만큼 모서리를 깎을 때 쓰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대패는 깎인 대팻밥이 위로 올라오지만 변당은 대팻밥이 옆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다.

12-1-6 훑치기

도끼나 자귀로 원모가를 다듬게 되면 나무의 겉에 자국이 남게되는데 이를 때끈하게 다듬는데 쓰이며 서까래와 같이 둥근 나무를 둥글게 깎거나 나무를 둥글게 다듬질할 때 쓰는 연장이다. 긴 나무토막의 양끝은 손잡이로 이용하고 가운데 부분을 약간 파고 굽 안쪽 가장자리에구멍을 뚫어 ㄷ자나, 대팻날 모양의 쇳날을 끼워 날을 적

절하게 조절하여 밀어 깎는다.

12-1-7 송곳

종이, 나무 등에 구멍을 뚫는 연장이다. 쇠로 된 날과 스페에 나무로 자루를 달아 손으로 쥐고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날의 자름면 모양에 따라 둥근형, 사각형 등이 있다. 돌려서 뚫는 도래 송곳, 두 손바닥을 비벼서 쓰는 비비송곳, 활시위를 송곳자루 중간에 돌려 앞뒤로 회전시켜 뚫는 활비비가 있다.

• 활비비송곳

활비비송곳은 활시위를 송곳에 감고 활을 앞뒤로 당겨 회전시켜 구멍을 뚫는다.

12-1-8 환(줄)

쇠붙이를 깎거나 쓰는데 쓰이는 막대기 모양의 연장으로 강철로 만들어 양쪽에 잔이빨이 나있다. 톱날을 세울 때 많이 사용한다. 다른 이름으로 줄칼, 좌도라 부르기도 한다.

12-1-9 까뀌

나무를 찍어서 가공하는 연장으로 손자귀와 비슷하지만 날과 머리전체가 통쇠로 되어있는 점이 다르다. 이남박 등을 깎을 때도 쓰인다. 옥까뀌는 주로 함지박이나 나막신 등 깊은 곳을 파낼 때 사용한다.

12-1-10 끌

두 개의 나무를 결합시키기 위하여 구멍을 파거나 다듬는데 쓰거나 글씨나 조각 등을 할 때 쓰는 연장이다. 가늘고 긴 쇠 끝에 날을 세우고 반대쪽을 망치로 치도록 머리가 만들어져 있다. 이 머리를 망치로 쳐서 그 힘이 날 끝에 전해져 구멍을 파게 된다.

날의 모양에 따라 평끌, 각끌, 둥근끌, 창끌, 쌍끌, 인두끌, 날너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12-2 금속공예 공구

금속을 다루는 일은 광석을 제련하는 기술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련된 금속덩이를 녹이고 두드려 원하는 형태로 다듬어 나가는 일, 성형된 금속물위에 장식을 베풀고 마무리하는 일 등과 같이 금속공예란 금속을 통하여 공예미를 나타내는 일로써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금속공예에 나타나는 조형적 특질은 금속만이 갖는 표현기술과 기법에 의해 그 특성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이러한 특성은 금속공예품을 시대적 양식으로 구별짓게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금속류의 제품들이 다종 ,다양한 관계로 생산되어지는 과정에서 분류할 수 있는 제품류의 종류와 또 그것을 만드는 공방을 중심으로 분류, 분석하고자 한다.

종류별로 보면 일반서민들의 생활에서 얼마전까지도 흔히 볼 수 있었던 대장간에서 사용하였던 대장간 연장을 비롯하여 부질간연장, 유기기연장, 은방연장, 그리고 장식방 연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2-2-1 대장간 연장



대장간이란 여러 가지 연장이나 철기구등을 만드는 일간을 말한다. 대장간은 초정 같은 모양으로서 네 귀통이에 기둥을 세운 뒤 그 위에 지붕을 얹은 구조인데 일간으로 큰 마을이나 시골의 장터에 설치되었다. 대장간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농기구를 위시한 농경생활에 필요한 생산공구가 주였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도구들이나 공예품 제작을 위한 공구들이다. 물론 날이 무던 연장을 손봐주거나 주문에 의한 특별한 기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대장간의 숫자도 많았을뿐더러 대장장이의 기술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대장간에서 대장이란 본래 아장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로 쇠의 단련솜씨는 대장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대장간에서 만들어지는 생활도구나 연장들은 크기나 형태, 강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지역적인 풍토나 환경에 따른 영향도 있겠으나, 대장장이의 손놀림과 의식에 따라 주도되는 작업이 바로 대장간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대장장이들은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통해 불을 다루며 쇠의 강도와 성질을 조절하여 각종연장을 만들어 왔다. 역사적으로 전통적 기술을 보유한 대장은 최고의 금속장인이었다. 쇠를 단련하는 일 가운데 최고의 기술은 칼의 제작이다. 날베기를 해서 버리고 담금질하는 대장의 칼 제작 솜씨는 곧의 기술을 요한다. 따라서 대장장이의 오랜 경험과 숙달을 통해 불을 다루며 쇠의 강도나 성질을 조절하는 칼의 제작 솜을 바로 숙련된 대장만의 특별한 기술인 것이다.

• 불집게

쇠가닥을 불림할 때 잡으며 불덩이나 숯불등을 잡는 집게이다. 부집게라고도 하며 불뚱집게는 불집게의 방언이다.

• 불삽

숯, 숯불을 담아 나르기 위한 삽의 일종이다.

• 부지갱이

불을 땔 때에 숯불을 거두어 넣거나 끌어당기는 데 사용하는 가는 쇠막대기이다. 불꼬챙이, 부지때기, 부재팽이, 부재팽이 등은 방언이다.

• 각종 망치

무엇을 두드리거나 박는 일을 '망치질한다'라고 말한다. 즉 망치란 물건을 두들기거나 박는 데 쓰이는 것으로써 긴 자루가 달린 것이다. 구석기시대에는 주로 단단한 나무나 뼈등으로 만들어 격지를 때어내는 데 쓰였고 신석기 시대 이후에는 돌과 쇠붙이로 만들었다.

대장간에서 사용하는 망치는 달군 쇠를 두드리는 데 쓰이는 쇠로 만든 연장이다. 대체로 자루가 길며 무겁다. 망치자루는 보통 참나무나 물푸레나무로 다듬어 끼워

사용하였다. 금속가공용 망치는 용도에 따라 네뿔질용, 버림질용, 다듬질용, 제질용, 작은 망치는 마치라고 한다.

· **쇠매**

대장간에서 달구어진 쇧덩이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일차적으로 때려 늘릴 때 쓰이는 되로 만든 큰 망치를 말한다. 내려치는 힘을 보강하기 위해 긴 나무자루가 끼워져 있다. 쇠매는 망치의 모양에 따라 앞매와 결매로 나뉜다. 앞매는 날 부분으로 때린 메를 지칭하고 결매는 바닥으로 때리게 되는 메를 말한다. 쇠매는 모루채라고도 하며 모루방망이, 모루치는 모루채의 방언이다. 넓은 판이 요구되는 비철금속의 네뿔질에도 쇠매가 쓰인다.

· **찍(바닥)망치**

쇠바닥을 늘리는 데 사용된다. 망치로 찍어서 쇠를 늘린다고 하여 찍망치라고 부르며 쇠바닥을 늘린다하여 바닥망치라고도 한다. 바닥 부분이 둥글넓적하다.

· **모루망치**

모루와 망치의 기능이 함께 쓰여지도록 만들어진 손잡이가 달린 망치이다. 망치의 형태에 따라 용도가 구분되며 평무로(각모루)형과 곡모루형으로 구분된다.

· **각종집게**

집게란 손으로 직접 쥐기 어려운 물건을 잡는데에 쓰이는 연장이다. 집게는 대장간에서 가공물을 불림하기 위하여 넣었다 꺼냈다 하는데 사용하거나 버림질하기 위하여 쇧덩이를 집거나 또는 담금질하는 데 쓰이는 필수연장이다.

· **납작집게(평집게)**

평쇠를 잡을 때 쓰이는 집게이다. 집게부분의 모양이 납작하게 세워져 있으며 폭이 빠르다. 따라서 평집게, 바른집게라고도 부른다. 만드는 연장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

· **반동금집게**

집게 주둥이 모양이 동그랗게 굽은 형태로써 굽은 집게라고도 부른다. 작고 동그란 길이의 일감, 즉 둥근 쇠를 집거나 버릴 때 쓰인다.

· **각집게**

모가 나는 물건의 각면을 잡을 때 쓰이는 집게이다. 주로 네모진 각으로 버림질된 쇠를 잡게 되며 물건의 크기에 따라 대, 소가 있다.

· **가위집게**

집게 한 쪽의 찢어진 모양이 가위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이 가위의 아가리 부분에 달군 쇠를 꼭 맞도록 물리고 망치질하도록 고안된 집게이다. 점차적으로 가늘게 쇠를 버림질하는 용도로 쓰인다.

· **방울집게**

둥근연장을 집거나 버릴 때 쓰인다. 즉 대가리가 있는 둥근봉이나 대못을 잡을 때 쓰이는 집게이다. 돌개는 정, 석가래 못 등의 몸체를 버릴 때 사용된다. 봉의 굵기

에 따라 집게 지름의 차이가 있다.

· 익은정

달구어진 쇠를 자를 때 쓰는 자루가 달린 정으로 날이 넓으면서도 얇게 되어 있다. 한 사람은 달군 쇠 위에 화정을 대고 또 한 사람은 망치로 쳐서 자르게 된다.

· 곡날정망치

둥근 쇠를 달구지 않고 생채로 자르도록 날 가운데가 둥글게 홈이 파여진 형태로 되어 있다.

12-2-2 부질간 연장



주물은 녹인 쇳물을 일정한 틀(거푸집)에 부어 원하는 모양의 기물을 만드는 가공 방법을 말한다. 즉 쇳물을 부어 만드는 일이라 하여 부질이라고 하였다. 청동의 합금과 철의 아금술이 발달하면서 각종 생활의 이기들이 이 부질 방법으로 제조되었다. 청동제 잔줄무늬 거울, 각종 의기, 향로, 촛대 등은 고대 금공의 미를 대표하는 것들이다. 부질 금속은 쇳물의 성분과 배합비율에 따라 자유로운 합금이 가능하므로 금, 은, 동, 철, 놋쇠등의 금속재가 두루 이용될 수 있으나 고대로부터 놋쇠와 철은 가장 많이 쓰여진 부질 재료이다. 따라서 주를 일은 크게 놋쇠부질과 부쇠부질로 나누게 되며, 일간도 따로이 독립된 공간을 갖는다. 놋쇠부질로는 각종 제기, 식기, 촛대, 향로 등의 생활용구류등이 만들어지며 무쇠부질로는 숟, 향로, 화로, 생활연장 등을 주로 만들었다. 이들 방법은 같은 모양,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양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기에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 방법으로 이어져 왔다.

· 토틀(쇠틀)

토틀이란 수공으로 빚어 만든 재래식틀이다. 진흙에 잘게 찢은 창호지나 짚이긴 삼베를 넣어 계속 뺏게 되면 아주 차진 토틀용재료가 된다. 이것으로 만든 토틀은 요즈음 사용하는 금속제 틀에 비해 무겁기는 하나 터지지 않는 이점이 있다. 토틀은 해방 후까지도 주물간에서 사용된 틀로 사라진 수공공구의 하나가 되었다. 요즈음은 주물로 부어진 쇠틀, 신주틀을 사용하고 있다.

· 번기

주물하고자 하는 기형의 본을 말하며 암틀과 수틀에 본집을 만들기 위해 쓰인다. 종류에 따라 대, 소, 각양 수십가지가 있다.

· 쫓대

옥식기나 요강 등 그릇의 위부분이 곡면 모양의 형태를 만들고자 할 때 번기 한가운데 넣은 쇠이다. 쇠끝부분이 크고 작은 팔랑개비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릇의 종류에 따라 크고 작은 팔랑개비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릇의 종류에 따라 크고 작은 쫓대를 사용한다. 길이 10cm내외는 종지형에, 15cm내외는 조치형에 20cm내외는 대접 등에 사용된다.

· 무집

동근 기형의 번기한쪽에 물줄기와 덧붙여 씻물이 흘러 들어가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C자형의 도구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

12-2-3 유기간 연장



유기란 낫쇠로 만든 제품, 즉 반상기, 솥대, 향로, 대아, 악기, 불구등과 같은 일상 생활용품이나 기구들을 총칭한다. 유기 재료는 성분과 비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동을 기본으로 하는 비철금속재료와의 합금을 사용한다. 그 중에서도 상질의 낫쇠는 78%의 구리와 22%의 주석이 정확한 비율로 합금된 쇠를 뜻하며 이를 특히 방짜라고 칭하여 왔다.

방짜 유기간에서는 일정한 인원이 조직적으로 작업을 하여 원대장을 포함해서 대체로 11명으로 구성된다. 방짜일은 크게 용해과정(씻물 만들기), 네뽀질 과정, 제질 과정, 가질 과정으로 나뉜다. 방짜는 불림을 하여 메질로써 성형하기 때문에 방짜일에서 우김질과 제질은 중요 기술과정이 된다.

본항에서는 대장간 연장과 부질간 연장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연장류를 제외하기도 하며 실제 조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도구류에 한정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 도가니 집게

뜨거운 쇠물이 담긴 도가니를 집어 올리는 집게이다. 도가니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집게가 다르다. 곱은 도가니집게와 허리 도가니집게로 나뉘는데 곱은 도가니집게를 때부리집게라고도 한다.

· 우김질 도리미

네뽀질되어 늘어진 판을 깊이 있는 기형으로 우기교자 할 때 쓰이는 집게이다. 왼손으로는 초잡이집게나 중잡이집게로 넓혀진 바둑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우김질 도리미를 잡아 돌리며 작업하게 된다. 우김질을 함양 지방에서는 도동질이라고 한다.

· 전집게

달굽작업을 할 때 그릇이 안으로 오그라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게로 특히 전이 있는 기물을 집을 집을 때 사용한다.

· 제질망치

방짜일간에서 제질과정에 쓰이는 망치이다. 그릇의 몸통 윗부분을 오무릴 때 쓰이는 망치로 제질들에 대고 형을 잡는다. 크기와 모양이 다른 여러 공구와 종류가 있다. 방짜는 합금된 재료로써 성질상 특별한 공구를 사용하여 가공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다양한 형태의 제질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네뽀질된 방짜쇠로 만들어진 기형은 U자형의 징, 팽과리, 입구가 넓은 기형이나 오목한 그릇이 주종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 제질 집게

제질시 기물을 잡는 집게 이다. 집게 끝부분이 둥글 납작하게 말아 붙은 형태로

잡는 기능이 강조된 독특한 모양의 집게이다. 크기는 대, 중, 소로 나뉘며 용도에 따라 쓰인다.

· 황새망치

황새 주둥이의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기물을 성형할 때 특히 깊이 있는 물건의 바닥을 고를 때 쓰인다.

12-2-4 은방연장



철기의 출현 이후 한반도에는 금과 은 등의 귀금속이 국가의 관장 아래에서 제련되었으며 기술적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금속가공술이 등장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고분시대의 출토된 장신구의 수에 비하면 금, 은 등과 같이 귀금속 소재로 만들어진 기물들이 많은 기물들이 많은 편은 아니나 우리 나름대로 독특한 조형을 이루며 궁중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작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량의 은제품들이 왕실용으로 제조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후기 접어들어 이러한 은제품들도 일반에 널리 퍼져 사용되기도 하였다. 현재에도 예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은수저를 비롯하여 가락지에서 시대적 사용의 면모를 느낄 수 있다.

은을 다루는 장인을 은장, 은이나 금을 사용하여 기물을 만드는 곳을 은방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은기물을 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방에서는 주전자, 신선로, 화병, 주발, 대접 등 일상의 기물을 만들었으며 판매도 하였다. 은방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제질로써 제질과정에 맞는 독특한 연장이 따로이 고안되었다.

· 배알레

배알레란 비철금속(주로 은, 동)의 제질작업에서 쓰여지는 성형받침대를 말한다. 이는 길이 70cm내외의 긴 쇠막대형으로써 양쪽 금속판을 대고 늘리는 줄임으로 원하는 형을 이루게 된다. 크고 작은 다양한 모양으로 성형하기 위해서 배알레의 모양도 갖가지가 되며 원하는 형태에 따라 금속을 늘이고 줄이고 말고 각을 잡는 등 기본적인 일의 과정에 따라 구별이 된다. 배알레는 반드시 망치와 더불어 사용된다.

· 바닥정결이

정결이란 속이 깊은 기물을 정에 걸쳐놓고 그릇의 밑부분인 바닥의 형을 다듬기 위해 만들어진 형틀이다. 정 모양의 쇠틀로 소나무로 된 통나무의 정결이받침에 박아서 사용한다. 형틀의 모양은 만들고자 하는 바닥의 모양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네모, 팔모, 육모등의 모진 평바닥과 둥근 바닥이 있으며 일자바닥(평바닥)과 곡바닥으로 나뉠 수 있다. 대, 중, 소 크기가 다양하다.

· 줄임망치

기물의 형을 줄여감으로 원하는 형태로 다듬어 가고자 할 때 쓰이는 망치이다. 망치의 날부분의 두께에 따라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 대개 망치의 바닥 부분은 닻달용으로 쓰이도록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 닻달 망치

베일레에 대고 두드려 매끈히 고르고자 할 때 쓰이는 망치이다. 망치의 날 부분은 줄임망치의 역할을 하고 머리 부분은 댕달의 기능을 한다. 망치 바닥의 모양에 따라 평댕달망치와 배불댕달망치로 나뉜다. 평댕달망치는 두드린 면을 매끈하게 고를 때 쓰이며 배불댕달망치는 곡이진 둥근 형태를 다듬게 된다. 은일에서는 배불댕달망치가 우김망치로 사용된다.

• **목망치**

기물의 형을 늘리거나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반반하게 매만질 때 쓰이는 나무로 된 망치이다. 목망치의 머리부분으로 감나무를 제일로 쳤는데 이것은 단단할 뿐 아니라 탄력까지 있어 강한 타력을 내기 때문이다.

• **손저울**

금, 은의 함량과 세공물의 중량을 가늠하는데 사용되는 추가 달린 재래식 저울이다.

• **짚음쇠**

기물의 외형크기를 재거나 두께를 재는 도구이다.

• **가위**

비교적 얇은 금속판을 자르는 데 사용된다. 날이 엇결어 있어 2개의 다리에 각각 손가락을 끼워 벌렸다. 오므렸다 하여 자른다. 곱은 형과 곧은 형으로 나뉜다.

곱은 가위(꼭가위): 둥근선을 자를 때 쓰이며 가위날이 위로 곱게 되어 있다.

곧은 가위(일자가위): 곧은 선을 자를 때 쓰이는 가위날이 일자로 반듯하게 되어 있다.

12-2-5 장석방 연장

일반적으로 장석은 목공품의 한 부분이기도 하며 가구의 완벽한 조화미와 조형미를 이루는데 필수적으로 부합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가구에 부착된 장석들이 갖는 다양한 형태와 그 안에 베풀어진 모양은 시대적 사상과 생활 감정이 담겨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장석을 만드는 일간을 장석방이라고 한다.

목가구의 장석을 만드는 장인을 두석장이라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장석의 재료로는 철, 주석, 백동 등이 두루 쓰였으나 그 중에서도 주석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장석방은 그리 큰 규모가 요구되지 않았으나 장석의 정밀함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석장들의 세밀한 작업을 필요했다. 따라서 팜질, 정질, 줄질이 주된 장석방의 일이었다. 장석류가 갖는 독특한 문양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어 본 항에서는 기타 연장류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을 참고하여 정리분석 하고자 한다.

• **물림집게**

차장 위에 금속판을 고정시켜 놓고 작업할 때 사용되는 집게이다. 집게 부분과 손

잡이 가운데에 '갈'(죄인에게 씌우던 형틀을 '갈'이라 하는데서 연관된 말로 생각됨)이라고 하는 철고리가 끼워져 있어 이것으로 차장과 금속의 물림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늘려진 백동판을 각칼차장에 대고 물림집게로 고정시킨 후 망치 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각칼로 매끈하게 표면을 깎게 된다.

· **활비비**

회전축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을 수 있도록 한 축이 달린 활모양의 재래식 구멍뚫이다. 비비란 여러 번 꼬거나 뒤틀린 모양을 두고 생겨난 말로 활 모양을 하고 있어 활비비라 한다. 길이 40cm정도의 쇠로 된 활비비대에 가죽끈이 감기며 나무로 된 손잡이를 누르게 되면 비비날이 회전하게 되면서 구멍이 뚫리게 된다. 축을 갈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축에 따라 홀대의 쓰임이 다르다.

· **그음쇠**

금을 굽는 데 쓰이는 공구로 일종의 자 역할을 한다. 전라도 지방에서는 꼬심쇠라고 부른다. 길이에 따라 대, 중, 소로 나뉘어 진다.

· **석두**

금속판을 자를 때 사용하는 일종의 재단용 칼이다. 기름하고 두툼한 나무토막 위에 굽은 형의 쇠토막을 기동처럼 박고 한 면에 날을 가진 칼을 엮대어 고정시켰으며 손잡이를 내리누름으로 자르게 되어 있다. 농촌에서 여물을 썰는데 사용하는 도구를 작두라고 하며 작두와 비슷하나 악재를 썰는 연장을 협도라고 하는 반면에 금속재를 절단하는 도구를 금속장인들은 석두라고 부른다.

· **잡잡이 망치**

장석의 형태를 날정으로 파낸 뒤 판판히 다듬는 다듬망치이다. 모양을 제대로 잡는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망치의 바닥부분이 단단하고 매끈하다.

· **각종정**

재단이나 절단 또는 투각의 용도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장석에 무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종 모양의 정이 요구된다. 홈정, 뺨정, 걸림정, 공금정, 뼈금정 등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이다. 이외에도 구체적이고 섬세한 무늬를 표현을 할 경우에는 특별히 만들어 사용한다.

13. 기타 생활용품

본 품목의 분류에서는 앞에서 열거한 품목별 분류(1-12품목)에서 이미 자세히 분석해 본 자료들이지만,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 개념으로 재정리의 필요성 도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 이미지의 느낌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부분별 분류에서와 총체적 개념에서의 이미지가 개인별로 느끼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판단되어졌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옛선인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또는 현재에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실행활에 밀접하게 와 닿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재료별로 4가지(금속, 나무, 돌, 종이·천)로 분류하여 전체적인 생활에서의 버네쿨러 디자인에 대



호미

목부인



다듬이

지승그릇

한 개념을 재정리 해 볼 수 있는 장이라 생각된다.

금속류에서는 식생활에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낫그릇, 수저, 숟과 칼이 있으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었던 가위, 낫, 호미, 대야, 요강 그리고 풍구가 이 범주에 속한다. 전반적으로 낫과 호미를 제외한 금속류에서는 우리고유의 조형의 특질이라 할 수 있는 따뜻하고 온화한 그리고 두터운 느낌들이 표현되어 지고 있으며, 장식성이 배제된 실용위주의 제품들이라 생각된다. 이는 조선시대의 유교적 사상이 지배하였던 시대의 분위기를 나타내지만 일반 서민들의 내부에 잠재해 있는 인공이전의 자연의 미의식이 서민문화의 뚜렷한 성격과 특질로 자리매김 되었다.

나무류에서는 금속류에서의 품목이 갖는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농경문화의 발달과 사회·환경 그리고 생활공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나무, 뽕짚등)를 그대로 이용한 서민들의 자연존중의 사상과 자연과의 합일하는 심경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고유 생활품목들의 원천적 개념이 충실히 반영되기도 한다.

돌류에서는 가장 많이 즐겨 사용되었던 절구와 찻돌, 다듬이, 옹기등잔, 부손, 양념단지, 장독등이 이 부분에 포함되며 생활도구에서 늘 함께하는 주요품목이기도 하다.

본 항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도기류를 비롯한, 건축과 돌의 관계, 우물, 그밖에 조경물 그리고 울타리에서 돌은 우리에게 결코 멀지 않은, 항상 함께 숨쉬는 역할과 동반자의 기능을 주고 있다.

종이, 천류에서는 전항에서 자세히 분석해 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이미지를 정리해 봄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본 항에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다소 제한적인 관계로 전체에 대한 이미지와 객관성을 가지기는 어렵다 판단된다. 하지만 서민 생활에서 창출되어졌던 생활의 멋에 대해서 재창출할 수 있는 이미지와 생활의 여유의 미와 대중의 정서를 알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에 따른 독특한 특징들은 충분히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제 6절 버네클러 디자인의 총체적 사례 분류·분석

1. 버네클러 디자인의 품목별 분류·분석.
2. 버네클러 디자인의 Image Map 작성.

한국의 버네클러 디자인 품목별 분석

1. 의복류

1-1 관류

- 입상용
 - 1-1-1
 - 갓과 갓집
 - 정자관, 탕건
 - 촉립, 초립
 - 상투관 (2)
 - 망건, 망건통
 - 삿갓
 - 종이삿갓
 - 흑전립, 백전립
 - 남바위
 - 골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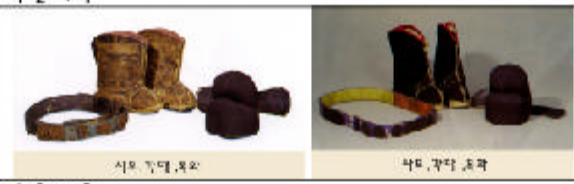


- 의전, 제례용
 - 1-1-2
 - 목화
 - 흑전립, 백전립
 - 주립
 - 회관과 흑두리
 - 원유관



1-2 신류

- 용도별
 - 1-2-1
 - 입상용
 - 1-2-1-1
 - 짚신
 - 나막신
 - 가족신
 - 꽃신
 - 비단무늬신
 - 비단신
 - 의전용 — 사모, 띠대, 목화(2)



- 재료별
 - 1-2-1-1
 - 가족신
 - 목화
 - 운혜, 태사혜
 - 적석
 - 흑혜
 - 짚신
 - 나막신
 - 짚신
 - 고무신
 - 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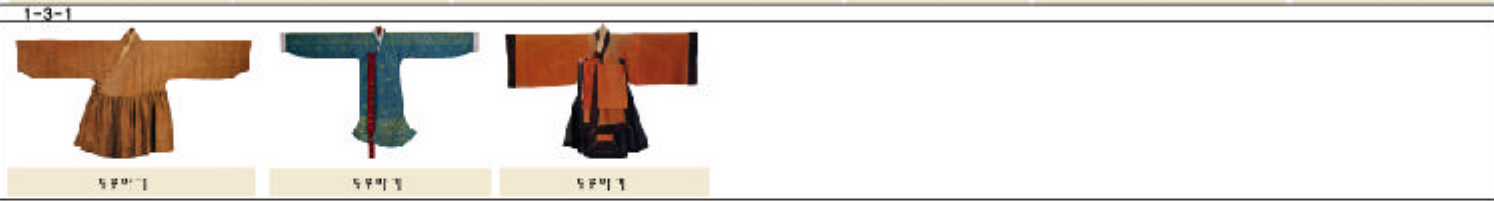
1-2-1-2 1-2-1-3 1-2-1-4 1-2-1-5

한국의 버네콜러 디자인 품목별 분석

1. 의복류

1-3 의상

- 1-3-1
 - 까치두루마리
 - 누비두루마리
 - 도포
 - 정옷(2)
 - 두루마기(8)



- 1-3-2
 - 저고리(3)
 - 순저고리
 - 누비상회장저고리
 - 깃저고리



- 1-3-3
 - 누비바지, 저고리
 - 저고리, 풍차바지
 - 바지



- 1-3-4
 - 녹의, 홍상
 - 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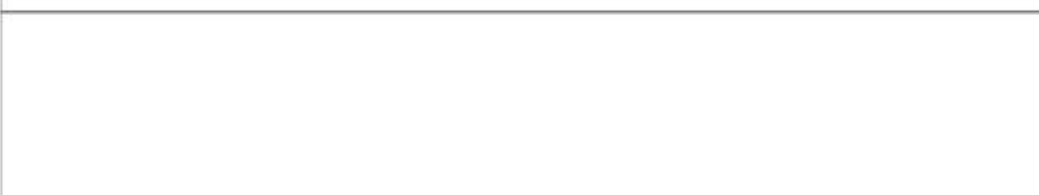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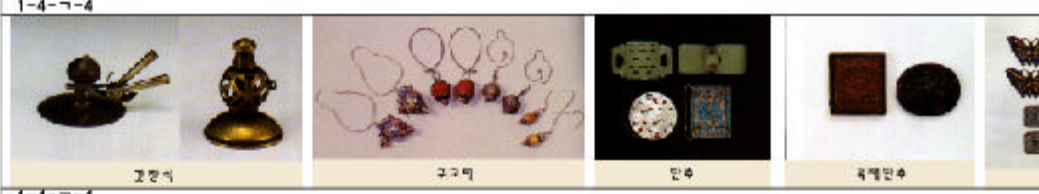


- 1-3-5
 - 백저포
 - 누비배자
 - 명문부분
 - 구군복
 - 당의



1-4 장신구

- 용도별 1-4-1
 - 노리개 1-4-1-1
 - 매미향낭노리개
 - 방아다리노리개
 - 삼작노리개
 - 조개형과물노리개
 - 철보삼작노리개
 - 각함노리개
 - 주머니 1-4-1-2
 - 귀주머니
 - 복주머니(2)
 - 오방낭지
 - 머리꾸미개 1-4-1-3
 - 머리장식
 - 비녀
 - 빗치개
 - 침지
 - 액세서리 1-4-1-4
 - 기호품
 - 담배침
 - 안경침
 - 악주머니
 - 은장도,침봉
 - 은장도
 - 장식
 - 갓장식
 - 귀고리
 - 단추
 - 목재단추
 - 단추류
 - 주머니장식



2.보자기

조각보
2-1

- 돌바닥무늬조각상보
- 명주조각보
- 명주조각옷보
- 모시조각보
- 모시조각보2
- 모시조각옷보
- 사조각보
- 세모조각상보
- 연두향라조각보
- 오색향라조각보
- 자주주연상보
- 직문사조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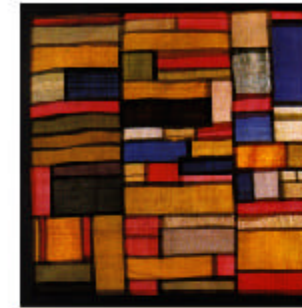
돌바닥무늬조각상보



명주조각보



명주조각옷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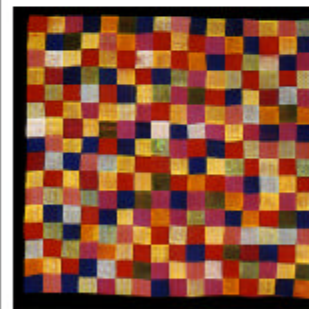
모시조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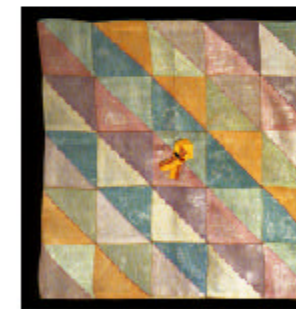
모시조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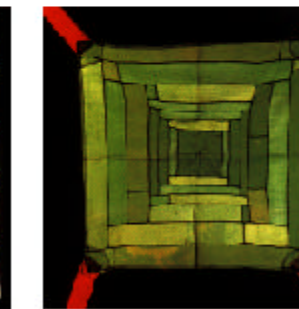
모시조각옷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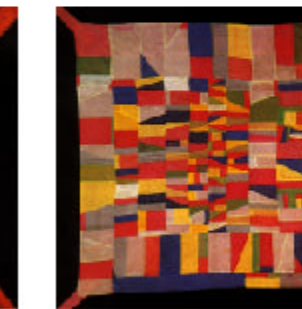
사조각보



세모조각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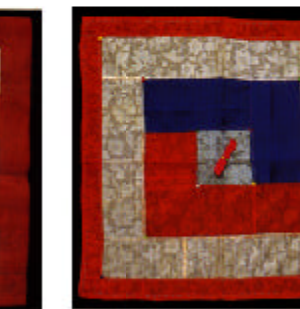
연두향라조각보



오색향라조각보



자주주연상보



직문사조각보

수보
2-2

- 오색당채판화
- 연화문함받침보
- 국화문보
- 후수
- 석류문함받침보
- 나비문수보
- 선도화문버선본보
- 함보
- 수패물보



오색당채판화



연화문함받침보



국화문보



후수



석류문함받침보



나비문수보



선도화문버선본보



함보



수패물보

3-1 용도별

- 저장 3-1-1
 - 독
 - 경기도독
 - 경상도독
 - 서울독
 - 전라도독
 - 조선초옹기
 - 꽃병
 - 충청도독
 - 항아리
 - 분청시기-연꽃무늬항아리
 - 초항아리



- 조리 3-1-2
 - 술
 - 곰돌술
 - 오지술
 - 질술
 - 약탕기
 - 약뭍질기
 - 약탕관(2)
 - 약탕기
 - 시루
 - 약시루
 - 질시루
 - 콩나물시루
 - 소줏고리
 - 소줏고리(2)
 - 오지소줏고리
 - 떡살
 - 물과용기
 - 물두멍
 - 서래기
 - 오지추천자
 - 질퐁이
 - 채반



- 난방 3-1-3
 - 회로3
 - 부순



3-1-3

- 3-1-4 제기
 - 제기
 - 백자사라제기
 - 백지제기(2)
 - 제사기구
 - 항합
 - 은제합(2)
 - 항합
 - 청자상감국화무늬항합
 - 항로(3)
 - 기타(티구) - 백자티구



- 3-1-5 병류
 - 자라병 - 자라병
 - 백자편병 - 백자편병
 - 도자기병
 - 백자팔각병
 - 백자청화사군자무늬병
 - 백자청화보달형다면병
 - 회청자초화무늬항아리
 - 항아리
 - 청자상감국화무늬납적항아리
 - 백자항아리
 - 백자철화꽃무늬항아리
 - 편호 - 백자편호
 - 술병 - 상어피술병



- 3-1-6 식기용
 - 식기
 - 밥통
 - 분시연화무늬사발
 - 합
 - 주전자
 - 주전자
 - 오지주전자
 - 수저통
 - 국자, 주걱
 - 복자
 - 주걱





















한국의 버네쿨러 디자인 품목별 분석

3. 용기

- 바가지
 - 표주박
 - 바가지
 - 주철가죽표주박
 - 거북영표주박
 - 나무혹천도희표주박
 - 나무표주박
 - 은제철보표주박
 - 종이표주박
 - 천도형나무표주박
 - 죽근천도형표주박
 - 바가지
 - 토끼표주박

- 기타
 - 3-7-7
 - 거울
 - 새옹
 - 담배통(2)
 - 담배함
 - 수반

 <p>표주박</p>	 <p>바가지</p>	 <p>죽근 거북표주박</p>	 <p>거북영표주박</p>	 <p>나무혹천도희표주박</p>	
3-7-7					
 <p>나무표주박</p>	 <p>은제철보표주박</p>	 <p>종이표주박</p>	 <p>천도형나무표주박</p>	 <p>죽근천도형표주박</p>	
 <p>바가지</p>	 <p>토끼표주박</p>				
 <p>기타</p>	 <p>새옹</p>	 <p>담배통</p>	 <p>담배함</p>	 <p>수반</p>	 <p>수반</p>

한국의 버네클러 디자인 품목별 분석

3. 용기

3-ㄴ 재료별

자기
3-ㄴ-1

- 백자떡살
- 백자사각제기
- 백자제기(2)
- 백자철화꽃무늬항아리
- 백자청화보달형다면병
- 백자청화시군자무늬병
- 백자타구
- 백자팔각병
- 백자편병
- 백자편호
- 분사연화무늬사발
- 백자항아리
- 분청사기연꽃무늬항아리
- 상어피술병
- 청자상감국화무늬남작항아리
- 청자흑백상감국화문마상배
- 회청자초화무늬매병



옹기
3-ㄴ-1

- 조선초옹기
- 오지소줏고리
- 소줏고리(2)
- 경기도독
- 경상도독
- 서울독
- 충청도독
- 전라도독
- 자리병
- 유문칠무
- 제사기구
- 약탕관(2)
- 양념단지들
- 익시루
- 오지술
- 질시루
- 몽나물시루
- 초항아리
- 춧병
- 질동이
- 부시장
- 술병, 장기알
- 연적틀
- 서래기
- 수저통
- 질술

- 채반
- 필세
- 챗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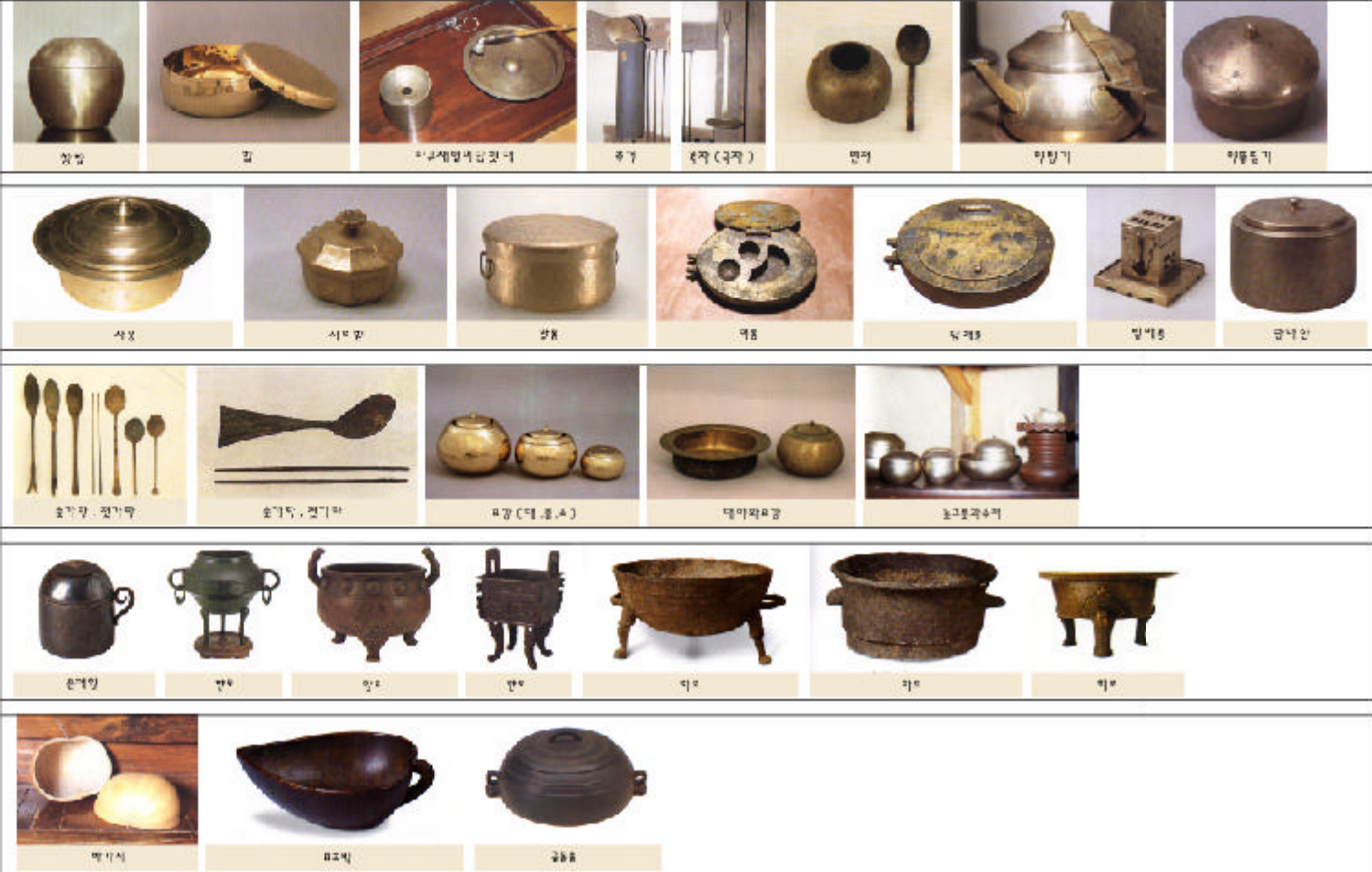
한국의 버네클러 디자인 품목별 분석

3. 용기

- 유기
 - 3-L-3
 - 향합
 - 합
 - 타구재떨이, 담뱃대
 - 주걱
 - 복자
 - 연적
 - 약탕기
 - 약뜸질기
 - 세웅
 - 사리함
 - 밥통
 - 떡통
 - 담배통(2)
 - 담배합
 - 술가탁, 찻가탁
 - 요강(대, 중, 소)
 - 놋그릇과 수저

- 금속
 - 3-L-4
 - 은제합
 - 향로(3)
 - 화로(3)

- 기타
 - 3-L-5
 - 바가지
 - 표주박
 - 곰들술



4-1 탁자

- 사방탁자 — 시흥사방탁자장
- 4-1-1
- 제탁 — 이충제탁
- 4-1-2 — 제기궤탁자
- 탁자 — 5층탁자
- 4-1-3 — 주도칠삼층탁자장
- 죽장2층탁자
- 죽장3층탁자



4층사방탁자장, 이충제탁, 제기궤탁자, 5층탁자, 주도칠삼층탁자장, 죽장 2층탁자, 죽장 3층탁자

4-2 상

- 경상 — 경상(2)
- 4-2-1 — 죽장경상
- 서안 — 나전서문서안
- 4-2-2 — 서안(2)
- 소반 — 해주반
- 4-2-3 — 나주반
- 통영반
- 호족반(송주반 2)
- 원반
- 반월반
- 공고상(2)
- 두리반(2)
- 사각반
- 잔상(2)
- 제상
- 연상 — 직(장)방형연상(3)
- 4-2-4 — 죽장연상
- 화류연상
- 무늬연상



3상, 3상, 무늬경상



나전서문서안, 서안, 서안



해주반, 나주반, 통영반, 호족반, 원반, 반월반, 공고상, 두리반, 사각반, 잔상, 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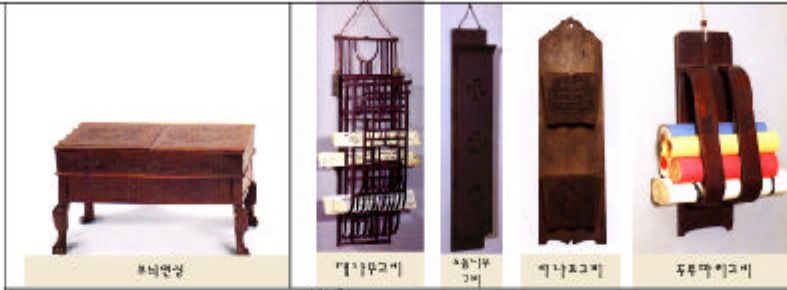
죽장연상, 화류연상, 무늬연상



죽장연상, 화류연상, 무늬연상

4-3 고비

- 대나무고비
- 오동나무고비
- 배나무고비
- 두루마리고비



4-4 장

- 약장 — 약장
- 4-4-1
- 옷장 — 의걸이장
- 4-4-2 — 이층장
- 이층투각무늬의거리
- 책장 — 지장삼층책장
- 4-4-3 — 2층책장
- 찬장 — 2층찬장
- 4-4-4



4-5 함

- 관대함
- 서류함(2)
- 지함
- 팔각함
- 예물함



4-6 뒤주

- 뒤주
- 잠곡뒤주
- 통나무뒤주



4-7 반닫이

- 밀양반닫이
- 남한산성반닫이
- 강화반닫이



4-8 문갑

- 단문갑(2)
- 화류문갑



4-9 기타

- 경대(3)
- 바둑판
- 팔모함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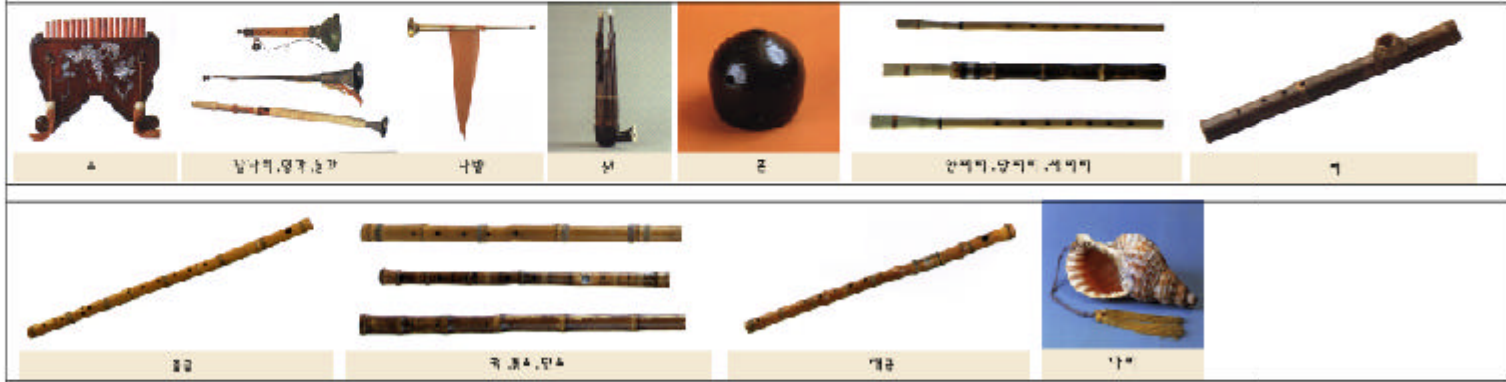
5-1 현악기

- 거문고
- 소공후
- 수공후
- 향비파
- 월금
- 가얏고
- 아쟁



5-2 관악기

- 소
- 날나리, 영각, 농각
- 나발
- 생
- 훈
-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
- 지
- 중금
- 적, 통소, 단소
- 대금
- 나리



5-3 타악기

- 영도
- 도
- 운라
- 축
- 고방고
- 징, 뿔가리
- 절고
- 자바라
- 소고
- 부
- 박
- 길고
- 대고
- 고(2)
- 장고



한국의 버네클러 디자인 품목별 분석

6. 농기구

6-1 가공

- 풍구
- 키
- 도리깨
- 물방아
- 디딜방아
- 연자매
- 메
- 맷줄과 다리
- 맷줄
- 돌절구
- 나무절구
- 청주절구
- 되
- 구유
- 물레(2)
- 국수물
- 전지
- 낱줄
- 작두
- 씨아(2)
- 짚신물



6-2. 경작

- 씨래
- 평상씨래
- 밭나래
- 번지
- 고씨래
- 보습
- 따비
- 밭고무래
- 보무래
- 골방매
- 가래
- 김퀴
- 쇠스랑
- 호미
- 거름대
- 밭낫
- 밭낫



한국의 버네클러 디자인 품목별 분석

7. 짚풀류

7-1 저장(보관)

- 풀뒤주
- 바구니
- 섬
- 달걀꾸러미
- 달걀망태
- 닭동우리
- 둥구미
- 바구니
- 쌀독
- 지승호리병
- 통발
- 쌀독



7-1



7-2 생활

- 누에섬
- 낮망태
- 도래방석
- 갈방석
- 저자망태
- 닭동우리
- 둥구미
- 동고리와 도시락
- 삼태기모양 둥구미
- 메주들
- 박다귀, 박다귀고리
- 삼태기
- 키
- 정동벌립
- 채반
- 빗자루
- 소쿠리
- 도롱이



7-2



8-1 등잔

- 목등잔(목제등잔)
- 유제등잔(목제등잔)
- 도자등잔(2)
- 등가
- 벽걸이 등잔
- 좌등
- 제등(초롱)
- 조족등
- 호아등



목등잔



유제등잔과 등잔대



도자등잔



상좌등



등가



벽걸이 등잔



좌등



계등(초롱)

8-1



조족등



호아등

8-2

8-2 촛대

- 청동 촛대-형제촛대
- 8-2-1
- 무쇠 촛대-은입사희자문무쇠촛대
- 8-2-2
- 철제 촛대
- 8-2-3
- 목제 촛대-목제촛대
- 8-2-4 촛대
- 유제 촛대-촛대,
- 8-2-5 백동연화장식쌍촛대



형제촛대



은입사희자문무쇠촛대



철제촛대



목제촛대



촛대



백동연화장식쌍촛대



유제촛대

8-2-1

8-2-2

8-2-3

8-2-4

8-2-5

8-3 석등

- 불전처의 석등-옥구발산리석등
- 8-3-1 동원미륵사지석등
- 홍도사세존비각알석등
- 부도처의 석등-익산미륵사지육각석
- 8-3-2 해인사원당암6각석등
- 능처의 석등-대종현릉의 장명등영옥
- 8-3-3
- 묘처의 석등-한양조씨조위묘장명등
- 8-3-4



옥구발산리석등



동원미륵사지석등



홍도사세존비각알석등



익산미륵사지육각석

8-3-2



해인사원당암 6각석등



대종현릉의 장명등

8-3-3



한양조씨조위묘장명등

8-3-4

9-1 붓

- 9-1-1 붓과받침대
여러가지붓



쓰기 받침대



여러가지붓



붓



붓

필통

- 9-1-2 죽제팔가
- 목제팔각필통
- 목제사군자십장생문8각통



죽제팔가



목제팔각필통



목제사군자십장생문 8각필통

9-2 벼루

- 9-2-1 벼루
 - 금연
 - 난월연
 - 매죽무늬달월연
 - 문무연
 - 송지니호부연
 - 신구연
 - 칠벼루
 - 청송화석갑과석합연
 - 청송화석반라연
 - 팔괘연
 - 벼루
 - 벼루2
- 9-2-2 연
 - 연적
 - 연적들



금연



난월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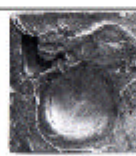
매죽무늬달월연



문무연



송지니호부연



신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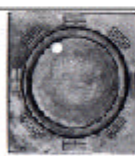
칠벼루



청송화석갑과석합연



청송화석반라연



팔괘연



벼루



벼루2



연적



연적들



1. 2000년 1월 1일부터
2. 2000년 1월 1일부터
3. 2000년 1월 1일부터
4. 2000년 1월 1일부터
5. 2000년 1월 1일부터
6. 2000년 1월 1일부터
7. 2000년 1월 1일부터
8. 2000년 1월 1일부터
9. 2000년 1월 1일부터
10. 2000년 1월 1일부터

9-3 먹

- 9-3-1 채색먹
무채먹
- 9-3-2 먹통
 - 먹물통
 - 먹통(2)
 - 타원형먹통
 - 행연
 - 묵적



채색먹



무채먹



먹물통



먹통(2)



타원형먹통



행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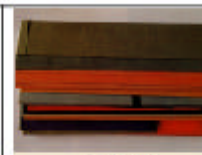
묵적

9-4 종이

- 색간지봉투
- 색간지
- 색지두루말이
- 서간통
- 부채
- 책



색간지봉투



색간지



색지두루말이



서간통



부채



책



책

9-4

10-1 금속

- 고리·뿔침대
 - 10-1-1
 - 금동부조문비고리
 - 천도형 고리
 - 동근형과화형문고리
 - 몽방형뿔침대
 - 추석제뿔침대
 - 타출된뿔침대
- 자물쇠
 - 10-1-2
 - 은철자물쇠
 - 선자물쇠
 - 적석형자물쇠
 - =자형자물쇠
 - 물형자물쇠
- 경첩
 - 10-1-3
 - 실패형경첩
 - 약과형경첩
 - 저고리형경첩
 - 철보문경첩
 - 호리병형경첩
- 감잡이 귀잡이 툽귀쌈
 - 10-1-4
 - 물통감잡이
 - 국수형감잡이
 - 새발감잡이
 - 철보문귀잡이
 - 만자문귀잡이
 - 석류형툽귀쌈
- 들쇠
 - 10-1-5
 - 박쥐형들쇠반침
 - 박쥐형들쇠
 - 수파편문양
 - 생제비형들쇠반침
 - 원자형들쇠
 - 조이판들쇠반침과들쇠
 - 배꽃형들쇠반침과박쥐형들쇠



10-2 락새, 전

- 락새
 - 10-2-1
 - 수락새
 - 임락새
 - 귀면연꽃무늬수락새
 - 얼굴무늬수락새
 - 화엽 선무늬수락새
- 전
 - 10-2-2
 - 소나무문
 - 만자문
 - 회문



10-3 직물

- 동물문양
- 식물문양
- 조류문양
- 물고기문양
- 곤충문양
- 추상문양



한국의 버네클러 디자인 품목별 분석

10.문양

10-4 단청

- 천장반자초와문양
- 천룡사 드림주의
- 현무문양단청
- 연꽃문양단청
- 연화머리초
- 물레금문양
- 귀갑금문양



10-4

10-5 부채

- 흑칠전선
- 함죽선
- 세미선과 태국선
- 연엽선과 굴정통영단선
- 연엽선
- 담양피죽팔덕선
- 나주곡두유지선
- 울선
- 대관선
- 통영미선
- 곡두선
- 효자선



10-5



10-6 종이공예

- 반점고리
- 실현
- 지사각상자
- 지갓
- 갓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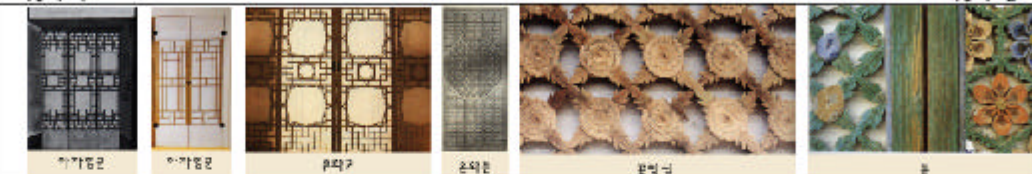
10-5

10-7 창호

- 세살문
 - 정자살문
 - 띠살문
 - 빛살문
 - 숲을빛살문
- 완자문(2)
- 아자문(2)
- 혼화문(2)
- 꽃살문(2)



10-7-1



1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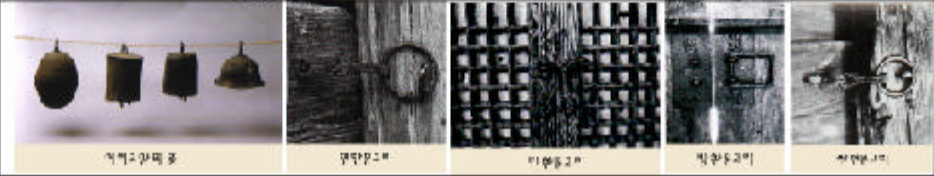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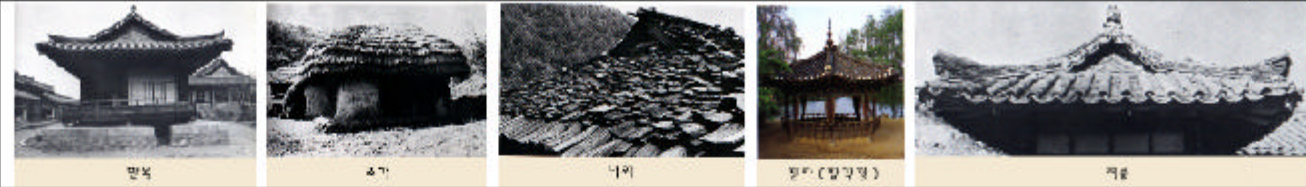
10-7-4

10-7-5

10-7-2

11-1 건물

- 11-1-1 한옥
- 11-1-2 초가
- 11-1-3 너와
- 11-1-4 정자
- 11-1-5 지붕(기와지붕)
- 11-1-6 들보와서까래
- 11-1-8 기둥과 주춧돌
- 11-1-9 창
 - 봉창
 - 광창
 - 창문
- 11-1-10 수장(3)
- 11-1-11 대문
- 11-1-12 기단과 계단
- 11-1-12 석장식
 - 종경과 종
 - 문고리
 - 들찌귀
 - 비녀장
 - 들쇠(등자쇠)
- 11-1-13 굴뚝
 - 강회굴뚝
 - 금쪽
 - 널구새
 - 통구새



11-2조경

- 11-2-1 민가의조경(경주양동마을)
- 11-2-2 마당(최성호가옥)
- 11-2-3 후원
- 11-2-4 우물



11-2-1 11-2-2 11-2-3 11-2-4

11-3 상징물

11-3-1 솟대

- 전남화순군솟대
- 강원도삼천군솟대
- 전북부안군솟대(3)
- 전북계화군솟대
- 강원도홍천군솟대(2)
- 경기도광주군솟대(2)
- 지하정군괴솟대
- 전북남원군솟대
- 전북순창군솟대
- 할아범장승



11-3-1



경기도 광주군 솟대, 전북 남원군 솟대, 귀족 순창군 솟대, 전북부안군 솟대, 할아범장승

11-3-2 장승 (3)



장승, 장승, 장승

11-3-3 무덤

- 노암리 고인돌
- 무덤



노암리 고인돌, 무덤

11-3-3

12-1 목공가공용

- 방개톱
- 쥐꼬리톱
- 천목톱
- 장자자
- 기자자
- 연귀자
- 그으개
- 먹통
- 평밀이
- 생사밀이
- 개탕
- 굴림대패
- 변탕
- 출치기
- 활비비송곳
- 들대송곳
- 환
- 옥끼귀(2)
- 호비칼
- 골



12-2 대장간연장

- 붙집계(2)
- 붙집계의부분
- 붙삼
- 부지경이
- 각종망치
- 쇠매
- 찍(바닥)망치
- 곡모루망치와명모루망치
- 각종집계
- 반동금집계
- 각집계의모양
- 가위집계
- 방울집계
- 익은쟁
- 곡날정망치



12-3 부질간연장

- 번기쇠를
- 번기(2)
- 각종숫대
- 무질



번기쇠를

번기 (각종숫대)

번기 (난방번기)

각종숫대

무질

12-4 유기간연장

- 허리도가니집게
- 우김질도리미
- 전집게
- 제질망치
- 각종제질집게
- 황새망치



12-3

허리도가니집게

우김질도리미

전집게

제질망치

각종제질집게

황새망치

12-5 은방연장

- 각종베알레
- 바닥정갈이
- 각종바닥정갈이
- 줄임망치
- 뒹뒹망치
- 각종목망치
- 손저울
- 침은쇠
- 골은기워



12-4

각종베알레

바닥정갈이

각종바닥정갈이

줄임망치

뒹뒹망치

각종목망치



12-5

손저울

침은쇠

골은기워

12-6 장식방연장

- 물림집게
- 비비송곳
- 그음쇠
- 석두
- 잡잡이망치와다들망치
- 각종청



12-6

물림집게

비비송곳

그음쇠

석두

잡잡이망치와다들망치

각종청

한국의 버네쿨러 디자인 품목별 분석

13.기타생활용품류

13-1 금속

- 낫그릇
- 수저
- 숟
- 풍구
- 가위
- 칼
- 시루칼
- 낫
- 호미
- 대아와요강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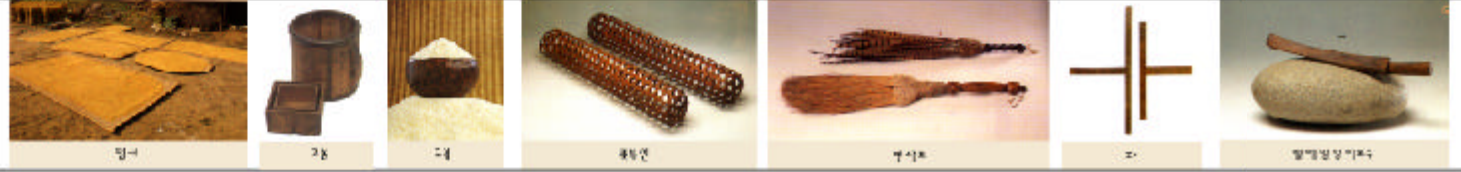
13-1

13-2 나무

- 도마
- 주걱
- 떡구유와떡매
- 조리
- 바가지
- 채
- 양석
- 고봉(2)
- 죽부인
- 비자루
- 자
- 빨래방망이
- 실패
- 돗자리
- 장기
- 바둑판
- 표주박
- 찬합
- 살명상



13-2



13-2



13-2

13-3 돌

- 절구
- 멧돌
- 디듬이
- 웅기등잔
- 부손
- 웅기양념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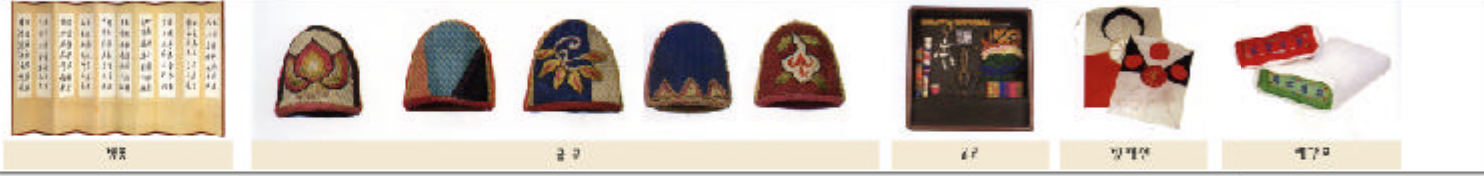
13-3

13-4 종이, 천

- 실집
- 종이합
- 지장삼송장
- 지롱
- 지송반
- 지송그릇
- 종이주머니
- 지송합
- 병풍
- 골무
- 방패연
- 배것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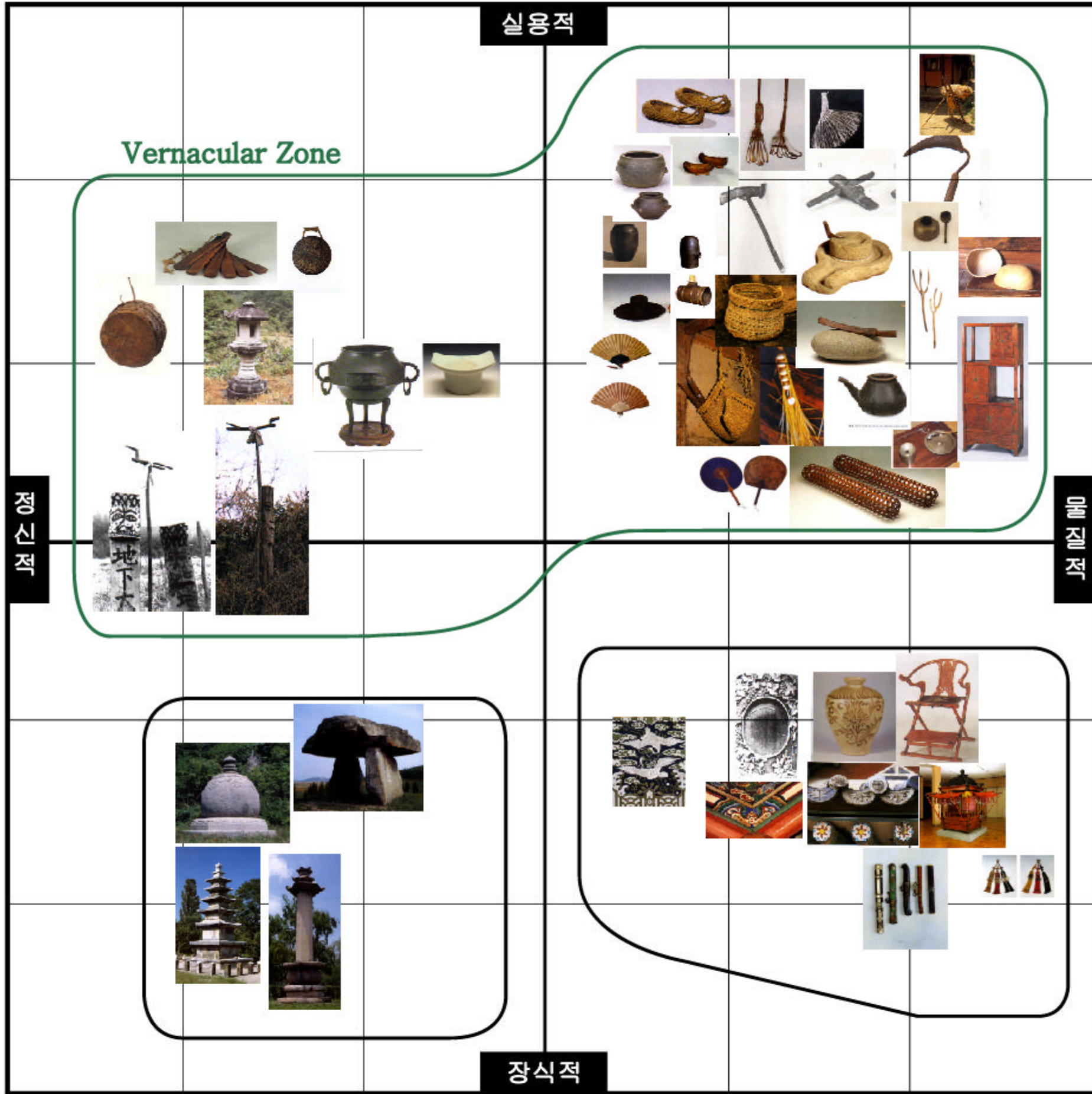


13-4



13-4

VERNACULAR DESIGN의 범위



연구범위

조선시대 이후

조선시대 버네쿨러 디자인은 민속적 전통아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진화의 마지막이며, 버네쿨러 디자인은 진화과정과 같아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요소는 사라지고, 시대성과 풍토성에 적합한 제요소들이 남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디자인에 수용하기에 적합한 요소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다.

일반서민에 의해 널리 사용된 생활도구

-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일시적으로 개혁된 물건이 아닌, 장식이 절제된 소박한 생활의미를 가진 일반 서민층의 생활도구(수공예, 수공업품 포함). 즉 육체적 노동경감을 위한 실생활에서 만들어진 실제 기능에 의한 도구

- 사회적 신분상징, 종교의식에 관계된 Cermonial 기능의 산물, 개인 기호에 의한 장식 미술 공예품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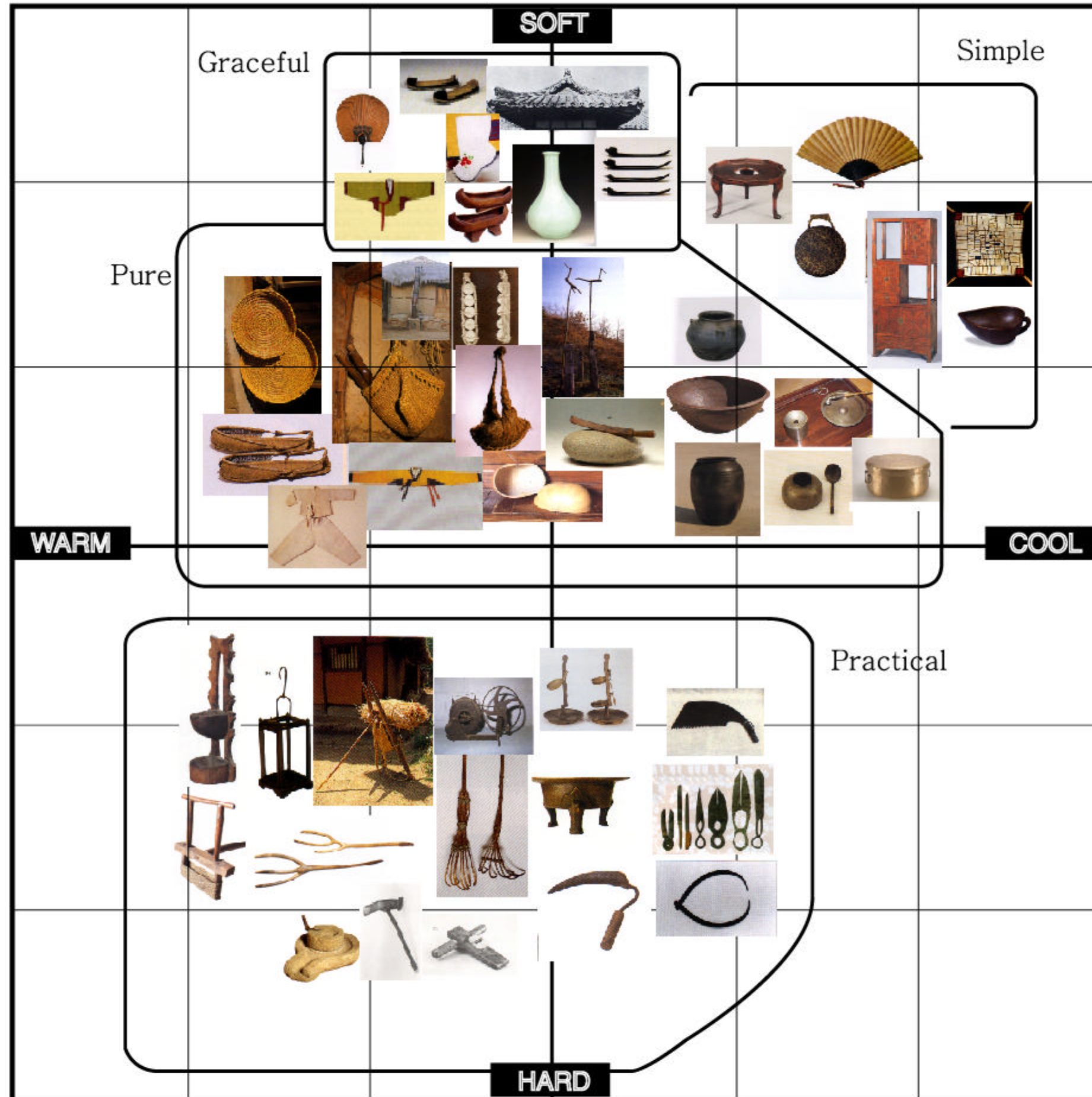
세부의 각 틀보다 총체적 입장에서 체계적 정리를 우선

- 미적 특질은 각영역(건축, 도자기, 가구, 단청, 의상 등)에 고루 나타나, 한두가지로 다정하고, 각 영역마다 다르게 해석하기 어렵다.

- 사용계층별 (귀족, 서민, 남성, 여성) 미의 성격이 다르다.

- 각 시대별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등) 미적 특질이 다르다.

VERNACULAR DESIGN IMAGE ZONE



한국 버네쿨러 디자인의 형성 요인

자연주의적 미

- 기후와 지리적 특성은 온화함과 사계가 분명한 자연의 아름다움에 영향을 받아 자연주의적 미의식 생성, 자연과 인간을 구분짓지 않고, 조화롭게 대처하는 낙천적, 소박한 민족적 미의식

중용의 미

- 조선시대 민중의 정신적 내면의 세계를 지배한 것은 샤머니즘과 불교의 내세에 대한 행복추구를 긍정적 면으로 발전하여 한국인 특유의 근기와 낙천적 기질을 만들고, 유교적 금욕주의 생활규범이 한국의 버네쿨러 디자인의 정신적 배경인 절제, 소박, 무장식, 무화의 미의식을 형성하였다.

- 농민들의 자급자족 형태의 생산수단과 생활수준 때문에 기호품, 무화상품은 생각지 못했으며, 가식없고 순수하게 대지에 임하는 생활도구가 장식이 절제된 기능 위주의 소박한 형태와 보편성을 표출

종합의 미

물과 인간과 주어진 환경을 구별시키지 않고, 함께 생각하는 자연과 합일의 정신이나 중용의 정신이 합해진 총체적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Key Image Word

- Pure Natural (warm, cool) : 자연미, 단순, 소박 건강, 여유, 포근
- Simple Natural : 단순, 간결, 자연미, 기능적 구조
- Graceful Natural (맵시있는 네추럴) : 맵시, 자연미, 유연한 곡선, 소박
- Practical Natural (실용적 클래식) : 기능적, 안전성, 소박, 자연스러움

PRACTICAL



- 특징

농기구 및 연장

자연의 재료 및 구조를 그대로 이용하고, 세부
의 용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간결하면서
도 튼튼한 전체구조를 제작방법과 함께 자연스
러운 결합의 결과물이다. 거친 마무리에도 불구
하고, 재료가 갖는 자연미와 장식을 절제한 기
능적 형태에서 오는 건실한 구조미가 돋보임.

등

등잔부위의 간편한 높이 조정 및 고정의 간편한
방법과 제작성과 조화되어 나타나는 자연스러
운 구조미를 가지고 있다. 등잔은 소박하고 수
수한 멋을 풍기며 안정성을 나타낸다.

생활용품

생활에 필요한 기능에 따라, 재질의 특성을 자
연스럽게 이용 하였으며, 단순 형태와 함께, 사
용성, 제작 기술등이 탁월한 조화를 이루는 것
이 특징이다.

Key Word

기능적, 안정성, 소박, 자연스러운 구조

SIMPLE NATURAL



- 특징

가구

재료가 갖는 자연미와 장식을 절제한 기능적 형태에서 오는 단순하고, 건실한 구조미와 나무결 무늬를 최대한 살린 소재미가 돋보인다.

한글

기하학적이며, 단순하고 체계적이며, 어느 문자보다도 과학적이고, 기능적이며, 효율적인 문자다.

조각보

한국의 보자기는 조각보에서 볼 수 있듯이 곡선적인 표현보다는 직선과 사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조각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실용과 구성미가 배어나다.

천장, 문

한옥의 건물구조를 지탱하는 기둥과 서까래, 창문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자연과의 조화를 잘 이루며, 장식요소를 최대한 억제한 소박미.

부채

쓰지 않을 때는 접어두었다가 필요할 때는 펴서 부치는 부채는 기능과 장식이 존재하는 인간도구의 이상적 형태이며, 제작의 간편성에 비해 뛰어난 내부 견고성을 지니고 있다.

Image Word

단순한 간결미, 자연적 소재미, 기능적 구조미

PURE



- 특징

짚풀문화 : 짚으로 만든 물건(신발, 돛자리, 계란꾸러미, 지붕)들은 자연의 재질, 구조의 성질을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소박 평온하며 친밀한 미를 느끼게 한다.

초가집 ; 초가지붕의 둥글고 매끄럽지 못한 선은 우리 동네의 나직한 산등성이와 닮았다. 이러한 한옥은 인간의 삶이 자연과 하나가 되도록 이루어진 열린공간이며, 초가지붕은 자연의 재료를 그대로 사용한 수수하고 솔직, 소박한 맛이 있다.

·무덤 : 무덤은 작은 산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 평온하며, 단순, 소박하며 자연을 살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선조의 지혜가 담겨 있다.

유기 : 색채를 띄는 금공품이 그리 많지 않았으며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느낌을 주는 생활용품이 많이 제작되었다.

·방망이 : 밤의 아늑한 공간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소리, 방망이는 자연스럽게, 소박, 평온한 느낌을 준다

박 : 크기와 형태를 이용하면 박은 두레박, 뒷박, 사발, 막걸리잔, 탈바가지 등의 용기로 다목적 기능을 띠게 된다. 이것은 자연 재료를 그대로 살린 소박한 자연미를 표출한다.

옹기 ; 투박스런 빛깔과 불룩한 몸통은 청자나 백자에서 느낄 수 있는 세련됨이나 우아함은 없어도 소박한 자세에서 어머니 품과 같은 포근함, 넉넉함, 안락함을 준다.

자기 : 백자의 단정한 흰빛깔과 의젓한 곡선은 솔직한 미와 곡선미, 은은하고 소박한 넉넉함이 느껴진다.

한복 : 한복은 직선과 곡선의 조합으로 조화를 이루며 이 곡선은 현란하거나 복잡한 곡선이라기 보다는 자연의 이치로부터 얻은 자연스러운 선, 편한 선의 추구라는 내면적 의지의 표출이며, 한복은 단순 소박미, 곡선미, 여우미로 집약될 수 있다.

Image Word : 자연미, 단순, 소박, 건강, 여유, 포근

GRACEFUL NATURAL



- 특징

버선

발의 형태를 곡선과 직선으로써 우아하고 세련되게 표현하여 여성의 심상이 표출되며, 구조적으로 탈, 착용과 세탁이 편리하게 되어 있으며, 절제된 곡선으로 맵시있게 표출되었다.

신발

신발하단부의 구조 및 형태는 보행의 편리성과 변형을 대비하여 곡선을 취하고, 버선코와 함께 그 섬세한 형태와 추상적 선은 한국의 자연 감각의 원형이다.

백자

백자에서 볼 수 있는 단정한 흰빛깔과 둥근맛은 원만하고, 유연하면서 절제된 곡선을 지니고 있으며, 보는 이들을 편안하게 하며, 가공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우리민족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지붕선

기와집의 하늘을 나는 듯한 지붕선은 우리 민족의 날렵하고 세련된 미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왕궁이나 사찰 외에는 단청이 금지되어 무채색의 대비된 색조로 꾸미지 않은 소박한 모습이 선비사상과 부합된다.

호족반

상판은 간단한 모양이며, 다리는 개, 말, 호랑이 등의 다리모양을 단순화한 형태로 경쾌한 면과 선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튼튼한 느낌이 강조되어 있다.

서안

날렵하게 양끝이 위로들린 서안에서는 수수하지만 가볍지 않은 품위가 내비친다. 선비들의 취향과 장인의 숨씨가 어우러져 질박한 한국의 미가 엿보인다.

Image Word

자연미, 맵시, 유연한 곡선, 소박

제 4장 연구의 종합과 결론

제 1절 연구의 종합

‘버네쿨러 디자인을 통한 환경물의 고유성 창조를 위한 응용개발 연구’를 주제로 본 연구과정에서는 두 분류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방대한 자료의 수집과 그에 따른 총체적 분류와 분석을 통해 본 과제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환경시설물의 영역에서는

- 환경시설물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정립
- 환경시설물을 창출하는 디자인적 요소 파악
- 환경시설물의 구성재료 분석등을 통해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였고
- 국내·외 환경시설물 현황, 분석 과정에서 국내의 환경시설물 분석과 국외의 환경시설물 현황에서는 선진사례(11개국)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정리·체계화 하였다.
- 디자인 적용과 사례분석 단계에서는 31가지의 환경시설물에 대한 각각의 디자인적 요소파악과 특성과 재질 파악을 통해서 앞으로의 환경시설물 관련 작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버네쿨러 디자인의 영역에서는

- 한국의 버네쿨러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 버네쿨러 디자인의 품목별 분석에서는 총체적 버네쿨러 디자인의 체계도를 확립하였다. (13품목 760가지)
- 분석된 13개 품목별에 대해서 가능한 개개의 요소에 대한 정리와 설명을 첨가하여 정리하였다.
- 총체적으로 정리된 자료에 대한 이미지 설정과정과 설문조사 및 분석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차후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분석은 부록에 첨가하였다.

따라서 버네쿨러 디자인을 통한 환경시설물에 대한 연계성 확보와 실제적 디자인 적용사례는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 차이점이 나타날 수 있는 관계로 환경시설물 영역 중 디자인 적용과 사례분석 단계에서 31가지의 예시 모델을 제시하였고, 버네쿨러 디자인에 대한 총체적 자료를 통하여 앞으로 환경시설물 영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제 2절 결 론

오늘의 시점에서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빠른 발달과 움직임에 우리사회의 많은 분야가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사회에 더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은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힘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지식들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 고유의 문화를 재창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 같다. 이에 합당한 의미로서 디자인의 원천적이고, 근본이 되는 버네쿨러 디자인의 특질은 전래되어온 민족적, 토속적 생활도구에 내재하는 민족의 독특한 미적 감수성과 기능에 대한 노력에 있으며, 이를 연구 정리함에 있어서 미술공예나 민속공예(대체적으로 전통장인들에 의해 전승되어 내려오는 공예품류-)의 관점에서 벗어나 서민들의 실생활에서 창출되었던 진 모습에서 보여진 물품들에 대해서 디자인적 시각으로 대상에 접근, 연구, 분석하는 것이 주제에 맞는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이상과 같이 정리하여 볼 때- 버네쿨러 디자인이란 생활전반에 걸친 환경을 대상으로 일반 대중들이 그 주체를 이루고 있으며, 그 지역의 사회와 문화적 전통에서 이루어져온 문화의 실체이다. 지방성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고, 지역적인 풍토적 속성을 반영한 것으로 생활속의 일상적인 개념이나 습관적인 방법에 의해 표현되어졌던 사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버네쿨러 디자인에 대한 특질적인 요소들은

1. 대상과 욕구는 실생활 도구가 중심을 이루며, 실생활의 욕구에서 이루어졌다.
2. 제작과정은 일상적 개념이나 습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3. 제작자는
 - 일반서민에 의해서 창출된 물품이 대부분이다.
 - 작가미상(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또는 알려지지 않은-)의 제품들이다.
 - 특수집단에 의해 파생되어진 물건이 아닌 소박, 단순한 물건들이 주종을 이룬다.
 - 대체로 마감처리가 정교하지 않은 투박한 맛을 지니고 있다.(가정에서 만들어졌던 일련의 물품은 제외)

이는 자연에 순응하는 민족적 기질과 생활의 소박한 미의식이 무의식 중에 투영된 버네쿨러 디자인의 속성을 의미하며, 그에 따른 민속생활도구들은 다소 거친 마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물건들은 재료가 갖는 ‘자연미’와 ‘장식을 절제한 기능적인 형태’에서 오는 ‘건실한 창조미’가 엿보인다.

이는 자연의 구조와 재질, 자연 본연의 형태를 이용한 서민문화의 주체를 전달해 주는 깊은 의미와 암시를 담고 있다.

즉, 우리가 버네쿨러 디자인의 개념에서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할 때는 자연

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주제이고 문화의 한 부분에만 충족시킬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버네쿨러 디자인은 우리에게 무한의 느낌을 제공하며 그 가치가 존재한다 볼 수 있다. 바꿔 설명하면 “버네쿨러 디자인의 정신적 바탕은 자연이며, 그 실체 또한 자연이고, 그리고 그 주체 또한 자연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버네쿨러 디자인과의 연계성 구축을 위하여 버네쿨러 디자인의 특질적 요소중 하나인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환경시설물 영역에 ‘고유성 창조’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는 역사와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환경시설물의 디자인적 위치 확립과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오늘의 우리 현실에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인간, 환경과 사회, 그리고 자연의 울타리 안에서 공유해야하는 공간에서의 환경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만큼 크기 때문이다.

환경시설물의 특징 및 요소별 분류(8가지)에서 연구되어진 내용에서 보듯이 환경시설물이 재창조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그 파급효과와 기대 효과는 크다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과제에서 축약된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환경시설물의 기초적 자료위에 국내,외 환경시설물의 현황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전체적 개념으로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한울타리의 환경속’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 환경시설물의 8가지의 요소별 특징과 사례분석을 통해서 차후 디자인의 적용과 개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조형가치와 문화적 가치 그리고 체계성에 그 합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3. 버네쿨러 디자인의 정리, 분석 과정을 통해 구축된 자료(D/B)를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우리문화의 고유성 확립에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에 그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버네쿨러 디자인을 통한 환경시설물의 연계성 확보와 그에 따른 디자인 개발과 연구는 관찰자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 관계로 31가지의 예시 모델을 통해서 디자인을 전개하는 방법에서의 효과적 방향을 제시하며 보편성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하여온 연구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 자신들이 지켜야 할 문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재창조해야 할 문화-즉 우리문화의 실체인 버네쿨러디자인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본 연구를 통해서 기초적 자료가 재정리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었다 생각한다. 또한 다가올 문화의 세기에 우리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버네쿨러 디자인의 체계적 분류를 통해 우리문화의 고유성 창조를 위한 연구와 노력의 결실들이 디자이너 그리고 미래의 디자이너들에게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부 록

1. 총괄일정표와 Check List
2. 설문조사 및 분석 (버네쿨러 디자인)
3. 협조공문
4. 참고문헌

4. 총괄 일정표와 CHECK LIST

분기	범위	내용	진행일정																								비고 (●만족 ◐보통 ○미완성)							
			1/2	1	1/2	2	1/2	3	1/2	4	1/2	5	1/2	6	1/2	7	1/2	8	1/2	9	1/2	10	1/2	11	1/2	12	내용	결과						
1/4	1. 연구의 내용 확정 · 내용의 검토 · 연구범위와 한계설정 · 연구방법의 검토 · 역할분담 검토	-주제, 진행일정 -연구내용의 일치성, 결과물예상 -문헌, 답사, 면담, 우편, 인터넷 -그룹별(4개 그룹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2/4	2. 자료조사 분석 · 문헌조사 · 관련기관방문 및 면담 · 답사 · 인터넷 · 해외전문인력	-국내 -환경시설물과 버네쿨러 관련문헌 -국외 -환경시설물과 버네쿨러 관련문헌 -국내 -도로공사, 시정개발연구소, 시청 등 -국외 -미국 : urban society city hall Museum (Met, Smithsonian) -일본 :Chiva 환경연구소 -국내 -고속도로 : 서울 - 부산 - 광주 - 부여 - 강릉 - 서울 -용인민속촌, 박물관, 미술관, 인사동, 청계천, 골동품가게, ---- 기타 관련 -국외 -미국(NY,NJ,PA,MD,MA) -일본(Tokyo, Chiva대학 환경연구소) -국내 -박물관, 미술관, 관련기관 -국외 -유럽 : 30여 생산업체 -미국 : 80여 생산업체 -미국 (LA, Chicago) -ENG, FR, GERMAN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 4/4	3. 사례연구와 적용단계 · 내용정리 및 검토 · 소위원회 구성 I, II · 사례 적용 및 디자인	-분석, 검토, 종합 -적용단계전(1차), 적용단계후(2차) -8개 영역으로 구분(대표적 사례 적용)																								●	◐		●		
																														●	◐		●	
■	■	■				■	■	■																			●			●				
4/4	4. 보고서 작성 · 최종내용 정리 · 편집인쇄 · CD 제작																									●			●					
																											●			●				
																											●			●				

● 부록 2.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의 계획

(1) 평가항목 설정

우리의 토속/민속제품들을 표현하는 모든 형용어를 브레인스토밍에 의해 추출하였다.

- 형용사는 두 가지 기준에서 수집하였다.
 - 토속/민속 제품들을 설명하는 적절한 형용사 또는 형용어를 수집
 - 선택된 용어는 반대 의미를 설정 (형용어가 正-不의 한 조를 이루도록 한다.)
- 다음과 같은 형용어는 선택하지 않았다.
 - 정반대의 의미가 없는 경우
 - 0점을 기준으로 대칭 되지 않는 경우
 - 일반적으로 사용(통용)되지 않는 형용어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토속/민속(버네쿨러)제품을 표현하는 약 100개의 형용어를 정리하였고, 이 형용어들은 버네쿨러제품을 표현하는 내용인 구성요소별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우선적으로, 설문대상인 토속/민속(버네쿨러)제품의 정신/정서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형용어와, 디자인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형용어로 구분하였다. 디자인 관련요소에서의 내용은 제품의 형태에 관련된 내용, 제품의 제작 과정과 마감 상태를 설명하는 제작 관련 내용, 제품의 기능과 사용에 관련된 내용에서의 형용어들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요소별로 분류된 형용어 중에서 총 20개의 형용어를 설문조사용 수식 질문 항목으로 선별하여 조사·분석하였다.

- 구성요소별 분류

1. 정신/정서 관련요소	정신적 요소 정서적 요소
2. 디자인 관련요소	형태관련 요소 제작관련 요소 기능/사용관련 요소

이에 따라 선별된 형용어를 의미척도 평가(Semantic Differential)인 SD법의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변별척도(스케일)는 의미척도 평가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7단계 평가척도로 하였고, 각각의 형용어가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어가 짝을 이루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토속/민속(버네쿨러)제품을 표현하는 20개의 평가용 질문 항목을 설정하여 이르 설문 조사하였다.

• 평가척도

+3	+2	+1	0	-1	-2	-3
아주그렇다	그렇다	약간그렇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그렇다	그렇다	아주그렇다

(2) 설문조사를 위한 질문항목 선정

버네쿨러제품을 설명하는 선정된 형용어를 구성요소별로 분류한 것이 아래의 (표1)이다. 설문대상인 정신/정서 관련요소와 디자인 관련요소의 형용어를 정신적, 정서적, 기능(용도), 제작(마감성), 조형의 5가지의 유형별(Category)로 분류하였다.

(표1: 설문조사를 위한 형용어)

구성 요소	형용어 분류	
① 정신/정서 관련요소	정신적	인위의 / 무위의 정신적 / 물질적 주관의 / 객관의 정적인 / 동적인 추상적 / 구체적
	정서적	내적 함축의 / 외적 표현의 서민적 / 귀족적 유연한 / 경직된 통합적 / 개별적
② 디자인 관련요소	기능(용도)	축제적인(다양한) / 일상적인(단순한) 만져보고 싶은 / 두고보고 싶은 한가한 / 번거로운 장식적 / 실용적
	제작(마감성)	솔직한 / 기교적인 대범한 / 세세한 작가적인 / 익명의 투박한 / 매끄러운
	조형	소박한 / 세련된 기계적인 / 유기적인 선이 굵은(강한) / 선이 고운(약한)

- 설문조사를 위한 형용어 분류 선정의 유의점

본 조사에서 몇 가지 유의하여야 할 유형별 형용어의 정의적 분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정신/정서관련 요소의 *유연한/경직된* 이란 항목은 온화한 이미지와 형식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형용어이며, 형태에 대한 형용어로도 적용 가능하지만 정서적 요소로 분류하였다. 디자인 관련요소에서의 *선이 굵은(강한)/선이 고운(약한)*은 형태에 대한 강한 이미지와 약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형용어로 간주하여 조형이라는 카테고리(Category)로 분류하였다. *투박한/매끄러운* 이란 표현은 표면의 질감에 대한 형용어로 사용하여 조사하였고, 디자인 관련요소에서의 *솔직한/기교적인 에 대한* 의미는 제작상의 마감정도에 대한 표현어로 설정하여 분류하였다.

(3) 설문조사를 위한 평가대상의 선정

본 연구과제에서 체계화 한 13개 품목 또는 영역중에서 버네쿨라디자인 제품의 근원적이고 상대적인 디자인적 관련요소와 정신/정서 관련요소에서의 분류에 입각하여 정신, 정서, 조형, 기능, 제작 등을 고려한 대표적인 20개의 제품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20가지 설문조사 대상 제품은 (그림 1)을 참조하기 바란다.

(4) 설문조사 방법

본 설문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① 실시 및 대상

실 시 : 1999년 9월 16일(목)과 9월 17일(금) 2회

실시방법 : OHP를 사용한 실물 사진을 보고 응답자가 직접 평가

실시시간 : 약 2시간 소요

대 상 : 서울의 H대 대학생(1학년 ~ 4학년)

② 설문조사 진행

설문조사 전에 약 30분에 걸쳐 설문 진행자가 대상자들에게 우리의 버나쿨라디자인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과 안목을 충분히 전달한 후에, 준비한 OHP를 사용하여 실물사진을 투시한 후, 응답자가 실물사진을 보고 각각의 설문 항목에 직접 평가하도록 하였다.

(표2: 설문조사지 Sample) 참조.

③ 응답자료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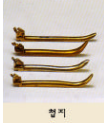
응답자 211명중 사용 가능한 자료인 총 119명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통계 분석용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시켰다.

④ 분석 과정 및 결과

조사된 자료를 Excel 데이터로 정리하여 각 제품별 질문 항목의 단순집계 및 대상 제품의 이미지 평가를 하였다. 각 Sample(평가대상/제품)별 항목의 득점표(SUM)와 평균값(AVE)을 설정하여 조사결과를 실었다.

- 그림1: 20가지 설문조사용 평가대상 제품

	Sample 1. 질솥		Sample 11. 솥대
	Sample 2. 명주조각보		Sample 12. 호족반
	Sample 3. 대패		Sample 13. 키
	Sample 4. 좌등		Sample 14. 활비비
	Sample 5. 2층 책장		Sample 15. 설피
	Sample 6. 소줏고리		Sample 16. 죽부인
	Sample 7. 등가		Sample 17. 주토칠 삼층탁자장
	Sample 8. 서울독		Sample 18. 자귀
	Sample 9. 호미		Sample 19. 순가락
	Sample 10. 널구새		Sample 20. 첩지

설문조사용 평가대상 제품은 본 연구 과제의 버네쿨러디자인의 13개 분류 품목에서 용기, 농기구, 도구, 환경물, 가구, 보자기, 조명, 장신구 등 8개 영역에서 추출하여 설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나.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본 설문조사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응답자의 평가를 단순 집계한 결과를 검토하여 보면, 질솔, 대패, 소줏고리, 서울독, 호미, 널구새, 솟대, 키, 설피, 자귀가 서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귀족적이라고 평가한 제품은 좌등, 2층책장, 주토킬 삼층탁자장, 첩지등 5개였다. 이 결과는 20대 초반에서 후반까지의 학생들에게 조사한 결과와 평가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2)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20개 각 제품 지니고 있는 제품 자체로서의 이미지 평가이다. 질문 항목별 각 제품의 득점(표3)과 평가제품의 항목득점(표4) 결과를 표로 정리하였고, 20가지 평가 제품 각각의 설문 결과를 그래프로 표기하여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뒤에 따로 첨부하였다.

(표3)의 질문 항목별 각 제품의 득점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최고/최대 득점만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는 각각의 20가지 제품이 20개의 질문항목 중에서 어떠한 표현어로 집약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예로, 질솔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과 서민적인 이라는 표현 형용어가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명주 조각보는 기교적인 과 추상적인 표현어로 선택되었고, 좌등에서는 한가한 과 두고보고 싶은 으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4)는 20개 선정 제품의 형용어 분류에서의 득점표이며, (표5)는 평가제품의 항목별 평균값을 명기한 결과이다.

• 그림 2: 설문조사용 제품의 이미지 평가

 <p>동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적 - 일상적인 	 <p>관반도 앉개은 초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적인
 <p>관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적 - 기교적인 	 <p>관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끄러운 - 만져보고 싶은
 <p>관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적 - 실용적인 	 <p>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적인 - 동적인
 <p>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가한 - 두고보고 싶은 	 <p>관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적인 - 인위의
 <p>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적인 - 외적 표현적인 	 <p>관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범한 - 실용적인
 <p>관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적인 - 서민적 	 <p>관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적 - 실용적인
 <p>관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져보고 싶은 - 정적인 	 <p>관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위의 - 구체적
 <p>관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가한 - 실용적인 	 <p>관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적인 - 실용적인
 <p>관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적인 - 서민적 	 <p>관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가한 - 추상적
 <p>관개 (관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박한 - 기교적인 	 <p>관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한 - 인위의 - 귀족적

(표3: 전체 질문항목별 각 제품의 득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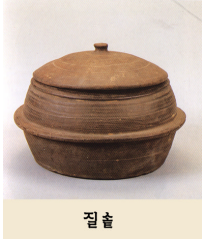
버네플러 제품	이미지 용어	매 끄 러운 투박한	선이 고운 (약한) 선이 굵은 (강한)	번거 로운 한가한	물결 적인 정신적인	무의의 인위의	개별적인 통합적인	외적표현 내적 함축	객관적 주관적	인성적인 속 제 적인	기교적인 솔 직한	세 련 된 대범한	신중적인 장식적인	세 세 한 대범한	동작적인 정적인	익명의 작가적인	구체적 추상적	귀족적 서민적	두고 보고 싶은 만져 보고 싶은	정 적 원 유연한	유기적인 기 계 적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질솔									-1.97								2.49			
2	명주조각보										-0.61						1.41				
3	대패												-1.97					2.24			
4	좌등			1.05																-0.94	
5	2층책장							-1.05							1.02						
6	소숫고리												-1.24					1.20			
7	등가														0.65					-0.67	
8	서울독			1.45									-1.32								
9	호미												-2.14					2.29			
10	널구세	1.67									-1.14										
11	숫대				1.47																
12	호족반	-1.29																	0.64		
13	키														-1.66		1.99				
14	활비비					0.85							-1.00								
15	설피											1.76	-1.65								
16	죽부인												-0.97					1.18			
17	탁자장					1.03											-1.05				
18	자귀												-1.53		1.63						
19	숟가락			1.05													-0.88				
20	철저					0.82												-1.43		0.82	

(표4: 평가제품의 항목득점표, SUM)

항목 \ 제품	1 결산	2 명주조	3 대패	4 좌등	5 2층책장	6 소꿉고리	7 등가	8 서울독	9 호더	10 널구세	11 숫대	12 호록반	13 키	14 활비비	15 설퍼	16 죽무인	17 주도결 삼층 탁자상	18 자귀	19 슬가락	20 침지
1.투박한 - 매끄러운	219	176	276	-82	-25	9	52	-36	151	199	-7	-154	148	-53	150	-21	-61	174	-70	-139
2.선이굵은(강한) - 선이고운(약한)	176	-5	242	-36	0	12	7	8	125	197	-77	-107	55	-88	137	1	-53	172	-88	-109
3.한가함(단순함) - 번거로운(복잡함)	201	-54	145	125	-38	100	21	173	171	143	89	0	93	93	124	14	63	173	125	54
4.정신적인 - 물질적인	-44	126	-133	44	-64	-18	-3	-47	-152	-19	175	-64	-74	-47	-97	-43	-18	-150	-32	18
5.인위의 - 무위의	21	74	108	122	131	60	74	55	124	99	92	113	100	101	102	131	123	110	86	98
6.통합적인 - 개별적인	26	10	-36	-72	60	5	-78	65	-93	2	13	-38	-12	-49	-39	-38	38	-53	-36	-76
7.내적 함축의 -외적 표현적인	-27	53	-82	-45	-125	-24	-54	-16	-120	-65	96	-62	-38	-18	-50	-10	-70	-48	-6	-72
8.주관의 - 객관의	-49	157	-78	-19	124	0	52	-25	-108	-27	140	-14	-76	-26	-58	26	-10	-106	-44	80
9.다양함(축제적인) -단순함(일상적인)	-213	45	-212	-86	-24	-137	0	-162	-191	-136	12	10	-119	-92	-136	-37	-52	-163	-68	37
10.솔직한 - 기교적인	246	-72	187	51	17	98	-43	151	172	92	10	-65	160	44	159	58	-4	155	33	-117
11.소박한 - 세련된	273	-71	238	-40	-90	125	-8	160	215	136	72	-68	208	34	210	40	-91	175	27	-116
12.장식적인 - 실용적인	-219	114	-234	-41	-99	-147	-2	-157	-255	-101	112	-62	-195	-119	-196	-116	15	-180	-80	68
13.대범한 - 세세한	157	-52	123	-37	-9	37	-48	85	76	128	-35	-73	13	-25	81	-23	-10	92	-37	-60
14.경적인 -동적인	129	55	-73	120	-56	7	77	123	-174	89	32	57	-73	-106	-86	12	103	-94	15	72
15.작가적인 - 익명의	-196	77	-210	17	143	-144	-10	-125	-242	-102	-48	7	-197	-97	-191	-115	103	-182	-59	76
16.추상적 - 구체적	-85	168	-166	-101	81	-100	-55	-81	-197	-83	130	-73	-128	-29	-124	-69	-52	-134	-105	-31
17.서민적 - 귀족적	296	6	267	-87	-117	143	28	145	272	137	103	-31	237	78	204	9	-125	194	2	-170
18.만져보고싶은 - 두고보고싶은	128	-24	145	-112	-65	115	-80	19	126	-48	-92	56	108	95	147	140	-74	131	60	11
19.유연한 - 경직된	-10	93	-77	-31	-55	111	15	35	35	-103	35	76	84	92	64	46	-49	-18	92	98
20.기계적인 -유기적인	-64	-68	155	-11	-3	-40	-36	-56	117	29	-76	-17	-8	93	-20	-8	39	124	-39	-64

(표5: 평가제품의 항목 평균값, 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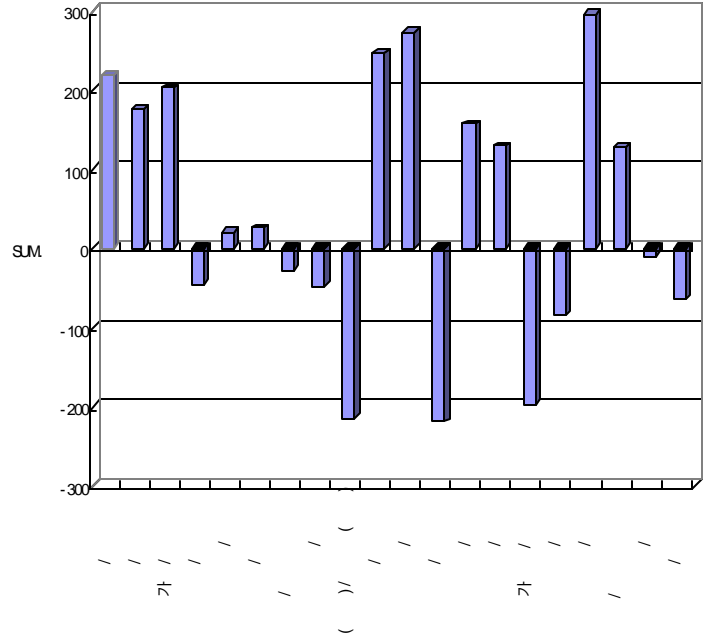
항목 \ 제품	1 점수	2 명주조	3 대패	4 좌동	5 2층좌장	6 소숫고리	7 등가	8 서울독	9 호미	10 년구새	11 숫대	12 호죽반	13 귀	14 활비비	15 설피	16 죽부인	17 주도칠 삼층박 자장	18 자귀	19 순가락	20 철지
투박한 - 매끄러운	3.65	0.42	4.6	-1.4	-0.4	0.15	0.87	-0.6	2.52	3.32	-0.1	-2.6	2.47	-0.9	2.5	-0.4	-1	2.9	-1.2	-2.3
선이굵은(강한) - 선이고운(약한)	2.93	-0.1	4.03	-0.6	0	0.2	0.12	0.13	2.08	3.28	-1.3	-1.8	0.92	-1.5	2.28	0.02	-0.9	2.87	-1.5	-1.8
한가한(단순한) - 번거로운(복잡한)	3.35	-0.9	2.42	2.08	-38	1.67	0.35	2.88	2.85	2.38	1.48	0	1.55	1.55	2.07	0.23	1.05	2.88	2.08	0.9
정신적인 - 물질적인	-0.7	2.1	-2.2	0.73	-64	-0.3	-0.1	-0.8	-2.5	-0.3	2.92	-1.1	-1.2	-0.8	-1.6	-0.7	-0.3	-2.5	-0.5	0.3
인위의 - 무위의	0.35	1.23	1.8	2.03	131	1	1.23	0.92	2.07	1.65	1.53	1.88	1.67	1.68	1.7	2.18	2.05	1.83	1.43	1.63
통합적인- 개별적인	0.43	0.17	-0.6	-1.2	60	0.08	-1.3	1.08	-1.6	0.03	0.22	-0.6	-0.2	-0.8	-0.7	-0.6	0.63	-0.9	-0.6	-1.3
내적 함축의 -외적 표현적인	-0.5	0.88	-1.4	-0.8	-125	-0.4	-0.9	-0.3	-2	-1.1	1.6	-1	-0.6	-0.3	-0.8	-0.2	-1.2	-0.8	-0.1	-1.2
주관의 - 객관의	-0.8	2.62	-1.3	-0.3	-24	0	0.87	-0.4	-1.8	-0.5	2.33	-0.2	-1.3	-0.4	-1	0.43	-0.2	-1.8	-0.7	1.33
다양한(축제적인)- 단순한(일상적인)	-3.6	0.75	-3.5	-1.4	17	-2.3	0	-2.7	-3.2	-2.3	0.2	0.17	-2	-1.5	-2.3	-0.6	-0.9	-2.7	-1.1	0.62
솔직한 -기교적인	4.1	-1.2	3.12	0.85	-90	1.63	-0.7	2.52	2.87	1.53	0.17	-1.1	2.67	0.73	2.65	0.97	-0.1	2.58	0.55	-2
소박한 - 세련된	4.55	-1.2	3.97	-0.7	-99	2.08	-0.1	2.67	3.58	2.27	1.2	-1.1	3.47	0.57	3.5	0.67	-1.5	2.92	0.45	-1.9
장식적인 - 실용적인	-3.7	1.9	-3.9	-0.7	-9	-2.5	0	-2.6	-4.3	-1.7	1.87	-1	-3.3	-2	-3.3	-1.9	0.25	-3	-1.3	1.13
대범한 - 세세한	2.62	-0.9	2.05	-0.6	-56	0.62	-0.8	1.42	1.27	2.13	-0.6	-1.2	0.22	-0.4	1.35	-0.4	-0.2	1.53	-0.6	-1
정적인 -동적인	2.15	0.92	-1.2	2	143	0.12	1.28	2.05	-2.9	1.48	0.53	0.95	-1.2	-1.8	-1.4	0.2	1.72	-1.6	0.25	1.2
작가적인 -익명의	-3.3	1.28	-3.5	0.28	81	-2.4	-0.2	-2.1	-4	-1.7	-0.8	0.12	-3.3	-1.6	-3.2	-1.9	1.72	-3	-1	1.27
추상적 - 구체적	-1.4	2.8	-2.8	-1.7	-117	-1.7	-0.9	-1.4	-3.3	-1.4	2.17	-1.2	-2.1	-0.5	-2.1	-1.2	-0.9	-2.2	-1.8	-0.5
서민적 - 귀족적	4.93	0.1	4.45	-1.5	-121	2.38	0.47	2.42	4.53	2.28	1.72	-0.5	3.95	1.3	3.4	0.15	-2.1	3.23	0.03	-2.8
만져보고싶은 - 두고보고싶은	2.13	-0.4	2.42	-1.9	-65	1.92	-1.3	0.32	2.1	-0.8	-1.5	0.93	1.8	1.58	2.45	2.33	-1.2	2.18	1	0.18
유연한 - 경직된	-0.2	1.55	-1.3	-0.5	-55	1.85	0.25	0.58	0.58	-1.7	0.58	1.27	1.4	1.53	1.07	0.77	-0.8	-0.3	1.53	1.63
기계적인 -유기적인	-1.1	-1.1	2.58	-0.2	-3	0.7	-0.6	-0.9	1.95	0.48	-1.3	-0.3	-0.1	1.55	-0.3	-0.1	0.65	2.07	-0.7	-1.1



질술

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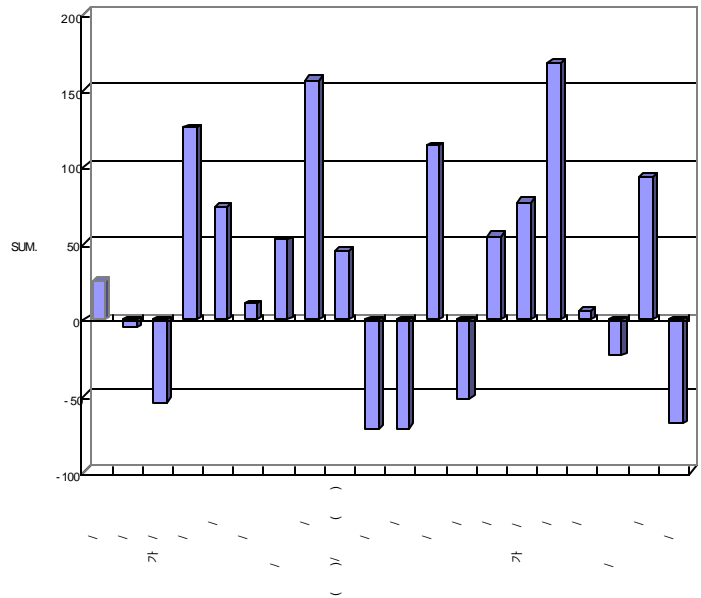


2.



명주포강보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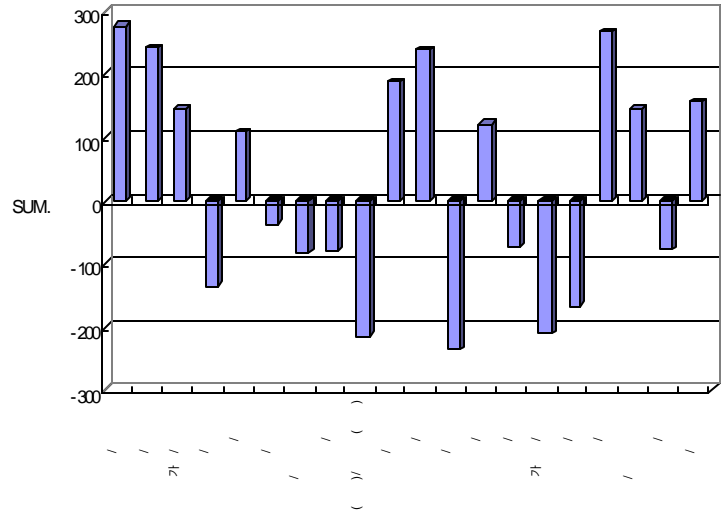
가



귀걸이대

• / /
 , / /
 . / /
 가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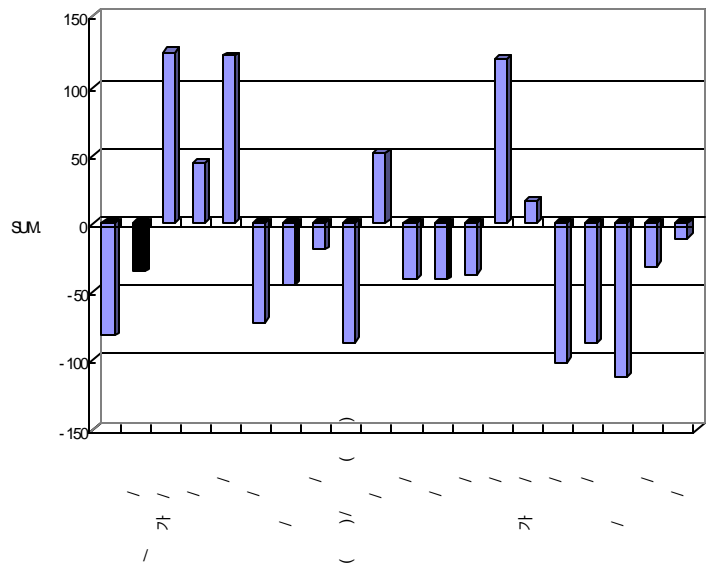


4.



좌동

• / /
 () / /
 . / /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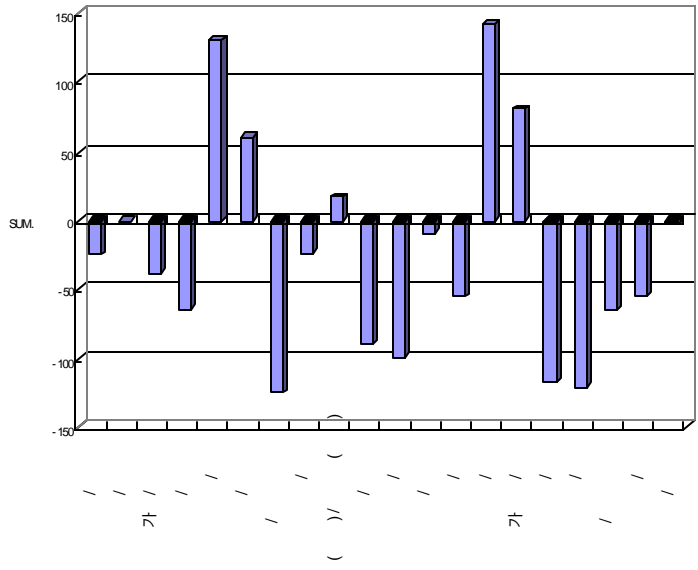


2층책장

-

가 / /
 , /
 가 .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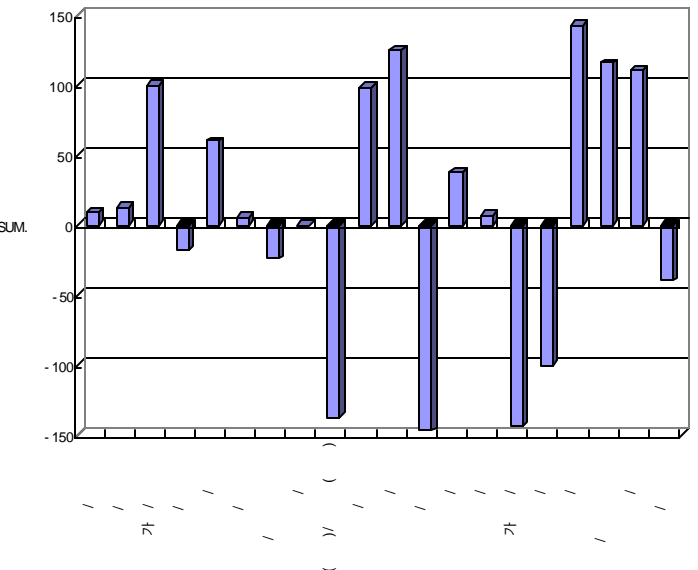


소문그덕

-

() / / /
 /
 , /
 가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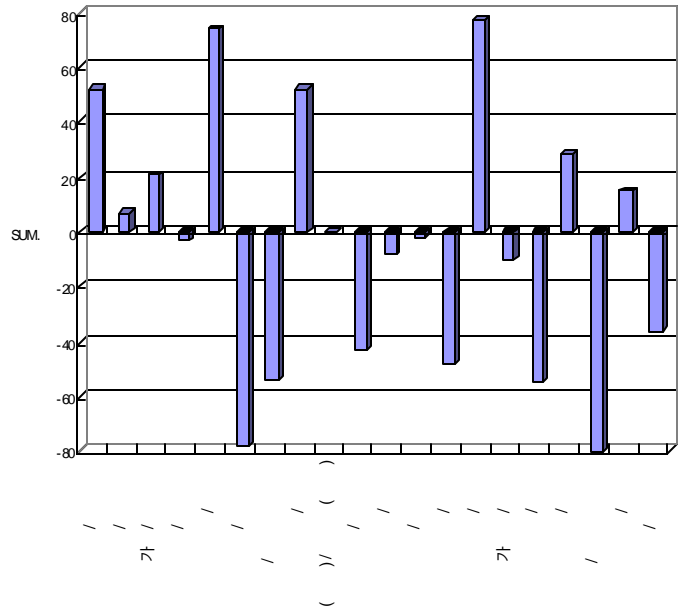




동기

• 가 ,
 /
 /
 /
 가

7.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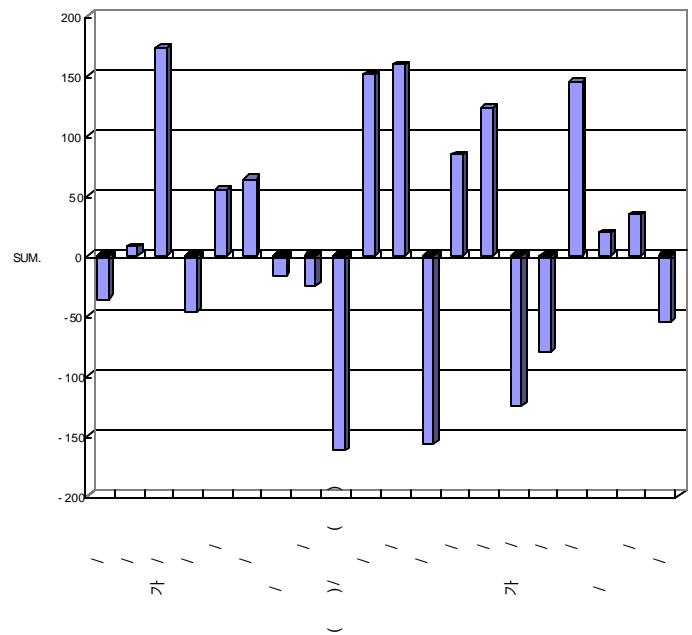


8.



서울독

• 가 / / /
 /
 , 가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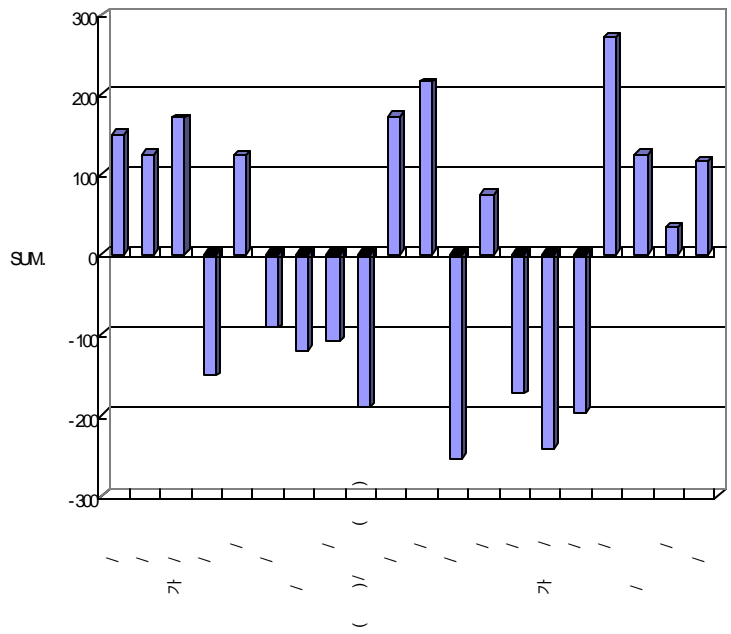


9.



모미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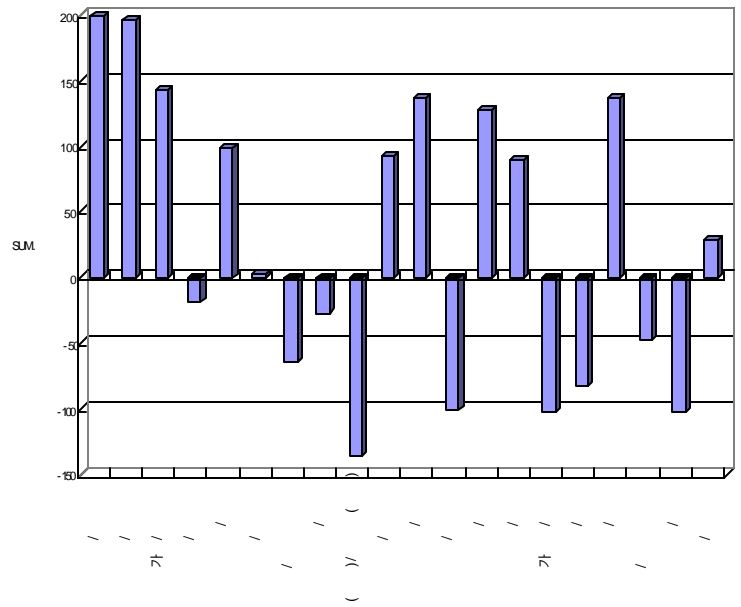


10.



남구새 (굴방)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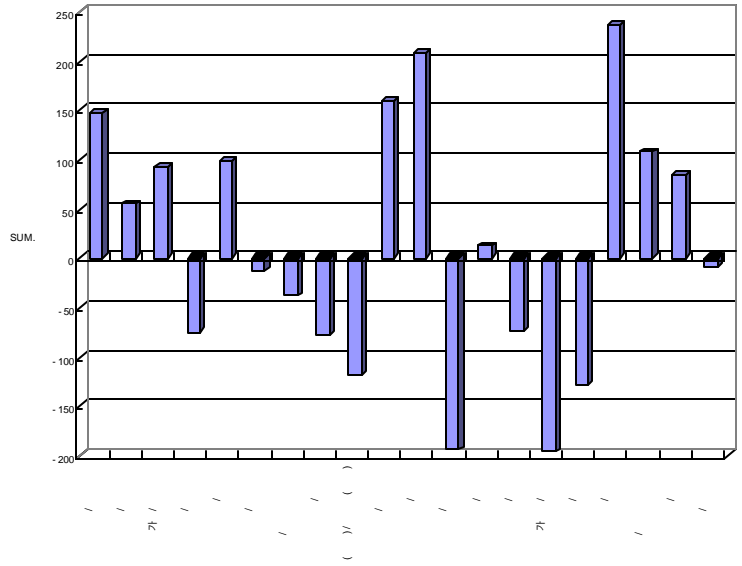


13.



- / / / /

/ 가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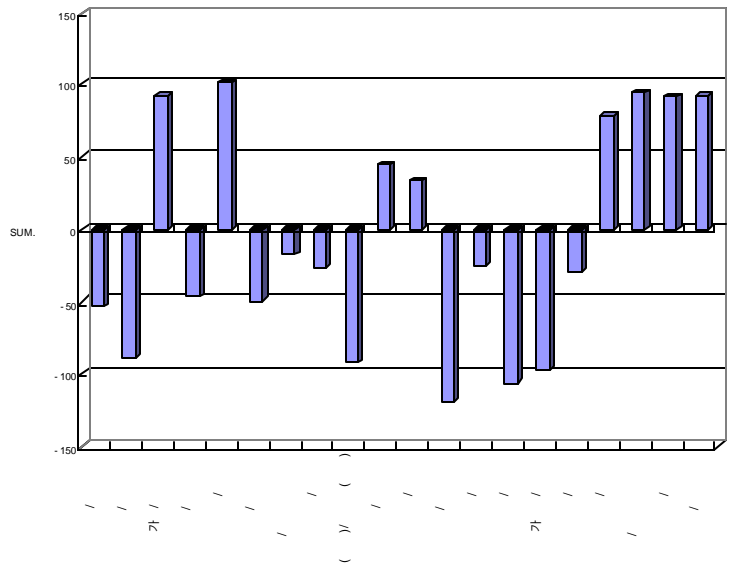


14.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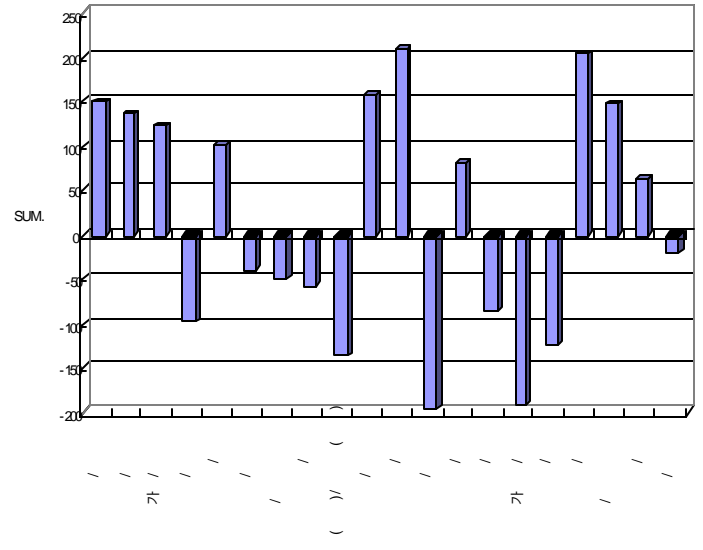
가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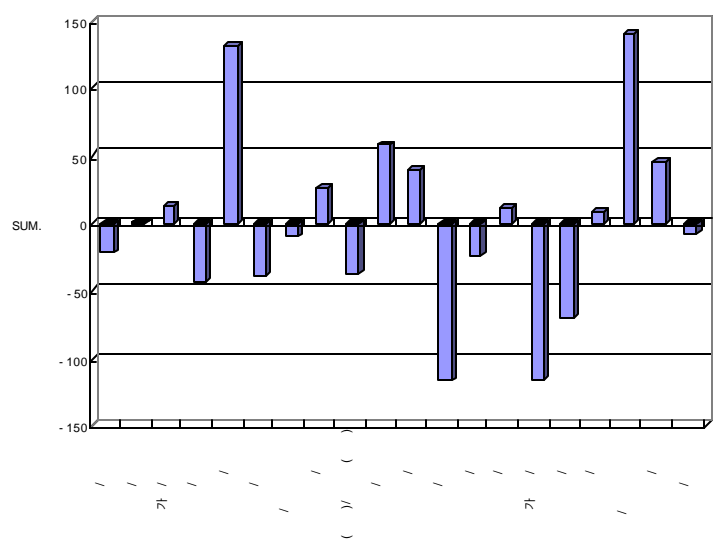
• ,
 . / / / /
 , /
 가 .



16.



• ,
 . / /
 ,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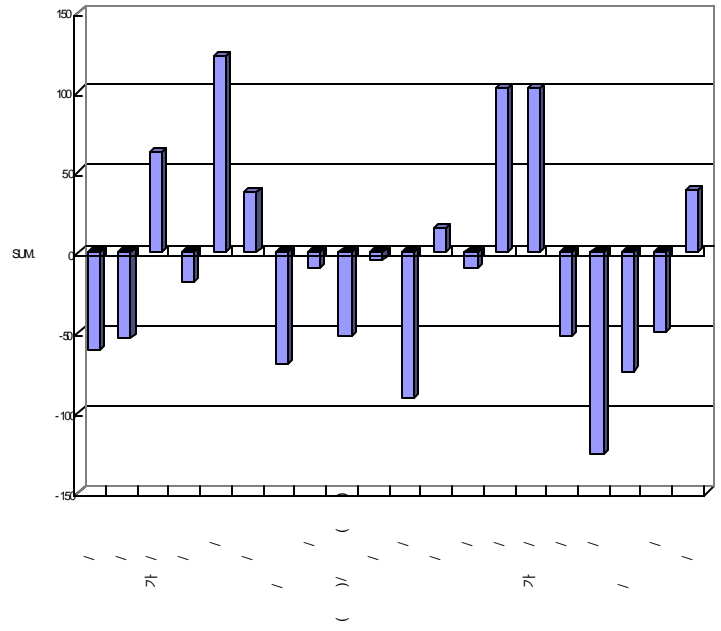




후보철삼홍탁작품

- 가 / / / / /
- 가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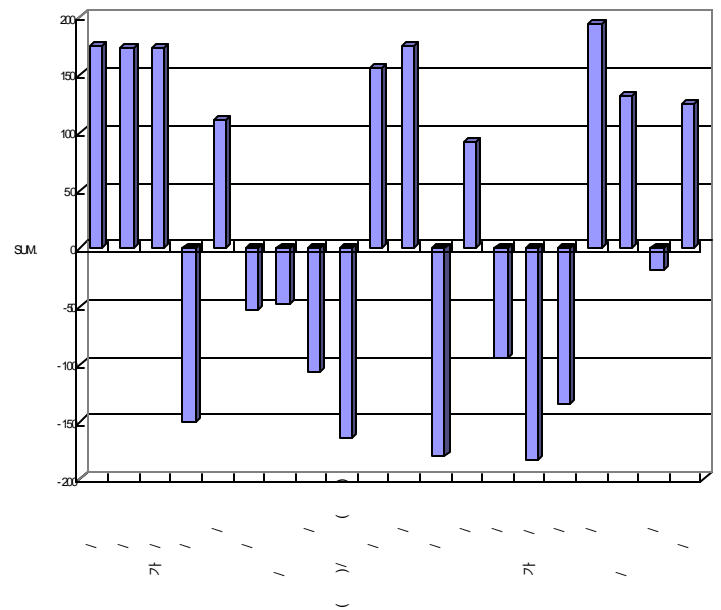


18.



작품

- , 가
- 가
- / ()/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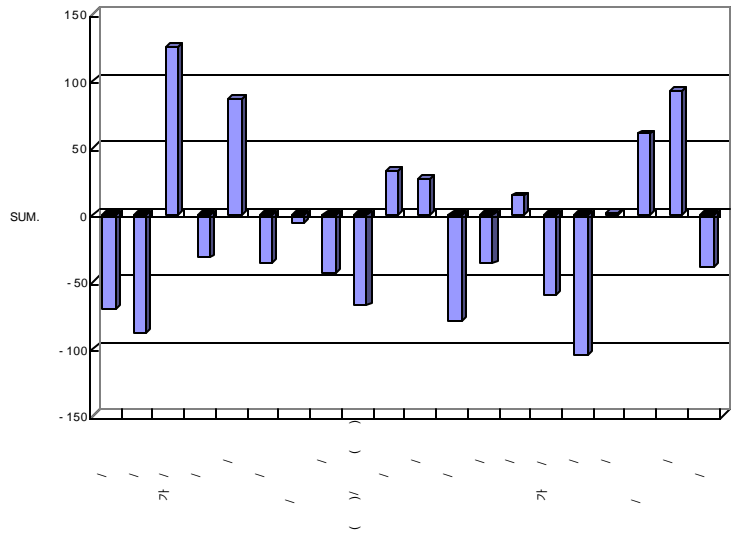


19. 가



술가락

- / / / / /
 / / / / /
 가 / / / / /
 가 / / / / /
 가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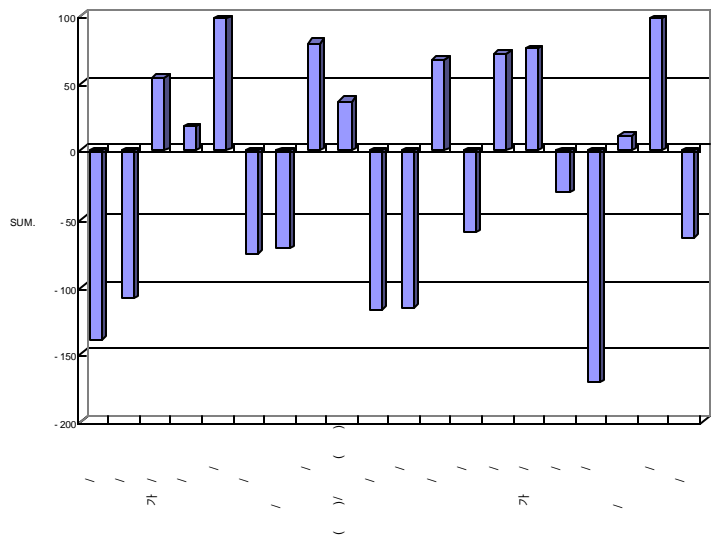


20.



헛거

- / / / / /
 / / / / /
 가 / / / / / 가 / / / / /
 가 / / / / / 가 / / / / /
 가 / / / / / 가 / / / / /



● 부록 3. 협조공문



KYUNG HEE UNIVERSITY
AT SUWON CAMPUS

College of Art & Design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1 Seoch-ni Kihung-eup, Yongin-si Kyungki-do 449-701, Korea T: +82 331 201-2652 F: +82 331 204-8127

29 April, 1999

Canteras AGRAMAR, S.A.
Carretera d'Esparragatera, s/nMallorca, 291
08295 - Sant Vicenc de Castellet. Barcelona. Espana

To Whom It May Concern:

Could you kindly assist me with my request? As one of the prestigious Kyung Hee University's industrial design department professors, I've involved with academic activities and market consultations for various companies, especially requiring urban and environment related projects. The upcoming market demand for the urban and environment products is rapidly growing. Thus, getting acquainted with your company is vital for the future growth.

Respectably, I'd like to request the Canteras AGRAMAR, S.A.'s fully comprehensive catalogs and/or brochures with available technical data if any and the price list. To become more accessible and aware of your company's product lines and make appropriate purchase decision requires all available product descriptions that your firm currently have. My interested subject matters are in outdoor urban products(furniture, benches, chairs, banquettes and others), public service items(booths, racks, shelters, guard rails and other equipment) and commercial products(news stands, market stalls, litter baskets, containers and others) and other related urban items.

I, as an educator and the decision maker, appreciate your eminent cooperation and time in my request.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this letter,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And I look forward to getting the response from you very soon.

Best regards,

Gyu Hyeon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Industrial Design

● 부록 4. 참고문헌

1. 국내도서

No.	저자명	서적명 및 논문제목	발행년도
1	천병옥	· 한국전통의장자료	1998
2	홍정실	· 한국의 연장	1998
3	고종필	· 거리 환경 디자인	1997
4	최 철, 설성경	· 민속의 연구	1985
5	송민구	· 한국의 옛 조형의미	1994
6	구미래	· 한국인의 상징체계	1995
7	박영규	· 한국의 목가구	1982
8	김용진	· 한국 민속 공예사	1968
9	박희영 역	· 세계의 문양	1992
10	이어령	· 한국인의 손, 한국인의 마음	1996
11	까를로 로제티	· 꼬레아 코레아니	1995
12	김영자	· 서울, 제2의 고향	1994
13	김원종	· 한국미의 탐구	1978
14	후안 바세고다 노벨	· 가우디	1996
15	박영규	· 한국의 목가구	1982
16	서울시정 개발 연구원	· 서울 도시문화 발전 방안	1995
17	박대순	· 농기구	1990
18	국립 중앙 박물관	· 한국의 미	1988
19	신영훈	· 한옥의 조형	1989
20	강우방	· 미의 순례	1993
21	이 찬 외 4인	· 서울문화	1991
22	신영훈	· 한옥의 건축도예와 무늬	1990
23	이태호	· 서울의 옛 모습	1995
24	김필환	· 옛 생활 문화전	1998
25	인병선	· 우리의 짚풀 문화	1995
26	봉상균	· 실용장식 현대문양 디자인	1992
27	신영훈	· 한국의 살림집	1989
28	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 오 천년 민족문화 사료 전	1993
29	국민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 한국 전통도구의 조형정신	1991
30	이화여자개발연구원	· 옛 가구의 아름다움	1996
3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 21세기 구상 시민 생활 부문	1994
3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개발	1993
33	임영주, 상기호	· 종이 공예 문화	1992
34	정재훈	· 한국의 옛 조경	1990
35	Wucius Wong 저 조영철, 최길열 역	· 디자인과 조형론	1994
36	이치우	· 도시환경의 시각적 구성요소에 관한 고찰	1982
37	최숙중	· 우리 나라 도시 공공 미술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1985
38	정하선	· 도시공간 형태에 관한 연구	1973
39	이희정	· 버네클라 디자인의 표현 양식과 디자인과정에 관한 연구	1995

2. 국외도서

No.	저자명	서적명 및 논문제목	발행년도
1	Fletcher Ashley 외 2인	· City Signs and Lights: A Policy Study	1973
2	Jonathan M Woodham	· 20th Century Ornament	1990
3	Charles K. Hoyt	· More Places for People	1983
4	Aldo Tanchis	· Bruno Munari : From Futurism to Post Industrial Design	1986
5	Enrico Castelnuovo	· History of Industrial design 1919-1990	1991
6	Richard S. Wurman 외 2인	· The Nature of Recreation	1972
7	Arvin Bengtsson	· Environmental Planning for Children's Play	1989
8	George Nelson	· Display	1953
9	Stewart Kranz & R. Fisher	· The Design Continuum: An Approach to Understanding	1966
10	Susan Yelavich	· Designed for Life	1997
11	Miles Danby	· Moorish Style	1995
12	Aase Erikson	· Playground Design : Outdoor Environments for Learning and Development	1985
13	Dorothy Mackenzie	· Green Design	1991
14	Herbert Igarashi	· Ulm Design: The Morality of Objects	1990
15	Phillips Design	· Vision of the Future	1996
16	Takenobu Igarashi	· Design Influence Concept Image	1991
17	Ernast Burden	· Design Simulation	1985
18	Serge Chermayeff	· Design and the Public Good	1982
19	Horay Zozayong	· Guardians of Happiness	1982
20	Noel Riley	· Victorian Design Source Book	1997
21	I.D.S.A.	· Designing for Humanity	1991
22	Bren C. Brolin	· Flight of Fence : The Banishment and Return of Ornament	1985
23	Andreas Papadakis	· Architectual Design for Today	1991
24	Philip Jodidio	· New Forms	1997
25	Stefano Marzano	· Thoughts and Facts	1997
26	E. Anderson	· Visual Resource Assessment : Local Perception of Familiar Natural Environments	1978
27	D.E. Berlyne	· Studies in the New Experimental Aesthetics	1974
28	B. Kaufman	· Plants, People and Environment	1979
29	Kevin Lynch	· Image of the City	1960
30	David A .Lauer	· Design Basics	1979
31	Kevin Lynch	· Site Planning	1984
32	Ivan Mcharg	· Design with Nature	1969
33	Garrett Ecockdo	· Urban Landscape	1964
34	Michael Middleton	· Group Practice In Design	1967
35	Robert A.M Stern	· Modern Classicism	1988